

<< 국사 교과서 본문 >>

1-1역사의학습목적

1.1 역사의 의미

역사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history as past)□와 □기록으로서의 역사(history as historiography)□라는 두 측면이 있는 것이다. 전자가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면, 후자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 사실, 즉 시간적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모든 과거 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과거 사건들의 집합체가 된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역사가가 이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역사가의 가치관과 같은 주관적 요소가 개입하게 되므로 주관적 의미의 역사라고 하며, 이 경우 역사라는 말은 기록된 자료 또는 역사서와 같은 의미가 된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하여 연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과거의 모든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들이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선정된 사실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를 연구할 때는 과학적 인식을 토대로 학문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1.2 역사 학습의 목적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역사 그 자체를 배운다는 의미와 역사를 통하여 배운다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다. 전자가 과거 사실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들을 통하여 현재의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는 지식의 보고라는 말이 있다. 이는 역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여러 방면에 걸친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과거 인간 생활에 대한 지식의 총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인간 생활에 관한 지식의 보고에 다가갈 수 있다.

아울러 우리는 역사 속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첫째, 우리들은 역사를 배움으로써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지나온 과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지금 서 있는 자신의 참모습을 찾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는 개인과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둘째, 우리들은 역사를 통하여 삶의 지혜를 습득할 수 있다. 현재란 과거의 연속이며 과거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듯이, 역사를 배움으로써 현재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다.

셋째, 우리들은 역사를 배움으로써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를 수 있다. 역사 학습은 역사적 사실의 외면에 대한 파악에서 시작하여 역사적 사실의 내면의 이해로 발전해 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역사적 사건의 보이지 않는 원인과 의도, 목적을 추론하는 역사적 사고력이 길러지게 된다. 또한 역사는 비판력을 길러 주는 학문이다. 비판이란 잘잘못을 가려 정당한 평가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역사는 비판력을 기르는 데 가장 적합한 학문이다.

1-2한국사와세계사

2.1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과 다른 인간 고유의 생활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자유, 평등, 박애, 평화, 행복 등 공통적인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 고유의 생활 모습과 이상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전 세계 인류의 공통점으로서 이를 세계사적 보편성이라 부른다.

한편, 인간은 자신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지역의 자연 환경에 따라 고유한 언어, 풍속, 종교, 예술, 그리고 사회 제도 등을 다양하게 창출하게 되는데 이를 그 민족의 특수성이라 한다. 교통과 통신이 아직 발달하지 못하였던 근대 이전 시대에는 민족적, 지역적 특수성이 매우 두드러졌다. 이에 세계를 몇 개의 문화권으로 나누어 그 특수성을 이해하기도 하고, 하나의 문화권 안에서도 다시 민족 문화나 지방 문화의 특수성을 추출하기도 한다.

모든 민족의 역사에는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역사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세계사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균형 있게 파악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외부 세계와 접촉이 빈번하였던 만주와 한반도에 자리 잡고 역사적 삶을 영위해 왔다. 그 후 활동 무대가 한반도로 좁아지기는 하였지만 국토의 자연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민족과 국가들과 문물을 교류하면서 내재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유와 평등, 민주와 평화 등 전 인류의 공동된 가치를 추구해 왔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 역사의 보편성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우리 민족은 반만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가 중시되고 두레, 계, 향도와 같은 공동체 조직이 발달하는 등 우리 민족의 특수성이 나타났다.

한국사의 이해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삶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깨우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역사와 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는 한국사를 바르게 인식하는 데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족적 자존심을 잃지 않고 세계 문화에 공헌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2.2 민족 문화의 이해

우리 조상들은 유구한 역사를 거치면서 슬기를 발휘하고 노력을 기울여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 문화는 다른 어느 민족의 그것과도 구별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 온 문화이다.

선사 시대에는 아시아의 북방 문화와 연계되는 문화를 이룩하였고, 그 후 중국 문화와 깊은 연관을 맺으면서 독자적인 고대 문화를 발전시켰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를 정신적 이념으로 채택하였으며, 조선 시대에는 유교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문화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와 유교는 외래 사상을 그대로 들여온 것이 아니라 이를 한국화, 토착화시킴으로써 한국 사상으로서의 개성을 확립하였다. 즉, 우리 조상들은 불교와 유교를 소화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특정한 전통 문화의 기반 위에서 선진적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민족 문화 발전의 열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민족 문화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민족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민족 문화를 보존함과 아울러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흔히 현대를 세계화 시대라고 한다. 이는 정보 통신 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점점 세계는 긴밀해지고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세계화 시대의 역사 의식은 안으로 민족 정체성을 견지하되 밖으로는 외부 세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개방적 민족주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내 것만이 최고라는 배타적 민족주의도, 내 것을 버리고 무조건 외래의 문화만을 추종하는 것도 모두 세계화 시대에는 버려야 할 닫힌 사고이다. 아울러 세계화 시대의 시대적 요청은 인류 사회의 평화와 복리 증진 등 인류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진취적 역사 정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1선사시대의전개

1.1 인류의 기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상에 인류가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지금부터 약 300만~350만 년 전으로 알려져 있다. 최초의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화석이 발견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다. 이들은 두뇌 용량이 현생 인류의 3분의 1 정도였으나 직접 보행을 하여 두 손으로 간단하고 조잡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었다. 인류는 처음에 나무로 된 도구를 사용하다가 곧이어 돌로 도구를 만들었다. 이후 인류는 지혜가 발달하면서 불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어 음식을 익혀 먹었고, 빙하기에도 추위를 견딜 수 있게 되었다. 인류는 사냥과 채집을 통하여 식량을 조달하였고,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을 지니게 되었다.

구석기 시대 후기인 약 4만 년 전부터 진정한 의미의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출현하였다. 이들은 두뇌 용량을 비롯한 체질상의 특징이 오늘날의 인류와 거의 같으며, 현생 인류에 속하는 여러 인종의 직계 조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인류가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의 자연 환경에 적응하면서 문화를 창조해 나갔기 때문이다.

1.2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 문명의 탄생
기원전 1만 년경에 빙하기가 끝나고 후빙기가 시

작되면서 인류의 생활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또다시 바뀌었다. 이에 구석기 시대가 지나고, 과도기인 중석기 시대를 거쳐 신석기 시대가 전개되었다.

신석기 시대의 문화는 농경과 목축의 시작, 간석기와 토기의 사용, 정착 생활과 촌락 공동체의 형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식량 채집 생활을 한 것과는 달리,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여 식량을 생산하는 경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인류의 생활양식은 크게 변화하였다. 이를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는 중동 지방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기원전 800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세계 각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기원전 3000년경을 전후하여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집트의 나일 강, 인도의 인더스 강, 중국의 황허 강 유역에서 문명이 형성되었다. 이들 큰 강 유역에서는 관개 농업의 발달, 청동기의 사용, 도시의 출현, 문자의 사용, 국가의 형성 등이 이루어져 문화가 크게 발달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청동기 시대에 일어났다. 이로써 인류는 선사 시대를 지나 역사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2.1 우리 민족의 기원

우리 조상들은 대체로 중국 요령(랴오닝) 성, 길림(지린)성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 넓게 분포하여 살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이며,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의 기틀이 이루어졌다.

어느 나라 역사에 있어서나 모든 종족은 인근에 사는 종족과 교류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민족을 형성해 왔다. 동아시아에서는 선사 시대에 여러 민족이 문화를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민족은 독특한 문화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 민족은 인종상으로 황인종에 속하고, 언어학상으로는 알타이 어족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하나의 민족 단위를 형성하고, 농경 생활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였다.

2.2 구석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

우리나라와 그 주변 지역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70만 년 전부터이다. 구

석기 시대는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의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전기에는 큰 석기 한 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썼는데, 중기에는 큰 몸돌에서 떼어 낸 돌 조각인 격지들을 가지고 잔손질을 하여 석기를 만들었다. 따라서 크기는 작아지고 점차 한 개의 석기가 하나의 쓰임새를 가지게 되었다. 후기에는 썰기 같은 것을 대고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 날격지를 만드는 데까지 발달하였다.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 경기도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등이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석기와 함께 사람과 동물의 뼈 화석, 동물 뼈로 만든 도구 등이 출토되어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이 밝혀지게 되었다.

2.3 구석기 시대의 생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물의 뼈나 뿔로 만든 뼈 도구와 뿔석기를 가지고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처음에는 쪼개 같은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썼으나 점차 뿔석기를 제작하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용도가 뚜렷한 작은 석기들을 만들게 되었다. 이 가운데 주먹도끼, 쪼개, 팔매돌 등은 사냥 도구이고 굽개, 밀개 등은 대표적인 조리 도구이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이를 보여 주는 구석기 시대 유적으로는 상원의 검은모루, 제천 창내, 공주 석장리 등이 있다. 구석기 시대 후기의 막집 자리에는 기둥 자리, 담 자리 및 불 뎀 자리가 남아 있다. 집터의 규모는 작은 것은 3~4명, 큰 것은 10명이 살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구석기 시대에는 무리를 이루어 큰 사냥감을 찾아다니며 생활하였다. 무리 가운데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나 권력을 갖지는 못했으며,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공동체적 생활을 하였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구석기 시대 후기에 이르러 석회암이나 동물의 뼈 또는 뿔 등을 이용하여 조각품을 만들었다. 공주 석장리와 단양 수양계에서 고래와 물고기 등을 새긴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당시 사람들의 소박한 솜씨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유물에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냥감의 번성을 비는 주술적 의미가 깃들인 것으로 보인다.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빙하기가 지나고 다시 기후가 따뜻해졌다. 이런 새로운 자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시기의 사람들은 적합한 생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큰 짐승 대신에 토끼, 여우, 새 등 작고 빠른 짐승을 잡기 위하여 활을 사용하였다.

이 시기의 석기들은 더욱 작게 만들어진 간석기로서, 한 개 내지 여러 개의 석기를 나누나 뼈에 꽃아 쓰는 이음 도구를 만들게 되었다. 이음 도구에는 톱, 활, 창, 작살 등이 있었다.

한편,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동식물이 번성하게 되어 사람들은 식물의 채취와 고기잡이를 많이 하였다.

2.4 신석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돌을 갈아서 여러 가지 형태와 용도를 가진 간석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부러지거나 무디어진 도구를 다시 갈아 손쉽게 쓸 수 있게 되었으며, 단단한 돌뿐만 아니라 무른 석질의 돌도 모두 이용하게 되었다. 또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 불에 구워서 만든 토기를 사용하여 식물물을 조리하거나 저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생활이 더욱 나아졌다.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시기의 토기도 발견되고 있다. 이것들은 무늬가 없는 것, 토기 몸체에 덧띠를 붙인 것, 눌러 찍은 무늬가 있는 것으로 각각 이른 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눌러찍기문 토기(압인문 토기)라고 부른다. 이런 토기는 제주도 한경 고산리, 경남 고성 문암리, 강원 양양 오산리, 부산 동삼동 조개터미 등에서 발견되었다.

빗살무늬 토기가 나온 유적은 전국 각지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대표적인 유적은 서울 암사동, 평양 남경, 김해 수가리 등으로 대부분 바닷가나 강가에 자리 잡고 있다. 빗살무늬 토기는 도토리나 달걀 모양의 뾰족한 밑, 또는 둥근 밑 모양을 하고 있으며 크기도 다양하다.

2.5 신석기 시대의 생활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다. 황해도 봉산 지담리와 평양 남경의 유적에서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어 신석기 시대에 잡곡류를 경작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쓴 주요 농기구로는 돌쟁이, 돌삽, 돌보습, 들낫 등이 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양지만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나무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농경은 집 근처의 조그만 텃밭을 이용하거나 강가의 퇴적지를 소규모로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농경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냥과 고기잡이가 경제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식량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사냥은 주로 활이나 창으로 사슴류와 멧돼지 등을 잡았고, 고기잡이에는 여러 가지 크기의 그물과 작살, 돌이나 뼈로 만든 낚시 등을 이용하였다. 또 굴, 홍합 등 많은 조개류를 먹었는데, 때로는 깊은 곳에 사는 조개류를 파서 장식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농경 도구나 토기의 제작 이외에도 원시적인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졌다. 가락바퀴나 뼈 바늘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도구가 발달하고 농경이 시작되자 주거 생활도 개선되어 갔다. 집터는 대개 움집 자리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네모꼴이다. 움집의 중앙에는 불씨를 보관하거나 취사와 난방을 위한 화덕이 위치하였다. 햇빛을 많이 받는 남쪽으로 출입문을 내었으며, 화덕이나 출입문 앞에는 저장구덩을 만들어 식량이나 도구를 저장하였다. 집터의 규모는 4~5명 정도의 한 가족이 살기에 알맞은 크기였다.

신석기 시대에는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씨족을 기본 구성 단위로 하였다. 이들 씨족은 점차 다른 씨족과의 혼인을 통하여 부족을 이루었다. 그러나 부족 사회도 구석기 시대의 무리 사회와 같이 아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고, 연장자나 경험이 많은 자가 자기 부족을 이끌어 나가는 평등 사회였다.

농경과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인간은 자연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에도 정령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이 생겨났는데, 여기에는 풍요로운 생산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중에서도 태양과 물에 대한 숭배가 으뜸이었다.

또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영혼 숭배와 조상 숭배가 나타났고, 영혼이나 하늘을 인간과 연결시켜 주는 존재인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샤머니즘도 있었다. 그리고 자

기 부족의 기원을 특정한 동식물과 연결시켜 그것을 숭배하는 토데미즘도 있었다. 이 시대의 예술품으로는 주로 흙으로 빚어 구운 열갈 모습이나 동물의 모양을 새긴 조각품, 조개 껍데기 가면, 조가비 또는 짐승의 뼈나 이빨로 만든 치레걸이 등이 있었다.

2-2 국가의 형성

1.1 청동기의 보급

신석기 시대를 이어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10세기 경에, 만주 지역에서는 이보다 앞서는 기원전 15~13세기경에 청동기 시대가 전개되었다. 청동기 시대에는 생산 경제가 그전보다 발달하고, 청동기 제작과 관련된 전문 장인이 출현하였으며, 사유 재산 제도와 계급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청동기 시대의 유적은 중국의 요령성, 길림성 지방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 시기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반달 돌갈, 바퀴날 도끼, 홈자귀 등의 석기와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등의 청동기,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 토기 등의 토기가 있다. 이들 유물은 청동기 시대의 집터를 비롯하여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무덤 등 당시의 무덤에서 나오고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동검인 비파형 동검은 만주로부터 한반도 전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파형 동검의 분포는 미송리식 토기 등과 함께 이 지역이 청동기 시대에 같은 문화권에 속하였음을 보여 준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민무늬 토기는 지역에 따라 모양이 약간씩 다르다. 밑바닥이 편평한 원통 모양의 화분형과 밑바닥이 좁은 팽이 형이 기본적인 모양이며, 빗갈은 적갈색이다.

1.2 철기의 사용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4세기경부터 철기를 쓰기 시작하였다. 특히,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업이 발달하여 경제 기반이 확대되었다. 철제 무기와 철제 연모를 쓰게 됨에 따라 그때까지 사용해 오던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로 변하였다.

한편, 철기와 함께 출토되는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을 통하여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나온 붓은

당시에 이미 한자를 쓰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 시기에 이르러 청동기 문화도 더욱 발달하여 한반도 안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청동기 시대 후반 이후에 비파형 동검은 한국식 동검인 세형 동검으로, 거친무늬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그 형태가 변하여 갔다. 그리고 청동 제품을 제작하던 틀인 거푸집도 전국의 여러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다. 토기는 민무늬 토기 이외에 입술 단면에 원형, 타원형, 삼각형의 덧띠를 붙인 덧띠 토기, 검은 간 토기 등도 사용되었다.

1.3 청동기, 철기 시대의 생활

청동기, 철기 시대에는 이전부터 주요한 생산 도구로 사용되던 간석기가 매우 다양해지고 기능도 개선되어 생산 경제도 좀 더 발달하였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돌도끼나 홈자귀, 팽이, 그리고 나무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개간하여 곡식을 심고, 가을에는 반달 돌갈로 이삭을 잘라 추수하는 등 농경을 더욱 발전시켰다. 농업은 조, 보리, 콩, 수수 등 밭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었다. 사냥이나 고기잡이도 여전히 하고 있었지만 농경의 발달로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었고 돼지, 소, 말 등 가축의 사육은 이전보다 늘어났다.

집터 유적은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다. 대체로 앞쪽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뒤쪽에는 북서풍을 막아 주는 나지막한 야산이 있는 곳에 우물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취락 여건으로 오늘날 농촌의 자연 취락과 비슷한 모습이다.

집터의 형태는 대체로 직사각형이며 움집은 점차 지상 가옥으로 바뀌어 갔다. 움집 중앙에 있던 화덕은 한쪽 벽으로 옮겨지고, 저장 구멍도 따로 설치하거나 한쪽 벽면을 밖으로 돌출시켜 만들었다. 창고와 같은 독립된 저장 시설을 집 밖에 따로 만들기도 하였고, 움집을 세우는 데에 주춧돌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집터는 넓은 지역에 많은 수가 밀집되어 취락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농경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로 정착 생활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같은 지역의 집터라 하더라도 그 넓이가 다양한 것으로 보아 주거용 외에 창고, 공동 작업장, 집회소, 공공 의식 장소 등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사회 조직이 점차 발달하였고 복잡

해졌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보통의 집터는 부를 중심으로 하는 4~8명 정도의 가족이 살 수 있는 크기이며, 이는 한 가족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은 주로 집 안에서 집안일을 담당하고 남성은 농경, 전쟁과 같은 바깥일에 종사하였다. 한편, 생산력의 증가에 따라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자 힘이 강한 자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였다. 생산물의 분배와 사유화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고, 빈부의 격차와 계급의 분화를 촉진하였다. 계급의 분화는 죽은 뒤에까지도 영향을 끼쳐 무덤의 크기와 썩은 거리의 내용에 반영되었다.

청동기 시대에는 고인돌과 돌널무덤 등이 만들어졌고, 철기 시대에는 널무덤과 독무덤 등이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 계급 사회의 발생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무덤이 고인돌이다. 고인들의 전형적인 형태는 보통 북방식에서 볼 수 있듯이 4개의 판석 형태의 꺾음을 세워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한 평평한 덮개돌을 얹은 것이다.

고인돌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무게가 수십 톤 이상인 덮개돌을 채석하여 운반하고 무덤에 설치하기까지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고인돌은 당시 지배층이 가진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정치 권력이나 경제력에서 우세한 부족들은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라고 믿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주변의 약한 부족을 통합하거나 정복하고 공납을 요구하였다. 청동이나 철로 된 금속제 무기의 사용으로 정복 활동이 활발해졌고, 이를 계기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분화는 촉진되었다. 그리하여 평등 사회는 계급 사회로 바뀌어 갔고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가 나타났는데, 이런 지배자를 족장(군장)이라고 한다. 족장은 청동기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한 북부 지역에서 먼저 등장하였다.

1.4 청동기, 철기 시대의 예술

사회와 경제의 발달에 따라 예술 활동도 활발해졌다. 이 시기의 예술은 종교나 정치적 요구와 밀착되어 있었다. 그것은 당시 제사장이나 족장들이 사용했던 갈, 거울, 방패 등의 청동 제품이나 토제품, 바위 그림 등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동으로 만든 도구의 모양이나 장식에는 당시 사람들의 미의식과 생활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또 지배층의 무덤에서 출토된 청동으로 만든 의식용 도구에는 말이나 호랑이, 사슴, 사람 손 모

양 등을 사실적으로 조각하거나 기하학 무늬를 정교하게 새겨 놓았다. 이들은 주술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어떤 의식을 행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흙으로 빚은 짐승이나 사람 모양의 토우 역시 장식으로서의 용도 외에도 풍요로운 생산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바위 면에 새긴 바위 그림은 당시 사람들의 활기에 찬 생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울주 반구대의 바위 그림에는 거북, 사슴, 호랑이, 새 등의 동물과 작살이 꽂힌 고래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고래, 그물에 걸린 동물, 우리 안의 동물 등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사냥과 고기잡이의 성공과 풍성한 수확을 비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 양전동 알터의 바위 그림에는 동심원, 십자형, 삼각형 등의 기하학 무늬가 새겨져 있다. 동심원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바위 그림 유적은 다른 지역의 청동기 시대 농업 사회에서 보이는 태양 숭배와 같이 풍요로운 생산을 비는 제사 터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1.5 단군과 고조선

청동기 문화의 발전과 함께 족장이 지배하는 사회가 출현하였다. 이들 중에서 강한 족장은 주변의 여러 족장 사회를 통합하면서 점차 권력을 강화해 갔다.

족장 사회에서 가장 먼저 국가로 발전한 것은 고조선이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 건국하였다고 한다(B.C. 2333). 단군 왕검은 당시 지배자의 칭호였다.

고조선은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점차 인접한 족장 사회들을 통합하면서 한반도까지 발전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비파형 동검의 출토 분포로써 알 수 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청동기 시대를 특징짓는 유물의 하나인 비파형 동검이 나오는 지역과 깊은 관계가 있다.

고조선의 건국 사실을 전하는 단군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시조 신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단군 이야기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전승되어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어떤 요소는 후대로 가면서 새로 첨가되기도 하고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였다.

신화는 그 시대 사람들의 관심이 반영되는 것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것은 모든 신화에 공통되는 속성이기도 하다. 단군의 기록도 마찬가지로 청동기 시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고조선의 성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때 환웅 부족은 태백산의 신시를 중심으로 세력을 이루었고, 이들은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워 자기 부족의 우월성을 과시하였다. 또 풍백, 우사, 운사를 두어 바람, 비, 구름 등 농경에 관계되는 것을 주관하게 하였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주로 구릉 지대에 거주하면서 농경 생활을 하고 있었다. 사유 재산의 성립과 계급의 분화에 따라 지배 계급은 농사와 형벌 등의 사회 생활을 주도하였다. 이는 신석기 시대 말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발전하는 시기에 계급의 분화와 함께 지배자가 등장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 질서가 성립되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이 시기에 등장한 새로운 지배층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통치 이념을 내세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였다.

환웅 부족은 주위의 다른 부족을 통합하고 지배해 갔다. 꿈을 숭배하는 부족은 환웅 부족과 연합하여 고조선을 형성하였으나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은 연합에서 배제되었다.

단군은 제정일치(祭政一致)의 지배자로 고조선의 성장과 더불어 주변의 부족을 통합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조상을 하늘에 연결시켰다.

고조선은 요령 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면서 발전하였다.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그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도 두었다. 또 요서 지방을 경계로 하여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

1.6 위만의 집권

중국이 전국 시대 이후로 혼란에 휩싸이게 되자 유이민들이 대거 고조선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고조선은 그들을 받아들여 서쪽 지역에 살게 하였다. 그 뒤 진·한 교체기에 또 한 차례의 유이민 집단이 이주해 왔다. 그 중 위만은 1,00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왔다.

위만은 준왕의 신임을 받아 서쪽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그 곳에 거주하는 이주민 세력을 통솔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점차 확대하여 나갔다. 그 후 위만은 수도인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B.C. 194).

위만 왕조의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철기의 사용은 농업과 무기 생산을 중심으로 한 수공업업을 더욱 융성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상업과 무역도 발달하였다.

이 무렵 고조선은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기반으로 중앙 정치 조직을 갖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우세한 무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정복 사업을 전개하여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였다. 또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동방의 예나 남방의 진이 직접 중국의 한과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계 무역의 이득을 독점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군사적 발전을 기반으로 고조선은 한과 대립하였다.

이에 불안을 느낀 한의 무제는 수륙 양면으로 대규모 침략을 감행하였다. 고조선은 1차의 점진(대수)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이후 약 1년에 걸쳐 한의 군대에 맞서 완강하게 대항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의 전쟁으로 지배층의 내분이 일어나 왕검성이 함락되어 멸망하였다(B.C. 108).

고조선이 멸망하자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고자 하였으나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그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결국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소멸되었다.

1.7 고조선의 사회

고조선의 사회상을 알려 주는 것으로 8조의 법이 있었다. 그 중에서 3개 조목의 내용만이 전해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당시 사회에 권력과 경제력의 차이가 생겨나고 재산의 사유가 이루어지면서 형벌과 노비도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는 노동력과 사유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호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한의 군현이 설치된 후 억압과 수탈을 당하던 토착민들은 이를 피하여 이주하거나 단결하여 한의 군현에 대항하였다. 이에 한의 군현은 엄한 율령을 시행하여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 하였다. 그에 따라 법 조항도 60여 조로 증가하였고 풍속도 각박해져 갔다.

2.1 부여

부여는 만주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송화(송화)강 유역의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였고 특산물로는 말, 주옥, 모피 등이 유명하였다.

부여는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북쪽으로는 선비족, 남쪽으로는 고구려와 접하고 있다가 3세기 말 선비족의 침략을 받아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은 고구려에 편입

되었다. 부여에는 왕 아래 가족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 가(加)는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가들은 왕을 추대하기도 하였고, 수해나 한해를 입어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묻기도 하였다.

그러나 왕이 나온 대표 부족의 세력은 매우 강해서 궁궐, 성곽,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을 꺼묻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부여의 법으로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으며,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고,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는 것 등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결국 고조선의 8조의 법과 같은 종류임을 알 수 있다.

부여의 풍속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것은 수렵 사회의 전통을 보여 주는 것으로 12월에 열렸다. 이 때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기며, 죄수를 풀어 주기도 하였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천 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부여는 연맹 왕국의 단계에서 멸망하였지만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그 이유는 고구려나 백제의 건국 세력이 부여의 한 계통임을 자처하였고, 또 이들의 건국 신화도 같은 원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2 고구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는 부여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주몽이 건국하였다(B.C. 37). 주몽은 부여의 지배 계급 내의 분열, 대립 과정에서 박해를 피해 남하하여 독자적으로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고구려는 압록강의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줄본(환인) 지방에 자리 잡았다. 이 지역은 대부분 큰 산과 깊은 계곡으로 된 산악 지대였기 때문에 농토가 부족하여 힘써 일을 하여도 양식이 부족하였다.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하고 평야 지대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압록강가의 국내성(통구)으로 옮겨 5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그 후 활발한 정복 전쟁으로 한의 군현을 공략하여 요동 지방으로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는 부건군원을 넘어 옥저를

정복하여 공물을 받았다. 고구려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 회의를 통하여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또 고구려에는 서옥제라는 풍속이 있었다. 그리고 건국 시조인 주몽과 그 어머니 유화 부인을 조상신으로 섬겨 제사를 지냈고, 10월에는 추수 감사제인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성대하게 열었다.

2.3 옥저와 동예

함경도 및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에 위치한 옥저와 동예는 변방에 치우쳐 있어 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었으며, 일찍부터 고구려의 압력을 받아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각 읍락에는 읍군이나 삼로라는 군장이 있어서 자기 부족을 다스렸으나 이들은 큰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옥저는 어물과 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하였고 토지가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되었다. 그러나 고구려에 소금, 어물 등을 공납으로 바쳤다. 옥저는 고구려와 같이 부여족의 한 갈래였으나 풍속이 달랐으며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그리고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의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또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동예 역시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 어로 등 경제 생활이 윤택하였다. 특히,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특산물로는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동예에서는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그리고 족외혼(族外婚)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만약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2.4 삼한(한)

고조선 남쪽 지역에는 일찍부터 진이 성장하고 있었다. 진은 기원전 2세기경 고조선의 방해로 중국과의 교통이 저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진에는 고조선 사회의 변동에 따라 대거 남하해 오는 유이민에 의하여 새로운 문화가 보급되어 토착 문화와 융합되면서 사회가 더욱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마한, 변한, 진한의 연맹체들이 나타나게 되었

다. 마한은 천안.익산.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경기.충청.전라도 지방에서 발전하였다. 마한은 54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10여만 호였는데, 그 중에서 큰 나라는 1만여 호, 작은 나라는 수천 호였다.

변한은 김해.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진한은 대구.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변한과 진한은 각기 12개국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4만~5만 호였는데, 그 중에서 큰 나라는 4,000~5,000호, 작은 나라는 600~700호였다.

삼한 중에서 마한의 세력이 가장 컸으며, 마한을 이루고 있는 소국의 하나인 목지국의 지배자가 마한왕 또는 진왕으로 추대되어 삼한 전체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삼한의 지배자 중 세력이 큰 것은 신지, 건지 등으로, 작은 것은 부례, 읍차 등으로 불렸다.

한편, 삼한에는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그리고 신성 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천군은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사장의 존재에서 원시 신앙의 변화와 제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다.

삼한에서는 해마다 씨를 뿌리고 난 뒤인 5월의 수릿날과 가을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10월에 계절제를 열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제천 행사 때에는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날마다 음식과 술을 마련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즐겼다.

삼한 사회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농경 사회였다.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경이 발달하였고 벼농사를 지었다. 특히,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철은 교역에서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철기 시대 후기의 문화 발전은 삼한 사회의 변동을 가져왔다. 지금의 한강 유역에서는 백제국이 성장하면서 마한 지역을 통합해 갔다. 또낙동강 유역에서는 가야국이, 그 동쪽에서는 사로국이 성장하여 중앙 집권 국가의 기반을 마련

하면서 각각 가야 연맹체와 신라의 기틀을 다져나갔다.

3-1고대의정치

1. 고대의 세계

동아시아 문화권의 중심을 이룬 중국은 동아시아 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는 주나라가 쇠퇴하면서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기를 겪었다. 진은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통일 국가를 수립하였다.

진은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확립하였고, 뒤를 이은 한은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서역과의 교역을 확대하였다. 특히, 한은 유학을 국가의 이념으로 채택하여 유교주의적 중국 문화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3세기 초 후한이 멸망한 뒤 중국은 다시 분열되어 삼국 시대와 5호 16국 시대, 남북조 시대로 이어졌다. 이 때 양쯔 강 이남 지방의 개발이 본격화되었고, 문벌 귀족이 사회의 지배 세력이 되었으며, 불교가 융성하는 등 귀족 문화가 발달하였다.

6세기 말 수가 중국을 통일하였으나 무리한 고구려 원정 끝에 멸망하고, 7세기에 당이 건국되었다. 당에서 발달한 한자, 유교, 불교, 율령 체제 등은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에 전파되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을 이루었다.

한편, 인도에는 아리아 인이 남하하여 철기 문화를 보급하고, 브라만교와 카스트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어 브라만교에 반대하고 평등을 강조한 불교가 성립되었다. 마우리아 왕조 때 정립된 소승 불교는 동남아시아로 전파되었고, 쿠산 왕조 때에 성립한 대승 불교는 간다라 미술과 함께 중국, 우리나라, 일본으로 전파되어 이들 지역에 불교 문화를 꽃피웠다. 굽타 왕조 시대에는 인도의 민족 종교인 힌두교가 성립되고, 인도의 고전 문화가 완성되어 인도 문화의 원형이 형성되었다.

오리엔트 지방에서는 강력한 전체 국가가 발전하였다. 사산조 페르시아가 번성하여 비잔틴 제국과 대립하였다. 7세기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창시하여 이슬람 문화권이 형성되어 갔다.

서양에서는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발전하여 서양 문화의 원천을 이루었다. 그리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발전하

였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에서는 시민 중심의 민주 정치가 발전했고, 인간 중심의 문화를 꽃피웠다. 기원전 4세기 말 그리스가 몰락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되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발전하였다.

로마는 기원전 3세기 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이어 지중해 전역을 차지하는 대제국으로 발전하였다. 로마 공화정은 혼란을 거듭하다가 기원전 1세기 말 제정이 성립되어 약 200년 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려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이루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2세기 말경부터 군인 황제 시대의 혼란을 겪고, 사회 경제 기반도 흔들려 쇠퇴하기 시작했다.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4세기 말에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되었다(395).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멸망하고(476), 동로마 제국은 이후 1,000년 동안 계속되었다.

로마는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 등을 종합하여 서양 고대 문화를 완성하였으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특성의 문화를 발전시켰다. 또 넓은 영역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법률이 발전하여 로마법이 성립하였다. 로마 제국 시대에 세계 종교로 성장한 그리스교는 로마 문화에 계승된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과 함께 서양 문화의 2대 조류가 되었다.

2.1 고대 국가의 성격

철기 문화의 보급과 이에 따른 생산력의 증대를 토대로 성장한 여러 소국들은 그 중 우세한 집단의 족장을 왕으로 하는 연맹 왕국을 이루었다. 왕은 자기 집단 내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키워 나갔다. 이 과정에서 주변 지역을 활발하게 정복하여 영역을 확대하였고, 정복 과정에서 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왕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왕권이 강화되면서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고, 집단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교를 받아들여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고대 국가로의 발전 과정은 선진 문화의 수용이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우리 역사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로 고대 국가 체제가 정비되고, 가야는 삼국의 각축 속에서 중앙 집권화를 이루지 못한 채 연맹이 해체되어 신라와 백제에 흡수되었다.

2.2 삼국의 성립

삼국 중 제일 먼저 국가 체제를 정비한 것은 고구려였다.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긴 고구려는 1세기 후반 태조왕 때에 이르러 정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러한 정복 활동 과정에서 커진 군사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왕권이 안정되어 왕위가 독점적으로 세습되었고, 통합된 여러 집단들은 5부 체제로 발전하였다.

이후 2세기 후반 고국천왕 때에는 부족적인 전통을 지녀 온 5부가 행정적 성격의 5부로 개편되었고, 왕위 계승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으며, 족장들이 중앙 귀족으로 편입되는 등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가 더욱 진전되었다. 백제는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 세력의 결합으로 성립되었는데(B.C. 18), 우수한 철기 문화를 보유한 유이민 집단이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백제는 한강 유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던 한의 균현을 막아 내면서 성장하였다. 3세기 중엽 고이왕 때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정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 무렵 백제는 관등제를 정비하고 관복제를 도입하는 등 지배 체제를 정비하여 중앙 집권 국가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신라는 처음 진한 소국의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하였는데, 경주 지역의 토착민 집단과 유이민 집단의 결합으로 건국되었다(B.C. 57). 이후 동해안으로 들어온 석탈해 집단이 등장하면서 박석,김의 3성이 교대로 왕위를 차지하였다. 유력 집단의 우두머리는 이사금(왕)으로 추대되었고, 주요 집단들은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4세기 내물왕 때 신라는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낙동강 동쪽의 진한 지역을 거의 차지하고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었다. 또한 왕의 칭호도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왕권이 안정되고 다른 집단들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내물왕 때에는 신라 해안에 나타났던 왜의 세력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신라 영토 내에 머물기도 하였다. 그 후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는 한편, 고구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해 나갔다.

한편,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는 철기 문화

를 토대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어 집진적인 사회 통합을 거쳐 2세기 이후 여러 정치 집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3세기경에는 이들 사이의 통합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김해의 금관 가야가 중심이 되어 연맹 왕국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전기 가야 연맹이라고 부른다. 연맹의 맹주인 금관 가야는 김수로에 의하여 건국되었는데(42), 그 세력 범위는 낙동강 유역 일대에 걸쳐 있었다. 가야의 소국들은 일찍부터 벼농사를 짓는 등 농경 문화가 발달하였다. 또한 풍부한 철의 생산과 해상 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과 왜의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4세기 초부터 백제와 신라의 팽창에 밀려 전기 가야 연맹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4세기 말~5세기 초에는 신라를 후원하는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고 거의 몰락하여 가야의 중심 세력이 해체되고, 가야 지역은 낙동강 서쪽 연안으로 축소되었다.

3.1 삼국의 정치적 발전

고구려는 3세기 중반 위나라의 침입을 받아 한때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4세기에 이르러 5호 16국 시대의 혼란을 틈타 활발하게 대외 팽창을 꾀하였다. 미천왕 때에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낸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지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 부족 별로 흩어져 있던 힘을 조직적으로 통합하지 못하여 전연과 백제의 침략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소수림왕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 체제를 개혁하여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율령의 반포, 불교의 공인, 태학의 설립 등은 지방에 산재한 부족 세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서 중앙 집권 국가로의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백제는 4세기 중반 근초고왕 때에 크게 발전하였다. 이 때 백제는 마한의 나머지 세력을 정복하여 전라도 남해안에 이르렀으며, 북으로는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와 대결하였다. 또한 낙동강 유역의 가야에 대해서도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백제는 오늘날의 경기·충청·전라도와 낙동강 중류 지역, 강원·황해도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영토를 확보하였다.

정복 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백제는 수군을 정비하여 중국의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였고, 이어서 산둥 지방과 일본의 규슈 지방에까지 진출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

을 벌였다.

이로써 백제의 왕권은 점차 전제화되고 부자 상속에 의한 왕위 계승이 시작되었다. 아울러 침류 왕 때에는 불교를 공인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였다.

한편, 신라는 내물왕 이후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으나, 5세기 초 백제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5세기 말 신라는 6촌을 6부의 행정 구역으로 개편하면서 발전하였다.

지증왕 때에 이르러서는 정치 체도가 더욱 정비되어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또한 수도와 지방의 행정 구역을 정리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키기도 하였다. 국호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는 지방의 지배 세력을 확실하게 장악하여 갔다.

이어 법흥왕은 병부의 설치, 율령의 반포, 공복의 제정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또한 골품 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공인하여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들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자주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김해 지역의 금관 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로써 신라는 중앙 집권 국가 체제를 완비하였다.

3.2 삼국 간의 항쟁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한 삼국은 5세기에 접어들면서 대외 팽창을 꾀하였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의 내정 개혁을 바탕으로 광개토 대왕 때에 만주 지방에 대한 대규모의 정복 사업을 단행하였고, 이어 신라와 왜·가야 사이의 세력 경쟁에 개입하여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함으로써 한반도 남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그 후 장수왕 때에는 흥남령 일대의 초원 지대를 장악하는 한편 중국 남북조와 각각 교류하면서 대립하고 있던 두 세력을 조종하는 외교 정책을 써서 중국을 견제하였다. 또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427), 뒤이어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전 지역을 포함하여 죽령 일대로부터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그 판도를 넓혔다. 이러한 고구려의 한강 유역 진출은 광개토 대왕릉비와 중원 고구려비에 잘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계속된 대외 팽창으로 고구려는 동북 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였다.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정치 체도를 완비한 대제국을 형성하여 중국과 대등한 지

위에서 힘을 겨루게 되었다.

백제는 5세기 이후 고구려의 적극적인 남하 정책에 밀려 웅진(공주)으로 도읍을 옮기면서(475) 대외 팽창이 위축되었다. 더구나 중국과 일본 지역의 정세 변화에 따라 무역 활동도 침체되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세력이 국정을 주도하였다.

5세기 후반 동성왕 때부터 백제는 다시 사회가 안정되고 국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동성왕은 신라와 동맹을 강화하여 고구려에 대항하였고, 무령왕은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백제 중흥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다음 성왕은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기고(538),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면서 중흥을 꾀하였다. 성왕은 중앙 관청과 지방 제도를 정비하고, 승려를 등용하여 불교를 진흥하였으며, 중국의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또한 일본에 불교를 전하기도 하였다. 한편, 성왕은 고구려의 내정이 불안한 틈을 타서 신라와 연합하여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을 부분적으로 수복하였지만 곧 신라에게 빼앗기고 자신도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때에 이르러 내부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전개하면서 삼국 간의 항쟁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진흥왕은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불교 교단을 정비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하였다.

이를 토대로 고구려의 지배 아래에 있던 한강 유역을 빼앗고 함경도 지역으로까지 진출하였으며, 남쪽으로는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다. 특히, 한강 유역을 장악함으로써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전략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황해를 통하여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는 이후 삼국 경쟁의 주도권을 신라가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진흥왕의 정복 활동에 관한 사실은 단양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가야 연맹도 5세기 초에 크게 변하였다. 전기 가야 연맹이 해체되면서 김해,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부 지역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반면에 그 동안 후진 지역이었던 북부 지역의 고령, 함천, 거창, 함양 등지의 세력은 자신의 영역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5세기 후반 고령 지방의 대가야를 새로운 맹주로 하여 후기 가야 연맹을 이룩

하였다. 6세기 초에 대가야는 백제, 신라와 대등하게 세력을 다투게 되었고,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이후 신라와 백제의 다툼 속에서 후기 가야 연맹은 분열하여 김해의 금관 가야가 신라에 정복당하였고, 가야의 남부 지역은 신라와 백제에 의하여 분할 점령되었다. 결국 대가야가 신라에 멸망하면서(562) 가야 연맹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3.3 삼국의 통치 체제

삼국 초기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5부나 신라의 6부가 중앙의 지배 집단이 되었다. 각 부는 중앙 왕실에 예속되었으나 각 부의 귀족들은 각자 관리를 거느리고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였다. 왕은 여러 귀족들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존재였다. 따라서 국가의 중요한 일이나 여러 부의 힘을 통합하여 국가의 통일력을 강화하는 일의 결정은 각 부의 귀족들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관등제가 정비되어 각 부의 귀족들과 그 밑에 있던 관리들은 왕의 신하가 되었다. 왕의 권한이 강화되고, 각 부의 부족적 성격이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어 중앙 집권 체제가 형성되었다.

고구려는 4세기경에 각 부의 관료 조직을 흡수하여 10여 관등을 두었고, 백제는 고이왕 때에 이미 6좌평제와 16관등제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신라도 법흥왕 때 각 부의 하급 관료 조직을 흡수하여 17관등제를 완비하였다.

삼국의 관등제와 관직 체계의 운영은 신분제에 의하여 제약을 받았다. 신라는 관등제를 골품 제도와 결합하여 운영하였다. 즉, 개인이 승진할 수 있는 관등의 상한을 골품에 따라 정하고, 일정한 관직을 맡을 수 있는 관등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신라와 비슷하게 운영하였다.

삼국에는 왕 아래에 여러 관청을 두었는데, 고구려의 대대로(또는 막리지), 백제의 좌평은 국정을 총괄하는 관직이었다. 백제는 일찍부터 6좌평 제도를 두어 고구려나 신라에 비하여 훨씬 정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라는 국가가 발전해 감에 따라 병부와 집사부 등의 여러 관서를 차례로 두었다. 또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상대등은 귀족 회의의 주관하면서 왕권을 견제하였다.

삼국의 중앙 지배층은 정복 지역을 세력의 크기에 따라 성이나 촌 단위로 개편하여 지방 통치의 중심으로 삼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민을 직접

지배하였다. 그러나 지방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배는 강력하게 미치지 못하였고, 원래 성이나 촌을 지배하던 지방 세력가의 자치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삼국은 뒤에 최상급 지방 행정 단위로 부와 방 또는 주를 두고 지방 장관을 파견하였다. 그 아래의 성이나 군에도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나 말단 행정 단위인 촌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토착 세력을 촌주로 삼았다. 촌주는 지방관을 보좌하면서 촌락 내의 행정과 군사 실무의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삼국의 지방 행정 조직은 그대로 군사 조직이기도 하였으므로 각 지방의 지방관은 곧 군대의 지휘관이었다. 따라서 삼국 시대 국가의 주민 통치는 본질적으로 군사적 지배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백제의 방령은 각각 700~1,200명의 군사를 거느렸고, 신라의 군주는 주 단위로 설치한 부대인 정을 거느렸다. 신라에는 정 외에도 서당이라 불리는 군대가 있었다.

4.1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6세기 말 남북조로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한 수는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당시 한반도에서 신라의 위협을 받던 고구려는 북쪽의 돌궐과 연결하고, 남으로 백제.왜와 연결하는 연합 세력을 구축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수의 압박으로 돌궐의 세력이 약화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고구려는 먼저 중국의 요서 지방을 공격하였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수의 문제와 양제는 잇따라 백만 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에 침략해 왔다. 고구려는 병력 규모는 작았으나 요하를 굳게 지켜 문제의 침략을 막아 냈고, 양제의 침입 때에는 을지문덕이 적을 유인한 뒤 살수에서 크게 격파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612). 이를 살수 대첩이라 한다.

수의 뒤를 이은 당은 건국 초에는 유화 정책을 취했으나 곧이어 동북아시아 방면으로 세력을 뻗어 왔다. 이에 고구려는 국경 지방에 천리 장성을 쌓고, 방어 체제를 강화하는 등 당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특히, 연개소문은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권력을 장악하면서 대내적으로 독재 정치를 단행하고, 대외적으로는 당에 대하여 강경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당의 태종은 직접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요동의 여러 성을 공격하였다. 당의 군대는 요하를 건너 요동성, 개모성, 비사성 등을 빼앗고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시성을 공격하였다(645). 안시성에서 군민이 합심하여 60여 일간이나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이 전열을 정비한 고구려는 대대적인 반격을 펼쳐 마침내 당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 이후 고구려는 당의 빈번한 침략을 물리쳐 당의 동북아시아 지배 야욕을 좌절시켰다.

고구려가 수.당과 싸워 이겨 그 침략을 막아 낸 것은 고구려의 국가 보위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저지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4.2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고구려가 수.당의 침략을 막아 내는 동안 신라에서는 신흥 귀족인 김춘추가 김유신과 제휴하여 권력을 장악한 후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이어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대항하면서 삼국 간의 항쟁을 주도해 나갔다.

그러나 고구려의 반격을 우려하여 백제가 침략해 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와 연합을 꾀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자 당과 군사 동맹을 맺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한반도를 통일하려 하였다. 고구려 침략에 실패한 당도 신라를 이용하여 한반도를 장악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나.당 연합군이 결성되었다.

신라는 당과 연합하여 먼저 백제를 공격하였다. 김유신이 지휘한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계백이 이끈 백제의 결사대를 격파한 뒤 사비성으로 진출하였고, 당군은 금강 하구로 침입하였다. 이미 내부적으로 정치 질서의 문란과 지배층의 향락으로 국가적 일체감을 상실한 백제는 결국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고 말았다(660).

백제 멸망 이후 각 지방의 저항 세력들은 백제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복신과 흑치상지, 도침 등은 왕자 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추류성과 임존성을 거점으로 군사를 일으켰다. 이들은 200여 성을 회복하고 사비성과 웅진성의 당군을 공격하면서 4년간 저항하였으나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진압되었다. 이 때 왜의 수군이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강 입구까지 왔으나 패하여 쫓겨갔다.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는 다시 당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고구려는 거듭된 전쟁으로 국력의 소모가 심하였고, 요동 지방의 국경 방어선도 점차 무너졌다. 더구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

하여 민심이 떠나고 있었으며, 연개소문이 죽은 뒤 지배층의 권력 쟁탈전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다. 결국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던 고구려도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668). 고구려 멸망 이후 보장왕의 서자 안승을 받든 집모잠과 고연무 등은 고구려의 유민을 모아 한성(황해도 개령)과 오골성을 근거지로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한때 평양성을 탈환하기도 하고, 뒤에는 신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세를 떨치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그러나 7세기 말에 고구려 유민들에 의하여 발해가 건국됨으로써 고구려의 전통은 계승되었다.

4.3 신라의 삼국 통일

당이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은 결국 신라를 이용하여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는 야심 때문이었다. 당은 백제의 옛 땅에 웅진 도독부를 두고, 고구려의 옛 땅에는 안동 도호부를 두어 지배하려 하였다. 또한 경주에도 계림 도독부를 두고 신라 귀족의 분열을 획책하여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과 연합하여 당과 정면으로 대결하였다.

신라는 고구려 부흥 운동 세력을 후원하는 한편, 백제 땅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이어 남침해 오던 당의 20만 대군을 매소성에서 격파하여 나.당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금강 하구의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섬멸하여 당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냈으며, 평양에 있던 안동 도호부도 요동성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다(676).

신라의 삼국 통일은 외세를 이용하였다는 점과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를 경계로 한 이남의 땅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신라가 당의 세력을 무력으로 몰아낸 사실에서 삼국 통일의 주주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 또 고구려와 백제 문화의 전통을 수용하고 경제력을 확충함으로써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신라의 삼국 통일은 의의가 있다.

5.1 통일 신라의 발전

통일 이후 신라는 그 영역의 확대와 함께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오랜 전쟁이 끝나고 대외 관계가 안정되어 생산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또한 통일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

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도 안정되었다. 통일을 전후하여 나타난 중요한 정치적 변화는 왕권이 전제화되었다는 점이다. 태종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 왕으로서 통일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이 때부터 태종 무열왕의 직계 자손만이 왕위를 세습하였다. 나아가 왕명을 받들고 기밀 사무를 관장하는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의 기능을 강화하고, 귀족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던 상대등의 세력을 억제하였다. 이로써 통일 이후 진골 귀족 세력이 약화되고 왕권이 전제화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신문왕은 김흠돌의 모역 사건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정치 세력을 다시 편성하였다. 중앙 정치 기구와 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9주 5소경 체제의 지방 행정 조직을 완비하였다. 또한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음을 폐지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하여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

왕권이 전제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진골 귀족 세력은 약화되었다. 김씨 왕족은 왕권 옹호 세력으로 변질되고, 박씨 세력이나 가야 및 고구려계 귀족은 점차 정권에서 소외되었다. 반면에 진골 귀족 세력에게 눌러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없었던 6두품 세력이 왕권과 결탁하여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 이들은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활동하거나 행정 실무를 맡아보았다. 이렇게 확립된 전제 왕권은 진골 귀족 세력의 반발로 경덕왕 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녹음이 부활되었고, 사원의 면세전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도 압박을 받았다. 또한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자 중앙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만을 유지하려 하였다. 더욱이 그들의 지나친 향락과 사치 생활로 인하여 농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5.2 발해의 건국과 발전

고구려 멸망 이후 대동강 이북과 요동 지방의 고구려 땅은 당의 안동 도호부가 지배하고 있었다. 고구려 유민들은 요동 지방을 중심으로 당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였다. 당은 이 지역의 고구려 유민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당에 포로로 잡혀 있던 보장왕을 요동 도독으로 임명하는 회유책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의 이러한 민족 분열 정책은 오히려 고구려 유민들의 동족 의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7세기 말에 이르러 당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들은 전쟁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던 만주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길림성의 둔화시 동모산 기슭에 발해를 세웠다(698). 발해의 건국으로 이제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공존하는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게 되었다.

발해는 영역을 확대하여 옛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였다. 그런데 그 영역에는 고구려 유민과 원래 고구려의 지배를 받고 있던 말갈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라든가 문화의 유사성으로 보아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음을 알 수 있다.

대조영의 뒤를 이은 무왕 때에는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발해의 세력 확대에 따라 신라는 북방 경계를 강화하였고 흑수부 말갈도 당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발해는 먼저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는 한편,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 돌궐·일본 등과 연결하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문왕 때에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 체제를 정비하고, 신라와도 상설 교통로를 개설하여 대립 관계를 해소하려 하였다. 발해가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긴 것은 이러한 지배 체제의 정비를 반영한 것이다. 이 무렵 발해는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인안, 대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배층의 내분으로 한때 국력이 약화되었다.

발해가 다시 증흥한 것은 9세기 전반의 선왕 때부터이다. 발해는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으며,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지방 제도를 완비하였다. 당시 중국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10세기 초에 이르러 부족을 통일한 거란이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해 오고, 발해 내부에서 귀족들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어 발해의 국력은 크게 쇠퇴하였다. 결국 23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오던 발해는 거란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926). 이후 발해 유민들의 부흥 운동마저 실패함

으로써 그동안 우리 민족의 주된 활동 무대의 일부였던 만주 지방에 대한 지배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5.3 남북국의 통치 체제

통일 신라는 중앙 집권 체제로 제도를 재정비하였다. 중앙의 정치 체제는 집사부를 중심으로 하여 관료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집사부 시중의 지위를 높였고 그 아래에는 위화부를 비롯한 13부를 두고 행정 업무를 분담하게 하였다. 아울러 관리들의 비리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찰 기구인 사정부를 두었고, 국립 대학인 국학도 설치하였다.

지방 행정 조직은 9주 5소경 체제로 정비하여 중앙 집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군사·행정상의 요지에는 5소경을 설치하여, 수도인 금성(경주)이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보완하고, 각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였다. 또 전국을 9주로 나누고, 주의 장관을 군주에서 총관(뒤에 도독)으로 바꾸어 군사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대신 행정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주 밑에는 군이나 현을 두어 지방관을 파견하였고, 그 아래의 촌은 토착 세력인 촌주가 지방관의 통제를 받으면서 다스렸다. 또 향, 부곡이라 불리는 특수 행정 구역도 있었다.

한편, 지방관의 감찰을 위하여 외사정을 파견하였고,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군사 조직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중앙군의 핵심은 9서당이였다. 서당에는 고구려와 백제 사람은 물론 말갈족까지 포함하여 민족 융합을 꾀하기도 하였다. 지방군으로는 10정을 두었는데, 정은 9주에 1정씩을 배치하고, 북쪽 국경 지대인 한주(한산주)에는 2정을 두었다.

통일 신라의 통치 체제 변화는 중국식 정치 제도를 받아들들이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전제 국가로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 관부의 장관과 주의 도독, 군대의 장군 등 권력의 핵심은 모두 중앙 진골 귀족이 독점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발해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집권적 지배 체제를 갖추었다. 중앙의 정치 조직은 3성과 6부를 근간으로 편성하였다.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고, 그 아래에 있는 좌사정이 충·인의 3부를, 우사정이 지·예·신 3부를 각각 나누어 관할

하는 이원적인 통치 체제를 구성하였다. 당의 제도를 수용하였지만 그 명칭과 운영은 발해의 독자성을 유지하였다. 이 외에도 관리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중정대, 사적 관리의 맡은 문직위, 중앙의 최고 교육 기관인 주자감 등이 있었다.

발해의 지방 지배 체제는 5경, 15부, 62주로 조직되었다. 전략적 요충지에는 5경을 두었고, 지방 행정의 중심인 15부에는 도독을 두어 지방 행정을 총괄하게 하였다. 부 아래에는 62주를 설치하여 자사를 파견하고, 그 아래 다시 현을 두고 현승을 파견하였다. 지방 행정의 말단인 촌락은 주로 말갈족으로 구성되었으며, 촌장을 매개로 지배하였다.

발해의 군사 조직은 중앙군으로 10위를 두어 왕궁과 수도의 경비를 맡겼고, 지방 지배 조직에 따라 지방군을 편성하여 지방관이 지휘하게 하였다. 국경의 요충지에는 따로 독립된 무대를 두어 방어하기도 하였다.

5.4 신라 말기의 정치 변동과 호족 세력의 성장

8세기 후반 이후 신라에서는 국가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중앙 귀족들 간의 권력 싸움이 치열해지고,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에서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새로운 사상을 갖춘 호족 세력이 성장하였다.

진골 귀족들은 경제 기반을 확대하여 사병을 거느리고 권력 싸움을 벌였다. 혜공왕이 죽고 상대등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하면서 진골 귀족들 사이에는 힘만 있으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이에 경제력과 군사력을 확보한 귀족들은 왕위 쟁탈전을 벌였다.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연합적인 정치가 운영되었으며, 집사부 시중보다 상대등의 권력이 더 커졌다.

중앙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에는 지방 세력들도 가담하였다.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으로 웅천주 도독 김헌창과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며, 일부 지방 세력들이 중앙 정부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더욱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녹읍을 토대로 한 귀족들의 지배가 유지되는 한편, 대토지 소유가 확대되었고, 영민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졌다. 자연 재해가 잇따르고, 왕실과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국가 재정이 바닥나면서 농민들에 대한 강압적인 수취가 뒤따랐다. 살기가 어려워진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조적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중앙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높아지고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지방에서는 호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였다. 호족들은 농민 봉기를 배경으로 각처에서 일어나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자기 근거지에 성을 쌓고 군대를 보유하여 스스로 성주 혹은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그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적 지배력도 행사하였다.

한편, 당에 유학하였다가 돌아온 6두품 출신의 일부 유학생들과 선종 승려 등은 신라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진골 귀족에 의하여 자신들의 뜻을 펼 수 없게 되자 은거하거나 지방의 호족 세력과 연계하여 사회 개혁을 추구하였다.

5.5 후삼국의 성립

10세기로 들어오면서 지방에서 성장하던 견훤과 궁예는 신라 말의 혼란을 이용하여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신라는 그 지배권이 경주 일대로 축소되어 다시 삼국이 정립하는 후삼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견훤은 전라도 지방의 군사력과 호족 세력을 토대로 완산주(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다(900). 후백제는 차령산맥 이남의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차지하여, 그 지역의 우세한 경제력을 토대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국제적 감각도 갖추었다.

그러나 견훤은 신라에 적대적이었고, 농민에게 지나치게 조세를 수취하였으며, 호족을 포섭하는 데 실패하는 등 한계를 갖고 있었다.

궁예는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신라 왕족의 후예로서 처음에는 복원(원주) 지방의 도적 집단인 양길의 아래에 들어가 강원도, 경기도 일대의 중부 지방을 점령하였다. 이어서 예성강 유역의 황해도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다. 그는 세력이 커지자 양길을 몰아낸 다음 송악(개성)에 도읍을 정하고 독립하여 후고구려를 세웠다(901).

그 후 궁예는 한강 유역을 차지한 다음 조령을 넘어 상주 일대로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영주를 차지하여 옛 신라 땅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이 영토가 확장되고 국가 기반이 다져지자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태봉으로 바꾸고,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였다.

궁에는 새로운 관계를 마련하고 골품 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 제도를 모색하였다. 국정을 총괄하는 광평성을 비롯한 여러 관서를 설치하고 9 관등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궁에는 계속되는 전쟁을 위하여 지나치게 조세를 거두어들였고, 죄 없는 관료와 장군을 살해하였을 뿐 아니라 미륵 신앙을 이용하여 전제 정치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과 신하들의 신망을 잃게 되어 신하들에 의하여 축출되었다.

3-2 중세의 정치

1. 중세의 세계

10세기 초 중국에서는 당이 멸망하고 5대 10국이 흥망하는 가운데 사대부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성장하였다. 5대의 혼란을 수습한 송은 중앙 집권적인 황제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과거 제도를 강화하여 문반 관료 중심의 문치주의 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송은 국방력의 약화로 북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고, 국가 재정도 궁핍해졌다. 이를 극복하고자 한 왕안석의 신법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12세기 초 여진족의 침입을 받아 북중국을 빼앗기고 강남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양쯔 강 이남 지역의 개발이 촉진되어 강남이 경제와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달하였다. 이 시기에 주희가 체계화한 성리학은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의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다.

13세기에는 몽고족이 크게 일어나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아시아의 대부분과 러시아 남부 지역까지 장악하는 세계 제국을 이룩하였다. 이로써 동서 문화 교류가 크게 촉진되었다.

일본은 9세기 중엽 국왕권이 약화되고 지방 호족이 장원을 소유하고 무사를 고용함으로써 특유의 봉건 제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인도에서는 굽타 왕조가 무너진 후 정치적 분열이 거듭되는 가운데 이슬람 세력이 침투하였다.

한편, 서양은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고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로 전환하였다. 서양의 중세 사회는 로마 가톨릭 중심의 서유럽 문화권, 그리스 정교 중심의 비잔틴 문화권,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에 걸친 이슬람 문화권으로 형성되었다.

게르만족의 이동 이후 서유럽 세계 형성의 중심이 된 프랑크 왕국은 로마 교회와 제휴하여 성장

하면서 로마 교회를 후원하는 세력이 되었다. 프랑크 왕국은 9세기에 분열하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3국의 토대가 되었다. 그 결과 유럽 세계에는 고전 문화와 그리스도교에 게르만적 요소가 결합된 새로운 사회와 문화가 성장하였다.

서유럽에서는 봉건 제도가 성립되어, 왕권이 약화되고 지방 분권 체제가 이루어졌다. 봉건 제도의 경제적 단위는 귀족과 기사들이 소유한 장원이었다. 장원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은 대체로 부자유 신분인 농노로서, 이들은 장원의 주인인 영주와 토지에 예속되어 있었다. 한편, 로마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그 주교는 교황이라 불리고, 교단 조직이 형성되었다. 이에 그리스도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권이 성립되어 로마 가톨릭이 서유럽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였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비잔틴 제국은 약 1,000년 동안 계속되었다. 비잔틴 제국에서는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의 전통이 강하였으며, 황제 교황주의의 그리스 정교가 발달하였다. 비잔틴 문화는 초기 서유럽 문화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동북부의 슬라브 사회에 널리 전파되어 동유럽 문화의 바탕이 되었다.

한편, 이슬람 제국은 아프리카 북부를 지배한 뒤 8세기에 이르러서는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슬람 문화를 보급하였다. 그러나 북부의 그리스도교 세력이 점차 강성해지자 이슬람 세력은 유럽 지역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2.1 고려의 성립과 민족의 제통일

궁예를 몰아낸 뒤 신하들의 추대 형식을 빌려 왕위에 오른 왕건은 고구려 계승을 내세워 국호를 고려라 하고(918), 자신의 세력 근거지였던 송악으로 도읍을 옮겼다.

왕건은 본래 송악 지방의 호족 출신으로서 예성강 하구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해상 무역을 통하여 성장한 호족들과 연합하여 세력을 강화하였다. 그 후 궁예의 신하가 되어 한강 유역을 점령하는 등 영토 확장에 공을 세웠다. 특히, 수군을 이끌고 금성(나주)을 점령하여 후백제를 배후에서 견제하는 데 큰 공을 세워 광평성 시종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왕건은 궁예나 견훤과는 달리 자신이 호족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경륜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를 세운 왕건은 통일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안으로는 지방 세력을 흡수 통합하고, 밖으로는 중국의 5대 여러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어 대

외 관계의 안정을 꾀하였다. 또 태조는 궁예와는 달리 신라에 대하여 적극적인 후호 정책을 내세우고, 후백제와는 대립하는 정책을 취했다. 신라에 대한 후호 정책은 신라인들을 회유하는 데 유용하였다. 실제로 태조는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자 신라를 도와 이들을 막아냄으로써 신라인들의 신망을 얻었고, 그 결과 신라 경순왕의 항복을 받아 전쟁 없이 신라를 통합할 수 있었다. 아울러 후백제에 내분이 일어나 견훤이 귀순하자 후백제를 정벌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 한편, 발해가 거란에 멸망당했을 때(926) 고구려계 유민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려로 망명해 왔다. 이에 태조는 이들을 우대하여 민족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였다. 이로써 고려는 후삼국뿐만 아니라 발해의 고구려계 유민들까지 포함한 민족의 제통일을 이룩하였다.

2.2 태조의 정책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지방에 할거하고 있던 호족들을 포섭하여 집권적 지배 체제를 확립하고, 오랜 전쟁으로 황폐해진 농지를 개간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조세 제도를 재조정하여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아울러 골품제가 해체된 뒤 지배층을 새로이 편성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하여야 했다.

태조는 후삼국의 분열이 신라 사회의 모순과 지방 세력의 대두로 인한 것이며, 그러한 사회 혼란의 근본 원인이 가혹한 고대적 조세 제도에서 비롯된 경제 모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왕위에 오른 뒤 태조는 취민유도를 내세워 호족들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었다. 아울러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기구로 흑창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태조는 이어 태봉의 관계를 중심으로 신라와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정치 제도를 마련하고, 개국 공신과 지방의 호족들을 관리로 등용하였다. 유력한 호족과는 혼인을 통하여 관계를 깊게 다져 갔고, 지방의 중소 호족들에게는 향촌 사회에서의 지배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었다. 공신들에게는 역분전을 지급하여 새 지배층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 호족들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심관과 기인 제도를 활용하였다. 또한 경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훈요 10조를 남기기도 하였다.

한편, 태조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강력한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적극 개발하였다. 그 결과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2.3 광종의 개혁 정치

태조의 뒤를 이은 혜종과 정종 때에는 왕권이 불안정하여 왕자들과 외척들 사이에 왕위 계승 다툼이 일어났다. 왕규의 난은 그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왕권의 불안정은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호족 세력을 통합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혼인 정책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즉위한 광종은 왕권의 안정과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로써 공신이나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은 약화된 반면, 노비들이 양인이 되어 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국가의 재정 기반과 왕권이 좀 더 안정되었다.

광종은 문예와 유교 경전을 시험하여 문반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 제도를 시행하였다. 과거 제도는 공신의 자제를 우선적으로 등용하던 종래의 관리 등용 제도를 억제하고, 새로운 관리 선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광종은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여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다. 이어서 지배층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일련의 개혁을 통하여 자신감을 갖게 된 광종은 본격적으로 공신과 호족 세력을 제거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황제를 칭하고, 광덕,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왕조 성립 초기의 공신과 호족 세력이 크게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다. 광종의 개혁은 경종 때의 경제 개편으로 이어져 중앙 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전시과 제도가 실시되었고, 성종 때의 지배 체제 정비로 이어져 통치 체제가 확립되었다.

2.4 유교적 정치 질서의 강화

성종 때에는 신라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하면서 유교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성종은 즉위 후 국가의 오랜 폐단을 없애고 국정을 쇠신하기 위하여 중앙의 5품 이상의 관리들로 하여금 그동안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정책을 건의하는 글을 올리게 하였다.

이에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의 진흥과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행사의 억제 를 요구하고, 태조로부터 경종에 이르는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성종은 먼저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또한 국가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 박사과 의학 박사를 파견 하여 유학 교육의 진흥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과거 제도를 정비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여 유학에 조예가 깊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어서 성종은 중앙의 통치 기구를 개편하였다. 당의 제도를 받아들인 2성 6부제를 기반으로 하고 태봉과 신라에 제도를 참작하여 중앙 관제를 정비하였다. 뒤에 송의 관제를 받아들여 중추원과 삼사를 설치하고, 고려의 실정에 맞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설치함으로써 세 계통의 기구들이 어 우러진 고려만의 독특한 정치 체제를 마련하였다.

3.1 중앙 정치 조직

고려의 통치 체제는 성종 때에 마련한 2성 6부제 를 토대로 하였다. 고려는 당의 제도를 받아들인 면서도 고려의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하였다. 그리 하여 최고 관서로서 중서문하성을 두었고, 그 장관인 문하시중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그리고 상 서성은 실제 정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6부를 두고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였다. 중추원은 군사 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고, 삼사는 송과는 달리 단순히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만을 맡 았다.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 주는 관청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회의로 국 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곳이다.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 기구였으나, 고려 후 기에 도평의사사(도당)로 개편되면서 구성원이 확 대되고 국정 전반에 걸친 중요 사항을 담당하는 최고 정부 기구로 발전하였다. 식목도감은 임시 기구로서 국내 정치에 관한 법의 제정이나 각종 시행 규정을 다루던 회의 기구였다. 이러한 회의 기구의 존재는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잘 나타

내 주는 것이다.

한편, 재신과 추밀은 6부를 비롯한 주요 관부의 최고직을 겸하여 중앙의 정치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들의 비리 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어사대의 관원은 중 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리면서,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과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에 동의하는 서경권을 갖고 있 었다. 이들은 비록 직위는 낮았지만 왕이나 고위 관리들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하여 정치 운영 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 전체적으로 관리들의 기능이 신라 시대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었다.

3.2 지방 행정 조직의 정비

지방의 행정 조직도 성종 초부터 정비되기 시작 하였다. 전국을 5도와 양계, 경기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3경.4도호부.8목을 비롯하여 군.현.진 등 을 설치하였다. 5도는 상설 행정 기관이 없는 일 반 행정 단위로서 안찰사가 파견되어 도내의 지 방을 순찰하였다. 도에는 주와 군.현이 설치되고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북방의 국경 지대에는 동 계.북계의 양계를 설치하여 병마사를 파견하고, 국방상의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특수 지역이었다.

중앙에서 지방관이 직접 파견되는 것은 군.현과 진까지였다. 그러나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더 많았다. 속현과 향.부곡. 소 등 특수 행정 구역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 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조세나 공물의 징수와 노역 징발 등 실제적인 행정 사무는 향리들이 담당하였다. 향리는 원래 신라 말.고려 초기의 중소 호족 출신 이었는데 집권적 지배 체제의 정비 과정을 통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행정 실무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토착 세력으로서 향촌 사회의 지 배층이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시적으로 파견되 는 지방관보다 영향력이 컸다.

3.3 군역 제도와 군사 조직

고려의 군사 제도는 중앙군과 지방군의 이원 조 직으로 구성되었다. 중앙군은 국왕의 친위 부대인 2군과 수도 경비와 국경 방어를 담당하는 6위로 구성되었다. 중앙군은 직업 군인으로 편성되었는 데, 이들은 군적에 올라 군인전을 지급받고 그 역

은 자손에게 세습되었으며, 군공을 세워 무신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도 있는 중류층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각종 토목 공사에 동원되거나 군인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몰락하거나 도망하 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일반 농민 군인 으로 채워지기도 하였다.

군적에 오르지 못한 일반 농민으로 16세 이상의 장정들은 지방군으로 조직되었다. 지방군은 국경 지방인 양계에 주둔하는 주진군과 5도의 일반 군 현에 주둔하는 주현군으로 이루어졌다. 주진군은 상비군으로 좌군.우군.초군으로 구성되어 국경 수 비를 전담하였다. 주현군은 지방관의 지휘를 받아 외적을 방비하고 치안을 유지하였으며, 각종 노역 에 동원되었다.

3.4 관리 등용 제도

고려의 관리는 과거와 음서를 통하여 등용되었다. 과거는 제술업, 명경업, 잡업으로 나뉜다. 제술과 는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을 시험하고, 명경과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하여 문신을 뽑았다. 잡과는 법률, 회계, 지리 등 실용 기술학 을 시험하여 기술관을 뽑았다. 법제적으로 양인 이상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 으나 실제로 제술과나 명경과에는 주로 귀족과 향리의 자제들이 응시하였고, 백정 농민은 주로 잡과에 응시하였다.

과거에 합격한 사람은 시험관인 좌주와의 결속을 강화하여 그들의 도움으로 쉽게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를 통한 관리의 등용은 신 분을 중시하던 고대 사회와는 달리 유교적 소양 을 갖춘 인재들 등용하였다는 점에서 능력이 중 시되었음을 뜻한다.

한편, 공신과 종실의 자손, 5품 이상의 고위 관료 의 자손 등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관료가 될 수 있는 음서의 혜택을 받아 관료로서의 지위를 세습하기도 하였다. 이는 고려의 관료 체제가 귀 족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4.1 문벌 귀족 사회의 성립

성종 이후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중앙에서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되어 갔다. 이들은 지방 호족 출신으로 중앙 관료가 된 계열 과 신라 6두품 계통의 유학자들이었다.

이들 중 여러 세대에 걸쳐 중앙에서 고위 관직자 들을 배출한 가문을 문벌 귀족이라 부른다. 문벌 귀족은 과거와 음서를 통하여 관직을 독점하고,

중서 문하성과 중추원의 재상이 되어 정국을 주 도해 나갔다. 이들은 관직에 따라 파전을 받고, 또 자손에게 세습이 허용되는 공음전의 혜택을 받았을 뿐 아니라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이나 국가의 토지를 차지하여 정치 권력과 함께 경제력까지 거의 독점하였다.

한편, 이들은 비슷한 부류들끼리 혼인 관계를 맺 어 권력을 더욱 단단하게 장악하였다. 특히, 왕실 과 혼인 관계를 맺어 외적으로서의 지위를 이용 하여 정권을 장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벌 귀족의 성장에 따라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과거를 통하여 진출 한 지방 출신의 관리들 중 일부는 왕에게 밀착하 여 왕권을 강화하고 보좌하는 측근 세력이 되어 문벌 귀족과 대립하였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은 이들 정치 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이 표면으 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4.2 이자겸의 난과 서경 천도 운동

11세기 이래 대표적인 문벌 귀족인 경원 이씨 가 문은 왕실의 외척이 되어 80여 년간 정권을 잡았 다. 경원 이씨는 이자연의 딸이 문종의 왕비가 되 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하였고, 이자연의 손자인 이자겸도 예종과 인종의 외척이 되어 집 권하였다. 특히, 이자겸은 예종의 측근 세력을 몰 아내고 인종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하면서 그 세력이 막강해졌다.

이자겸 세력은 대내적으로 문벌 중심의 질서를 유지하고 대외적으로 금과 타협하는 정치적 성향 을 보였다. 반면 왕의 측근 세력들은 왕을 중심으 로 결집하면서 이자겸의 권력 독점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이자겸은 반대파를 제거하고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1126). 그러나 이 자겸이 척준경에 의하여 몰려나고 척준경도 탄핵 을 받고 추출됨으로써 이자겸 세력은 몰락하였다. 이자겸의 난은 중앙 지배층 사이의 분열을 드러 냄으로써 문벌 귀족 사회의 붕괴를 촉진하는 계 기가 되었다.

이자겸의 난 이후 인종은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 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관리들과 묘청, 정치상을 중 심으로 한 지방 출신의 개혁적 관리들 사이에 대 립이 벌어졌다.

묘청 세력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평양)으로

도움을 잃겨,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시행하려 하였다. 이들은 서경에 대화공이라는 궁궐을 짓고, 황제를 칭할 것과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부식이 중심이 된 개경 귀족 세력은 유교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자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민생 안정을 내세워 금과 사대 관계를 맺었다. 결국 이러한 정치 개혁과 대외 관계에 대한 의견 대립이 지역 간의 갈등으로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

묘청 세력은 서경 천도를 통한 정권 장악이 어렵게 되자 서경에서 나라 이름을 대위국이라 하고 연호를 천개라 하면서 난을 일으켰으나(1135), 김부식이 이끈 관군의 공격으로 약 1년 만에 진압되고 말았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문벌 귀족 사회 내부의 분열과 지역 세력 간의 대립, 풍수지리설이 결부된 자주적 전통 사상과 사대적 유교 정치 사상의 충돌, 고구려 계승 이념에 대한 이견과 갈등 등이 얽혀 일어난 것으로 귀족 사회 내부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었다.

4.3 무신 정권의 성립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이후 문벌 귀족 지배 체제의 모순은 더욱 깊어졌다. 지배층은 이와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정치적 분열을 거듭하였다. 의종 역시 측근 세력을 키우면서 이들에 의존하고 향락에 빠지는 등 실정을 거듭하였고, 무신 우대와 무신 차별에 따른 무신들의 불만이 커졌다. 여기에 군인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하급 군인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지배 체제의 모순이 정치적으로 폭발한 것이 무신 정변이었다(1170).

정중부, 이의방 등 무신들은 정변을 일으켜 다수의 무신을 죽이고 의종을 폐하여 거제도도 귀양보낸 후 명종을 세워 정권을 장악하였다. 무신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고 토지와 노비를 늘려 나갔다. 또한 저마다 사병을 길러 권력 쟁탈전을 벌였다. 이 시기에 지배층에 의한 대토지 소유는 더욱 늘어났고, 정치 싸움으로 인하여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농민과 천민의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다.

최충헌은 정권을 잡자 무신 정권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봉사 10조와 같은 사회 개혁책

을 제시하는 한편, 농민 항쟁의 진압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사회 개혁책은 호지부치되고 그는 오히려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고 사병을 양성하여 권력 유지에 치중하였다.

최충헌은 최고 집정부의 구실을 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력을 행사하였다. 또 사병 기관인 도방을 설치하여 신변을 경호하였다. 도방은 삼별초와 함께 최씨 정권을 유지하는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최충헌의 뒤를 이은 최우도 교정도감을 통하여 정치 권력을 행사하였고, 더 나아가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하여 모든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정국이 안정되면서 최우는 문학적인 소양과 함께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춘 문신들을 등용하여 고문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최씨의 집권으로 무신 정권이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국가 통치 질서는 오히려 약화되었다. 최씨 정권은 권력의 유지와 이를 위한 체제의 정비에 집착했을 뿐, 국가의 발전이나 백성들의 안정을 위한 노력에는 소홀하였다.

5.1 거란의 침입과 격퇴

10세기 초에 통일된 국가를 세운 거란(요)은 송을 공격하기에 앞서 송과 연결되어 있던 정안국을 토벌하고 고려와의 관계를 개선하려 하였다. 고려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자 거란은 먼저 정안국을 정복한 다음 고려에 여러 차례 침입해 왔다.

처음 거란은 80만의 대군으로 침입해 왔다(993). 거란은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의 옛 땅을 내놓을 것과 송과 교류를 끊고 자신들과 교류할 것을 요구하였다. 고려는 청천강에서 거란의 침략을 저지하는 한편, 서희가 거란과 협상에 나섰다. 이 때 거란으로부터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확보하는 한편,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였다.

거란군이 퇴각한 뒤 고려는 송과 친선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거란과 교류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거란은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강동 6주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면서 40만 대군으로 다시 침입해 왔다(1010). 이 때 개경이 함락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거란군의 뒤에서 양규가 선전하였다. 이에 거란군은 퇴로가 차단될 것을 두려워하여 고려와 강화하고 물러갔다.

여러 차례 소규모의 침입을 시도하던 거란은 다시 10만의 대군으로 침입해 왔다(1018). 개경 부

근까지 침입해 온 거란은 도처에서 고려군의 저항을 받고 퇴각하던 중 귀주에서 강감찬이 지휘하는 고려군에게 섬멸되었다. 이 때 살아서 돌아간 거란의 군사 수천에 불과할 정도였다(1019). 이를 귀주 대첩이라 한다.

고려가 거란의 계속되는 침략을 막아 내자 거란은 더 이상 고려를 공격할 수 없었고, 송을 침입할 수도 없었다. 결국 고려가 거란과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고려, 송, 거란 사이에는 세력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 고려는 국방을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였다. 강감찬의 주장으로 개경에 나성을 쌓아 도성 수비를 강화하였고, 북쪽 국경 일대에 장성을 쌓아 거란은 물론 여진의 침입까지 방어하려 하였다. 이것이 압록강 어귀에서 동해안의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 장성이다.

5.2 여진 정벌과 9성 개척

여진은 한때 말갈이라 불리면서 오랫동안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었고, 발해가 멸망한 뒤에는 여진으로 불리면서 발해의 옛 땅에서 반독립적 상태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고려는 두만강 연안의 여진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면서 회유·동화 정책을 펴서 이들을 포섭해 나갔다. 그러나 12세기 초 만주 하얼빈 지방에서 일어난 완연부의 주장이 여진족을 통합하면서 정주까지 남하하여 고려와 충돌을 빚게 되었다.

여진과의 일차 접촉에서 패한 고려는 기병 중심의 여진족을 보병만으로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윤관의 건의에 따라 기병을 보강한 특수 부대인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 정벌을 준비하였다.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천리 장성을 넘어 여진족을 북방으로 쫓아 버리고(1107), 동북 지방 일대에 9성을 쌓아 방어하였다.

그러나 생활 터전을 잃은 여진족의 계속된 침입으로 9성 수비에 어려움을 겪던 고려는 다시는 침략하지 않고 해마다 조공을 바치겠다는 여진족의 조건을 수락하고 1년 만에 9성을 돌려주었다. 고려의 처지에서 서북쪽의 거란족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여진 방어에만 힘쓸 수 없었기 때문에 여진의 조건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 후 여진족은 더욱 강성해져 만주 일대를 장악하면서 국호를 금이라 하고(1115), 거란을 멸한 뒤 고려에 군신 관계를 맺자고 압력을 가해 왔다. 고려는 그들의 사대 요구를 돌려싸고 정치적 분쟁을 겪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금과 무력 충돌

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결국 금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집권자인 이자겸은 정권 유지를 위하여 금과 평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5.3 몽고와의 전쟁

13세기 초 중국 대륙의 정세는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부족 단위로 유목 생활을 하던 몽고족이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면서 금을 공격하여 북중국을 점령하였다.

이 때 금의 예하에 있던 거란족의 일부가 몽고에 쫓겨 고려로 침입해 왔다. 고려는 이들을 반격하여 강동성(평양 동쪽)에서 포위하였고, 거란족을 추격해 온 몽고 및 두만강 유역에 있던 동진국의 군대와 연합하여 거란족을 토벌하였다. 이후 몽고는 자신들이 거란족을 몰아내 준 은인이라고 내세우면서 지나친 공물을 요구해 왔다.

마침 고려에 왔던 몽고 사신 일행이 귀국하던 길에 국경 지대에서 피살되자 이를 구실로 몽고군이 침입해 왔다(1231). 험경계 의주를 점령한 몽고군은 귀주성에서 박사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길을 돌려 개경을 포위하였다. 이에 고려는 몽고의 요구를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몽고군도 큰 소득 없이 물러갔다.

그러나 당시 집권자인 최우는 몽고의 무리한 조공 요구와 간섭에 반발하여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고, 장기 항전을 위한 방비를 강화하였다. 이에 몽고가 다시 침입해 왔으나 처인성(경기 용인)에서 장수 살리타가 김윤후에게 사살되자 퇴각하고 말았다. 이후 고려는 여러 차례의 몽고 침략을 끈질기게 막아 냈다.

강화도의 고려 정부는 주민들을 산성과 섬으로 피난시키고 항진과 외교를 병행하면서 저항하였다. 한편, 지배층들은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방어하겠다는 마음으로 팔만대장경을 조판하였다. 그러나 고려가 몽고의 침입에 끈질기게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일반 민중들이 용감하게 대항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노비와 부곡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몽고에 대항하여 싸웠다.

강화도의 고려 정부는 수로를 통하여 조세를 걷어 들여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장기간의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아울러 황룡사 9층 목탑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다. 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몽고와 강화를 맺으려는

주화과가 득세하여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전쟁은 끝이 났다. 몽고와 고려의 강화를 맺고 고려의 주권과 고유한 풍속을 인정한 것은 고려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정복하러던 계획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고려의 끈질긴 항전의 결과였다. 그러나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 대몽 항쟁에 앞장섰던 삼별초는 배중손의 지휘 아래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장기 항전을 계획하고 진도로 옮겨 용장성을 쌓고 저항하였고, 여.몽 연합군의 공격으로 진도가 함락되자 다시 제주도로 가서 김통정의 지휘 아래 계속 항쟁하였다. 이처럼 삼별초의 장기적인 항쟁이 가능하였던 것은 몽고군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리적 이점과 몽고에 굴복하는 것에 반발하는 일반 민중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6.1 원의 내정 간섭

몽고와 강화한 이후 고려의 자주성은 많은 손상을 입었다. 고려는 먼저 몽고의 일본 원정에 동원되었다. 몽고는 국호를 원으로 바꾼 후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원정을 단행하면서 고려로부터 선박, 식량, 무기를 비롯한 전쟁 물자와 함께 군대와 선원 등 인적 자원으로 징발하였다. 오랜 전란에 시달린 고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다. 원은 고종 말년에 화주(영흥)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직속령으로 편입하였으며, 자비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여 서경에 동녕부를 설치하였다. 또 삼별초의 항쟁을 진압한 뒤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고 목마장을 경영하였다. 동녕부와 탐라총관부는 충렬왕 때 다시 찾았으나 쌍성 총관부는 공민왕 때에 무력으로 회복할 때까지 원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고려는 오랜 항쟁의 결과, 원에 정복당했거나 속국이 되었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원의 부마국이 되었다. 고려의 국왕은 원의 공주와 결혼하여 원 황제의 부마가 되었고, 왕실의 호칭과 격이 부마국에 걸맞은 것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관제도 개편되고 격도 낮아졌다.

또 원은 일본 원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정동행성을 계속 유지하여 내정 간섭 기구로 삼았고, 군사적으로는 만호부를 설치하여 고려의 군사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을 파견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

한편, 원은 공녀라 하여 고려의 처녀들을 뽑아 갔으며, 금.은.베를 비롯하여 인삼.약재.매 등의 특산물을 징발하여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또한

매를 징발하기 위해서 응방이라는 특수 기관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의 내정 간섭과 경제적인 수탈은 고려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우선 자주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원의 압력과 친원파의 책동으로 인해 고려의 정치는 크게 왜곡되었다. 왕권이 원에 의지하여 유지됨은 물론 통치 질서가 무너져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6.2 공민왕 때의 개혁 정치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그에 의존한 고려의 왕권은 이전 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되었고 중앙 지배층도 개편되었다. 이전 시기부터 존속하였던 문벌 귀족 가문, 무신 정권기에 새로 등장한 가문, 원과의 관계를 통하여 성장한 가문 등이 이른바 권문세족으로서 새로이 자리 잡았다. 그들은 왕의 측근 세력과 함께 권력을 잡아 농장을 확대하고 양민을 억압하여 노비로 삼는 등 사회 모순을 격화시켰다. 이에 대하여 신진 관리들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관료의 인사와 농장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의 노력은 충선왕 때부터 시도되었다. 그러나 원의 간섭을 받고 있던 고려의 왕은 개혁을 철저히 추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14세기 중반에 이르러 공민왕은 원.명 교체를 이용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공민왕 때의 개혁은 대외적으로 반원 자주를 실현하고, 대내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은 기철로 대표되던 친원 세력의 숙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원의 간섭으로 바뀌었던 관제를 복구하였으며, 몽고 풍을 없애는 등 반원 자주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또한 무력으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으며, 더 나아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하여 요동 지방을 공략하였다.

공민왕의 이러한 반원 자주 정책은 친원파 권세가의 반발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이에 대외적인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권문세족들을 눌러야 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왕권을 제약하고 신진 사대부의 등장을 억제한 것과 있던 정방을 폐지하였다.

아울러 전민정도감을 설치하고 한미한 집안 출신의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권문세족들이 부당하

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이를 통하여 권문세족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였던 것이다.

한편, 성균관을 통하여 유학 교육을 강화하고 과거 제도를 정비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공민왕 때의 개혁은 권문세족들의 강력한 반발로 신돈이 제거되고, 개혁 추진의 핵심인 공민왕까지 시해되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결국 이 시기의 개혁은 아직 개혁 추진 세력이 결집되지 못한 상태에서 권문세족의 강력한 반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6.3 신진 사대부의 성장

무신 집권기 이래 지방의 향리 자제들을 중심으로 과거를 통하여 중앙의 관리로 진출한 신진 사대부 세력들은 원의 간섭과 측근 정치로 인하여 정치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다. 이들 중의 일부는 측근 세력으로 성장하여 권문세족이 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공민왕 때의 개혁 정치에 힘입어 지배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성리학을 수용하여 학문적 기반으로 삼고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려 하였다.

신진 사대부들은 주로 과거를 통하여 정계에 진출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반을 침해하면서 농장을 확대하는 권문세족과 충돌하게 되자 국가의 공적인 힘을 강화하여 그들의 비리와 불법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기반을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권문세족이 인사권을 쥐고 있어서 관직으로의 진출이 제한되었고, 과전과 녹봉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처지를 해결하기 위해 왕권과 연결하여 고려 후기의 각종 개혁 정치에 적극 참여하였으나, 아직 역부족이었다.

6.4 고려의 멸망

공민왕 때의 개혁 노력이 실패하자 고려 사회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었다. 권문세족들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대토지 소유를 확대해 나가면서,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 백성들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졌다.

한편, 북쪽으로부터 홍건적이 침입해 와 공민왕이 북주(안동)까지 피난하기도 하였고, 남쪽에서는 왜구의 노략질이 계속되어 해안 지방을 황폐하게 하였다. 이에 고려는 적극적으로 남과 북의 외적에 대한 토벌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는 큰 전과를 올려 국민의 신망을 얻

었다.

우왕 때에 이르러 권문세족이 토지 겸병을 확대하자 최영이 이성계를 위시한 사대부 세력의 뒷받침을 받아 이인임 일파를 축출하였으나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마침 명이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하자 최영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여(1388) 최영을 제거한 뒤,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여 본격적인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성계를 중심으로 모인 급진 개혁파(혁명파) 사대부 세력은 우왕과 창왕을 잇따라 폐하고 공양왕을 세운 후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과전법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성계와 급진 개혁파 사대부 세력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였다(1392).

3-3근세의정치

1. 근세의 세계

14세기 후반 중국에서는 명이 건국되어 전통적인 한문화가 회복되었다. 명대에는 강력한 전제 황권이 확립되고 서민 문화가 발전하였다. 명은 15세기 초 대외적으로 팽창하여 인도양과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국위를 떨쳤다. 이 때부터 중국인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후 명은 북쪽으로는 몽고족의 침입과 남쪽으로는 왜구의 약탈에 시달리게 되었다. 더구나 16세기 말 명의 국력은 더욱 쇠약해졌고 결국 17세기 중엽 만주에서 일어난 청에게 중국의 지배권을 넘겨 주었다.

서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이슬람 국가들이 여전히 번성하였다. 오스만 제국은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3대륙에 걸친 제국으로 발전하였고, 중앙아시아에서 건국된 티무르 제국과 이란 지방의 사파비 왕조도 한때 번성하였다. 인도에서는 무굴 제국이 세워져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하며 발전하였다. 이슬람 세력은 동남아시아에도 진출하여 오늘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일대에 이슬람교가 성행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14세기에 무로마치 막부가 수립되었다가 15세기 중엽에는 전국 시대가 되었다. 16세기 후반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였으나 조선 침략에 실패하고, 에도에 새 막부가 설치됨으로써 집권적 봉건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시대에 일본은 평화와 안정을 이루고 크게 발전하였으며, 특히 네덜란드와 교류하면서 서양 문물을 수용하였

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진출하여 침략의 거점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점차 서양 세력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한편, 14세기부터 16세기에 이르는 동안 서양에서는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근대 사회와 근대 문화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일어난 르네상스, 새로운 항로의 개척과 유럽 세계의 확대, 종교 개혁 등은 바로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큰 움직임이었다.

르네상스는 14~15세기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16세기에는 유럽 각지에 널리 퍼졌다. 이것은 그리스로마의 고전 문화의 부흥을 통하여 지성과 감성이 조화된 인간성을 추구하려는 인문주의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였다. 특히, 문학과 예술 분야가 두드러지게 발전하였고, 근대 과학이 태동하였다. 이것은 인간 중심적이며 현실적인 근대 문화의 창조 운동이기도 하였다.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를 중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항로의 개척은 유럽 세계를 확대시켰다. 그 결과 유럽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로부터 대서양으로 이동하였다. 유럽 각국은 무역과 함께 식민지 개척에 나섰다. 포르투갈은 주로 동양 무역을 독점하였고, 에스파냐는 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여 광대한 식민지를 개척하였다. 뒤이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도 앞다투어 해외로 진출하여 유럽 세력은 전 세계로 팽창하였다.

무역과 식민 활동의 결과 유럽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상업 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절대 왕정들은 중상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6세기에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 개혁은 루터파, 칼뱅파, 영국 국교회 등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성립시켰다. 이에 중세 크리스토퍼 세계의 통일이 무너졌다. 종교 개혁 운동은 사회 개혁 운동이나 민족 운동 등과 연결되어 전개되었으므로 그 영향이 매우 컸다.

한편, 신교의 성립에 자극을 받은 가톨릭 교회의 개혁 운동으로 예수회가 창설되었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동양과 신대륙에서 활동하며 로마 가톨릭을 널리 전파하였다.

2.1 조선의 건국

신진 사대부는 고려 말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독점한 권문세족의 전횡을 비판하고 사회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선 왕조를 건국하였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으로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고 본격적인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신진 사대부들 사이에는 사원 경제의 폐단과 토지 소유 등 사회 모순에 대한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다른 의견이 존재하였다. 이색, 정몽주 등 대다수의 온건 개혁파들은 고려 왕조의 틀 안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 하였다. 반면 정도전 등 급진 개혁파는 고려 왕조를 부정하는 역성혁명을 주장하였다.

급진 개혁파는 이성계 세력과 연결하여 혁명파를 이루었다. 혁명파는 창왕을 몰아내고 공양왕을 세우면서 정치적 실권마저 잡았다. 이들은 당시 최대의 쟁점이었던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과전법을 마련함으로써(1391)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어 혁명파는 역성 혁명을 반대하던 정몽주를 비롯한 온건 개혁파를 제거하고 도평의사사를 장악하였다. 뒤이어 이성계는 공양왕의 왕위를 물려받아 조선을 건국하였다(1392).

2.2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 정비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고려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새 국가가 하늘의 명을 받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세워졌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국호를 조선으로 선포하고, 교통과 국방의 중심지인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어 한양에 도성을 쌓고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 종묘, 사직, 관아, 학교, 시장, 도로 등을 설치하여 도읍의 기틀을 다졌다.

건국 초에는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왕권의 안정이 급선무였다. 초창기의 문물 제도를 갖추는 데 크게 공헌한 사람은 정도전이였다. 그는 민본적 통치 규범을 마련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또한 불씨잡변을 통하여 불교를 비판하였으며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시켰다. 태조 때의 정치는 태조와 그의 신임을 받은 정도전, 조준 등 소수의 재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하여 개국 공신 세력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태종은 지배 기구의 틀을 마련하였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이에 도평의사사를 없애고 의정부를 두면서 그 정치적 권한을 약화시키고, 정치 업무를 6조에서 7정부를 거쳐지 않고 곧바로 국왕에게 올려 국왕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게 하는 6조직체제를 채택하였

다. 또 언론 기관인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들을 견제하게 하였다. 한편, 왕실 외척과 종친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태종은 국가의 경제 기반을 안정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이에 양전 사업과 호구 파악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호폐법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원의 토지를 몰수하고 억울한 노비를 조사하여 해방시켰으며, 지방 권세가를 통제하여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단이 줄어들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병을 없애 왕이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면서 친위군사를 늘렸다.

2.3 유교 정치의 실현 노력

세종은 안정된 왕권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교 정치를 실현하였다. 먼저 궁중 안에 정책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두고 그들을 일반 관리보다 우대하였다. 뒤이어 의정부에서 정책을 심의하는 의정부 서사제로 정치 체제를 바꿔 왕의 권한을 의정부에 많이 넘겨주고, 훌륭한 재상들을 등용하여 정치를 맡기고자 하였다. 그러면서도 인사와 군사에 관한 일은 세종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다. 아울러 국가의 행사를 오례에 따라 유교식으로 거행하였으며, 사대부들에게도 주자가례의 시행을 장려하여 유교 윤리가 사회 윤리로 자리 잡게 하였다.

세종은 왕도 정치를 내세우고 유교적 민본 사상을 실현하려 하였다. 유능한 인재를 널리 발굴하였으며 청백리 제상을 등용하여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려 하였다. 특히, 중요한 사안의 결정에는 백성의 여론을 존중하여 조정의 신하는 물론 지방의 촌민에게서도 의견을 들으려 하였다.

2.4 문물 제도의 정비

세종 이후 병약한 문종이 일찍 죽고 나이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정치의 실권은 김종서, 황보인 등 재상에게 넘어갔다. 이에 수양 대군은 정변을 일으켜 김종서 등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통치 체제를 다시 6조직계제로 고쳤다. 또한 공신이나 언관들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하여 집현전을 없애고, 경연도 열지 않았으며, 그동안 정치 참여가 제한되었던 종친들을 등용하기도 하였다.

세조는 국가의 통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항구적으로 사용할 체계적인 법전을 편찬하려 하였다. 이에 역대의 법전과 각종 명령 등을 종합하여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성종은 건국 이후의 문물 제도의 정비를 마무리 지었다. 홍문관을 두어 관원 모두에게 경연관을 겸하게 함으로써 집현전을 계승하였으며, 정승을 비롯한 주요 관리들도 다수 경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경연이 단순한 왕의 학문 연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왕과 신하들이 함께 모여 정책을 토론하고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성종은 경국대전의 편찬을 마무리하여 반포함으로써 이후 조선 사회의 기본 통치 방향과 이념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조선 왕조의 통치 체제가 확립되었다.

3.1 중앙 정치 체제

조선의 중앙 정치 체제는 경국대전으로 법제화되었다. 관리들은 문반과 무반의 양반으로 구성되었고, 18등급으로 나뉘었다. 이들은 왕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거나 주요 관서의 책임자가 될 수 있는 당상관과 실무를 담당하는 당하관으로 구분되고, 자신의 등급에 걸맞은 관직을 맡았다.

조선 시대의 관직은 중앙 관직인 경관직과 지방 관직인 외관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경관직은 국정을 총괄하는 의정부와 그 아래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행정 기관인 6조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6조 아래에는 여러 관청들이 소속되어 업무를 나누어 맡음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한편, 의정부와 6조의 고관들이 중요 정책 회의에 참여하거나 경연에서 정책을 협의함으로써 각 관서 사이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3사는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 3사의 언론은 고관들은 물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한 여러 규정이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은 3사의 기능 강화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시대 정치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이 밖에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담당하는 춘추관, 최고 교육 기관인 성균관 등이 있었다.

3.2 지방 행정 조직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 지방관의 등급을 조정하고, 작은 군현을 통합하여

진국에 약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다. 고려 시대까지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향, 부곡, 소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켰다.

나아가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하였다.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수령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시켰다.

군현 아래에는 면(里)·통을 두었다.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편성하였고, 향민 중에서 각각의 책임자를 선임하여 수령의 명령을 받아 인구 파악과 부역 징발을 주로 담당하게 하였다.

한편, 수령의 비행을 견제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기 위하여 전국 8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고, 수시로 암행어사를 지방에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유향소(향청)를 운영하여 지방민의 자치를 허용하기도 하였다. 유향소에서는 좌수와 별감을 선출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만들고, 수시로 향회를 소집하여 여론을 수렴하면서 백성을 교화하였다. 서울에는 경계소를 두고 그 지방 출신의 중앙 고관을 책임자로 하여 유향소와 정부 사이의 연락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유향소를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3.3 군역 제도와 군사 조직

조선은 건국 초부터 군역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 조직을 강화하였다. 태종 이후 사병을 모두 폐지하고,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양인 남자는 군역을 지게 하는 양인개병제(良人皆兵制)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모든 양인은 현역 군인인 정군과 정군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보족)으로 편성되었다. 다만 현직 관료와 학생만 군역을 면제받았을 뿐 종친과 외척, 공신이나 고급 관료의 자제들도 고급 특수군에 편입되어 군역을 면제하였다. 정군은 서울에서 근무하거나 국경 요충지에 배속되었다.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교대로 복무하였으며, 복무 기간에 따라 품계와 녹봉을 받기도 하였다.

군사 조직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뉘었다. 중앙군은 궁궐과 서울을 수비하는 5위로 구성되고, 그 지휘 책임은 문반 관료가 맡았다. 중앙군은 정군을 중심으로 갑사나 특수병으로 구성되었다.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나뉘는데, 건국 초기에는 국방상의 요지인 영이나 진에 소속되어 복무하였다. 그러나 세조 이후에는 진관 체제를 실시

하여 요충지의 고을에 성을 쌓아 방어 체제를 강화하였다. 연해 각 도에는 수군을 설치하였다. 수군은 육군에 비하여 힘들고 위험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군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꺼렸다. 조선 초기에는 정규군 외에 일종의 예비군인 잡색군이 있었다.

한편, 군사 조직과 아울러 교통과 통신 체계도 정비되었다. 군사적인 위급 사태를 알리기 위한 봉수제가 정비되고, 물자 수송과 통신을 위한 역참이 설치되어 국방과 중앙 집권적 행정 운영이 한층 쉬워졌다.

3.4 관리 등용 제도

조선 시대의 관리는 과거와 취재, 음서, 천거를 통하여 선발되었다. 과거에는 문관을 뽑는 문과와 무관을 뽑는 무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고위 관원이 되기 위해서는 문과에 합격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문과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시험인 식년시와 부정기 시험인 별시가 있었다. 별시로는 증광시, 알성시 등이 있었다. 문과는 식년시의 경우 초시에서 각 도의 인구 비례로 뽑고, 2차 시험인 복사에서 33명을 선발한 다음 왕 앞에서 실시하는 전시에서 순위를 결정하였다.

문과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소과에 합격하여 생원이나 진사가 되어야 했으나 뒤에는 큰 제한이 없었다. 소과 합격자는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하급 관리가 되기도 하였다. 무과도 문과와 같은 절차를 거쳐 치러지는데 최종 선발 인원은 28명이었다. 기술관을 뽑는 잡과도 3년마다 치러지는데 분야별로 정원이 있었다.

한편, 재주가 부족하거나 나이가 많아 과거 응시가 어려운 사람들은 취재라는 특별 채용 시험을 거쳐 하급 실무직에 임명되었다.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친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따라서 양인이 과거에 합격하여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적 처지로 인하여 일반 백성들이 과거에 합격하여 관리가 되기는 쉽지 않았다.

한편, 과거를 거치지 않더라도 고관의 추천을 받아 간단한 시험을 치른 후 관직에 등용되거나 음서를 통하여 벼슬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천거는 대개 기존의 관리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 천거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음서의 혜택을 받는 대상도 고려 시대에 비하여 크게 줄

어들었고, 음서 출신은 문과에 합격하지 않으면 고관으로 승진하기도 어려웠다.

관리의 등용과 근무 평가, 승진, 좌천 등에 관한 인사 관리 제도도 관직 제도의 정비와 지배층의 증가에 따라 새롭게 정비되었다. 관리의 등용은 품계에 맞게 이루어졌다.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막기 위하여 상피제를 마련하였고,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품 이하 관리의 등용에는 서경을 거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고관들이 하급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승진 또는 좌천의 자료로 삼았다. 이로써 조선은 합리적인 인사 행정을 위한 제도가 갖추어져 관료적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

4.1 훈구와 사림

조선의 문물 제도가 정비되는 16세기를 전후하여 사림이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하였다. 사림들은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훈구 세력과 대립하였다.

훈구 세력은 세조의 집권 이후 공신으로서 정치적 실권을 세습적으로 장악하고, 왕실과 혼인하면서 성장한 세력이었다. 이들은 조선 초기에 관학파의 학풍을 계승하여 문물 제도 정비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15세기 중반 이후 중소 지주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리학에 투철한 지방 사족들이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사림이라 부른다. 이들은 훈구 세력이 중앙 집권 체제를 강조하던 데 비하여 향촌 자치를 내세웠고,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사림 세력은 중앙의 권력을 바탕으로 향촌 사회를 장악하려는 훈구 세력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자치적인 세력 기반을 쌓으면서 성리학적 향촌 질서를 세우려 하였다.

4.2 사림의 정치적 성장

향촌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굳히던 사림은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권력에 참여함으로써 훈구 세력을 견제하였다. 김종직과 그 문인들이 성종 때에 중앙에 진출하면서 사림은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과거를 통하여 중앙에 진출한 사림 세력은 주로 전랑과 3사의 연관직을 차지하고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였다.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

림 세력을 중용하였기 때문에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성종을 이어 즉위한 연산군은 훈구 대신과 사림을 모두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특히, 사림 세력의 분방한 언론 활동을 억제하였다. 이에 따라 두 차례에 걸친 사화(무오·갑자사화)를 겪으면서 영남 사림의 대부분이 몰락하였다. 연산군은 이후 언론을 극도로 탄압하고 재정을 낭비하는 등 폭압적인 정치를 단행하다가 결국 중종 반정으로 쫓겨났다(1506).

중종은 사림을 다시 등용하여 유교 정치를 일으키려 하였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조광조가 중용되면서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 이들은 3사의 연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방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신들의 반발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은 대부분 제거되었다(기묘사화).

그 뒤 중종이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다시 사림을 등용하기도 하였으나, 명종이 즉위하면서 외척끼리의 권력 다툼에 휩쓸려 사림 세력은 또다시 정계에서 밀려났다(을사사화). 이에 따라 명종 때에는 윤원형을 비롯한 왕실 외척인 척신들이 정국을 주도하였고, 사림의 세력은 크게 꺾였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사림 세력은 서원과 향약을 통하여 향촌 사회에서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4.3 봉당의 출현

선조가 즉위하면서 그동안 향촌에서 세력 기반을 다져 오던 사림 세력이 대거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림 세력은 척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되었다. 명종 때 이후 정권에 참여해 온 기성 사람들은 척신 정치의 과감한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반면에 명종 때의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새롭게 정계에 등장한 신진 사림들은 원칙에 더욱 철저하여 사림 정치의 실현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왕실의 외척이면서 기성 사림의 신망을 받던 심의겸과 당시 명망이 높고 신진 사림의 지지를 받던 김효원 사이의 대립으로 봉당이 이루어졌다. 김효원을 지지하는 세력은 동인이라 불렀고, 심의겸을 지지하는 세력은 서인이라 불렀다.

동인은 이황과 조식, 서경덕의 학문을 계승한 사

랍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신진 세력들이 참여하여 먼저 봉당의 형세를 이루었다. 반면에 서인은 이의와 성혼의 문인들이 가담함으로써 비로소 봉당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후 봉당은 정치적 이념과 학문적 경향에 따라 결집되어 정파적 성격과 학파적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원래 봉당은 신하들끼리 모여 정파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왕권이 강성하였던 조선 초기에는 용납될 수 없었다. 그러나 16세기에 왕권이 약화되고 사림정치가 전개되면서 그 부산물로 봉당이 생기고, 봉당 간의 다툼이 벌어졌다.

4.4 봉당 정치의 전개

동인과 서인이 나뉜 후 처음에는 동인이 우세한 가운데 정국이 운영되었다. 동인은 정여립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온건파인 남인과 급진파인 북인으로 나뉘었다.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진왜란이 끝난 뒤 북인이 집권하여 광해군 때까지 정국을 주도하였다.

광해군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 외교를 전개하면서 전후 복구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광해군의 지지 세력인 북인은 서인과 남인 등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하려 하였다. 광해군도 불안정한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영창 대군을 살해하고 인목 대비를 유폐하여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았고, 무리한 토목 공사를 벌여 재관적 약화와 민심의 이탈을 불러왔다. 결국 광해군과 북인은 서인이 주도한 인조 반정으로 몰락하였다(1623).

인조 반정 이후 봉당 정치는 더욱 진전되었다. 반정을 주도한 서인은 남인 일부와 연합하여 정국을 운영해 나갔다. 서인과 남인은 모두 학파적 결속을 확고히 한 정파들이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학문적 입장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비판적인 공존 체제를 이루어나갔다. 정치적 여론은 주로 서원을 중심으로 모아져서 자기 학파의 관리들을 통하여 중앙 정치에 반영되었다. 각 학파에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인물이 산림이란 이름으로 재야에서 그 여론을 주재하였다. 이후 현종 때까지는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과 연합하여 공존하는 구도가 유지된 채 봉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현종 때에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이 발생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1차 예송에서는 당시 정치적 실권을 장악

하고 있던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2차 예송에서는 꾸준히 세력을 키워 온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서인이 약화되고 남인 중심의 정국이 운영되었다. 이러한 남인 우세 속에 서인과 공존하는 정국은 숙종 초 경신환국이 일어나기까지 유지되었다.

4.5 봉당 정치의 성격

사람들은 강력한 훈구 세력과 대결할 때는 단결하였으나 훈구 세력이 무너진 뒤에는 자체 분열하여 학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봉당이 생기고 봉당 간에 치열한 정권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상대 봉당을 소인당으로 자기 봉당을 군자당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선배 사람이 물러간 뒤에는 봉당을 모두 군자당으로 보고 봉당 간의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봉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이어 공론이 중시되는 정국이 되어 합좌 기구인 비변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상대 세력을 견제하고 자기 세력을 옹호하면서 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3사 연관과 이조 전랑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졌다. 한편, 재야에서 공론을 주도하는 지도자로서 산림이 출현하였고, 서원이나 향교가 지방 사족의 의견을 모으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봉당이 적극적으로 내세운 공론도 백성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5.1 명과의 관계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명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여 정권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고, 중국 이외의 주변 민족과는 교린 정책을 취하였다. 이러한 사대 교린 정책은 상대 국가가 달라지더라도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일관되게 추진된 외교 정책이었다.

명과는 태조 때 정도전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요동 정벌의 준비와 여진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불편한 관계가 유지된 적도 있었지만, 태종 이후 양국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문화 교류가 활발하였다.

조선은 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대 정책을 견지하였으나 명의 구체적인 내정 간섭은 없었다. 매년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사절을 교환하였고 그때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절 교환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이었

지만, 이를 통하여 중국의 앞선 문화의 수입과 물품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결국 명에 대한 사대 외교는 왕권의 안정과 국제적 지위 확보를 위한 자주적인 실리 외교였고, 신진 문물을 흡수하기 위한 문화 외교인 동시에 일종의 공무역이었다.

5.2 여진과의 관계

조선은 영토의 확보와 국경 지방의 안정을 위하여 여진에 대하여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펴 나갔다. 우선 태조를 의하여 일찍부터 두만강 지역이 개척되었다. 이어 세종 때에는 4군과 6진을 설치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이후 여진에 대하여 조선은 회유와 토벌의 양면 정책을 취하였다. 조선은 여진족의 귀순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직을 주거나 정착을 위한 토지와 주택을 주어 우리 주민으로 동화시켰다. 또 사절의 왕래를 통한 무역을 허용하였고, 국경 지방인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두고 국경 무역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린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진족은 자주 국경을 침입하여 약탈을 자행하였고, 이 때마다 조선에서는 군대를 동원하여 이들을 정벌하였다.

한편, 여진족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자치적 지역 방어 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는 정책도 마련하였다. 삼남 지방의 일부 주민들을 대거 북방으로 이주시켜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 지역을 개발하는 사민 정책을 실시하였고, 토착민을 토관으로 임명하여 민심을 수습하려 하였다.

5.3 일본 및 동남아시아와의 관계

조선은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교류에는 교린 정책을 원칙으로 하였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계속된 왜구의 침략으로 해안 지방의 백성들이 산속으로 숨어들어 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이에 조선은 수군을 강화하고, 성능이 뛰어난 전함을 대량으로 건조하였다. 특히, 화약 무기를 개발하여 선박에 장착하는 등 왜구의 격퇴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침략과 약탈이 어려워진 왜구들이 평화적인 무역 관계를 요구해 오자, 조선은 일부 항구를 개방하여 제한된 무역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왜구의 약탈이 계속되자 이를 강력히 응징하기 위하여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토

벌하였다. 아울러 왜구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해안의 부산포, 체포(진해), 염포(울산) 등 3포를 개방하여 무역을 허용하고, 뒤이어 계해약조(1443)를 체결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락하였다. 또 조선 초에는 류큐, 시암, 자바 등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도 교류하였다. 이들 나라는 조공 혹은 진상의 형식으로 기호품을 중심으로 한 각종 토산품을 가져와서 옷, 옷감, 문방구 등을 회사품으로 가져갔다. 특히, 류큐와의 교역이 활발하였는데 불경, 유교 경전, 범종, 부채 등을 전해 주어 류큐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6.1 왜군의 침략

15세기에 비교적 안정되었던 일본과의 관계는 16세기에 이르러 대립이 격화되었다. 일본인의 무역 요구가 더욱 늘어난 데 대하여 조선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자 종종 때의 3포 왜란(1510)이나 명종 때의 을묘왜변(1555)과 같은 소란이 자주 일어났다. 이에 조선은 비변사를 설치하여 군사 문제를 전담하게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였고,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정세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16세기 말에 이르러 국방력은 더욱 약화되고, 일본 정세에 대한 인식에서도 봉당 간의 차이를 보이는 등 국론이 일치되지 않아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였다.

일본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한 뒤 철저한 준비 끝에 20만 대군으로 조선에 침략해 왔다(1592). 이를 임진왜란이라고 한다. 전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조선은 전쟁 초기에 왜군을 효과적으로 막아 낼 수 없게 되자 선조는 의주로 피난하여 명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6.2 수군과 의병의 승리

왜군의 침략 작전은 육군이 북상함에 따라 수군이 남해와 황해를 돌아 물자를 조달하면서 육군과 합세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라도 지역에서 이순신의 지휘 아래 전함과 무기를 정비하고 군사 훈련을 강화하며 왜군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던 수군은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둔 이후 남해안 여러 곳에서 연승을 거두어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이로써 곡창 지대인 전라도 지방을 지키고 왜군의 침략 작전을 좌절시킬 수 있었다.

한편, 육지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의병이 왜군과 싸워 향촌 사회를 지켜 냈다. 농민이 주축을 이룬 의병은 전직 관리와 사림 양반 그리고 승려들이 조직하고 지도하였으며, 향토

지리에 밝은 이점을 활용하고 그에 알맞은 전술을 구사하여 적은 병력으로도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전란이 장기화되면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의병 부대는 관군에 편입되어 조직화되었고, 관군의 전투 능력도 한층 강화되었다.

6.3 전란의 극복과 영향

수군과 의병의 승진으로 조선은 전쟁 초기의 수세에서 벗어나 반격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명의 원군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조.명 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하였으며, 관군과 백성들이 합심하여 행주산성 등에서 적의 대규모 공격을 물리쳤다. 이에 왜군은 서울에서 후퇴하여 경상도 해안 일대에서 장기전에 대비하였다.

한편, 조선도 전열을 정비하여 왜군의 완전 축출을 준비하였다.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군대의 편제와 훈련 방법을 바꾸었고, 속오법을 실시하여 지방군 편제도 개편하였으며, 화포를 개량하고 조총도 제작하여 무기의 약점을 보완하였다.

3년여에 걸친 명과 일본 사이의 휴전 회담이 결렬되자 왜군이 다시 침입해 왔다(1597). 이를 정유재란이라 한다. 그러나 조.명 연합군이 왜군을 직산에서 격퇴하고 이순신이 적선을 명량에서 대파하자 왜군은 남해안 일대로 다시 후퇴하였다. 결국 전세가 불리해진 왜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본국으로 철수하였다.

임진왜란은 국내외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국내적으로는 왜군에 의하여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하여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토지 대장과 호적이 대부분 없어져 국가 재정이 궁핍해졌고 식량이 부족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명첩이 대량으로 발급되어 신분제의 동요를 가져왔으며, 이몽학의 난과 같은 민란이 도처에서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군의 약탈과 방화로 불국사와 경복궁, 서적, 실록 등 기타 수많은 문화재가 손실되었고, 수만 명이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

임진왜란은 대외적으로 일본의 문화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일본은 조선에서 활자, 그림, 서적 등을 약탈해 갔고, 성리학자와 우수한 활자 인쇄공 및 도자기 기술자 등을 포로로 잡아가 일본의 성리학과 도자기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조선과 명이 일본과 싸우는 동안 북방의 여진족이 급속

히 성장하여 동아시아의 정세가 크게 변화하였다.

6.4 광해군의 중립 외교

임진왜란을 겪는 동안에 조선과 명의 힘이 약화된 틈을 타서 압록강 북쪽에 살던 건주위 여진의 추장 누르치치가 부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하였다(1616). 계속하여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후금은 명에 대하여 전쟁을 포고하였다. 이에 명은 후금을 공격하는 한편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광해군은 대내적으로 전쟁의 뒷수습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 외교 정책으로 대처하였다. 임진왜란 때 명의 도움을 받은 조선은 명의 후금 공격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새롭게 성장하는 후금과 적대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다.

이에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1만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명을 지원하게 하되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명명하였다. 결국 조.명 연합군은 후금군에게 패하였고 강홍립 등은 후금에 항복하였다. 이후에도 명의 원군 요청은 계속되었지만 광해군은 이를 적절히 거절하면서 후금과 친선을 꾀하는 중립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6.5 호란의 발발과 전개

인조 반정을 주도한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여 후금을 자극하였다.

후금은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쳐들어와 평안도 의주를 거쳐 황해도 평산에 이르렀다(1627). 이를 정묘호란이라고 한다. 철산 용골산성의 정봉수와 의주의 이립 등은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합세하여 적을 맞아 싸웠다. 후금의 군대는 보급로가 끊어지자 강화를 제의하였다. 본래 후금의 1차적인 목표는 중국 대륙의 장악에 있었고, 조선도 아직 적극적으로 항진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화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후 후금은 세력을 더욱 확장하여 국호를 청이라 고치고, 심양을 수도로 하였다. 군신 관계를 맺자는 청의 요구에 조선에서는 외교적 교섭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화론과 청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전쟁까지도 불사하자는 주전론이 대립하였다. 결국 대세가 주전론으로 기울자 청은 다시 대군을 이끌고 침입해 왔다(1636). 이를 병자호란이라 한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여 청군에 대항했으나 결국 청에 굴복하고 말았다. 이로써 조선은 청과 군신 관계를 맺게 되었고, 두 왕자와 강경한 척화론자들이 인질로 잡혀갔다.

청군의 침입은 왜군의 침입에 비하여 기간이 짧았고 지역적으로도 일부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청군이 거처간 서북 지방은 약탈과 살육에 의하여 황폐해졌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컸다. 그동안 조선에 조공을 바쳐 왔고, 조선에서도 오랑캐로 여겨 왔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에 거꾸로 군신 관계를 맺게 되었고, 임금이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는 사실은 조선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이에 따라 청에 대한 적개심과 문화적인 우월감으로 인하여 북벌론이 제기되었다.

6.6 북벌 운동의 전개

병자호란이 끝나고 청과 군신 관계를 맺은 조선은 겉으로는 청에 사대하는 형식의 외교를 추진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은밀하게 국방에 힘을 기울이면서 청에 대한 북벌을 준비하였다. 효종은 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던 송시열, 송준길, 이완 등을 중용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북벌을 준비했다. 그 뒤 숙종 때에도 청의 정세 변화를 이용하여 윤휴를 중심으로 북벌의 움직임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북벌을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북벌론은 폐전의 책임을 져야 할 처지였던 서인들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인조는 서인 중 일부 소상파들의 강경한 척화 주전론이 청의 침략을 불러들였다고 생각하여 일부 남인을 등용하였다. 이에 서인들은 북벌론을 주장하면서 반대 세력들의 진출을 견제하려 했던 것이다.

3-4정치상황의변동

1. 근대의 세계

16세기 이후 유럽에서는 근대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즉 절대 왕정, 시민 혁명,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근대 유럽 세계가 확립되었다. 지방 분권적인 봉건 체제가 무너지면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추구하는 절대 왕정 국가가 성립하였다. 절대 왕정은 관료제와 상비군을 정비하였고, 이를 위하여 중앙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식민지 획득에 힘썼다.

절대 왕정에 뒤이은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은 근대 사회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시민 혁명은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명예 혁명에서 시작하여 미국의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다. 이 운동은 경제적으로 성장한 근대 시민 계급이 중심이 되어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국가 권력을 봉건 세력으로부터 시민에게 넘긴 일련의 정치 변혁으로서,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는 것이었다.

산업 혁명은 18세기에 자본, 노동력, 자원, 해외 시장을 갖춘 영국에서 시작하여 19세기에는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어 자본주의 사회를 확립시켰다. 한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연 과학이 발달하였다. 지속적인 발명과 기술의 혁신으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해졌다. 또한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세속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가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서양의 근대화는 상대적으로 동양 사회에 위협을 주었다. 산업 혁명이 확산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자 국력을 증강시킨 서양의 열강들은 후진 지역으로의 진출을 꾀하였다. 이에 비하여 그동안 번영을 자랑하였던 청을 비롯한 아시아의 전통 왕조들은 내부적인 취약성으로 인하여 점차 쇠약해져서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서양 열강의 아시아 침략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위협으로서,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을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만들어 원료의 공급지와 상품 시장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열강의 도전에 직면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는 각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민족 운동과 함께 개혁을 통하여 자강을 달성하려는 개화 운동을 추진하였다. 중국에서의 태평천국 운동과 양무 운동, 일본에서의 메이지 유신, 인도에서의 세포이 항쟁과 스와라지 운동 등은 그러한 움직임이었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각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민족 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무력을 앞세운 서양 열강에게 마침내 복속되어 대부분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다만 일본만은 서양 열강과 타협하여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끼게 되었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식민지로 전락하면서도 근대적 제도의 도입과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근대화의 길이 아니라 식민지 체

제로의 편입 과정이었기 때문에 동양의 근대화는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2.1 정치 구조의 변화

봉당 정치가 전개되면서 정치 구조 면에서도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고, 언론 3사의 기능이 바뀌는 등 여러 변화가 나타났다. 비변사는 16세기 중종 초에 여진족과 왜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이 때에는 국방 문제에 정통한 재상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임시 회의 기구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맞아 국가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위 관원들이 합의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자 비변사의 구성원이 확대되고 기능이 강화되었다. 비변사의 구성원은 3정승을 비롯한 고위 관원들로 확대되었고, 그 기능도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재정, 사회, 인사 문제 등 거의 모든 정무를 총괄하였다. 전란이 끝난 뒤에도 폐허의 복구와 사회 경제적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봉당 간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비변사의 구성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자 왕권이 약화되고 의정부와 6조 중심의 행정 체계도 유명무실해졌다. 특히,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비변사가 세도 정치의 중심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3사의 언론 기능도 더욱 강화되어 각 봉당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기도 하였다. 3사는 공론을 반영하기보다는 상대 세력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자기 세력의 유지와 상대 세력의 견제에 앞장서고 있었다. 아울러 이조와 병조의 전랑들도 중하급 관원들에 대한 인사권과 자기 후임자를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기 세력을 확대하고 상대 세력을 몰아내는 데 앞장섰다. 이러한 3사의 언론 기능과 전랑의 권한은 봉당 간의 대립을 격렬하게 만드는 장치로 인식되어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를 거치면서 혁파되었다.

2.2 군사 제도의 변화

5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선 초기의 중앙군은 16세기 이후 균역의 대립제가 일반화되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임진왜란 초기에 어이 없는 패전을 경험한 조정에서는 새로운 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왜군을 물리치는 데 효과적인 편제와 군사 훈련 방식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훈련도감의 군병은 삼수병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장기간 근무를 하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상비군으로서 의무병이 아닌 직업 군인의 성격을 갖는 군인이었다. 훈련도감에 이어 대외 관계와 국내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군영이 더 설치되었다.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등이 설치되었고, 숙종 때에 금위영이 추가로 설치되어 17세기 말에는 5군영 체제가 갖추어졌다.

한편, 봉당 정치기에 군영은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인조 반정과 뒤이은 이괄의 난을 경험한 뒤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서인은 또 다른 군사적 도전을 막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장악하는 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새로운 군영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장악하였던 것이다.

지방군의 방어 체제도 변화하였다. 조선 초기에 실시되던 진관 체제는 많은 외적의 침입에는 효과 없었다. 이에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제승방략 체제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임진왜란 중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다시 진관을 복구하고 속오법에 따라 군대를 편제하는 속오군 체제로 정비하였다.

속오군은 위로는 양반으로부터 아래로는 노비에 이르기까지 편제되어,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향촌 사회를 지키다가 적이 침입해 오면 전투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양반들이 노비와 함께 속오군에 편제되는 것을 회피함에 따라 상민과 노비들만 남게 되었다.

2.3 수취 제도의 개편

경제 구조의 변동과 신분제의 동요에 따라 수취 제도도 개편되었다. 지주제가 강화되어 가는 속에서 다수의 농민은 토지를 잃고 전호나 일노동자로 전락하였으며, 과중한 수취로 인하여 생존조차 어려운 지경이었다. 이에 조선 정부에서는 수취 제도를 개혁하여 농민의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농민들의 불만 해소와 사회 안정을 도모하였다. 결국 전제는 영정법, 공납은 대동법, 균역은 균역법으로 바뀌어 가난한 농민들의 부담은 줄이는 대신 지주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취 제도가 개편되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농민의 부담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또한 향촌 지배 방식의 변화에 따라 수령과 향리의 높은 농민 수탈도 크게 늘어났다. 사족의 향촌 자치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사족을 통하여 향촌을 지배하던 방식이 수령과 향리 중심의 지배 체

제로 바뀌면서 이들의 농민 수탈이 더욱 심해졌다. 한편, 농민들의 향촌 사회 이탈을 막고 거주지에 묶어 두기 위하여 일종의 신분증인 호패를 착용하도록 하는 호패법을 다시 강화하고,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 상호 감시하게 하는 오가작통제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3.1 봉당 정치의 변질

숙종 때에 이르러 봉당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던 봉당 정치 형태가 무너졌다. 정국을 주도하는 봉당과 견제하는 봉당이 서로 교체됨으로써 정국이 급격하게 전환하는 환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특정 봉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대두되었다.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은 정책의 수립과 상대 봉당의 탄압 과정에서 노장 세력과 신진 세력 간에 갈등이 깊어지면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다. 이후 노론과 소론은 남인과 정국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였고, 남인이 정계에서 완전히 밀려난 뒤에는 노론과 소론 사이의 대립으로 정국의 반전이 거듭되었다.

이러한 환국을 왕이 직접 나서서 주도함에 따라 왕실 외척이나 종실 등 왕과 직결된 집단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다. 또한 3사와 이조 전랑은 환국이 거듭되는 동안 자기 당의 이익을 직접 대변하는 역할을 하여 정치적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에 정치 권력이 고위 관원에게 집중되면서 그들의 합좌 기구인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동향은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바탕으로 일어났다. 17세기 후반 이후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정치 집단 사이에서 상업적 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를 독점하려는 경향이 커졌다. 정치적 쟁점도 예론과 같은 사상적인 문제에서 군사력과 경제적 확보에 필수적인 군영을 장악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한편, 향촌 사회에서는 지주제와 신분제의 동요에 따라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가 어렵게 되어 봉당 정치의 기반도 무너지게 되었다.

3.2 탕평론의 대두

봉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정치 집단 간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고 왕권 자체도 불안하게 되었다. 이에 강력한 왕권을 토대로 국왕이 정치의 중심에서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이 제기되었다.

숙종은 정치적 균형 관계를 재정립할 목적으로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군왕과 신하가 한마음으로 절의와 덕행을 숭상하면서 인사 관리를 공정하게 한다면 봉당 사이의 갈등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숙종의 탕평책은 명목상의 탕평론에 지나지 않아 균형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일관하여 환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 때의 잦은 환국은 숙종 말에서 경종에 이르는 동안에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이 대립하는 지경까지 발전하였고, 경종 때에는 왕세제(영조)의 대리청정 문제로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3.3 영조의 탕평 정치

영조는 즉위 직후 탕평의 교서를 발표하여 어지러운 정국을 바로잡으려 했으나 자신이 노론과 소론을 빈말아 등용하여 오히려 정국을 더욱 어지럽게 하였다. 소론과 남인의 일부 경경과는 영조의 정통을 부정하고 노론 정권에 반대하여 이인좌의 난을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영조는 이인좌의 난을 계기로 봉당 간의 관계를 다시 조정하여 왕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였다. 이에 봉당을 없앨 것을 내세우며 왕이 내세우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봉당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론의 주체자로서 인식되던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본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아울러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하고, 3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게 해 주던 관행을 없앴다(1741).

영조가 탕평 정치를 실시하면서 왕은 정국의 운영이나 이념적 지도력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부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봉당의 정치적 의미는 차츰 없어졌다. 이에 정치 권력은 왕과 탕평파 대신 쪽으로 집중되었다.

정국이 안정되자 영조는 민생 안정과 산업 진흥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균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균역법을 시행하였고(1750), 군영을 정비하여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세 군문이 도성을 나누어 방위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특히,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엄격하

게 시행하였다. 이러한 제도와 권력 구조의 개편 내용을 정리하여 속대전을 편찬함으로써 법전 체계도 재정리하였다.

영조의 탕평책이 봉당 정치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강력한 왕권으로 봉당 사이의 치열한 다툼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것에 불과하였다. 한때 탕평의 원리에 의하여 노론과 소론이 공존하였으나 소론 강경파가 자주 변란을 일으키면서 소론의 정치적 입장은 약화되고 노론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3.4 정조의 탕평 정치

사도 세자의 죽음과 이를 둘러싼 시파와 벽파 간의 갈등을 경험한 정조는 영조 때보다 더욱 강력한 탕평책을 추진하였다.

정조는 각 봉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을 추진하여 영조 때에 세력을 키워 온 척신·환관 등을 제거하였다. 이에 영조 때의 탕평파 대신들을 엄격하게 비판하였던 노론과 소론의 일부와 그동안 정치 집단에서 배제되었던 노인 계열이 중용되었다.

궁극적으로 봉당을 없애고자 했던 정조는 각 봉당의 입장을 떠나 의리와 명분에 합치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중용하여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또한 규장각을 봉당의 비대화를 막고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 기구로 육성하였다. 아울러 스스로 초월적 군주로 군림하면서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들을 양성하고 재교육시키려 하였다. 특히,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을 재교육시키는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한편, 정조는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각 군영의 독립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병권을 장악함으로써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더 나아가 수원으로 사도 세자의 묘를 옮기고, 화성을 세워 정치적 군사적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공인을 유지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화성 행차 시 일반 백성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이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였다.

정조는 수령이 균형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여 지방 사림의 영향력을 줄이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지방 사족의 향촌 지배력을 억제하고 백성에 대한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하였다.

4.1 세도 정치의 전개

정조의 탕평 정치로 말미암아 왕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은 결국 19세기 세도 정치의 빌미가 되었다. 정조가 죽은 후 권력의 핵심인 왕이 탕평 정치기에 행하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이 다시 깨지고 몇몇 유력 가문 출신의 인물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던 것이다.

순조가 11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영조의 계비 정순 왕후가 수렴정정을 하면서 정조 때 정권에서 소외되었던 노론 벽파 세력이 정국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신유박해를 이용하여 정조가 규장각을 통하여 양성한 인물들을 대거 몰아냈다. 또 장용영을 혁파하고 훈련도감을 정상화시켜 이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곧 정순 왕후가 죽자 벽파 세력이 퇴조하고, 순조의 장인 김조순을 중심으로 하는 안동 김씨 일파의 세도 정치가 전개되었다. 김조순은 반남 박씨와 풍양 조씨 등 일부 유력 가문의 협력을 얻어 정국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곧 정순 왕후가 죽자 벽파 세력이 퇴조하고, 순조의 장인 김조순을 중심으로 하는 안동 김씨 일파의 세도 정치가 전개되었다. 김조순은 반남 박씨와 풍양 조씨 등 일부 유력 가문의 협력을 얻어 정국을 주도하였다.

안동 김씨에 의한 세도 정치기에도 순조는 나름대로 국정을 주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을 뒷받침해 줄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순조 말년에는 효명 세자가 대리청정을 통하여 세도가들을 견제하고 권력 집단을 결집하려 했으나 갑자기 죽음으로써 이마저 실패하였다. 효명 세자가 죽은 뒤 김조순 가문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권력 집단을 재정립하였다.

현종이 즉위하면서 현종의 외척인 풍양 조씨 가문이 한때 득세하였으나 철종 때에 이르러 안동 김씨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였다. 결국 안동 김씨 중심의 세도 정치는 흥선 대원군이 정국을 주도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4.2 세도 정치기의 권력 구조

세도 정치기에는 봉당은 물론 탕평파나 반탕평파 같은 정치 집단 사이의 대립적인 구도도 없어지고, 중앙 정치를 주도하는 정치 집단은 소수의 가문 출신으로 좁아지면서 그 기반이 축소되었다. 유력한 가문들은 왕실 외척이거나 산림 또는 관료 가문의 성격을 함께 띠고 있었다. 이들은 서로 연합하거나 대립하면서 인척 관계로 얽혀 하나의 정치 집단을 이루어 권력과 이권을 독점하였다.

한편, 권력 구조에서도 정2품 이상의 고위직만이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고, 그 아래의 관리들은 언론 활동과 같은 정치적 기능을 거의 잃은 채 행정 실무만 맡게 되었다. 따라서 정치 기구의 골격

을 이루어 온 의정부와 6조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는 이름만 남게 되었고, 실질적인 힘은 비변사로 집중되었다. 비변사에서도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는 대개 유력한 가문 출신 인물들이 차지하였고, 이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기도 하였다.

4.3 세도 정치의 폐단

19세기의 세도 정권은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위기 의식을 가지기는 했으나, 이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만한 능력도 의지도 가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사회 모순을 정면으로 다루는 것을 피하면서 새로운 사회 세력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

세도 정권은 19세기의 상업 발달과 서울의 도시적 변영에 만족하고, 정조가 등용하였던 재야 세력 즉 남인, 소론, 지방 선비들을 권력에서 배제하여 사회 통합에 실패하였다. 또 지방 사회에서 성장하던 상인, 부농들을 통치 집단 속으로 포섭하지 못하고 그들을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지방 수령의 자리를 상품화하여 팔기도 하였다.

또한 지방 사족을 배제한 채 수령이 절대권을 갖고 향리와 향임을 이용하여 조세를 견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부정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었다. 더구나 자연 재해가 잇따라 기근과 질병이 널리 퍼지고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농민의 조세 부담은 더욱 무거워져 농촌 사회의 불만은 극에 달하였다.

세도가들은 오랫동안 서울의 도시적 분위기에서 살면서 세련된 도시 귀족의 체질을 지녔고, 규장각에서 학문을 닦은 인물도 많았다. 그러나 그들의 학문은 권력을 잡은 후 차츰 고증학에 치우쳐 개혁 의지를 상실하였고,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방 사회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5.1 청과의 관계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에 대하여 표면상 사대 관계를 맺고 사신들이 왕래하면서 교역을 활발하게 하였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청에 대한 적개심이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북벌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당시의 북벌론은 실현 가능성이 적었고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었지만, 전란 후의 민심을 수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시기 청은 중국 대륙을 장악한 뒤 국력이 크게 신장되고, 중국의 전통 문화를 보호 장려하고

서양의 문물까지 받아들여 문화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우리나라의 사신들은 귀국 후 기행문이나 보고서를 통하여 변화하는 청의 사정을 전하였고, 천리경, 자명종, 화포, 만국지도, 천주실의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문물을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학자들 중에도 청을 무조건 배척하지만 말고 우리에게 이로운 것은 적극적으로 배우자는 북학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한편, 청은 중국 대륙을 차지한 후에도 그들의 본거지였던 만주 지방에 관심을 기울여 이 지역을 성역화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부가 두만강을 건너 인삼을 캐거나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청과 국경 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하여 정계비를 세웠다(1712).

이 정계비에서 양국 간의 국경은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19세기에 이르러 토문강의 위치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국 간도는 우리가 불법적으로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간도 협약(1909)에 따라 청의 영토로 귀속되고 말았다.

5.2 일본과의 관계

임진왜란으로 침략을 받은 조선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쓰시마 섬 도주를 통하여 조선에 국교를 재개하자고 요청해 왔다. 조선은 막부의 사정을 알아보고 전쟁 때 잡혀간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유정(사명당)을 파견하여 일본과 강화하고 조선인 포로 7,000여 명을 데려왔다(1607). 곧이어 일본과 기유약조를 맺어 부산포에 다시 왜관을 설치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교섭을 허용하였다(1609).

한편, 일본은 조선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도쿠가와 막부의 쇼군(將軍)이 바뀔 때마다 그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조선에 사절의 파견을 요청해 왔다. 이에 조선에서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걸쳐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통신사 일행이 많을 때에는 40여 명이나 되었고 일본에서는 국빈으로 예우하였다. 일본은 이들을 통하여 조선의 선진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자 하였다. 따라서 통신사는

외교 사절로서뿐만 아니라 조선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도 하였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는 삼국 시대 이래 우리의 영토였으나 일본 어민들이 자주 이 곳을 침범하여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숙종 때 안용복은 울릉도에 출몰하는 일본 어민들을 쫓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그 후에도 일본 어민들의 침범이 계속되자 19세기 말에 조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울릉도 경영에 나서 주민의 이주를 장려하였고,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여 관리를 파견하고 독도까지 관할하게 하였다.

4-1 고대의 경제

1.1 삼국의 경제 정책

삼국은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소국과 전쟁을 벌여 정복한 지역에는 그 지역의 지배자를 내세워 토산물을 공물로 수취하였다. 또한 삼국은 전쟁 포로를 귀족이나 병사에게 노비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군공을 세운 사람에게 일정 지역의 토지와 농민을 식읍으로 주었다.

삼국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각국은 피정복민을 노비처럼 지배하던 방식을 개선하려 하였다. 피정복민을 무리하게 전쟁에 동원하거나 가혹하게 물자를 수취하면 이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지배 정책의 변화로 삼국은 정복 지역에 대한 차별을 점차 줄여 갔지만 피정복민들은 일반 백성에 비하여 여전히 신분적 차별을 받고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졌다.

삼국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농민에게 거두고 그들을 군사로 동원하였다. 농민에 대한 과도한 수취는 농민 경제의 발전을 억누르고 농민을 토지로부터 이탈시켜 사회 체제가 동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이유로 삼국은 가능한 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였다. 대체로 노동력의 크기로 호를 나누어 곡물과 포를 거두었으며, 그 지역의 특산물도 거두었다. 왕궁, 성, 저수지 등을 만들기 위하여 국가에서 노동력이 필요하면 15세 이상의 남자를 동원하였다.

아울러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농업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과 구휼 정책을 시행하였다. 철제 농기구를 일반 농민에게 보급하여 소를 이용한 우경을 장려하고, 황무지를 개간하도록

권장하여 경작지를 확대하였으며, 저수지를 만들거나 수리하여 가뭄에 대비하였다. 흉수, 가뭄 등으로 흉년이 들면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거나 빌려 주었다. 고구려 고국천왕 때 시행한 진대법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또한 삼국은 기술이 뛰어난 노비에게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무기, 장신구 등을 생산하게 하였다. 그러나 점차 국가 체제가 정비되면서 무기, 비단 등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관청을 두고 여기에 수공업자를 배정하여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였다. 정부와 지배층의 필요에 따라 시장을 설치하였다. 삼국 시대는 농업 생산력의 수준이 낮아 수도 같은 도시에서만 시장이 형성되었다. 신라는 5세기 말 경주에 시장을 열어 물품을 매매하게 하였고, 6세기 초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도 설치하였다.

삼국의 무역은 대개 왕실과 귀족의 필요에 의하여 공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런 무역을 통하여 문물이 교류되었다.

삼국의 국제 무역은 4세기 이후 크게 발달하였다. 고구려는 남북조 및 유목민인 북방 민족과 무역을 하였다. 백제는 남중국 및 왜와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획득하기 이전에는 고구려와 백제를 통하여 중국과 무역을 하였으나, 한강 유역으로 진출한 이후에는 당항성을 통하여 직접 교역하게 되었다.

1.2 귀족의 경제 생활

삼국 시대의 귀족은 본래 스스로 소유하였던 토지와 노비 외에도 국가에서 준 녹음, 식읍, 노비를 가지고 있었다. 귀족은 전쟁에 참여하면서 토지와 노비 등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다. 귀족들은 이 토지와 노비를 통하여 곡물이나 배 등 필요한 물품을 얻었다.

귀족은 토지, 농기구, 소 등 생산 조건에서 농민보다 유리하였다. 그들은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일반 농민들은 가지기 어려운 철제 농기구와 소도 많이 소유하였다.

귀족은 노비와 그들의 지배 하에 있는 농민을 동원하여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작시키고, 그 수확물의 대부분을 가져갔다. 그리고 고리대를 이용하여 농민의 토지를 빼앗거나 농민을 노비로 만들어 재산을 늘려 갔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귀족들은 기와집, 창고, 마구간, 우물, 주방 등을 갖추고 높은 담을 쌓은 집에서 살면서 풍족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중국에서 수입된 비단으로 옷

을 만들어 입고 보석과 금으로 치장하였다. 그러나 왕권이 강화되고 국가 체제가 안정되면서 귀족들의 과도한 수취는 점차 억제되었다.

1.3 농민의 경제 생활

농민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부유한 자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였다. 농민들의 토지는 대체로 척박한 토지가 많았다. 퇴비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당시에는 대부분의 토지에서 계속 농사짓지 못하고 1년 또는 수년 동안 묵혀두어야 하였다.

농기구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과 일부분을 철로 보완한 것을 사용하다가 4세기에서 5세기를 지나면서 철제 농기구가 점차 보급되었다. 6세기에 이르러서는 널리 사용되었으며, 우경도 확대되었다.

국가는 농업을 장려하여 농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였지만 지나친 수취는 농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였다. 농민들은 국가와 귀족에게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곡물, 삼베, 파실 등을 내야 했고, 성이나 저수지를 쌓는 일, 삼밭을 경작하고 뽕나무를 기르는 일 등에 동원되었다.

또한 삼국 간의 전쟁이 치열해지기 전에는 귀족을 비롯한 중앙의 지배층이 군사력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지방 농민들은 전쟁 물자의 조달을 담당하거나 잡역부로 동원되었다. 그러나 삼국 사이의 대립이 치열해지면서 지방 농민도 전쟁에 군사로 동원되었고 전쟁 물자의 조달 부담도 더욱 증가하였다.

농민들은 이러한 수취 체제하에서도 생활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스스로 농사 기술을 개발하고 계곡 옆이나 산비탈 등을 경작지로 바꾸어 갔다. 이러한 노력으로 점차 농업 생산력은 향상되었지만 자연 재해를 당하거나 고리대를 갚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견딜 수 없게 되면 노비가 되거나 유랑민,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2.1 통일 신라의 경제 정책

삼국을 통일하면서 이전보다 넓은 토지와 많은 농민을 지배할 수 있게 된 신라는 피정복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삼국의 경쟁 시기와는 다른 경제적 조치를 취하였다.

조세는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를 수취하여 통일 이전보다 완화하였다. 공물은 촌락 단위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거두었다.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라는 조세, 공물 등을 거두기 위하여 촌주에게 몇 개의 촌락을 책임지게 하였다. 그들은 촌락마다 그 지역의 토지 크기, 인구, 수소와 말의 수, 특산물 등을 파악하는 문서를 만들고, 조세, 공물, 부역 등을 거두어 국가에 바쳤다. 촌주는 매년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3년마다 다시 작성하였다.

신라는 토지 제도를 바꾸어 식읍을 제한하고 녹음도 폐지하였으며, 왕토 사상에 의거하여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이전부터 시행해 오던 구휼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런 조치는 귀족에 대한 국왕의 권한을 강화하고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이었다.

2.2 통일 신라의 경제 활동

통일 후 신라의 경제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농업 생산력의 성장을 토대로 경주의 인구가 증가하고 상품 생산이 늘어나 이전에 설치된 동시만으로는 상품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서시와 남시를 설치하였다. 주나 소경과 같은 지방의 중심지 혹은 교통의 요지에도 시장이 생겨 물물 교환의 형태로 각자 필요한 물건을 좀 더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

통일 후 당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이 번성하였고, 공무역뿐 아니라 사무역도 발달하였다. 처음에는 일본과 교류를 제한하여 무역이 성행하지 못하였으나 8세기에 이르러 활발해졌다.

한편, 국제 무역이 발달하면서 이슬람 상인이 울산까지 와서 무역하였다.

8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무역 활동이 활발해져 장보고는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여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무역 확대로 산둥 반도와 양쯔 강 하류에 신라인의 거주지인 신라방, 신라인을 다스리는 신라소, 여관인 신라관, 절인 신라원이 만들어졌다.

2.3 귀족의 경제 생활

통일이 되면서 왕실과 귀족은 이전보다 풍족한 경제 기반을 가졌다. 왕실은 삼국의 경쟁 과정에서 새로 획득한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국가의 수입 중 일부를 왕실의 수입으로 삼았다.

국가는 왕실과 귀족들이 사용할 금은 세공품, 비단류, 그릇, 가구, 철물 등을 만들기 위한 관청을 정비하여 이에 속한 장인과 노비에게 물품을 만들어 공급하게 하였다.

귀족들은 식읍과 녹읍을 통하여 그 지역의 농민들을 지배하여 조세와 공물을 거두었고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통일 후에는 문무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고, 귀족의 반발을 누르면서 종래의 귀족들이 세습하였던 녹읍을 폐지하는 대신에 해마다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귀족은 경제적 특권을 제약받았지만 국가에서 준 토지와 곡물 이외에도 물려받은 토지, 노비, 목장, 섬도 가지고 있었다.

귀족들은 당이나 아라비아에서 수입한 비단, 양탄자, 유리, 그릇, 귀금속 등 사치품을 사용하였다. 당시 귀족들은 당의 유행을 따라 옷을 입을 정도였다. 귀족들은 경주 근처에 호화스러운 별장을 짓고 살았다. 그들은 필요한 물품을 노비에게 만들게 하여 사용하였고, 그 나머지는 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당이나 일본 등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2.4 농민의 경제 생활

통일 이후 사회 안정으로 농업 생산력이 늘어났으나 한계가 많았다. 당시는 시비법이 발달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경작할 수 없고, 1년 또는 몇 년을 묵혀 두었다가 경작하여야 하였다. 대체로 비옥한 토지는 왕실, 귀족, 사원 등 세력가가 가졌고, 농민의 토지는 대부분이 척박하여 생산량이 귀족의 것보다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많지 않았다. 따라서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려면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고 그 대신 수확량의 반 이상을 토지 소유자에게 주어야 하였다.

전세는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였지만 그 밖에 삼베, 명주실, 과실류 등 여러 가지 물품을 공물로 내고 부역도 많아 농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 군역에 나가면 농사지를 노동력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도 많았다.

조세 부담은 통일 이전보다 줄었으나 귀족이나 촌주 등 세력가에 의한 수탈은 줄어들지 않았다. 8세기 후반에 이르러 귀족이나 지방 유력자(호족)들이 토지 소유를 늘려 나가면서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점차 많아졌다. 토지를 상실한 농민은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거나 노비로 자신을 팔거나 때로는 유랑민이나 도적이 되었다. 고리대가 성행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량이나 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농민보다 어려운 형편이었다. 농민과 대체로 비슷한 생활을 하였으나 농민보다 더 많은 공물 부담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

노비들은 왕실, 관청, 귀족, 절 등에 속하여 있었다. 그들은 주인을 위하여 음식, 옷 등 각종 필수품을 만들고 일용 잡무를 하였으며, 주인을 대신하여 농장을 관리하거나 주인의 땅을 경작하였다.

2.5 발해의 경제 발달

발해의 수취 제도는 신라와 마찬가지로 조.콩.보리 등 곡물을 거두는 조세, 베.명주.가죽 등의 특산물을 거두는 공물, 궁궐.관청 등의 건축에 농민들을 동원하는 부역이 있었다. 발해의 귀족들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무역을 통하여 당의 비단, 서적 등을 수입하여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발해는 9세기에 이르러 사회가 안정되면서 농업, 수공업, 상업이 발달하였다.

농업에서는 기후 조건의 한계로 콩, 조, 보리, 기장 등을 재배하는 밭농사가 중심이었다. 철제 농기구가 널리 사용되고 수리 시설이 확충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도 지었다. 특히, 목축이나 수렵도 발달하여 돼지, 말, 소, 양 등을 길렀는데 솔빈부의 말은 주요한 수출품이 되었다. 모피, 녹용, 사향 등도 많이 생산되어 수출되었다.

어업도 발달하여 고기잡이 도구가 개량되었고 송어, 문어, 대게, 고래 등 다양한 어종을 잡았다. 수공업은 철.구리.금은 등 금속 가공업과 삼베.명주.비단 등의 직물업, 도자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달하였다. 철의 생산량이 상당히 많았고, 구리의 제련술도 뛰어나 좋은 품질의 구리를 생산하였다.

한편, 수도인 상경 용천부 등 도시와 교통 요충지에서는 상업이 발달하였다. 상품 매매에는 현물 화폐를 주로 썼으나 외국의 화폐도 함께 사용하였다.

발해는 당, 신라, 거란, 일본 등과 무역하였다. 이때 사신과 더불어 상인들이 동행하여 무역하였다. 당과는 해로와 육로를 이용하여 무역을 하였는데 당은 산동 반도의 덩저우에 발해관을 설치하고 발해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발해의 수출품은 주로 모피, 인삼 등 특산물과 불상, 자기 등 수공업품이었다. 수입품은 귀족들의 수요품인 비단, 책 등이었다.

발해는 일본과 외교 관계를 중시하여 무역을 활발히 전개하였는데 무역 규모도 커서 한 번에 수백 명이 오가기도 하였다.

4-2중세의경제

1.1 농업 중심의 산업 발전

고려는 제정의 토대가 되는 주요 산업인 농업을 소시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개간한 땅은 소작료를 일정 기간 면제하여 개간을 장려하고, 농민에게는 잡역 동원을 금지하여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였다.

제해를 당했을 때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고리대의 이자를 제한하였으며, 의창을 실시하는 등 농민 안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고려는 개경에 시전을 만들었고, 국영 점포를 열었다. 아를리 화폐처럼 유통되는 곡물이나 삼베를 대신하여 쇠, 구리, 은 등을 금속 화폐로 만들어 유통되는 등 상업 발전에 관심을 기울였다. 수공업은 관청에 기술자를 소속시켜 무기, 비단 등 왕실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형태였으며, 민간 기술자나 일반 농민을 동원하여 생산을 보조하게 하였다. 소(所)에서도 맥, 종이, 금, 은 등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여 공물로 바치게 하였다. 그러나 자급자족적인 농업 경제를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은 부진하였다.

1.2 국가 제정의 운영

고려는 신라 말의 문란한 수취 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제정 운영에 필요한 관청도 설치하였다. 고려는 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와 호구를 조사하여 토지 대장인 양안과 호구 장부인 호적을 작성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조세, 공물, 부역 등을 부과하였다.

이런 수취 제도를 기반으로 고려는 제정 운영의 원칙을 세우고 왕실, 중앙 및 지방 관리, 향리, 군인 등 국가와 관청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제정을 운영하는 관청으로는 호부와 삼사를 두었다. 호부는 호적과 양안을 만들어 인구나 토지를 파악 관리하였으며, 삼사는 제정의 수입과 관련된 사무만 맡고 실제의 조세 수취와 집행은 각 관청이 하였다.

제정은 관리의 녹봉, 일반 비용, 국방비, 왕실 경비 등에 지출하였다. 녹봉은 중앙과 지방의 문무관, 종실 등에게 지급하였다. 제정의 쓰임새는 왕실의 궁적 경비, 각종 제사 및 연등회나 팔관회의 비용, 건물의 건축이나 수리비, 왕의 하사품, 군선이나 무기의 제조비 등이었다. 특히, 국방비로 많은 비용이 들었다.

각 관청은 관청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받았으나 경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필요한 비용을 각 관청에서 스스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1.3 수취 제도

고려의 세금은 토지에서 거두는 조세, 집집마다 부과하는 공물, 장정의 수에 따라 부과하는 역이 있었다. 세금을 걷기 위하여 토지와 호구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호적과 양안을 만들었다.

조세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누고 비옥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였다. 거두는 양은 생산량의 10분의 1이었다. 거둔 조세는 각 군현의 농민을 동원하여 조창까지 옮긴 다음 조운을 통해서 개경의 좌.우창으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공물은 집집마다 토산물을 거두는 제도이다. 중앙 관청에서 필요한 공물의 종류와 액수를 나누어 주현에 부과하면, 주현은 속현과 향.부곡.소에 이를 할당하고, 각 고을에서는 향리들이 집집마다 부과하여 공물을 거두었다. 공물은 매년 내어야 하는 상공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거두는 별공이 있었다. 공물은 거두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 그 시기에 개경으로 운반하여 각 관청에 납부하였다. 공물은 조세보다 부담이 컸다.

역은 국가에서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동원하는 제도로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를 정남이라 하여 의무를 지게 하였다.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요역은 성곽.관아.제방의 축조, 도로 보수 등의 토목 공사, 광물 채취, 그 밖의 일에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어민에게 어염세를 걷거나 상인에게 상세를 거두어 제정에 사용하였다.

1.4 전시과 제도와 토지 소유

고려는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일찍이 태조 때에 역분전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준 토지였다. 경종 때에 공복 제도와 역분전 제도를 토대로 전시과 제도를 만들었다. 이 때는 관직의 높고 낮음과 함께 인품을 반영하여 토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전시과를 개정하여 관직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량도 재조정하였다. 그러나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문종 때에

현직 관료에게만 주도록 다시 조정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전시과 제도에 따라 문부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땀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이 때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만 갖는 토지였다.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관료에게 보수로 주던 과전과 달리 문벌 귀족의 세습적인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것은 공음전이었다.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료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이는 유서제와 함께 귀족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었다.

한인전은 6품 이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 토지인데, 이것은 관인 신분의 세습을 위한 것이다. 군인전은 군역의 대가로 주는 토지였다. 군인전은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하여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한편,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내장전을 두었다.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는 공해전을 지급하여 경비를 충당하게 하였고, 사원에는 사원전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매매, 상속, 기증, 임대 등이 가능한 사유지인 민전이 있었다. 민전은 귀족이나 일반 농민들이 상속, 매매, 개간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민전은 소유권이 보장되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토지였다. 민전의 소유자는 국가에 일정한 세금을 내어야 했다. 대부분의 경작지는 개인 소유지인 민전이었지만 왕실이나 관청의 소유지도 있었다. 점차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하여 세습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전시과 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다시 분배하여야 할 토지를 세습하는 것이 용인되면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토지가 점차 줄어들었다. 이런 폐단은 무신 정변을 거치면서 극도로 악화되었다. 전시과 제도가 완전히 붕괴되어 관료에게 토지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일시적으로 관리의 생계를 위하여 녹과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런 미봉책으로는 권문세족이 토지를 독점하는 폐단을 막을 수 없었다. 권문세족이 권력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토지와 몰락한 농민을 모아 농장을 형성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져 국가 재정은

고려 말에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2.1 귀족의 경제 생활

귀족의 경제 기반은 대대로 상속받은 토지와 노비, 관료가 되어 받은 과전과 녹봉 등이 있었다. 과전은 관료가 사망하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족의 생계 유지라는 명목으로 그 토지를 일부분이라도 물려받을 수 있었다. 공음전이나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후손들이 계속 관직에 나갈 수 없다면 경제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귀족들은 과전에서 생산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받았다. 자기 소유의 토지로 받았던 공음전이나 공신전에서는 대체로 수확량의 반을 거둘 수 있었다.

문종 때 완비된 녹봉 제도에 따라 현직에 근무하는 관리들은 쌀, 보리 등의 곡식을 주로 받았으나 때로는 베나 비단을 받기도 하였다. 녹봉은 1년에 두 번씩 녹패라는 문서를 창고에 제시하고 받았다.

이들은 자신의 소유지에서도 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자신의 소유지를 노비에게 경작시키거나 소작을 시켜 생산량의 반을 거두었다. 또 외거 노비에게 신품으로 매년 베나 곡식을 받았다. 이들은 권력이나 고리대를 이용하여 농민에게 토지를 빼앗기도 하고 헐값에 사들이거나 개간을 하여 토지를 늘렸다. 이렇게 늘어난 토지를 농장이라 하였고, 대리인을 보내 소작인을 관리하고 지대를 거두어 갔다.

이러한 수입을 기반으로 귀족들은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문벌 귀족이나 권문세족들은 큰 누각을 짓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 별장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외출할 때는 남녀 모두가 시중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다녔으며, 중국에서 수입한 차를 다방에서 즐기기도 하였다.

귀족들은 전문 기술자가 짜거나 중국에서 수입한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 당시 전문 기술자들이 만든 비단, 고운 모시 등은 왕실이나 귀족들이 쓰거나 중국에 수출도 하였다.

2.2 농민의 경제 생활

농민은 조상이 물려준 토지인 민전을 경작하거나 국·공유지나 다른 사람의 소유지를 경작하였다. 또 품팔이를 하거나 생녀자들이 삼베, 모시, 비단 등을 짜는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대개 농민은 소득을 늘리려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배웠다. 농민이 진전이나 황무지를 개간하면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작료나 조세를 감면해 주었다. 경작하던 주인이 방치해서 황폐해진 토지인 진전을 개간할 때 주인이 있으면 소작료를 감면해 주고, 주인이 없으면 개간한 사람의 토지로 인정해 주었다. 12세기 이후에는 연해안의 저습지와 간척지도 개간되어 경작지가 확대되어 갔다.

농업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수리 시설의 발달 외에도 호미와 보습 등의 농기구와 종자도 개량되었다.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고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지가 점차 줄어들어 계속해서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늘었다. 발농사는 2년 3작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고, 논농사도 고려 말에는 직파법 대신에 이앙법(모내기)이 남부 지방 일부에 보급될 정도로 발전하였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 농업 생산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권문세족들이 농민의 토지를 빼앗아 거대한 규모의 농장을 만들고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면서 농민들은 몰락하였다. 몰락한 농민은 권문세족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노비로 전락하였다.

2.3 수공업자의 활동

고려의 수공업은 관청 수공업, 소(所) 수공업, 사원 수공업, 민간 수공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려 전기에는 관청 수공업과 소 수공업이 중심이었으나 후기에는 사원 수공업과 민간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중앙과 지방에 있던 수공업 관청에서는 그 곳에서 일할 기술자들을 공장안에 올려 물품을 생산하게 하였으며, 농민을 부역으로 동원해 보조하게 하였다. 기술자들은 주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칼·창·활 등 무기류, 가구류, 금은 세공품, 견직물, 마구류 등을 제조하였다.

소재에는 금, 은, 철, 구리, 실, 각종 옷감, 종이, 떡, 차, 생강 등을 생산하여 공물로 납부하였다. 사원에서는 기술이 좋은 승려와 노비가 있어 베, 모시, 기와, 술, 소금 등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였다.

민간 수공업은 농촌의 가내 수공업이 중심이었다. 국가에서 삼베를 짜게 하거나 뽕나무를 심어 비단을 생산하도록 장려하였다. 이런 이유로 농민들은 직접 사용하거나 공물로 바치거나 팔기 위하여 삼베, 모시, 명주 등을 생산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유통 경제가 발전하면서 민간에서는 수공업품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관청 수공업에서 주로 생산하던 녹그릇, 도자기 등을 민간 수공업에서 거의 생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나무 제품, 명주, 삼베, 모시, 종이 등 다양한 물품을 민간에서 만들었다.

2.4 상업 활동

고려의 상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고려는 개경에 시전을 설치하여 관청과 귀족들이 주로 이용하게 하였고, 개경, 서경(평양), 동경(경주) 등의 대도시에는 관청의 수공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서적점·약점과 술·차 등을 판는 주점, 다점 등 관영 상점을 두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비정기적인 시장이 있어 도시 거주민이 일용품을 매매할 수 있었다. 매점 매석과 같은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도 두었다.

지방에서는 농민, 수공업자, 관리 등이 관아 근처에 모여들어 쌀, 베 등 일용품용 서로 바꿀 수 있는 시장을 열었다. 행상들은 이런 지방 시장에서 물품을 팔거나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베나 곡식을 받고 소금, 일용품 등을 판매하였다. 사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생산한 곡물과 승려나 사원 노비들이 만든 수공업품을 민간에 팔았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 도시와 지방의 상업 활동이 전기보다 활발해졌다. 개경도 인구가 증가하여 민간의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관청의 물품 구입량이 증가하여 시전 규모도 확대되고 업종별 전문화가 나타났다. 개경의 상업 활동은 점차 도성 밖으로 확대되었으며,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를 비롯한 항구들이 교통로와 산업의 중심지로 발달하였다.

지방 상업에서는 행상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조운로를 따라 미곡, 생선, 소금, 도자기 등이 교역되었으며, 새로운 육상로가 개척되면서 여관인 원이 발달하여 이 곳이 상업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고려 후기에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소금의 전매제를 시행하였다. 또한 관청, 관리, 사원 등은 강제로 농민에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도록 하고 조세를 대납하는 등 농민들을 강제적으로 유통 경제에 참여시켰다.

이 과정에서 상업 발달에 힘입어 부를 축적하여 관리가 되는 상인이나 수공업자도 생겨났다. 그러나 농민들은 지배층의 가혹한 수취와 농업 생산력의 한계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적극적으로 상

업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2.5 화폐 주조와 고리대의 유행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폐 발행과 사용이 논의되었다. 화폐를 발행하면 이익금을 재정에 보탬 수 있고, 정부가 경제 활동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성종 때에는 철전인 건원중보를 만들었으나 유통에는 실패하였다. 그 뒤 숙종 때에는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과 활구(은병)라는 은전을 만들어 강제적으로 유통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자급자족의 경제 활동을 하였던 농민들은 화폐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았으며, 귀족들도 국가가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이 때문에 동전 등은 도시에서도 주로 다점이나 주점 등에서만 사용되었으며 일반적인 거래는 여전히 곡식이나 삼베를 사용하였다.

왕실, 귀족, 사원은 고리대로 재산을 늘렸다. 생활이 빈곤했던 농민들은 부족한 식량을 구하거나 혼인, 상례 등에 쓰려고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토지를 빼앗기거나 노비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고리대가 성행하자 일정한 기금을 만들어 그 이자를 공적인 사업의 경비로 충당하는 보가 출현하였다. 보에는 학보, 경보, 팔관보, 제위보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보는 오히려 이자 취득에만 급급하여 농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폐해를 끼쳤다.

2.6 무역 활동

통일 신라 시대부터 서해안의 호족들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사무역이 고려에 들어와서는 국가의 통제를 받았다. 점차 중앙 집권화되면서 그동안 성행하던 사무역은 쇠퇴하고 공무역이 중심이 되었다. 국내 상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송, 요 등 외국과 무역도 활발해졌다.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는 대외 무역의 발전과 함께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고려의 대외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송과의 무역이었다. 고려는 서해안의 해로를 통하여 송으로부터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을 수입하는 대신에 종이, 인삼 등 수공업품과 토산물을 수출하였다. 특히, 고려의 종이와 먹은 질이 뛰어나 송의 문인들이 귀하게 여겼으므로 비싼 값으로 수출되었다.

거란과 여진은 은을 가지고 와서 농기구, 식량 등과 바꾸어 갔다. 일본과도 무역을 하였으나 송, 거란 등에 비하여 그리 활발하지는 않았다. 일본은 11세기 후반부터 내왕하면서 수는, 유황 등을 가지고 와 식량, 인삼, 서적 등과 바꾸어 갔다.

한편, 대식국인이라 불리던 아라비아 상인들도 고려에 들어와서 수는, 향료, 산호 등을 팔았다. 이들을 통하여 고려의 이름이 서방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원의 간섭기에는 공무역이 행해지는 한편 사무역이 다시 활발해졌다. 상인들이 독자적으로 원과 교역하면서 금, 은, 소, 말 등이 지나치게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날 정도였다.

4-3근세의경제

1.1 농본주의 경제 정책

조선은 고려 말의 파탄된 국가 재정과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확충과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농본주의 경제 정책을 내세웠다. 특히 위민, 애민을 중요하게 여기는 왕도 정치 사상에서 민생 안정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조선 건국을 주도하였던 신진 사대부들은 중농 정책을 표방하면서 농경지를 확대하고 농업 생산력을 증가시키며, 농민의 조세 부담을 줄여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그리하여 건국 초부터 토지 개간을 장려하고 양전 사업을 실시한 결과 고려 말 50여만 결이었던 경지 면적이 15세기 중엽에는 160여만 결로 증가하였다. 또한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농업 기술과 농기구를 개발하여 민간에 보급하였다.

반면 상공업자가 허가 없이 마음대로 영업하는 것을 규제하였다. 이것은 당시 사대부들이 물화의 수량과 종류를 국가가 통제하지 않고 자유 활동에 맡겨 두면 사치와 낭비가 조장되며 농업이 피폐하여 빈부의 격차가 커지게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당시 사회에서는 사농공상 간의 직업적인 차별이 있어 상공업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였다.

검약한 생활을 강조하는 유교적인 경제관으로 소비는 억제되었고, 도로와 교통 수단도 미비하였다. 자급자족적인 농업 중심의 경제로 인하여 화폐 유통, 상업업 활동, 무역 등이 부진하였다. 정부가 화폐를 만들어 보급 유통시키려 하였으나 약간의 저화와 동전만이 삼베, 무명, 미곡과 함께 사용되었다.

16세기에 이르러 국가의 농민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상공업에 대한 통제 정책은 해이해졌다. 이후 상공업에 대한 통제 체제가 무너져 가면서 국내 상공업과 무역은 자유로운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1.2 과전법의 시행과 변화

조선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관리들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토지 제도를 운영하였다. 고려 후기 이래로 누적된 토지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려 말에 만들어진 과전법은 국가의 재정 기반과 조선의 건국에 참여한 신진 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는데,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진전, 홀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입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15세기 후반에는 직전법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과전법의 경우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때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에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이어서 16세기 중엽에 직전법이 폐지되어 수조권 지급 제도가 없어졌다.

1.3 수취 체제의 확립

조선의 수취 제도는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 집집마다 부과되는 공납, 호적에 등재된 정남에게 부과되는 균역과 요역 등이 있다. 이것은 국가 재정의 토대를 이루었다.

조선 시대의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인 지주들은 소작 농민에게 그 세금을 대신 내

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세는 과전법의 경우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이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세종 때에 조세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진분6등법, 연분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조세는 쌀, 콩 등으로 냈다. 군현에서 거둔 조세는 강가나 바닷가의 조창으로 운반하였다가 전라도·충청도·황해도는 바닷길로, 강원도는 한강, 경상도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통하여 경창으로 운송하였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국경에 가깝고 특히 평안도는 사신의 내왕이 잦은 곳이라서, 그 지역의 조세는 군사비와 사신 접대비로 썼다.

공물은 고려처럼 각 지역의 토산물을 조사하여 중앙 관청에서 군현에 물품과 액수를 할당하면, 각 군현은 각 가호에게 다시 할당하여 거두었다. 공물에는 각종의 수공업 제품과 광물, 수산물, 모피, 과일, 약재 등이 있었다. 그런데 공물의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거나 생산지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 기준에 맞는 품질과 수량을 맞추기 어려우면 그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입해다가 납부하였다. 이 때문에 공물은 전세보다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담도 훨씬 컸다.

한편, 16세 이상의 정남에게는 균역과 요역의 의무가 있었다. 균역에는 일정 기간 군사 복무를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여야 하는 정군과 정군이 복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보인이 있었다. 양반, 서리, 향리 등은 관청에서 일하기 때문에 균역에 복무하지 않았다.

요역은 가호를 기준으로 정남의 수를 고려하여 뽑아서 성, 왕릉, 저수지 등의 공사에 동원하였다. 성종 때 정착하는 토지 8결을 기준으로 한 사람씩 동원하고 1년 중 동원할 수 있는 날도 6일이 내로 제한하도록 규정을 바꾸었으나 임의로 징발하는 경우도 많았다.

국가 재정은 조세, 공물, 역 이외에 염전, 광산, 산림, 어장, 상인, 수공업자 등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하였다. 국가는 재정을 균량미나 구휼미로 비축하고 나머지는 왕실 경비, 공공 행사비, 관리의 녹봉, 균량미, 빈민 구제비, 의료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4-4경제상황의변동

2.1 양반 지주의 생활

양반의 경제 기반은 과전, 녹봉 그리고 자신 소유의 토지와 노비 등이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은 지주였으며, 주수입원은 토지와 노비였다. 특히, 양반 소유의 토지는 비옥한 토지가 많았던 경상, 전라, 충청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규모가 커서 농장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양반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노비에게 직접 경작 시켰다. 그러나 토지의 규모가 커서 노비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할 수 없으면 그 주변 농민들에게 생산량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병작반수의 형태로 소작을 시켰다. 양반은 자기 토지가 있는 지역에 집과 창고를 지어 놓고 직접 노비를 감독하고 농장을 살피기도 하였지만 대개 친족을 그 곳에 거주시키면서 대신 관리하게 하였다. 때로는 노비만 파견하여 농장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농장은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더욱 증가하였다. 농장주들은 유망민들을 모아 자신 소유의 노비처럼 만들어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다. 양반들은 재산의 한 형태로 노비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 전기에 양반들은 10여 명에서 많게는 300여 명이 넘는 노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노비를 구매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자신이 소유한 노비가 출산한 자녀는 노비가 되는 법에 따라 노비 수를 늘리거나 자신이 소유한 노비를 양인 남녀와 혼인을 시켜 늘리기도 하였다.

양반은 노비에게 가사 일을 돌보게 하거나 농경에 종사시키고 옷감을 짜게 하였다. 다수의 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며 주인의 땅을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양반들은 이들 외거 노비에게 매년 신공으로 포와 돈을 거두었다. 이런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양반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2.2 농민 생활의 변화

조선 정부는 세력가들이 농민의 토지를 빼앗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농업을 권장하였다. 농민들도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한 결과 농민 생활은 이전보다 나아졌다.

정부는 개간을 장려하고, 각종 수리 시설을 보수 확충하는 등 안정적으로 농사지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사직설, 금양잡록 등 농서를 간행 보급하였다. 양반들도 간이 수리 시설을 만들고, 중국의 농업 기술을 도입하는 등 농업에 관심이 높았다. 이 시기에 이르러 고려 시대의 농업 기술이 개량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였다. 밭농사는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널리 행해졌으며, 논농사도 남부 지방에서 모내기가 보급되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모내기는 봄 가뭄에 따른 수리 문제 때문에 남부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었다. 시비법도 발달하여 밀 거름과 덧거름을 주게 되면서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지를 수 있었다. 쟁기, 낫, 호미 등 농기구도 개량되었다. 목화 재배도 확대되어 의생활이 개선되었으며, 약초와 과수 재배 등이 확대되었다.

이런 농업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농민 생활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지주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농민들이 자연 재해, 고리대, 세금 부담 등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를 팔고 소작농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들은 지주에게 소작료로 수확의 반 이상을 내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토지를 상실한 농민이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니다게 되자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잡곡, 도토리, 나무껍질 등을 가공하여 먹을 수 있는 구황 방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호패법, 오가작통법 등을 강화하여 농민의 유망을 막고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지주인 지방 양반들도 향약을 시행하여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려 하였다.

2.3 수공업 생산 활동

조선은 고려보다 관영 수공업 체제를 잘 정비하였다. 전문적인 기술자를 공장안에 등록시켜 서울과 지방의 각급 관청에 소속하게 하고, 이들에게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 공급하게 하였다. 관청에 등록된 장인(관장)들은 의류, 활자 인쇄, 화약, 무기, 문방구, 그릇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이들은 근무하는 동안에 식비 정도만 지급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판매하여 가게를 꾸렸다. 이 기술자들은 부역으로 동원되는 기간 이외에는 사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었다. 관영 수공업은 16세기에 들어와 부역제가 해이해지고 상업이 발전하면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관영 수공업자 이외에 민영 수공업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농민들을 상대로 농기구 등의 물품을 만들어 공급하였고, 양반의 사치품도 생산하였다. 이 밖에 농가에서 자급자족의 형태로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가내 수공업이 있었다. 의류로서 무명, 명주, 모시, 삼베 등이 생산되었는데, 특히

목화 재배가 확대 보급되면서 무명 생산이 점차 증가하였다.

2.4 상업 활동

조선은 고려보다도 상업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종로 거리에 상점가를 만들었다. 여기에 개경에 있던 시전 상인을 한양으로 이주시켜 장사하게 하는 대신에 점포세와 상세를 거두었다. 시전 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이들 시전 중에서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베, 무명을 파는 점포가 가장 번성하였는데, 후에 이를 육의전이라 하였다. 또한 이들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시서를 두었다.

15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장시는 서울 근교와 지방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달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농민들이 농업을 버리고 상업에 몰릴 것을 염려한 정부에서는 장시의 발전을 억제하였으나 일부 장시는 정기 시장으로 정착해 갔다.

16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장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보부상들이 장사에서 농산물, 수공업 제품, 수산물, 약재 등을 판매하여 유통시켰다.

한편, 정부는 조선 초기에 저화, 조선통보 등을 만들어 유통시키려 하였으나 부진하였다. 농민은 화폐로 쌀과 무명을 사용하였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와의 무역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명과는 사신들이 왕래할 때 하는 공무역과 사무역을 허용하였다. 여진과는 국경 지역에 설치한 무역소를 통하여 교역하였고, 일본과는 동래에 설치한 왜관을 중심으로 무역하였다. 그러나 국경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역은 엄격하게 감시를 받았는데, 이 때 주로 거래된 물화는 무명과 식량이었다.

2.5 수취 제도의 문란

16세기에 이르러 수취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폐단이 심해지고 지주 전호제가 일반화되면서 몰락하는 농민이 증가하였다.

공납에서는 중앙 관청의 서리들이 공물을 대신 내고 그 대가를 많이 챙기는 방납이라는 폐단이 나타났다. 방납이 증가할수록 농민의 부담도 증가하였다. 공물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농민이 도망을 하면 그 지역의 이웃이나 친척에게 대신 내게 하였다. 이 때문에 유망 농민이 급증하였다.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공납의 폐단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공물을 현물 대신 쌀로 걷는 수령도 나타났고, 이이와 유성룡 등은 공물을 쌀로 걷는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 농민 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고 요역 동원으로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자 농민들이 요역 동원을 기피하였다. 이에 농민 대신에 군인들을 왕릉 축조, 성곽 보수 등 각종 토목 공사에 동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군인들도 이런 힘든 군역을 기피하였다. 장기간 평화가 지속되면서 관청이나 군대에서 군역에 복무해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하는 방군수포와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대립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다. 이에 군포 징수제가 점차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군포 부담의 과중과 군역 기피 현상으로 도망하는 자가 늘어나면서 군적도 부실해졌다. 각 군현에서는 정해진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남아 있는 사람에게 그 부족한 군포를 부담시키자 남아 있는 농민도 더욱 생활이 어려워졌다.

환곡제는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곤궁한 농민에게 곡물을 빌려 주고 10분의 1 정도의 이자를 거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방 수령과 향리들은 정한 이자보다 많이 거두어 사적으로 사용하는 폐단이 나타났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농민 생활이 악화되어 각 지방에서 유민이 증가하였다. 유민들 중 일부는 도적이 되어 양반들과 중앙 정부로 바치던 물품을 빼앗기도 하였으며, 이들이 도성에까지 출현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 중에도 명종 때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한 임꺽정이 대표적이다.

1.1 농촌 사회의 동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농촌 사회는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수많은 농민들이 전란 중에 사망하거나 피난을 가고 경작지는 황폐화되었다. 게다가 기근과 질병까지 널리 퍼져서 농촌 생활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였지만 농민의 조세 부담은 경감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반 지배층은 정치적 다툼에 몰두하여 민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지배층에 실망한 농민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국가는 수취 체제를 개편하여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고 제정 기반을 확대하려 하였다. 그것은 전세 제도, 공납 제도, 군역 제도의 개편으로 나타났다.

1.2 전세의 정액화

양 난 이후 조선 정부의 가장 큰 어려움은 농경지의 황폐와 토지 제도의 문란이었다. 임진왜란 직전 전국의 토지 결 수는 150만 결이었는데 직후에는 30여만 결로 크게 줄었다. 이에 정부는 개간을 권장하면서 서둘러 경작지를 확충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조사 사업도 서둘렀다. 이것은 토지 대장인 양안에서 빠진 토지를 찾아내어 전세의 수입원을 증대시키려는 의도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정책으로는 농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없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줄여 주는 정책을 기대하였다. 이에 정부는 연분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이를 영정법이라고 한다(1635).

이러한 개편으로 전세의 비율이 이전보다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났다. 전세를 납부할 때 여러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 자연 소모에 대한 보충 비용 등이 함께 부과되었기 때문인데, 그 액수가 전세액보다 훨씬 많아 때로는 전세액의 몇 배가 되기도 하였다.

1.3 공납의 전세화

당시 농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던 것은 공납이었다. 특히, 방납의 폐해가 나타나면서 농민의 부담은 더욱 커져 갔다. 그리하여 건디지 못한 농민들은 농토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농민들의 토지 이탈은 농촌 경제의 파탄으로 인한 결과이지만, 일종의 조세 저항이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대동법은 농민 집집마다에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였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면적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 대동법의 실시로 과세의 기준은 종전의 가호에서 토지의 결 수로 바뀌었다. 따라서 농민들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을 납부하면 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었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란 어용 상인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공인들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농민들도 대동세를 내기 위하여 토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쌀, 베, 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후 대동법의 운영 과정에서 폐단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서 농민들은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4 군포 부담의 감소

양 난 이후 5군영의 성립으로 모병제가 제도화되자 군영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포를 내는 것으로 군역을 대신하는 수포군이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5군영은 물론 지방의 감영이나 병영까지도 독자적으로 군포를 징수하면서 장정 한 명에게 이중 삼중으로 군포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그들이 바치는 군포의 양도 소속에 따라 2필 또는 3필 등으로 달랐다. 임진왜란 이후 남숙이나 공명첩으로 양반이 되어 면역하는 자가 늘어나면서 군역의 재원은 점차 줄어들어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전국의 장정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자 군포의 부과량을 점차 늘릴 수밖에 없었다.

군역의 부담이 과중해지자 농민들은 도망가거나 노비나 양반으로 신분을 바꾸어 군역을 피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이것은 농민들이 군역 부과에 저항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마침내 군역법이 시행되었다. 이제 농민들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군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 이익과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란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군포 부담이 줄어들자 농민들의 군역 부과에 대한 저항도 다소 진정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토지에 부과되는 결작의 부담이 소작 농민에게 돌아가고, 군적 문란이 다시 심해지면서 농민의 부담은 다시 가중되었다.

2.1 양반 지주의 경영 변화

양반들은 양 난 이후 토지 개간에 주력하고 농민의 토지를 사들여 소유한 농토를 늘려 나갔다. 그리고 토지를 소작 농민에게 빌려 주고 소작료를 받는 지주 전호제로 경영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말에 이르러 일반화되었다.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지주 전호제도 변화해 갔다. 양반들은 양반과 지주라는 신분적이며 경제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소작료와 그 밖의 부담을 마음대로 강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소작인의 저항이 심해지자 소작인의 소작권을 인정하고 소작료도 낮추거나 일정액으로 정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지주 전호제가 지주와 전호 사이의 신분적 관계보다 경제적인 관계로 바뀌어 갔다. 대체로 양반들은 소작료를 거두어 생활하거나 이 소작료로 받은 미곡을 시장에 팔아 이득을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토지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토지 매입에 더욱 열을 올렸다. 그리하여 천석꾼, 만석꾼이라 불리는 지주들도 나타났다.

양반 중에는 물주로서 상인에게 자금을 대거나 고리대를 하여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변동 과정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몰락하는 양반도 나타났다.

2.2 농민 경제의 변화

정부가 수취 체제를 조정함에 따라 농촌 사회의 동요는 18세기에 이르러 다소 진정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수취 체제의 개편은 궁극적으로 양반 중심의 지배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농촌 사회의 안정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민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농민들은 황폐한 농토를 다시 개간하고 수리 시설을 복구하였으며,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기구와 시비법을 개량하고, 새로운 영농 방법을 시도하였다. 모내기법을 확대하여 벼와 보리의 이모작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켜 소득을 증대하였다. 이모작이 널리 행해지면서 보리 재배가 확대되었고, 더구나 논에서의 보리 농사는 대체로 소작료의 수취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작농들은 보리 농사를 선호하였다.

농민들은 농업을 경영하는 방식도 변화시켰다. 모내기법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을 덜 수 있게 되자 농민들은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지주들도 직접 경작하는 토지를 넓혔지만 자작농은 물론 일부 소작농도 더 많은 농토를 경작하여 재

산을 모을 수가 있었다. 광작 농업으로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 부농이 될 수 있었다.

또한 농민들은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여 가게 수입을 증가시켰다. 장시가 점차 증가하여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민들은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 등을 재배하여 팔았다. 특히, 쌀의 상품화가 활발하였다. 쌀은 이 시기에 이르러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나 장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었다. 쌀의 수요가 늘면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하였다.

소작 농민들은 좀 더 유리한 경작 조건을 얻어내기 위하여 지주에게 소작 쟁의를 벌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작권을 인정받아 지주가 함부로 소작지를 빼앗지 못하고, 소작료도 수확량의 반이나 내던 것에서 일정 액수를 곡물이나 화폐로 내도록 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소작농이라도 상품 작물을 재배하거나 소작권을 인정받고 소작료도 일정 액수만 내게 되면서 근면하고 시장 경제를 잘 이용하는 농민은 점차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런 농민 중에 토지를 개간하거나 매입하여 지주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농민이 소득을 증대시켜 부자가 될 수 있는 반면에 토지를 잃고 몰락해 가는 농민도 증가하였다. 부세의 부담, 고리채의 이용, 관혼상제의 비용 부담 등으로 견딜 수 없게 된 가난한 농민은 헐값에 자신의 토지를 내놓았다. 양반 관료, 토호, 상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여 늘려 갔다. 이런 현상은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어 토지를 잃은 농민은 농촌을 떠나야만 하였다.

광작이 가능해지면서 대부분의 농토를 소작시키고 일부 농토만 직접 경영하던 지주들도 소작지를 회수하여 노비를 늘리거나 머슴을 고용하여 직접 경영하였다. 이 때문에 소작 농민들은 소작지를 잃기는 쉬워지고 얻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농민은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농촌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도 품팔이로써 생계를 유지해야 하였다.

농촌을 떠난 다수의 농민은 도시로 옮겨가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임노동자가 되었으며, 일부 농민은 광산이나 포구를 찾아 임노동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광산, 포구 등에는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황해도와 수안, 충청도의 강경, 함경도의 원산 등이 그러한 곳이었다.

2.3 민영 수공업의 발달

조선 후기에는 상품 화폐 경제가 진전되면서 시장 판매를 위한 수공업 제품의 생산이 활발해졌다. 이 시기는 도시의 인구가 급증하여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대동법의 실시로 관수품의 수요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래의 관영 수공업이 쇠퇴하면서 발달하고 있었던 민영 수공업이 증가하는 수요를 거의 충족시켰다. 민간 수공업자들은 장인세만 부담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제품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관영 수공업장에서 만든 제품과 비교할 때 경쟁력도 높았다.

민간 수공업자의 작업장은 흔히 점(店)으로 불려져 철기 수공업체는 철점, 사기 수공업체는 사기점이라 하였다. 판매를 위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민영 수공업은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발달하였지만 점차 농촌에서도 나타났다.

농촌의 수공업은 지금까지 자급자족을 위한 부업의 형태로 제조하였으나 점차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상품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늘었고, 더 나아가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농촌에서는 주로 옷감과 그릇 종류가 생산되었다.

그런데 민간 수공업자들은 대체로 작업장과 자본의 규모가 소규모여서 원료의 구입과 제품의 처분에서 상업 자본의 지배를 받았다. 대부분 공인이나 상인들에게 주문을 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선대제가 성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공업자들은 상업 자본에 예속되었다. 특히 종이, 화폐, 철물 등의 제조 분야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수공업자 가운데서도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직접 판매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2.4 민영 광산의 증가

광산은 본래 정부가 독점하여 필요한 광물을 채굴하였다. 그런데 17세기에 이르러 허가를 받은 민간인에게 정부의 감독 아래 광물을 채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민간인의 광물 채굴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으나 활발하지는 않았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국가의 감독을 받지 않고 민간인이 광물을 자유롭게 채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후 민간인에 의한 광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민영 수공업의 발달에 따라 그 원료인 광물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금, 은, 동 등의 채굴을 촉진시켰다. 특히, 청과의 무역으로 은의 수요가 늘

어나면서 은광의 개발이 활기를 띠었다. 그리하여 17세기 말에는 거의 70개소의 은광이 개발되었고, 18세기 말에는 상업 자본이 채굴과 제련이 쉬운 사금 채굴에 몰리면서 금광의 개발도 활발해졌다. 광산의 개발은 이득이 많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몰래 채굴하는 이른바 잠채도 성행하였다

조선 후기의 광산 경영은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대개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업자와 채굴 노동자, 제련 노동자 등을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작업 과정은 분업에 토대를 둔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3.1 사상의 대두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수공업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상품의 유통도 활성화되어 갔다. 그리고 이 시기 이후 널리 확산된 부세 및 소작료의 금납화는 상품 화폐 경제의 진전을 보다 촉진시켰다. 더구나 조선 후기에는 인구의 자연 증가뿐만 아니라 농민의 계층 분화가 심화되어 농촌에서 유리된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상업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조선 후기 상업 활동의 주역은 공인과 사상이었다. 그 중에서도 처음에는 공인들이 상업 활동을 주도하였다.

한편, 18세기 이후에는 사상들이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사상들의 활동은 주로 철폐, 송과 등 도성 주변에서 이루어졌지만 개성, 평양, 의주, 동래 등 지방 도시에서도 활발하였다. 그들은 각 지방의 장시를 연결하면서 물품을 교역하고, 각지에 지점을 두어 상권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활동 기반을 강화하였는데, 주로 인삼을 재배 판매하고 대외 무역에도 깊이 관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경강 상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선박의 건조 등 생산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활동 분야를 넓히기도 하였다.

3.2 장시의 발달

조선 후기 사상의 성장은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발달한 장시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15세기 말 남부 지방에서 개설되기 시작한 장시는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1,000여 개소가 개설되었다.

장시는 지방민들의 교역 장소로, 인근의 농민·수

공업자·상인들이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물건을 교환하였는데, 보통 5일마다 열렸다. 일부 장시는 상설 시장이 되기도 하였지만 인근의 장시와 연계하여 하나의 지역적 시장권을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농민들은 행상에게 물건을 파는 것보다 장시를 이용하면 좀 더 싸게 물건을 구입하고 비싸게 팔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였다.

18세기 말의 장시 중에서 광주의 송과장, 은진의 강경장, 덕원의 원산장, 창원의 마산포장 등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연결하는 상업의 중심지로 발달하였다.

농촌의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시킨 상인은 보부상이었다. 이들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한 행상으로서, 장날의 차이를 이용하여 일정 지역 안이나 전국적인 장시를 무대로 하여 활동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단결을 굳게 하기 위하여 보부상단이라는 조합을 이루고 있었다.

3.3 포구에서의 상업 활동

조선 후기에 상업 중심지로서 새로이 성장한 곳이 포구이다. 포구에서의 상거래는 장시에서의 그것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

도로와 수레가 발달하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물화의 대부분이 육로보다는 수로를 통하여 운송되는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18세기에 이르러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갔다. 연해안이나 큰 강 유역에는 포구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가까이 있는 포구 간에 또는 인근의 장시와 연계하면서 상거래가 이루어졌다.

그 후 선상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전국 각지의 포구가 하나의 유통권을 형성하여 갔다. 특히 칠성포, 강경포, 원산포 등의 포구에서는 장시가 열리기도 하였다. 포구를 거점으로 상행위를 하는 상인으로는 선상, 객주, 여각 등이 있었다.

선상은 선박을 이용해서 각 지방의 물품을 구입해 와 포구에서 처분하였는데, 운송업에 종사하다가 거상으로 성장한 경강 상인은 대표적인 선상이었다. 그들은 한강을 근거지로 하여 주로 서남 연해안을 오가며, 미곡, 소금, 어물 등을 거래하였다.

한편, 객주나 여각은 각 지방의 선상들이 물화를 싣고 포구에 들어오면 그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

고 부수적으로 운송, 보관, 숙박, 금융 등의 영업도 하였다. 객주와 여각은 지방의 큰 장시에도 있었다.

3.4 중계 무역의 발달

국내 상업의 발달과 때를 같이하여 대외 무역도 점차 활기를 띠었다. 17세기 중엽부터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인 개시와 사적인 무역인 후시가 이루어졌다. 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비단·약재·문방구 등이었고, 수출하는 물품은 은·종이·무명·인삼 등이었다.

한편, 17세기 이후로 일본과의 관계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왜관 개시를 통한 대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조선은 인삼, 쌀, 무명 등을 팔고, 청에서 수입한 물품들을 넘겨 주는 중계 무역을 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일본으로부터는 은, 구리, 황, 후추 등을 수입하였다.

이러한 국제 무역에서 사적인 무역이 허용되면서 상인들이 무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 중에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상인들은 의주의 만상과 동래의 내상이었으며, 개성의 송상은 양자를 중계하며 큰 이득을 남기기도 하였다. 특히, 의주의 만상은 대중국 무역을 주도하면서 재화를 많이 축적하였다.

3.5 화폐 유통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교환의 매개로써 금속 화폐, 즉 동전이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정부도 화폐의 유통에 힘써서 인조 때 동전을 주조하여 개성을 중심으로 통용시켜 그 쓰임새를 살펴보고, 효종 때는 이를 널리 유통시켰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소작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누구나 동전인 상평통보만 가지면 동전을 살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동전은 교환 수단일 뿐 아니라 재산 축적의 수단이기도 하였다. 동전의 원료인 구리는 18세기 후반부터 동광의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어 공급이 쉬워졌다. 정부도 각 기관으로 하여금 동전의 발행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동전 발행에 대한 통제가 해이해지면서 사적으로 주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동전의 발행량이 상당히 늘어났는데도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시중에서 동전 부족이 나타났다. 이는 지주나 대상인들이 화폐를 고리대나 재산 축적에 이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신용 화폐가 점차 보급되어 갔다. 동전은 곡물이나 옷감에 비하여 간편하긴 하였지만 그 중앙 때문에 대규모의 상거래에서는 불편하였다. 이에 환, 어음 등의 신용 화폐가 이용되었다. 이는 이 시기 상품 화폐 경제의 진전과 상업 자본의 성장을 보여 주는 것이다.

5-1고대의사회

1.1 사회 계층과 신분 제도

청동기의 사용과 함께 시작된 정복 전쟁은 철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이와 같은 정복과 복속으로 여러 부족들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지배층 사이에 위계 서열이 마련되었고, 그 서열은 신분 제도로 발전해 갔다.

부여, 초기 고구려, 삼한의 읍락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호민과 그 아래에 하호가 있었다. 하호는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이었다. 읍락의 최하층에는 노비가 있었는데 이들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생활하고 있는 천민층이었다.

한편, 부여와 초기 고구려에는 가, 대가로 불린 권력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호민을 통하여 읍락을 지배하는 한편, 자신의 관리와 군사력을 지니고 정치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중앙 집권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차츰 귀족으로 편제되어 갔다. 그리하여 삼국 시대가 되면서 사회는 크게 귀족, 평민, 천민의 신분 구조를 갖추었다. 삼국은 이러한 계층 구조를 바탕으로 하면서 다시 그 지배층 내부에서 엄격한 신분 제도를 운영하였다. 삼국 시대 귀족들은 출신 가문의 등급에 따라 관등 승진에서 특권을 누리거나 제한을 받았고, 국가에서 받는 경제적 혜택에도 차등이 있었다. 이러한 신분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신라의 골품 제도였다.

1.2 귀족,평민,천민

고조선 시대 이래로 존재하였던 신분적 차별은 삼국 시대에 와서 법적으로 더욱 강한 구속력을 지니게 되었다. 왕을 정점으로 최하위인 노비에 이르기까지 신분제적 질서가 유지되었다. 신분 구성은 왕족을 비롯한 귀족, 평민, 천민으로 크게 구분되지만 기능상으로는 더욱 세분화된 계층으로 나누어진다. 지배층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율령을 만들었고, 개인의 신분은 능력보다는 그가 속한 친족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결정되었다.

삼국에서는 왕족을 비롯한 옛 부족장 세력이 중앙의 귀족으로 재편성되어 정치 권력과 사회 경제적 특권을 누렸다. 삼국 시대 신분제의 특징 중의 하나는 골품제와 같이 지배층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신분제를 운영한 데 있다.

평민층은 대부분 농민으로서 신분적으로는 자유민이었으나 귀족층에 비하여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이들은 나라에서 부과하는 조세를 납부하고 노동력을 징발당하였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웠다.

천민은 노비와 촌락을 단위로 한 집단 예속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노비들은 왕실과 귀족 및 관청에 예속되어 신분이 자유롭지 못하였다. 이들은 평민과 같이 정상적인 가족 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인의 집에서 시중을 들며 생활하거나 주인과 떨어져 살며 주인의 땅을 경작하기도 하였다.

대개 전쟁 포로로 노비가 되거나 죄를 짓거나 귀족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하여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쟁이 빈번하였던 삼국 시대에는 전쟁 노비가 많았으며, 통일 신라 이후로 정복 전쟁이 사라짐에 따라 전쟁 노비는 소멸되어 갔다.

2.1 고구려의 사회 기풍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유역에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곳은 산간 지역으로 식량 생산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찍부터 대외 정복 활동에 눈을 돌렸고 사회 기풍도 씩씩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 사람들은 절할 때에도 한 쪽 다리를 꿇고 다른 쪽은 펴서 몸을 일으키기 쉬운 자세를 취하였고, 걸음을 걸을 때도 뛰는 듯이 행동을 빨리 하였다.

고구려에서 통치 질서와 사회 기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한 형법은 매우 엄격하였다. 반역을 피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자는 화형에 처한 뒤에 다시 목을 베었고, 그 가족들을 노비로 삼았다. 적에게 항복한 자나 전쟁에서 패한 자 역시 사형에 처하였고, 도둑질한 자는 12배를 물게 하였다. 이렇게 엄격한 형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법률을 어기거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 자가 드물었다.

정치를 주도하며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누린 계층은 왕족인 고씨를 비롯하여 5부 출신의 귀족들이었다. 이들은 그 지위를 세습하면서 높은 관직을 맡아 국정 운영에 참여하였으며, 전쟁이 나면 스스로 무장하여 앞장서서 적과 싸웠다. 고분 벽화에는 이들의 생활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 신

분의 귀천에 따라 인물의 크기에 차등을 두어 묘사하였다.

백성들은 대부분 자영 농민으로서 국가에 조세를 바치고 병역의 의무를 지며 토목 공사에도 동원되었다. 이들의 생활은 불안정하여 흉년이 들거나 빚을 갚지 못하면 노비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고국천왕 때 시행한 진대법은 가난한 농민을 구제하기 위한 시책인데, 먹을거리가 부족한 봄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주수한 것으로 갚도록 한 제도였다.

고구려의 천민과 노비는 피정복민이나 몰락한 평민이었다. 한편, 남의 소나 말을 죽인 자를 노비로 삼거나, 빚을 갚지 못한 자가 그 자식들을 노비로 만들어 변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구려 지배층의 혼인 풍습으로는 형사취수제와 함께 서유제가 있었다. 평민들은 남녀 간의 자유로운 교제를 통하여 결혼했는데 남자 집에서 폐지고기와 술을 보낼 뿐 다른 예물은 주지 않았다. 만약 신부 집에서 재물을 받은 경우 딸을 팔았다고 여겨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2.2 백제인의 생활상

백제의 언어, 풍속, 의복은 고구려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며 선진 문화를 수용하였다. 백제 사람은 키가 크고 의복이 깔끔하다는 중국의 기록은 그 세련된 모습을 알려 준다.

백제 사람들은 상무적인 기풍을 간직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하고 형법의 적용이 엄격한 점은 고구려와 비슷하였다. 반역한 자나 전쟁터에서 퇴각한 군사 및 살인자는 목을 베었고, 도둑질한 자는 귀양 보냄과 동시에 2배를 물게 하였다. 그리고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횡령을 했을 때는 3배를 배상하고 중신토록 금고형에 처하였다. 백제의 지배층은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중국의 고전과 역사책을 즐겨 읽고 한문을 능숙하게 구사하였으며, 관청의 실무에도 밝았다. 투호와 바둑 및 장기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백제 지배층이 즐기던 오락이었다.

2.3 신라의 골품 제도와 화랑도

신라는 고구려, 백제에 비하여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한 시기가 늦은 편이었다. 그런 만큼 신라는 여러 부족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 정치를 운영하고 사회를 이끌어 가던 신라 초기의 전통을 오랫동안 유지하였다.

초기의 전통을 유지한 대표적인 제도가 화백 회의였다. 귀족들은 이를 통하여 국왕을 폐위시킨 적도 있었고 새 국왕을 추대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왕권을 견제하기도 하였다

신라에는 혈연에 따라 사회적 제약이 가해지는 골품 제도가 있었다. 골품은 신라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 활동과 정치 활동의 범위까지 엄격히 제한하였다. 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골품에 따라 정해져 있었으므로 일찍부터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골품 제도는 가옥의 규모와 장식물은 물론, 복색이나 수레 등 신라인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하는 기준으로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화랑도는 원시 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하였다. 이 조직은 귀족 자제 중에서 선발된 화랑을 지도자로 삼고 귀족은 물론 평민까지 망라한 많은 낭도들이 그를 따랐다. 여러 계층이 같은 조직 속에서 일체감을 갖고 활동함으로써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 완화하는 구실도 하였다.

신라 청소년들은 화랑도 활동을 통하여 전통적 사회 규범을 배웠다. 명산대천을 찾다니며 제천 의식을 행하고 사냥과 전쟁에 관하여 교육을 받음으로써 협동과 단결 정신을 기르고 심신을 연마하였다.

화랑도는 신라가 정복 활동을 강화하던 진흥왕 때에 국가 차원에서 그 활동을 장려하여 조직이 확대되었다. 여기서 훈련받은 청소년들은 스스로 나라의 일꾼으로 자처하였고,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원광은 세속 5계를 가르쳐 마음가짐과 행동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화랑도 활동을 통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양성되었다.

3.1 통일 후 신라 사회의 변화

삼국은 상호 간에 오랜 전쟁을 치르면서도 동질성을 많이 간직하고 있었다. 언어와 풍습은 비슷하였고, 복장을 비롯하여 절하는 모습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였다. 법흥왕 때 백제 사신을 따라 중국 양나라에 간 신라 사신이 백제인 통역을 이용할 정도로 두 나라의 언어가 비슷하였다.

삼국 통일은 삼국이 지니고 있던 혈연적 동질성과 문화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민족 문화가 하나의 국가 아래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라는 통일 전쟁 과정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옛 지배층에게 신라 관등을 주어 포용하였다. 통일 직후에는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을 9서당에 편성함으로써 민족 통합에 노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신라 지배층은 삼한(삼국)이 하나가 되었다는 자

부심을 갖게 되었다. 통일 신라는 늘어난 영토와 인구를 다스리게 됨으로써 경제력도 그만큼 증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00여 년 동안 안정된 사회가 유지되었다. 특히, 삼국 통일 이후 왕권이 매우 강화되었다. 오랜 전쟁을 거치면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고 군사령관으로서 국왕의 역할이 강화되었기 때문이었다. 통일 직후인 신문왕 때는 왕권 강화에 장애가 되는 진골 귀족의 일부를 숙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고 신분층인 진골 귀족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컸다. 그들은 중앙 관청의 장관직을 독점하였고, 합의를 통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전통도 여전히 유지하였다.

한편, 6두품 출신은 학문적 식견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왕을 보좌하면서 정치적 진출을 활발히 하였다. 그렇지만 신분의 제약으로 인하여 중앙 관청의 우두머리나 지방의 장관 자리에는 오를 수 없었다.

삼국 통일 이후에 골품 제도에는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골품의 구분이 하급 신분층에서부터 점차 희미해지면서, 3두품에서 1두품 사이의 구분은 실질적인 의미를 잃고 평민과 동등하게 간주되었다.

3.2 발해의 사회 구조

발해의 지배층은 왕족인 대씨와 귀족인 고씨 등의 고구려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중앙과 지방의 중요한 관직을 차지하고 수도를 비롯한 큰 고을에 살면서 노비와 예속민을 거느리고 있었다.

발해의 주민 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한 것은 말갈인이며, 이들은 고구려 전성기 때부터 고구려에 편입된 종족이었다. 발해 건국 후 이들 중 일부는 지배층이 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촌락의 우두머리가 되어 국가 행정을 보조하였다.

발해의 지식인은 당에 유학하여 당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응시하고, 때로는 신라인과 수석을 다투기도 하였다. 이렇게 발해는 상층 사회를 중심으로 당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하층 촌락민들은 고구려나 말갈 사회의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다.

3.3 통일 신라인의 생활

통일 신라의 서울인 금성(경주)은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로서 귀족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로 번성하였다. 그리고 5소경은 과거 백제, 고구려, 가야의 일부 지배층은 물론 신라의 수도에서 이주한 귀족들이 거주하는 지방의 문화 중심지였다.

전성기의 금성은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구획된 시가지에 궁궐과 관청, 사원을 비롯하여 귀족들의 저택과 민가가 즐비하게 들어서서 17만 호를 헤아렸다. 그 대부분이 기와로 지붕을 이었고, 밥 짓는 데도 숯을 사용할 정도였다. 수도 경주는 전국에서 견어 들인 조세와 특산물, 국제 무역품들이 모여드는 거대한 소비 도시였다.

귀족들은 금입택이라 불린 저택에서 많은 노비와 사병을 거느리고 살았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지방에 소유한 대토지와 목장 등에서 나온 수입으로 충당하였다. 서민을 상대로 한 고리대업도 수입원의 하나였다. 귀족들은 불교를 적극 후원하였다. 귀족 출신의 한 여성은 자신의 재산으로 불사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귀족들은 국제 무역을 통하여 수입된 진기한 사치품을 선호하였다. 아라비아산 고급 향료, 동남아시아산 거북딱지로 만든 장식품과 고급 목재, 에메랄드 등이 그러한 물품들이었다. 사치 풍조가 신분 구분을 문란하게 할 상황에 이르자 흥덕왕 때 사치를 금하는 왕명이 내려지기도 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라 사람들이 본래 지녔던 소박함과 강인함은 서서히 사라져 갔다.

지배층의 호화로운 생활과는 대조적으로 평민의 대부분은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며 근근이 생활하였다. 가난한 농민들은 귀족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며 생계를 잇거나 귀족에게 빌린 빚을 갚지 못하여 결국 노비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3.4 통일 신라 말의 사회 모습

신라 말기가 되면서 귀족들의 정권 다툼과 대토지 소유 확대로 백성의 생활은 더욱 곤궁해져 갔고, 지방의 토착 세력과 사원들은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유력한 신흥 세력으로 성장해 갔다. 지방의 자영농들은 귀족들의 농장이 확대되면서 몰락해 갔다. 더욱이 중앙 정부의 통치력 약화로 대토지 소유자들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농민들이 더 많은 조세를 감당하게 되었다.

9세기 이후 자주 발생한 자연 재해는 농민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의 유력자들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무장 조직이 결성

되었고, 이들을 아우른 큰 세력들이 호족으로 등장하였다.

중앙 정부는 지배 체제를 다시 확고히 하려고 수리 시설을 정비하고 자연 재해가 심한 지역에는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 또 굶주리는 농민들을 구휼하고, 연해에 출몰하는 해적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여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은 소작농이 되거나 고향을 버리고 떠돌게 되었으며, 걸식을 하거나 산간에서 화전을 일구기도 하였다. 그들 중의 일부는 자신의 몸을 팔아 노비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9세기 말 진성 여왕 때는 사회 전반에 걸쳐 모순이 증폭되었다. 중앙 정부의 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졌으며, 지방의 조세 납부 거부로 국가 재정도 바닥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한층 더 강압적으로 조세를 징수하게 되자 마침내 각지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을 시작으로 농민의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거의 사라져 갔다.

5-2중세의사회

1.1 귀족

고려의 신분 구성은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략 귀족과 중류, 그리고 양민과 천민으로 구성되었다. 고려 지배층의 핵심은 귀족이었다. 귀족 세력은 왕족을 비롯하여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음서나 공음전의 혜택을 받는 특권층이었다.

귀족들은 대대로 고위 관직을 차지하여 문벌 귀족을 형성하였으며 고려 사회를 이끌어 갔다. 중앙 집권적 체제인 고려 사회에서 귀족들은 개경에 거주하였는데, 그들 중에서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형벌로 낙향을 시키기도 하였다.

중앙 관직에 진출한 집안은 귀족 가문으로 자리잡기 위하여 관직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를 확대하는 등 재산을 모았고, 유력한 귀족 가문과 서로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귀족들이 사돈 맺기를 가장 원한 집안은 물론 왕실이었다. 왕실의 외척이 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지름길로 여겼으므로 여러 딸을 동시에 왕비로 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지방 향리의 자체들도 과거를 통하여 벼슬에 나아가 신진 관료가 됨으로써 어렵게 귀족의 대열

에 들 수가 있었다. 반대로 중앙 귀족에서 낙향하여 향리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귀족층의 변화는 무신 정변을 계기로 일어났다. 종래의 문벌 귀족들이 도태되면서 새로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다. 이후 무신 정권이 붕괴되면서 등장한 지배 귀족은 권문세족이었다. 이들은 고려 후기에 정계의 요직을 장악하고 농장을 소유한 최고 권력층이었으며, 가문의 힘을 이용하여 음서로써 신분을 세습시켜 갔다. 이들은 강좌 하천을 경계로 삼을 만큼 대규모의 농장을 소유하고도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또한 몰락한 농민들을 농장으로 끌어들이 노비처럼 부리며 부를 축적하였다.

경제력을 토대로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관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세력을 확장하였는데 이들을 신진 사대부라 부른다. 이들은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전시과의 붕괴로 과전을 받지 못하게 되자 사전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권문세족과 대립하게 되었다.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들은 권문세족으로 대표되는 사질서와 여러 가지 모순을 비판하고 전반적인 사회 개혁과 문화 혁신을 추구하였다.

1.2 중류

고려의 중류층으로는 중앙 관청의 서리, 궁중 실무 관리인 낭반,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할 향리, 하급 장교 등이 있었다. 이들은 후삼국의 혼란을 거쳐 고려의 지배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통치 체제의 하부 구조를 맡아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집단으로 자리를 잡아 간 계층이었다.

각 지방의 호족 출신은 향리로 편제되어 갔다. 호족 출신들은 호장, 부호장을 대대로 배출하는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으로 통혼 관계나 과거 응시 자격에 있어서도 하위의 향리와는 구별되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는 지배 기구의 말단 행정직이 존재하였다. 낭반, 직업 군인인 군반, 말단 서리인 잡류, 지방의 하층 향리나 역리 등이 그들이다. 이들도 세습적으로 직역을 물려받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국가에서 받았다.

1.3 양민

양민은 일반 농민과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자유로운 신분인 양민의 대다수는 농민들로서 이들은 백성이라고도 한다. 백정 농민층은 법제적으로는 과거 응시에 제약이 없었고 전지를 받는 군인으로 선발될 수도 있었다. 이들에게는 조세, 공납, 역이 부과되었다.

농민들은 국가에서 토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자기 소유의 소규모 땅인 민전을 경작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였고, 그럴 경우에는 일정량의 소작료를 토지 주인에게 납부하였다.

양민보다 하층에는 신분은 양민이면서도 일반 양민에 비하여 규제가 심한 특수 집단이 있었다. 양민인 군현민과 구별되는 특수 행정 구역인 향, 소, 부곡에 거주한 이들 특수 집단은 양민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 거주하는 곳도 소속 집단 내로 제한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므로 일반 군현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처벌하여 군현을 부곡 등으로 강등하기도 하였다. 향이나 부곡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농업을, 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수공업이나 광업품의 생산을 주된 생업으로 하였다. 이 밖에 역과 진의 주민은 각각 육로 교통과 수로 교통에 종사하였다.

1.4 친민

친민의 대다수는 노비였다. 노비는 공공 기관에 속하는 공노비와 개인이나 사원에 예속된 사노비가 있었다. 공노비에는 궁중과 중앙 관청이나 지방 관아에서 잡役に 종사하면서 급료를 받고 생활하는 입역 노비와 지방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외거 노비가 있었다. 외거 노비는 농경을 하여 얻은 수입 중 규정된 액수를 관청에 납부하였다.

사노비는 솔거 노비와 외거 노비로 구분되었다. 솔거 노비는 귀족이나 사원에서 직접 부리는 노비로 상전의 집에서 살면서 잡일을 돌보는 노비이고, 외거 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일정량의 신공을 바치는 노비이다.

외거 노비는 주인의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토지도 소작할 수 있어서 노력에 따라서는 경제적으로 여유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자신의 토지도 소유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외거 노비는 신분적으로는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었으나 경제적으로는 양민 백정과 비슷하게 독립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외거 노비 가운데에는 신분의 제약을 딛고 지위를 상승한 사람도 있었으며, 농업에 종사하면서 재산을 늘린 사람도 있었다.

이들 노비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엄격히 관리되었다. 매매, 증여, 상속의 방법을 통하여 주인에게 예속되어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귀족들은

재산으로 간주된 노비를 늘리기 위하여 부모 중의 한 쪽이 노비이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되게 하였다.

2.1 농민의 공동 조직

농민들은 일상 의례와 공동 노동 등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다졌다. 공동체 조직의 대표적인 것이 불교의 신앙 조직이었던 향도였다. 불교 신앙의 하나로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하여 향나무를 바닷가에 물었다가, 이를 통하여 미륵을 만나 구원받고자 하는 염원에서 향나무를 땅에 묻는 활동을 매향이라고 한다. 이 매향 활동을 하는 무리들을 향도라고 하였다.

향도는 단순히 매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불상, 석탑을 만들거나 절을 지을 때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후기에 이르러 점차 신앙적인 향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되는 향도로 변모되어 마을 노역, 혼례와 상장례, 민속 신앙과 관련된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 조직으로 발전되어 갔다.

2.2 사회 시책

고려 시대의 농민들은 여러 가지 조세와 잡역 등의 부담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은 국가 안정에 필수적이었으므로 국가에서는 농민의 경제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여러 사회 시책을 펼쳤다. 우선 농민기에 잡역을 면제하여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는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조세와 부역을 감면해 주었다. 또한 고리대 때문에 농민이 몰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으로 이자율을 정하여 이자가 빌린 곡식과 같은 액수가 되면 그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권농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농토를 늘리고 곡물을 증산하기 위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거나 갈지 않고 버려둔 진전을 새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면세해 주었다. 이는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켜 줌으로써 체제 유지에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2.3 여러 가지 사회 제도

고려의 사회 시설로는 평시에 곡물을 비치하였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기관인 의창이 있었는데, 이는 고구려의 진대법을 발전시킨 제도였

다. 또 개경과 서경 및 각 12목에는 상평창을 두어 물가의 안정을 꾀하여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난한 백성이 의료 혜택을 받도록 개경에 동서 대비원을 설치하여 환자 진료 및 빈민 구휼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해민국을 두어 의약을 전담케 하였다. 각종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제도감이나 구급도감을 임시 기관으로 설치하여 백성의 구제에 힘썼다. 그리고 기금을 마련한 뒤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설치하였다.

2.4 법률과 풍속

고려에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기본법으로 중국의 당률을 참작한 71개조의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관습법을 따랐다. 고려 시대에는 지방관의 사법권이 커서 중요 사건 이외에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반역죄, 불효죄 등 사람의 기본 도리를 어길 경우 중죄로 다스렸다. 반면에 귀양 형을 받은 자가 부모상을 당하였을 때는 유형지에 도착하기 전에 7일간의 휴가를 주어 부모상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두고 봉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는 형벌 집행을 보류하기도 하였다. 고려 시대의 형벌은 태.장.도.유.사의 5종이 시행되었다.

장례와 제사에 관한 의례는 유교적 규범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대개 토착 신앙과 융합된 불교의 전통 의식과 도교 신앙의 풍속을 따랐다. 명절로는 정월 초하루, 삼짇날, 단오, 유두, 추석 등이 있었으며 단오 때에는 격구와 그네뛰기 및 씨름 등을 즐겼다.

2.5 혼인과 여성의 지위

고려 사람들은 대략 여자는 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에 혼인을 하였다. 고려 초에 왕실에서는 친족 간의 혼인이 성행하였다. 중기 이후 여러 번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습이 사라지지 않아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혼인 형태는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으며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을 기재하여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받들었으며, 상복 제도에서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공을 세운 사람의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

도 함께 상을 받았다.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받지 않았다.

3.1 무신 집권기 하층민의 봉기

무신 정변으로 고려 전기의 신분 제도가 동요되어 하층민에서 권력층이 된 자가 많았다. 한편, 무신들 간의 대립과 지배 체제의 붕괴로 백성들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으며, 무신들의 농장 확대로 인하여 수탈이 강화되었다.

12세기에 가혹한 수탈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은 종래의 소극적 저항에서 벗어나 대규모의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조위층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많은 농민이 가세하였으며, 난이 진압된 뒤에도 농민 항쟁이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다. 이어 남부 지방에서도 농민 항쟁이 발생하였다. 특히, 공주 명학소의 땅이.망소이의 봉기, 운문.초전의 김사미.효심의 봉기 등이 명종 때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초기에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봉기는 1190년대에 들어와 경상도와 강원도 지방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이후 신라 부흥 운동과 같이 왕조 질서를 부정하는 성격에서부터 지방관의 탐학을 국가에 호소하는 타협적인 성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의 봉기가 일어났다.

최충현이 정권을 장악한 뒤에는 회유와 탄압으로 약간 수그러들었다가 만적 등 친민들의 신분 해방 운동이 다시 발생하였다. 만적은 사람이면 누구나 공경대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분 차별에 항거하였다.

3.2 몽고의 침입과 백성의 생활

몽고의 침입에 대항하고자 쉰세 무신 정권은 송악에서 강도(강화도)로 서울을 옮기고 장기 항전을 꾀하였다. 지방의 주민들에게는 산성이나 바다의 섬으로 들어가서 오랜 전쟁에 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은 산성과 섬에서의 생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었으므로 일반 백성들은 몽고의 침략에 자력으로 맞서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일반 백성들이 각지에서 몽고군을 격퇴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충주 다인철소, 처인 부곡의 승리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몽고군은 이르는 곳마다 살육을 자행하였

으므로 백성들은 막대한 희생을 당하였고, 식량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여 굶어 죽는 일이 많았다. 전쟁이 종료되어 원과 강화를 맺은 뒤에 원의 간섭과 원을 따르는 정치 세력에 의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백성이었다. 특히, 전쟁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차례의 일본 원정에 동원됨으로써 막대한 희생을 강요당하였다.

3.3 원 간섭기의 사회 변화

무신 집권기 이후로는 하층 신분에서 신분 상승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원 간섭기 이후에 역관, 향리, 평민, 부곡민, 노비, 환관 중에서 진공을 세우거나 몽고 귀족과의 혼인을 통해서 또는 몽고어에 능숙하여 출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원 간섭기에는 친원 세력이 권문세족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원과 강화를 맺은 이후 두 나라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물자와 왕래가 많아졌고, 문물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 사회에는 몽고풍이 유행하여 변발, 몽고식 복장, 몽고어가 궁중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다.

이와는 반대로 고려 사람이 몽고에 건너간 수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전란 중에 포로 내지는 유이민으로 들어갔거나 몽고의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고려 사람들에 의하여 고려의 의복, 그릇, 음식 등의 풍습이 몽고에 전해졌다.

원의 공녀 요구는 고려에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져왔다. 결혼도감을 통하여 원으로 끌려간 여인 중에는 특별한 지위에 오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고통스럽게 살았다. 그러므로 공녀의 공출은 고려와 원 사이에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고려에서는 끊임없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몽고와 마찬가지로 왜구도 고려 백성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 왜구는 14세기 중반부터 침략해왔다. 원의 간섭하에서 국방력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웠던 고려는 초기에 효과적으로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지 못하였다. 주로 쓰시마 섬에 근거를 둔 왜구는 부족한 식량을 고려에서 약탈하고자 자주 고려 해안에 침입하였고, 식량뿐 아니라 사람들도까지도 약탈해 갔다.

일본과 가까운 경상도 해안에 출몰하기 시작한 왜구는 점차 전라도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고, 심지어 개경 부근에도 나타났다. 많을 경우

한 해 동안에도 수십 번 침략해 왔기 때문에 해안에서 가까운 수십 리의 땅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였다. 잦은 왜구의 침입에 따른 사회의 불안정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였다. 왜구를 격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였다.

5-3근세의사회

1.1 양친 제도와 반상 제도

조선은 사회 신분을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하는 양친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양인은 과거에 응시하고 벼슬길에 오를 수 있는 자유민으로서 조세, 국역 등의 의무를 지녔다. 천민은 비자유민으로서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하였다.

양친 제도는 갑오개혁(1894) 이전까지 조선 사회를 지탱해 온 기본적인 신분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친제의 원칙에만 입각하여 운영되지는 않았다. 관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던 양반은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의 신분으로 굳어져 갔고, 양반 관료들을 보좌하던 중인도 신분층으로 정착되어 갔다. 그리하여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인 상민 간의 차별을 두는 반상 제도가 일반화되고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신분 제도가 점차 정착되었다.

조선 시대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으나 신분 이동이 가능하였다. 법적으로 양인이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고, 양반도 죄를 지으면 노비가 되거나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중인이나 상민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 사회는 고려 사회에 비하여 개방적이었지만 지배층인 양반과 중인, 피지배층인 상민과 천민이 존재하는 점에서 아직 신분 사회의 틀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1.2 양반

양반은 본래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었다. 그러나 양반 관료 체제가 점차 정비되면서 문·무반직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가문까지도 양반으로 부르게 되었다.

일단 지배층이 된 양반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지배층이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들은 문무 양반의 관직을 받은 자들만 사족으로 인정하였다. 현직 향리층을 비롯하여 중앙 관청의 서리와 기술관, 군교, 역리들은 하급 지배 신분인 중

인으로 격하시켰다. 사족과 이서층(서리층)이 분화하여 양반과 중인 신분으로 고정된 것이다. 또한 양반들은 첩에서 난 소생들을 서얼이라고 하여 차별하였고, 정부에서는 이들의 관직 진출을 제한하였다.

양반은 토지와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과거, 음서, 천거 등을 통하여 국가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였다. 양반은 경제적으로는 지주층이며 정치적으로는 관료층이었다. 이들은 생산에는 종사하지 않고 오직 현직 또는 예비 관료로 활동하거나 유학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닦는 데 힘썼다.

조선은 각종 법률과 제도으로써 양반의 신분적 특권을 제도화하였다. 무엇보다도 양반은 각종 국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양반이 하나의 사회 신분으로 고정되어 가면서 양인은 점차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하였다.

1.3 중인

중인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계층을 뜻하고, 좁은 의미로는 기술관만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중인은 15세기부터 형성되어 조선 후기에 이르러 하나의 독립된 신분층을 이루었다. 중앙과 지방에 있는 관청의 서리와 향리 및 기술관을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하였으며 관청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였다. 서얼은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중서라고도 불리었다. 이들은 문과에 응시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간혹 무반직에 등용되기도 하였다.

중인은 양반들로부터 멸시와 하대를 받았으나 대개 전문 기술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나름대로 행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역관은 사신을 수행하면서 무역에 관여하여 이득을 보았으며, 향리는 토착 세력으로서 수령을 보좌하면서 위세를 부리기도 하였다.

1.4 상민

평민, 양인으로도 불리는 상민은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 수공업자, 상인을 말한다. 나라에서는 이들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지만 과거 준비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으므로 상민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전쟁이나 비상시에 군공을 세우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상민의 신분 상승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조세, 공납, 부역 등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이러한 조세는 때에 따라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과중하였다. 수공업자들은 공장으로 불리며 관영이나 민영 수공업에 종사하였다. 이들에게는 공장세가 부과되었다. 상인은 시전 상인과 보부상 등이 있었는데, 국가의 통제 아래에서 상거래에 종사하였다. 이들에게도 상인세가 부과되었으며, 조선은 농본역상 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상인은 농민보다 아래에 위치하였다. 한편, 양인 중에는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이 있었는데 이들을 신량역천(身良役賤)이라 하였다.

1.5 천민

천민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노비였다. 노비는 비자유민으로 교육받거나 벼슬길에 나아갈 길이 막혀 있었다.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었으므로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다.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일 경우 그 소생 자녀도 자연히 노비가 되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시행되었다.

조선 시대 노비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속한 공노비와 개인에게 속한 사노비가 있었다. 사노비는 주인집에서 함께 사는 솔거 노비와 주인과 떨어져 독립된 가옥에서 사는 외거 노비가 있었다. 외거 노비는 주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신공을 바쳤으며, 공노비도 국가에 신공을 바치거나 관청에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한편 백정, 무당, 창기, 광대 등도 천민으로 천대받았다.

2.1 사회 정책

조선은 기본적으로 농본 정책을 실시하여 농민의 안정을 꾀하였다.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사회 신분 질서의 유지와 농민의 생활 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농민들은 무거운 조세와 요역의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게다가 관리 또는 양반 지주들에게 수탈을 당하기 쉬웠다. 이들은 전호가 되거나, 노비나 유민이 되어 자신에게 부과된 역을 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농민의 몰락은 곧바로 국가의 안정과 재정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였으므로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었다.

2.2 사회 제도

국가는 양반 지주들의 토지 겸병을 억제하고 농민이 토지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민기에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종 재해를 당한 농민에게는 조세를 덜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생활이 자주 어려움을 당하자 국가에서는 의창, 상평창 등을 설치하고 환곡제를 실시하여 이들을 구제하였다.

향촌 사회에서 자치적으로 실시된 사창 제도는 양반 지주들이 향촌의 농민 생활을 안정시켜 양반 중심의 향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료 시설로는 혜민국, 동서 대비원, 제생원, 동서 활인서 등이 있었다. 혜민국과 동서 대비원은 수도권 안에 거주하는 서민 환자의 구제와 약재 판매를 담당하였고, 제생원은 지방민의 구호 및 진료를 담당하였다. 동서 활인서는 유랑자의 수용과 구휼을 담당하였다.

2.3 법률 제도

조선 시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법은 형법과 민법이었다. 그러나 경국대전외의 법 조항이 소략하기 때문에 형법은 대명률이 주로 적용되었다.

법외 가운데 가장 무겁게 취급된 것은 반역죄와 강상죄였다. 이 같은 범죄에는 범인은 물론 부모, 형제, 처자까지도 함께 처벌하는 연좌제가 시행되었다. 심한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고을의 호칭이 강등되고, 고을의 수령은 낮은 근무 성적을 받거나 파면되기도 하였다. 형법은 태.장.도.유.사의 5종이 기본으로 시행되었다.

민법에 관한 사항은 재판 소송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관찰사와 수령 등 지방관이 관습법에 따라 처리하였다. 초기에는 노비와 관련된 소송이 많았으나 나중에는 남의 묘지에 자기 조상의 묘를 쓰는 데에서 발생하는 산송이 주류를 이루었다.

상속은 종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조상의 제사와 노비 상속을 중요시하였다.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토지의 소유권 관념이 고려 시대에 비하여 발달하였다.

조선의 사법 기관은 행정 기관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중앙에는 관리의 잘못이나 중대한 사건을 재판하는 사헌부, 의금부, 형조와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 그리고 노비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장례원이 있었다.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이 각각 관할 구역 내의 사법권을 가졌다.

재판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른 관청이나 상부 관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고, 신문고나 징을 쳐서 임금에게 직접 호

소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제도들은 백성의 억울함을 해결해 줌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3.1 향촌 사회의 모습

향촌은 중앙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향은 행정 구역상 군현의 단위를 말하며, 촌은 촌락이나 마을을 의미한다. 조선 초기에 군현제가 정비되면서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 부, 목, 군, 현을 두어 각각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또 군, 현 밑에는 면, 이(里) 등을 설치하였으나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되지는 않았다.

지방 자치를 위하여 설치한 기구가 유향소였다.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였다. 경제소는 중앙 정부가 현직 관료로 하여금 연고지의 유향소를 통제하게 하는 제도로서 중앙과 지방의 연락 업무를 맡았다. 유향소와 경제소는 고려 시대 사심관 제도가 분화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소가 혁파되면서(1603) 유향소는 향소 또는 향청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향촌 질서 역시 변화하였다. 향소의 구성원은 향안을 작성하고 향규를 제정하였다. 향안은 향촌 사회의 지배층인 지방 사족의 명단으로 임진왜란 전후의 시기에 각 군현마다 보편적으로 작성되었다. 향안에 이름이 오른 사족들은 그들의 총회인 향회를 통하여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고 지방민을 통제하였는데 이들 향회의 운영 규칙이 향규였다. 지방 사족은 그들 중심의 향촌 사회 운영 질서를 강구하고 향약 등의 보급을 통하여 면리제와 병행된 향약 조직을 형성해 나갔다. 향약은 종종 때 조광조에 의하여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향안, 향규, 향약 등은 군현 내에서 지방 사족이 그들의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였다.

3.2 촌락의 구성과 운영

촌락은 농민 생활의 기본 단위일 뿐만 아니라 향촌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자연촌으로 존재하면서 동, 이(里)로 편제된 조직이다. 정부에서는 자연촌 단위의 몇 개 이(里)를 면으로 묶은 면리제와 오가작통제를 통하여 촌락 주민에 대한 지배를 원활히 하고자 하였다. 오가작통제는 서로 이웃하고 있는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고 여기에 통수를 두어 통 내를 관장하게 한 것이다.

조선 시대에 신홍 사족이 향촌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향촌 사회의 촌락은 주로 양반들이 거주하는 반촌과 평민들이 거주하는 민촌으로 구분되어 갔다. 반촌은 동성의 특정 성씨만이 아니라 친족, 처족, 외족의 동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성씨가 거주하다가 18세기 이후에 동성 촌락으로 발전하였다.

민촌은 대부분 평민과 천민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촌락에 거주하는 지주의 소작농으로 생활하였다. 민촌도 18세기 이후에 그 신분 구성이 변하여 구성원 가운데 다수가 신분 상승을 이루었다. 사족들은 동계, 동약을 조직하여 촌락민들에 대한 지배력을 신분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일반 백성들은 농촌에서 향도계, 동린계 등의 자생적인 생활 문화 조직을 만들었다. 동계, 동약에는 대체로 사족들만이 참여하다가 임진왜란 이후 양반과 평민층이 함께 참여하는 상하 합계의 형태로 전환하였다. 한편, 촌락의 농민 조직으로 두레와 향도가 있었다. 두레는 공동 노동의 작업 공동체였다. 향도는 불교와 민간 신앙 등의 신앙적 기반과 동계 조직과 같은 공동체 조직의 성격을 모두 띠는 것이었다. 주로 상을 당하였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활동을 하였다.

3.3 촌락의 풍습

조선 초기에는 상무 정신을 기르기 위하여 전부터 이어오던 석전이라고 부르는 돌팔매 놀이를 자주 거행하였으며 국왕도 이를 관전할 정도였다. 그러나 뒤에는 이 행사로 말미암은 사상자가 속출하여 국법으로 이를 금하였으나 민간 풍습으로 계속 이어졌다.

양반 사족들은 향도계, 동린계 등의 자생적인 생활 문화 조직들을 음사라 하여 금지하였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은 자신들의 생활 풍습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이 행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며칠 동안 술과 노래로 즐기는 일종의 마을 축제였는데 점차 장례를 도와주는 기능으로 전환되어 갔다. 상여를 메는 사람인 상두꾼이 향도에서 유래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4.1 예학과 족보의 보급

성리학은 신분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하 관계를 중시하는 명분론을 강조하였다. 예학은 양반들이 성리학적 도덕 윤리를 강조하면서 신분 질서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성립한 학문이며,

삼강오륜을 기본 덕목으로 강조하였다. 특히, 삼강오륜은 현실적으로 가부장적 종법 질서로 구현되어 성리학 중심의 사회 질서 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사림은 향약을 시행하고 도덕과 예학의 기본 서적인 소학을 보급하여 향촌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가묘와 사당을 건립하여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사림 간의 경쟁의 구실로 이용되기도 하였던 예학과 예론은 양반 사대부의 신분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데 이용되었으며, 양반 사람들은 이와 함께 가족과 친족 공동체의 유대를 통해서 문벌을 형성하고 양반으로서의 신분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가족의 내력을 기록하고 그것을 암기하는 보학이 발전하였다.

예학이 종족 내부의 의례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보학은 종족의 종적인 내력과 횡적인 종족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므로 족보를 통해서 안으로는 종족 내부의 결속을 다졌고, 밖으로는 다른 종족이나 하급 신분에 대하여 우월 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따라서 족보는 결혼 상대자를 구하거나 봉당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족보의 편찬과 보학의 발달은 조선 후기에 더욱 활발해짐으로써 양반 문벌 제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4.2 서원과 향약

서원은 성리학을 연구하고 선현을 제사 지낸다는 설립 목적 이외에도 지방 사족들의 지위를 강화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서원은 사화로 인하여 향촌으로 은거하여 생활하던 사림들의 활동 기구였으며, 임진왜란 이후 급속히 발전하였다.

선현의 제사와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원은 유교를 보급하고 향촌 사람을 결집시키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서원은 교육 기관이므로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부터 견제를 적게 받는다는 이점과 자기 문중을 과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시대가 내려올수록 번창하게 되었다.

서원과 함께 사림의 세력 기반을 이루고 상민층에까지 유교의 예속을 침투시켜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 바로 향약이었다. 본래 향촌에서는 마을 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단결하여 서로 도와주는 풍습이 있었다. 향약은 이러한 전통적 공동 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여기에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를 가미하여 교화 및

질서 유지에 더욱 알맞도록 구성한 것이다. 향약은 조선 사회의 풍속 교화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향촌 사회의 질서 유지와 함께 치안까지 담당하는 등 향촌의 자치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사림들이 향약을 통하여 지방 자치를 구현하고자 한 데에는 농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견고하게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다.

향촌 사회에 향약이 보급되고 먼 단위의 강력한 조직이 구축됨에 따라 유교 윤리가 뿌리를 내리게 되자 지방 사림의 지위는 강화되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토호와 향반 등 지방 유력자들이 주민들을 위협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였고, 향약의 간부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여 다투고 모함함으로써 오히려 풍속과 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5-4 사회의 변동

1.1 신분제의 동요

조선 사회는 법제적으로 양천제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양반, 중인, 상민, 노비의 네 계층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조선 시대의 기본 이념이었던 성리학은 이러한 신분제를 정당화하는 이론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봉당 정치가 변질되어 가면서 양반 상호 간에 일어난 정치적 갈등은 양반층의 분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일당 전체화가 전개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권력을 장악한 일부의 양반을 제외한 다수의 양반들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권에서 밀려난 양반들은 관직에 등용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향촌 사회에서나 겨우 위세를 유지하는 향반이 되거나 더욱 몰락하여 잔반이 되기도 하였다.

양반 계층의 자기 도태 현상이 날로 심화되는 속에서도 양반의 수는 더욱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의 숫자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부를 축적한 농민들이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또는 역의 부담을 모면하기 위하여 양반 신분을 사거나 족보를 위조하여 양반으로 행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에는 신분 변동이 활발해져 양반 중심의 신분 체제가 크게 흔들렸다.

1.2 중간 계층의 신분 상승 운동

조선 후기 사회 변동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얼과

중인 등 중간 계층의 역할도 커졌다. 서얼은 양반 사대부의 소생이면서도 성리학적 명분론에 의하여 여러 분야의 사회 활동에서 각종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커져 갔다. 그리고 기술직을 담당하거나 이서로서 행정 실무를 맡고 있던 중인층은 사회적으로 그 역할이 커지면서도 역시 고급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었다.

중인층은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신분의 상승을 추구하였다. 서얼에 대한 차별은 임진왜란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전란으로 재정적 타격을 받은 정부가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첩을 발급하자 서얼들은 이를 이용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영.정조 때에 서얼을 어느 정도 등용하자 이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수차례에 걸쳐 집단적으로 상소하여 동반이나 홍문관 같은 청요직으로의 진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정조 때에는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 서얼 출신들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서얼의 신분 상승 운동은 기술직 중인들에게도 자극을 주었다. 그들은 주로 기술직에 종사하며 축적한 재산과 탄탄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추구하였다. 누적된 불만을 표출한 중인들은 철종 때 대규모의 소청 운동을 일으켰다. 비록 이들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통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켰다.

중인 중에서도 역관들은 청과의 외교 업무에 종사하면서 서학을 비롯한 외래 문화 수용에 있어서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여 성리학적 가치 체계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회의 수립을 추구하였다. 이들 중간 계층의 활동은 농민의 움직임과 더불어 조선 후기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3 노비의 해방

조선 후기에 노비는 군공과 납속 등을 통하여 부단히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있었다. 게다가 국가에서는 공노비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들어 그 효율성이 떨어지자 공노비를 종래의 입역 노비에서 신공을 바치는 남공 노비로 전환시켰다.

신분을 상승하지 못한 노비들은 도망을 통하여 신분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이렇게 노비의 도망이 확산된 이유는 도망간 뒤에도 임노동

자, 머슴, 행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망한 노비의 신공은 남아 있는 노비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노비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노비의 도망이 빈번해지자 나라에서는 신공을 줄여 달래기도 하고, 이들을 찾아내려고도 하였으나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노비의 신분 상승 추세는 아버지가 노비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양민이면 양민으로 삼는 법이 실시되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18세기 후반 공노비의 노비만이 도망과 합법적인 신분 상승으로 인하여 이름만 있을 뿐 신공을 받아낼 수 없게 되자, 순조 때에 중앙 관서의 노비 6만 6,000여 명을 해방시키기도 하였다(1801).

사노비는 일반 농민이나 공노비에 비하여 더 가혹한 수탈과 사회적 냉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선 후기에 이르자 사노비의 도망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갑오개혁(1894) 때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노비제는 법제상으로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1.4 가족 제도의 변화와 혼인

조선의 가족 제도는 부계와 모계가 함께 영향을 미치는 형태에서 부계 위주의 형태로 변화하여 갔다.

조선 중기까지도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아들과 딸이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는 경우가 많았다. 집안을 잇는 자식에게 5분의 1의 상속분을 더 준다는 것 외에는 모든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재산 상속을 같이 나누어 받는 만큼 그 의무인 제사도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성리학적인 의식과 예절이 발달하고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확립되면서 혼인 후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친영 제도가 정착하게 되었다. 제사는 반드시 큰아들이 지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재산 상속에서도 큰아들이 우대를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딸들이 그리고 점차 큰아들 외의 아들들도 제사나 재산 상속에서 그 권리를 잃어 갔다.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부계 위주의 족보를 적극적으로 편찬하였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사는 동성 마을을 이루어 나갔다. 따라서 이 때에는 개인이 개인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종중이라고 하는 친족 집단의 일원으로 인식되었다. 조선 시대의 가족 제도는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가족 제도를 잘 유지하기 위한 윤리 덕목으로 효와 정절을 강조하였다.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고 효자나 열녀를 표창한 것 등은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조선 시대의 혼인 형태는 일부일처를 기본으로 하였지만 남자들이 첩을 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일부일처제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부인과 첩 사이에는 엄격한 구별이 있어서 첩의 자식인 서얼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사나 재산 상속 등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혼인은 대개 집안의 가장이 결정하였는데,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남자 15세, 여자 14세였다.

1.5 인구의 변동

조선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수시로 호구 조사를 하였다. 조선 시대의 인구에 관한 기본 자료는 원칙적으로 3년마다 수정하여 작성하는 호적 대장이었다.

국가에서는 호적 대장에 기록된 각 군현의 인구 수를 근거로 해당 지역에 공물과 군역 등을 부과하였다. 공물과 군역의 담당자들이 기본적으로 성인 남성들이므로 국가의 인구 통계는 주로 남성들만을 기록하고 있어 실제 인구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조선 시대의 인구는 대체로 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하삼도에 전 인구의 50% 정도가 살았으며, 경기도.강원도에는 20%, 평안도.황해도.함경도에는 30% 정도가 거주하였다.

세종 때의 공식적인 인구 수는 대략 22만 호의 77만 6,000여 명이였다. 그러나 이는 실제 인구 수가 아닌 성인 남성만의 수로서 실제 인구 수는 400만에서 600만 명 내외였다. 임진왜란 이후는 전란의 영향으로 500만 내외로 인구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7세기에 600만, 18세기에 700만 그리고 19세기 말에 1,000만 명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특히, 한성에는 세종 때에 이미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였다. 한성의 인구 수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금 줄어들었으나 18세기에 들어

와서는 20만 명이 넘게 되었다.

2.1 양반의 향촌 지배 약화

농촌 사회가 분화되고 신분제가 붕괴되면서 양반 계층의 구성이 복잡하게 바뀌었고,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도 변화되었다.

양반을 자처하는 이들은 족보를 만들어 가족 집단 전체가 양반 가문으로 행세하고 상민과는 통혼하지 않았다. 양반의 명단인 청금록과 향안은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 서류인 동시에 향약 등 향촌 자치 기구의 주도권 장악을 위하여 중요시되었다.

평민과 천민 가운데 재산을 모아 부농층으로 등장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양반 가운데는 토지를 잃고 몰락하여 전호가 되거나 심한 경우 임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향촌 사회 내부에서 양반들이 지녔던 권위도 점차 약해졌다.

양반들은 균현을 단위로 하여 농민을 지배하기 어렵게 되자 거주지를 중심으로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하거나 족적 결합을 강화함으로써 자기들의 지위를 지켜 나가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에 많은 동족 마을이 만들어지고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 사우가 세워졌다.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향촌 사회를 지배하였던 사족들이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한 부농층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부농층은 관권과 결탁하여 성장의 기반을 굳건히 하면서 향안에 참여하는가 하면 향회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하여 조선 후기 향촌 사회는 관권이 강화되고 아울러 관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향리 세력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 양반의 이익을 대변하여 왔던 향회는 주로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의견을 물어 보는 자문 기구로 구실이 변화하였다.

2.2 부농 계층의 대두

향촌 사회에서 종래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양반 대신에 새로운 부농층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경제적 능력은 갖추었지만 아직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없었다. 정부는 납속이나 향직의 매매를 통하여 이들 부농층에게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 주기도 하였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부농층의 육구는 재정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이해와 일

치하였기에 정부도 이들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부농층은 종래 향촌 사족이 담당하던 정부의 부세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향임직에 진출하지 못한 곳에서도 수령이나 기존의 향촌 세력과 타협하여 상당한 지위를 확보하여 갔다. 그러나 향촌 지배에 참여하지 못한 부농층도 여전히 많았다.

3.1 농민층의 분화

양반 이후 조선 사회에서는 기존의 사회 체제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사회 질서가 모색되었다. 이 당시 주목되는 것은 피지배층으로서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농민들이었다.

조선 후기의 농민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상층은 중소 지주층으로서 자기가 소유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 소작제로 경영하여 몰락한 양반이나 중인층보다 윤택한 생활을 하는 계층이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은 작은 규모의 자영농이거나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경작하고 소작료를 내던 소작농이었다.

국가는 농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통치의 편의를 위하여 호폐법으로 이들의 이동을 억제하였다. 토지에 묶인 농민들은 대대로 한 곳에 정착하여 자급자족의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

양반 이후 국가 재정의 파탄과 관리들의 기강 해이로 인한 수취의 증가는 농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였다. 사회 혼란을 타개하기 위한 대동법과 균역법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농민의 불만은 더욱 커져 갔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시련이 거듭되는 속에서도 일부 농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갔다. 그들은 농업 경영을 통하여 부농으로 부상하거나 상공업으로 생업을 영위하기도 하고, 아니면 도시나 광산의 임노동자가 되었다.

3.2 지주와 임노동자

조선 후기에도 지주의 대부분은 양반이었다.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함께 양반 지주의 이윤 추구가 경제적 욕구를 자극하여 광작을 하는 대지주가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 관계가 발달하자 일반 서민들 중에는 적기는 하지만 지주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지의 확대, 영농 방법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부를 축적해 갔다. 부를 축적한 새

로운 지주들은 재력을 바탕으로 공명첩을 사거나 족보를 위조하여 신분을 상승시키는 사람들도 있었다.

양반이 되면 자신은 물론 후손까지 균역을 면할 수 있는 이익이 있었으며, 더욱이 양반 지배층의 수탈을 피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경제 활동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력으로 양반 신분을 사들인 농민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향촌 사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워 나가고자 하였다.

일부 농민이 부농층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다수의 농민은 오히려 토지에서 밀려나 임노동자가 되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은 주로 농민들의 부역 동원으로 충당되었다. 양반 지주층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은 노비나 소작농의 노동력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중엽 이래로 부역제가 해이해져서 17~18 세기에 이르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마저 동원이 어려워지면서 점차 임노동자를 고용해야 했다. 궁궐이나 관청에서 주관하는 성 쌓기나 도로 공사에 동원되는 인부들도 노임을 주고 부려야 하는 처지였다.

이러한 현상은 부농들도 똑같이 겪는 일이었다. 부농층도 가족의 노동력만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임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흔하였다. 농촌에서는 대체로 1년 단위로 임금을 받는 품팔이 노동력이 많았다. 부농층의 대두와 임노동자의 출현은 이 시기 농민의 분화를 뜻하는 것이었다.

4.1 사회 불안의 심화

신분제의 동요는 양반 중심의 지배 체제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왔다. 지배층과 농민층의 갈등은 깊어지고 지배층의 수탈이 심해지면서 농민 경제는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농민의 의식은 점차 높아져서 곳곳에서 적극적인 항거 운동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관오리들의 탐학과 횡포는 날로 심해 갔고 재난과 질병이 거듭되었다. 특히,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져 농민의 생활은 그만큼 더 어려워져 갔다. 1820년의 전국적인 수해와 이듬해 콜레라의 만연으로 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는 비참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피해는 그 뒤 수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굶주려 떠도는 백성이 거리를 메울 지경이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백성들 사이에 비기, 도

참살이 널리 퍼지고, 서양의 이양선까지 연해에 출몰하자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져 갔다. 사회 불안이 점점 더해 감에 따라 각처에서는 도적이 크게 일어났다. 화적들은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 지방의 토호나 부상들을 공격하였고, 수적들은 배를 타고 강이나 바다를 무대로 조운선이나 상선을 약탈하였다.

4.2 예언 사상의 대두

사회가 변화되면서 유교적 명분론이 설득력을 잃어가자 비기, 도참 등을 이용한 예언 사상이 유행하였다. 말세의 도래, 왕조의 교체, 변란의 예고 등 근거 없는 낭설이 횡행하여 민심을 혼란시켰다. 정감록은 이 때에 널리 유행한 비기였다.

여기에 무격 신앙이나 미륵 신앙도 점차 확장되어 갔다. 현세에서 얻지 못하는 행복을 미륵 신앙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며, 심지어 살아 있는 미륵불을 자처하면서 서민을 끌어 모으는 무리도 나타났다.

4.3 천주교의 전파

천주교는 17세기에 중국 베이징의 천주당을 방문한 우리나라 사신들에 의하여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천주교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18세기 후반경이었다. 당시 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고심하던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이 천주교 서적을 읽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서양인 신부에게서 영세를 받고 돌아온 이후로 신앙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정부는 천주교가 유포되는 것에 대하여 내버려 두면 저절로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점차 교세가 확장되고 천주교가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자 드디어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부정과 국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사교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정조 때에는 천주교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하였던 시파가 정권을 잡았으므로 큰 탄압이 없었다. 그러나 순조가 즉위한 직후에 노론 강경파인 벽파가 집권하면서 태탄압이 가해졌다(1801). 이 사건으로 천주교 전래에 앞장을 섰던 실학자 및 많은 수의 양반 계층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천주교는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기에 탄압이 완화되며 백성들에게 활발히 전파되었다. 조선 교구가 설정되고 서양인 신부들이 몰래 들어와 포교하면서 교세가 점차 확장되었다.

천주교의 교세가 커진 것은 세도 정치로 말미암

은 사회 불안과 어려운 현실에 대한 불만과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논리, 내세 신앙 등의 교리가 일부 백성들에게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4.4 동학의 발생

동학은 1860년에 경주 출신인 최제우가 창도하였다. 동학에는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조선 사회가 처한 여러 사회 상황이 반영되었다. 교리는 윤휌선의 주요 내용이 바탕이 되었고, 주문과 부적 등 민간 신앙의 요소들이 결합되었다. 또 사회 도순을 극복하고, 일본과 서양 국가의 침략을 막아 내자는 주장을 폈다.

동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시천주(侍天主)와 인내천 사상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지 않고, 노비 제도를 없애며, 여성과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구하였다. 조선의 지배층은 신분 질서를 부정하는 동학을 위협시하여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한다는 죄로 최제우를 처형하였다.

그 뒤를 이은 최시형은 교세를 확대하면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펴내어 교리를 정리하는 한편 의식과 제도를 정착시켜 교단 조직을 정비하였다. 다시 교세가 커진 동학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는 물론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로 퍼져 나갔다.

4.5 농민의 항거

사회 불안이 점차 고조되자 이제까지 명목상이나마 유지되던 유교적 왕도 정치는 점점 퇴색되어 갔다. 19세기의 세도 정치하에서 국가 기강이 해이해진 틈을 타 탐관오리의 부정과 탐학은 끝이 없었다. 삼정의 문란으로 극도에 달한 수령의 부정은 중앙 권력과도 연계되어 있어 이미 암행어사의 파견으로 막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농촌 사회가 피폐하여 가는 가운데 농민들의 사회 의식은 오히려 더욱 강해져 갔다.

가난과 세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농민들은 농토를 버리고 이리저리 떠도는 유민이 되거나 세금을 피하여 산간벽지로 들어가 화전민이 되기도 하고 도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 농민들은 지배층의 압제에 대하여 종래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과 대결하였다. 처음에는 소청이나 벽서, 궤서 등의 형태로 나타났던 농민들의 항거는 점차 농민 봉기로 변화되어 갔다.

농민들의 항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평안

도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1811)과 진주에서 시작된 전국으로 확산된 임술 농민 봉기였다(1862).

홍경래의 난은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의 지휘 하에 영세 농민, 중소 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합세하여 일으킨 봉기였다. 이들은 처음 가산에서 난을 일으켜 선천, 정주 등을 별다른 저항 없이 점거하였다. 한때는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으나 5개월 만에 평정되었다. 홍경래의 난 이후에도 사회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아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그렇지만 관리들의 부정과 탐학은 시정되지 않았다.

임술 농민 봉기는 진주에서 시작되었는데, 농민들은 탐관오리와 토호의 탐학에 저항하여 한때 진주성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농민의 항거는 북쪽의 함흥으로부터 남쪽의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퍼졌다. 이러한 저항 속에 농민들의 사회 의식은 성장하였고, 농민들의 항쟁으로 말미암아 양반 중심의 통치 체제도 점차 무너져 갔다.

6-1 고대의 문화

1.1 한자의 보급과 교육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은 고대부터 한자 문화권을 형성하였으며, 우리 민족은 철기 시대부터 한자를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삼국 시대의 지배층은 한자를 널리 쓰게 되면서 한문으로 쓰여진 중국의 유교, 불교, 도교의 서적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삼국 시대 사람들은 처음에는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우리말을 썼으나 뒤에는 이두와 향찰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한문의 토착화가 이루어져 갔으며 한문학이 널리 보급되어 갔다.

한자의 보급과 함께 교육 기관이 설립되었다. 고구려는 수도에 태학을 세워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치고, 지방에는 경당을 세워 청소년들에게 한학과 무술을 가르쳤다. 백제의 교육 기관은 전하지 않으나 5경 박사와 의박사, 역박사 등이 있어 유교 경전과 기술학 등을 가르쳤다.

백제가 북위에 보낸 국서는 매우 세련된 한문 문장으로 쓰여졌으며, 사택지적 비문에는 백제 귀족인 사택지적이 불당을 세운 내력을 기록하고 있다. 임신지기서를 보면 신라에서 청소년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여러 교육 기관이

설립됨에 따라 유학이 보급되어 갔다. 삼국 시대의 유학은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된 것이 아니라 충, 효, 신 등의 도덕 규범을 장려하는 정도였다.

통일 신라에서는 신문왕 때 국학이라는 유학 교육 기관을 설립하였다. 그 후 경덕왕 때는 국학을 태학이라 고치고 박사와 조교를 두어 논어와 효경 등의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이것은 충효 일치의 윤리를 강조한 것이었다.

원성왕 때는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 삼품과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골품 제도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는 못하였지만 학문과 유학을 널리 보급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발해에서도 유학 교육을 목적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여 귀족 자제들에게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1.2 역사 편찬과 유학의 보급

삼국 시대에 학문이 점차 발달되고 중앙 집권적 체제가 정비됨에 따라 역사 편찬이 이루어졌다.

고구려에서는 일찍부터 유기가 편찬되었으며, 영양왕 때 이문진이 이를 간추려 신집 5권을 편찬하였다. 백제에서는 근초고왕 때 고흥이 서기를, 신라에서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그러나 이들 역사서는 모두 전하지 않고 있다.

삼국 통일 이후 신라의 대표적 문장가인 김대문은 화랑들의 전기를 모은 화랑세기, 유명한 승려들의 전기를 모은 고승전, 한산주 지방의 지리지인 한산지 등을 지었다. 그의 저서는 현재 전하지 않고 있으나 신라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신라의 유학자는 6두품 출신이 많았다. 통일 신라 초에 활약한 강수는 외교 문서를 잘 지은 문장가도 유명하였으며, 설총은 유교 경전에 조예가 깊었고 이두를 정리하여 한문 교육의 보급에 공헌하였다. 이들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은 도덕적 합리주의를 내세웠다. 특히, 설총은 신문왕에게 화왕계라는 글을 바쳐 임금도 향락을 멀리하고 도덕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통일 이후 신라와 당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당에 건너가 공부한 유학생들이 많아졌다. 그 중에서 이름난 인물은 신라 말기의 김운경, 최치원 등이었다. 특히, 최치원은 당에서 빈공과에 급제하고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후 귀국하여 개혁안 10여 조를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그는 그 후 은둔 생활을 하면서 뛰어난 문장과 저술을 남겼다. 그가 지은 계원필경과 비문의 일부가 오늘날까지 전해 오고 있다. 그는 유학자 이면서 불교와 도교에도 조예가 깊었다.

발해에서도 당에 유학생을 파견하였고 그 중에는 당의 빈공과에 급제한 사람도 여러 명이 나왔다.

1.3 불교의 수용

삼국은 율령을 제정하고 지방 제도와 중앙 조직을 개편하여 왕권의 강화에 힘쓰던 4세기에 불교를 수용하였다. 고구려는 중국의 전진을 통하여 소수림왕 때에 불교를 수용하였고(372), 백제는 동진에서 침류왕 때 불교를 받아들였다(384). 고구려를 통하여 불교가 전래된 신라는 1세기 가까운 민간 전승을 거쳐 법흥왕 때 비로소 불교를 국가적으로 공인하였다(527).

중앙 집권 체제 확립과 지방 세력의 통합에 힘쓰던 이 시기에 불교는 새로운 국가 정신의 확립에 기여하고 강화된 왕권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신라의 여러 왕들이 불교식 이름을 가졌으며, 원광은 젊은이들에게 세속 5계를 가르쳤다. 또 불교의 전래와 함께 사상을 비롯한 음악, 미술, 건축, 공예, 의학 등 선진 문화도 폭넓게 수용되었다. 불교는 새로운 문화 창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삼국은 불교를 신앙으로 널리 수용하였다.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사상적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신라에서는 불교가 왕권과 밀착되어 수행하였다. 승려가 의술을 담당하고 전통 신앙에서 신성하게 여기던 장소에 사원을 건립하면서 불교는 점차 전통 신앙의 기능을 대신하였다.

신라에서 널리 받아들인 불교의 중심 교리는 업설과 미륵불 신앙이었다. 이는 왕이 곧 부처라는 사상을 통하여 왕의 권위를 높여 주는 한편, 귀족들의 특권을 인정해 주는 일면이 있었다. 아울러 미륵불이 나타나 이상적인 불국토를 건설한다는 미륵불 신앙은 진흥왕 때 조직화된 화랑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신라 사회에 정착되었다. 삼국에는 도교도 전래되어 산천 숭배나 신선 사상과 결합하여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환영을 받았다. 백제의 산수 무녀 벽돌은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있으며, 백제 금동 대향로는 신선들이 사는 이상 세계를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고구려 고분에도 그러한 사신도는 도교의 방위신을 그린 것으로 죽은 자의 사후 세

계를 지켜 주리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1.4 불교 사상의 발달

신라의 불교 사상은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를 종합하여 한민족 문화의 토대를 마련한 7세기 후반기에 정립되었다. 삼국 불교의 유산을 토대로 하고 중국과의 교류를 더하여 신라 불교는 다양하고 폭넓은 불교 사상을 본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쌓았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원효는 불교의 사상적 이해 기준을 확립하였다. 그는 당시의 거의 모든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하고 대승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 등을 저술하였다. 원효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들과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는 심문화쟁론을 지었다.

의상은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의상은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부석사를 비롯하여 여러 사원을 건립하여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원효는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신앙을 자신이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고, 의상은 화엄 종단에서 아미타 신앙과 함께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하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이 시기부터 불교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신라 불교가 성숙해 가는 시기에도 많은 승려들은 중국에 가서 새로운 불교를 전수해 왔다. 중국을 넘어 인도에까지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오는 승려도 있었다. 그 중에 혜초는 자신이 돌아본 인도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풍물을 생생하게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기기도 하였다.

고구려 불교를 계승한 발해의 불교는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널리 성행하였는데, 문왕은 스스로를 불교적 성왕으로 일컫기도 하였다. 수도였던 상경에서 발굴된 10여 개의 웅장한 절터와 불상들은 많은 사원이 건립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5 선종과 풍수지리설

선종은 통일 전후에 전래되었으나 교종의 위세에 눌려 그리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라 말기에 귀족 사회의 분열이 심화되고 지방 세력들이 일어나는 변화에 발맞추어 크게 기반을 넓혔다.

경전의 이해를 통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교종과는 달리 선종은 문자를 뛰어넘어 구체적인 실천 수행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속에 내재된 깨달음을 얻는다는 실천적인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교종 체제를 뒤엎는 혁신적인 것이었고, 당시 불교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개혁 요구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선종은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는 호족의 이념적 지주가 되기도 하였다. 화엄 사상을 공부하던 승려들은 점차 중국에 유학하여 새로운 선종을 공부하고 이를 신라에 들여왔다.

선종 승려들 중에는 지방의 호족 출신이 많았다. 그들은 호족 세력들과 결합하여 각 지방에 근거지를 두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9개의 선종 사원이 9산 선문이다.

선종은 중앙 귀족 사회의 모순에 대한 혁신을 내세우며 등장한 호족과 뜻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지방을 근거로 성장하여 지방 문화 역량의 증대를 가져왔다. 선종 승려들은 사회 변혁을 희망하던 6두품 지식인들과 함께 새로운 고려 사회 건설에 사상적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한편, 신라 말기의 도선과 같은 선종 승려들은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지리설을 들여왔다. 풍수지리설은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 주택, 묘지 등을 선정하는 인문지리적 학설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주 중심의 지리 개념에서 벗어나 다른 지방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풍수지리설은 도참 신앙과 결부되어 산수의 생김새로 미래를 예측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것은 지방 중심으로 국토를 재편성하려는 주장으로까지 발전하였다.

2.1 천문학과 수학

우리 민족은 청동기 시대부터 과학 기술의 분야에서 우수한 재능을 발휘하였다. 당시에 사용된 청동검과 청동계의 잔무늬 거울 등은 뛰어난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과학 기술은 삼국 시대와 남북국 시대에도 이어져 많은 업적을 남겼다.

고대의 천문학은 천체 관측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고구려에서는 별자리를 그린 천문도가 만들어졌고, 고분 벽화에도 별자리 그림이 남아 있는데 매우 사실적이고 정확한 관측을 토대로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신라에서도 7세기 선덕 여왕 때에 세계에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첨성대를 세워 천체를 관측하였다.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천문 현상을 관측하여 기록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일월식, 혜성의 출현, 기상 이변 등에 관한 관측 기록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매우 정확한 기록으로 밝혀지고 있다.

고대 사회에서 천체와 천문 현상에 대한 관측을 중시하였던 것은 천문 현상이 농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며, 아울러 왕의 권위를 하늘과 연결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천문학의 발달과 아울러 수학에 관한 지식도 발달하였다. 수학의 실체를 보여 주는 뚜렷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조형물을 통하여 수학이 높은 수준으로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고분의 석실이나 천장의 구조, 백제의 정립사지 5층 석탑, 신라의 황룡사 9층 목탑 등에 수학적 지식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일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석굴암의 석굴 구조나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과 다보탑 등의 건축에는 정밀한 수학적 지식이 이용되었다.

2.2 목판 인쇄술과 제지술의 발달

통일 신라에서는 불교 문화의 발달에 따라 대량으로 불경을 인쇄하기 위한 목판 인쇄술과 질 좋은 종이를 만들 수 있는 제지술이 발달하였다.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8세기 초엽에 만들어진 두루마리 불경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한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쓰여진 종이는 닥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을 만큼 품질이 뛰어난 것이다. 구례 화엄사의 석탑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불경에 쓰인 종이도 통일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얇고 질기며 아름다운 백색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닥나무 종이였다. 이러한 목판 인쇄술과 제지술의 발달은 통일 신라의 기록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2.3 금속 기술의 발달

삼국 시대의 금속 기술은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기술을 계승하여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였다. 고구려에서는 철의 생산이 중요한 국가적 산업이었으며, 철광석 생산이 풍부하여 일찍부터 철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하였다. 고구려 지역에서 출토된 철제 무기와 도구 등은 그 품질이 우수하며, 고분 벽화에는 철을 단련하고 수레바퀴를 제작하는 기술자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백제에서도 금속 기술이 발달하였다. 4세기 후반

에 백제에서 만들어 일본에 보낸 칠지도는 강철로 만든 우수한 제품이며, 거기에는 금으로 상감한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것은 백제의 제철 기술이 우수함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또, 백제 금동대향로는 백제의 금속 공예 기술이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 주는 걸작품이다.

신라에서는 금 세공 기술이 발달하였다.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관들은 순금으로 만든 것과 금으로 도금한 것이 있는데 제작 기법이 뛰어나며 독특한 모양이 돋보인다. 통일 신라 때 12만 근의 구리로 만든 성덕 대왕 신종은 아연이 함유된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신비한 종소리는 당시 신라의 금속 주조 기술이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 주고 있다.

2.4 농업 기술의 혁신

철기 시대 이후로 농업 기술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철기 문화의 보급과 함께 나무나 돌로 만든 농기구가 점차 철제 농기구로 바뀐에 따라 밭이갈이로 지력을 회복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철제 농기구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앙 집권적 귀족 국가로 발전하는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배층만이 주로 철제 농기구를 소유하였다.

철제 농기구 중에서도 쟁기의 보급은 특히 주목되고 있다. 이는 농경에서 소와 같은 가축의 힘을 이용할 수 있어 농업 생산이 크게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에서는 일찍부터 쟁기같이 시작되었고 늦어도 4세기경부터는 고구려의 지형과 풍토에 맞는 보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농업 기술은 4~5세기경에 크게 발전하였다. 백제에서는 수리 시설을 만들고 철제 농기구를 개량하여 논농사를 발전시켰다.

신라에서는 5~6세기경에 소를 경작에 이용하는 우경의 보급이 확대되었다. 삼국사기에는 지증왕 때 우경을 실시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신라 정부가 이 시기부터 우경을 본격적으로 보급하는 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쟁기의 보급과 함께 호미도 점차 중요한 농기구로 보급되었다. 호미는 제조 작업뿐만 아니라 모종 숨기, 이랑갈이 등에 이용되었다.

이와같이 쟁기, 호미, 팽이 등의 농기구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농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3.1 고분과 고분 벽화

고대 사회와 문화를 옛 모습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은 무덤들이다. 삼국은 다양한 무덤을 많이 남겼다.

고구려는 초기에 주로 돌무지무덤을 만들었으나 점차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뀌어 갔다. 돌을 정밀하게 쌓아 올린 돌무지 무덤은 만주의 집안(지안) 일대에 1만 2,000여 기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 다듬은 돌을 계단식으로 7층까지 쌓아 올린 장군총이 대표적인 무덤이다.

굴식 돌방무덤은 돌로 널방을 짜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든 것이다. 널방의 벽과 천장에 새 벽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이런 무덤은 만주 집안, 평안도 용강, 황해도 안악 등지에 널리 있다. 고분 벽화는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문화, 종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초기에는 주로 무덤 주인의 생활을 표현한 그림이 많았고, 후기로 갈수록 점차 추상화되어 사신도와 같은 상징적 그림으로 변화해 갔다. 특히, 무용총의 사냥 그림과 강서대묘의 사신도에서 고구려 사람들의 쾌기와 진취성을 엿볼 수 있다.

백제는 한강 유역에 있던 초기 한성 시기에 계단식 돌무지무덤을 만들었는데 서울 석촌동에 일부가 남아 있다. 이것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라는 건국 이야기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웅진 시기의 고분은 굴식 돌방무덤 또는 널방을 벽돌로 쌓은 벽돌무덤으로 바뀌었다. 벽돌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무령왕릉이 유명하다. 사비 시기의 고분은 규모가 작지만 세련된 굴식 돌방무덤을 만들었다. 백제 돌방무덤과 벽돌무덤에도 벽과 천장에 사신도와 같은 그림을 그려 넣기도 하였다. 이런 그림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보다 부드럽고 온화한 기풍을 나타내고 있다.

신라는 거대한 돌무지 덧널무덤을 많이 만들었으며, 삼국 통일 직전에는 굴식 돌방무덤도 만들었다.

통일 신라 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유행하였고, 고분 양식도 거대한 돌무지 덧널무덤에서 점차 규모가 작은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무덤의 봉토 주위를 돌레돌로 두르고, 그 돌레돌에 12지 신상을 조각하는 신라만의 독특한 양식이 새롭게 나타났다.

발해에도 도읍지를 중심으로 많은 무덤이 남아 있다. 이 중에서 정혜 공주 묘는 굴식 돌방무덤으로 모줄임 천장 구조가 고구려 고분과 닮았다. 이

곳에서 나온 돌사자상은 매우 힘차고 생동감이 있다. 또한 정효 공주 묘에서는 묘지와 벽화가 발굴되었다. 이런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은 발해의 높은 문화 수준을 생생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

3.2 건축과 탑

고대의 건축은 궁전, 사원, 무덤, 가옥에 그 특색이 잘 나타나 있다. 지금 남아 있는 고분과 건축터를 통하여 이 시대의 건축을 짐작할 수 있다.

궁궐 건축으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장수왕이 평양에 세운 안학궁이다. 이 궁궐터는 사각형 한 면의 길이가 620m나 되는 것으로 고구려 남진 정책의 기상이 엿보인다.

사원 건축으로는 신라의 황룡사와 백제의 미륵사가 가장 웅장하고 규모가 크다. 황룡사는 6세기에 진흥왕이 세운 것으로 당시의 팽창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황룡사에는 7세기에 건립한 거대한 9층 목탑이 중심을 잡고 있어 대단히 웅장했으리라 짐작된다. 미륵사는 중앙에 거대한 목탑과 동시에 석탑을 둔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7세기에 무왕이 추진한 백제의 중흥을 반영하고 있다. 가옥 건축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 구조가 일부 보인다.

삼국 시대에는 불교의 전파와 함께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여 예배의 주대상으로 삼던 탑도 많이 건립되었다. 고구려는 주로 목탑을 건립했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없다.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은 서탑만 일부가 남아 있는데 목탑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다. 이를 계승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의 대표적인 석탑으로 안정되면서도 경쾌한 모습으로 유명하다. 신라의 탑으로는 황룡사 9층 목탑과 분황사탑이 유명하다. 분황사탑은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탑으로 지금은 3층까지만 남아 있다.

삼국 시대에는 방어를 위하여 성곽을 많이 축조하였다. 돌로 쌓은 산성이 대부분이고 지형에 따라 흙으로 쌓기도 했는데, 산의 능선을 자연스럽게 이용하여 쌓은 것이 특징이다.

통일 신라의 궁궐과 가옥은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불교가 융성함에 따라 사원을 많이 축조했는데, 그 중에서 8세기 중엽에 세운 불국사와 석굴암이 통일 신라의 사원 건축을 대표한다.

불국사는 불국토의 이상을 조화와 균형 감각으로 표현한 사원이다. 정문 돌계단인 청운교와 백운교는 직선과 곡선을 조화시켰으며, 세속과 이상 세계를 구분짓는 축대는 자연의 선에 인공적으로

맞추어 자연과 인공을 연결시키고 있다. 복잡하고 단순한 좌우 누각의 비대칭은 간소하고 날씬한 석가탑, 복잡하고 화려한 다보탑과 어울려 세련된 균형감을 살리고 있다.

인공으로 축조한 석굴 사원인 석굴암은 네모난 전실과 둥근 주실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공간을 좁은 통로로 연결하고 있는데 주실의 천정은 둥근 돔으로 꾸몄다. 전실과 주실 그리고 천정이 이루는 아름다운 비례와 균형의 조형미로 석굴암은 건축 분야에서 세계적인 걸작으로 손꼽힌다.

한편, 안압지는 통일 신라의 뛰어난 조경술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안압지의 연못, 인공섬, 구름과 건물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꾸며졌다. 특히 연못 쪽으로 건물을 돌출시켜 연못을 잘 볼 수 있게 만들었고 다른 방향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도 변화 있는 경관을 이루게 하였다. 여기에서는 귀족들의 화려한 생활을 짐작할 수 있는 많은 유물이 발굴되었다.

발해의 지상 건물은 궁궐 터나 절터를 통하여 당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상경은 당시 당의 수도인 장안을 본떠 건설하였다. 외성을 쌓고, 남북으로 넓은 주작 대로를 내고, 그 안에 궁궐과 사원을 세웠다. 궁궐 중에는 온돌 장치를 한 것도 발견되었다. 사찰은 높은 단 위에 금당을 짓고 그 좌우에 건물을 배치하였는데, 이 건물들을 회랑으로 연결하였다.

통일 신라에 들어와 석탑은 삼국 시대의 목탑과 전탑 양식을 계승 발전시켜 이중 기단 위에 3층으로 쌓은 전형적인 통일 신라의 석탑 양식을 완성하였다. 통일 신라 초기 석탑으로 대표적인 것은 감은사지 3층 석탑이다. 장중하고 웅대한 이 석탑은 삼국 통일을 달성한 기상을 반영하고 있다.

석가탑은 통일 이후 축조해 온 통일 신라 석탑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 탑의 날씬한 상승감 및 넓이와 높이의 아름다운 비례는 부처가 항상 가까이 있음을 이상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런 탑의 맞은 편에 전례가 없는 특이한 모습의 다보탑을 세울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 시대의 높은 예술성과 건축술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신라 말기에는 석탑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은 기단과 탑신에 부조로 불상들을 새긴 것으로 이름이 나 있다. 신라 말기에 선종이 널리 퍼지면서 승려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과 탑비가 유행하였다. 팔각원

당형을 기본형으로 삼고 있는 승탑과 승려의 일대기를 비에 새겨 세운 탑비는 세련되고 균형감이 뛰어나 이 시기 조형 미술을 대표한다. 이런 승탑과 탑비는 지방 호족들의 정치적 역량이 성장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3.3 불상 조각과 공예

불교가 성행함에 따라 불상이 많이 제작되었다. 삼국은 각기 중국에서 불상 제작법을 받아들여면서도 각각의 독자성을 발휘하였다. 고구려의 연가 7년명 금동 여래 입상은 두꺼운 의상과 긴 얼굴 모습에서 북조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강인한 인상과 은은한 미소에는 고구려의 독자성이 보인다. 백제의 서산 마애 삼존불은 부드러운 자세와 온화한 미소로 자비와 포용의 태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신라의 경주 배리 석불 입상도 푸근한 자세와 부드럽고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것으로 신라 조각의 정수를 보여 주고 있다.

삼국 시대의 불상 조각에서 두드러진 것은 미륵반가 사유상을 많이 제작한 점이다. 이 중에서도 탑 모양의 관을 쓰고 있는 금동 미륵 반가 사유상은 날씬한 몸매와 그윽한 미소로 유명하다. 삼산관(三山冠)을 쓰고 있는 금동 미륵 반가 사유상도 부드러운 몸매와 자애로운 미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통일 신라 시대에 들어와 균형미가 뛰어난 불상들이 만들어졌다. 이 시기 조각의 최고 경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석굴암의 본존불과 보살상들이다.

석굴암 주실의 중앙에 있는 본존불은 균형잡힌 모습과 사실적인 조각으로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갖게 한다. 본존불 주위의 보살상을 비롯한 부조들도 매우 사실적이다. 입구 쪽의 소박한 자연스러움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점점 정제되어 불교의 이상 세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였다. 발해에서도 불교가 장려됨에 따라 불상이 많이 제작되었다. 상경과 동경의 절터에서 발굴된 흙을 구워 만든 불상과 부처 등이 나란히 앉아 있는 불상이 유명한데, 고구려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발해에서는 자기 공예가 독특하게 발전하였다. 발해의 자기는 가볍고 광택이 있는데 그 종류나 크기, 모양, 색깔 등이 매우 다양하였다. 당시 당나라 사람들도 그 우수함을 인정하여 수입해 갔다고 한다.

한편, 고대에는 불교와 관련된 석조물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 중에서 통일 신라 시대의 무열왕릉 비 받침돌은 거북이가 힘차게 전진하는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유명하다. 불국사 석등과 법주사 쌍사자 석등도 단아하면서도 균형 잡힌 걸작으로 꼽힌다.

발해의 조각은 궁궐 터에서 발견되는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발해의 벽돌과 기와 무늬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소박하고 힘찬 모습을 띠고 있다. 상경에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석등은 발해 석조 미술의 대표로 꼽힌다. 팔각의 단 위에 중간이 약간 볼록한 간석 및 그 위에 올린 창문과 기왓골이 조각된 간석은 발해 특유의 웅대하면서도 자아내고 있다.

통일 신라의 공예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범종이다. 통일 후에는 상원사 종, 성덕 대왕 신종 등 범종이 많이 주조되었다. 특히 성덕 대왕 신종은 맑고 장중한 소리, 그리고 천상의 세계를 나타내 보이는 듯한 경쾌하고 아름다운 비천상으로 유명하다.

3.4 글씨,그림과 음악

삼국 시대와 남북국 시대에 한문을 널리 사용함에 따라 서예도 발전하였다. 광개토 대왕릉 비문은 웅건한 서체로 쓰여졌고, 신라의 김생은 질박하면서도 굳센 신라의 독자적인 서체를 열었다. 그림에서는 경주 황남동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도가 신라의 힘찬 화풍을 보여 주고 있다. 화가로는 신라의 슬거를 꼽을 수 있다. 그가 황룡사 벽에 그린 소나무 그림에 날아가던 새들이 앉으려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그리고 화엄경 변상도에서 볼 수 있는 섬세하고 유려한 모습은 신라 그림의 높은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음악과 무용은 종교 및 노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춤추는 장면이 있으며 화랑들도 노래와 춤을 즐겼다고 한다. 삼국의 음악가로는 신라의 백결 선생, 고구려의 왕산악, 가야의 우륵이 유명하다. 백결 선생은 방아타령을 지어 가난한 사람들을 달랬고, 왕산악은 진의 칠현금을 개량하여 거문고를 만들고 악곡을 지었다. 우륵은 가야금을 만들고 12악곡을 지었는데, 이것이 신라에 전해져 우리 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3.5 한문학과 향가

삼국 시대에는 한자가 두루 쓰이면서 한시를 짓기도 하였다. 고구려 유리왕이 이별의 슬픔을 노

래한 황조가와 을지문덕이 수의 장수에게 보낸 오연시가 전해지고 있다.

일반 민중 사이에는 구지가와 같은 무속 신앙과 관련된 노래나 회소곡과 같은 노동과 관련된 노래가 유행하였다. 한편, 민중들은 어려운 생활 속에 그들의 소망을 노래로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백제의 정읍사가 손꼽힌다.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는 승려나 화랑들이 혜성가와 같은 향가를 지어 부르기도 하였다.

통일 신라에서도 화랑과 승려들이 향가를 지어 불렀는데, 삼국유사에 14수가 전하고 있다. 그 내용은 화랑에 대한 사모의 심정, 형제 간의 우애, 궁덕이나 불교에 대한 신앙심을 담고 있다. 삼국 통일을 이룰 때의 이상이 무너지고 지배층이 저지르는 횡포를 비판하는 향가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9세기 후반에는 이런 향가를 모아 삼대목이라는 향가집을 편찬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고 있다.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는 설화 문학이 구전되었는데 에밀레종 설화나 설씨녀 이야기, 효녀 지은의 이야기 등에서 이 시대 종교와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찾아볼 수 있다.

발해의 한문학은 4.6 변려체로 쓰여진 경혜 공주와 정효 공주의 묘지를 통해서 그 높은 수준을 알 수 있다. 발해의 시인으로는 양태사가 유명한데, 그가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고국을 그리며 지은 다듬이 소리라는 작품이 대표적이다.

4.1 삼국 문화의 일본 전파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어 일본 고대 문화 성립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삼국 중에서 일본과 가까웠던 백제가 삼국 문화의 일본 전수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4세기에 아직기는 일본의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고, 뒤이어 일본에 건너간 왕인은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고 가르쳤다. 6세기에는 노리사치계가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 이렇게 전래된 백제 문화를 바탕으로 일본의 세계적 자랑인 교류 사 미륵 반가 사유상과 호류 사 백제 관음상이 만들어졌다. 이 밖에도 5경 박사, 의박사, 역박사와 천문 박사, 제약사 그리고 화가와 공예 기술자들도 건너갔는데 이들에 의하여 목탑이 세워졌고, 나아가 백제 가람 양식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고구려도 일본 고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7세기 초에 담징은 종이와 먹의 제조 방법을 전하였고, 호류 사의 벽화를 그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승려 혜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으며 해관은 불교 전파에 큰 공을 세웠다. 일본 나라 시에서 발견된 다카마쓰 고분 벽화가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와 흡사한 점에서 고구려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다.

신라는 일본과 문화 교류는 적었지만 배 만드는 기술과 제방 쌓는 기술을 전해 주어 한인의 연못이라는 이름까지 생기게 되었다. 삼국의 음악도 전해져 일본 음악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삼국의 문화는 6세기경의 야마토 조정의 성립과 7세기경 나라 지방에서 발전한 아스카 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4.2 일본에 건너간 통일 신라 문화

삼국 문화에 뒤이어 통일 신라의 문화도 일본에 전해졌다. 통일 신라 문화의 전파는 일본에서 파견해 온 사신을 통해서 이뤄졌다. 원효, 강수, 설총이 발전시킨 불교와 유교 문화는 일본 하쿠호 문화의 성립에 기여하였다. 특히, 심상에 의하여 전해진 화엄 사상은 일본 화엄종을 일으키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8세기 말에 이르러 일본이 수도를 헤이안으로 옮긴 뒤로부터는 외국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6-2중세의문화

1.1 유학의 발달

고려 시대에는 유교와 불교가 함께 발전하였다. 유교는 정치와 관련한 치국의 도로서, 불교는 신앙 생활과 관련한 수신의 도로서 서로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가 함께 발전할 수 있었다.

고려 초기에는 유교주의적 정치와 교육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태조 때에는 신라 6두품 계통의 유학자들이 활약하였고, 광종 때에는 과거 제도가 실시되어 유학에 능숙한 관료들이 등용되었다. 성종 때에는 유교 정치 사상이 확고하게 정립되고 유학 교육 기관이 정비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 유학자는 최충로였다. 그는 시무 28조의 개혁안을 올리고 유교 사상을 치국의 근본으로 삼아 사회 개혁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그의 유교 사상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특성을 지녔다.

고려 중기에는 문벌 귀족 사회의 발달과 함께 유교 사상도 점차 보수적인 성격으로 바뀌어 갔다.

이 시기의 대표적 유학자는 최충과 김부식이었다. 문종 때 활약한 최충은 해동공자라는 칭송을 들었으며 고려의 유학을 한 차원 높였다. 그는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 9재 학당을 세워 유학 교육을 힘썼고, 고려의 훈고학적 유학에 철학적 경향을 새로이 불어넣기도 하였다.

인종 때 활약한 김부식은 고려 중기의 보수적이면서 현실적인 성격의 유학을 대표하였다. 이 시기의 유학은 시문을 중시하는 귀족 취향의 경향이 강하였고, 유교 경전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깊어져 유교 문화는 한층 성숙되었다. 그러나 무신 정변이 일어나 문벌 귀족 세력이 몰락함에 따라 고려의 유학은 한동안 크게 위축되었다.

1.2 교육 기관

고려 시대에는 관리 양성과 유학 교육을 위하여 많은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장려하였다. 중앙에는 국립 대학으로 국자감(국학)이 설치되었다. 국자감에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과 같은 유학부와 율학, 서학, 산학 등의 기술학부가 있었다. 유학부에는 문무관 7품 이상 관리의 자제가, 기술학부에는 8품 이하 관리나 서민의 자제가 입학하였다.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가 설치되어 지방 관리와 서민의 자제들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고려 중기에는 최충의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가 융성하였다. 사학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과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자 국자감의 관학 교육을 위한 여러 시책을 추진하였다.

숙종 때에는 국자감에 서적포를 두어 서적 간행을 활성화하였다. 예종 때에는 국자감을 재정비하여 7재라는 전문 강좌를 설치하고, 양현고라는 장학 재단을 두어 관학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궁중에 도서관 겸 학문 연구소를 두어 유학을 진흥시켰다. 이어서 인종 때에는 경사 6학을 정비하고 유학 교육을 강화하였다.

무신 정권기에는 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충렬왕 때에 이르러 다시 관학의 진흥에 힘썼다. 이 때에 양현고의 부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교육 재단으로 섭학전을 설치하였다. 또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공자 사당인 문묘를 새로 건립하여 유교 교육의 진흥에 나섰다. 공민왕 때에는 최고 학부인 성균관을 부흥시켜 순수한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하고 유교 교육을 강화하였다.

1.3 역사서의 편찬

고려 시대에는 유학이 발달하고 유교적인 역사 서술 체계가 확립되어 많은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건국 초기부터 왕조 실록이 편찬되었으나 거란의 침입으로 불타버렸다. 이에 태조부터 목종에 이르는 7대 실록을 현종 때 편찬하기 시작하여 덕종 때 완성하였다. 그러나 고려 왕조의 실록은 오늘날 전하지 않고 있다.

인종 때에는 김부식 등이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로서, 고려 초에 쓰여진 구삼국사서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고구려 계승 의식을 뚜렷하게 표방하였으나 중기에 이르러 신라 계승 의식이 강화되었는데, 삼국사기에는 신라 계승 의식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고려 후기에는 민족적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대두하였다. 이는 무신 정변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몽고 침략의 위기를 겪은 후에 나타난 변화였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역사서로는 해동고승전,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을 꼽을 수 있다.

각훈이 쓴 해동고승전은 삼국 시대의 승려 30여 명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만 남아 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 건국의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로서, 고구려의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충렬왕 때 일언이 쓴 삼국유사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여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같은 시기에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단군으로부터 서술하면서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하는 자주성을 나타내었다.

고려 후기에는 신진 사대부의 성장 및 성리학의 수용과 더불어 정통 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유교 사관이 대두하였다. 이를 대표하는 이세현은 사략을 비롯한 여러 권의 사서를 저술하였는데 지금은 사략에 실렸던 사론만이 남아 있다. 그의 역사 서술에는 개혁을 단행하여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 질서를 회복하려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1.4 성리학의 전래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이 전래되어 사상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부문에 걸쳐 큰 영향을 주었다.

남송의 주희가 집대성한 성리학은 종래 자구의 해석에 힘쓰던 한·당의 훈고학이나 사상 중심의 유학과는 달리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신유학이었다.

고려에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충렬왕 때 안향이였다. 그 후 백이정이 직접 원에 가서 성리학을 배워 와 이세현과 박종좌 등에게 전수하였다. 충선왕 때 이세현은 원의 수도에 설립된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그는 귀국한 후에 이색 등에게 영향을 주어 성리학 전파에 이바지하였다. 공민왕 때 이색은 정몽주, 권근, 정도전 등을 가르쳐 성리학을 더욱 확산시켰다.

성리학을 수용한 사람들은 대부분 신진 사대부였다. 이들은 현실 사회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 사상으로 성리학을 받아들였으며,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측면보다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실천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유교적인 생활 관습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학과 주자가례를 중시하고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이후 고려의 정신적 지주였던 불교는 쇠퇴하게 되었고 성리학이 새로운 국가 사회의 지도 이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2.1 불교 정책

고려 초기부터 불교는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발전하였다. 태조는 불교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유교 이념과 전통 문화도 함께 존중하였다. 그는 개경에 여러 사원을 세웠고, 훈요 10조에서 불교를 숭상하고 연등회와 팔관회 등 불교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할 것을 당부하여 불교에 대한 국가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귀족들도 불교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이들은 정치 이념으로 삼았던 유교와 신앙인 불교를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일반인들도 현세적인 기복 신앙으로서 불교를 널리 신봉하였다. 지방의 신앙 공동체였던 향도에는 불교와 함께 토속 신앙의 면모도 보이며, 불교와 풍수지리설이 융합된 모습도 보인다.

광종 때부터 승과 제도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게는 품계를 주고 승려의 지위를 보장하였으며, 국사와 왕사 제도를 두어 이들로 하여금 왕실의 고문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사원에는 토지를 지급하고 승려들에게 면역의 혜택을 주었다.

2.2 불교 통합 운동과 천태종

고려 초기에는 화엄 사상을 정비하고 보살의 실천행을 폈던 균여의 화엄종이 성행하였고, 선종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그 뒤에는 개경에 홍왕사나 현화사와 같은 왕실과 귀족들의 지원을 받는 큰 사원이 세워져 불교가 번창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지원을 받아 화엄종과 법상종이 나란히 융성하였다.

11세기에 이미 종파적 분열상을 보인 고려 불교계에 문종의 왕자로서 승려가 된 의천은 교단 통합 운동을 펼쳤다. 그는 홍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으며, 선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청사를 창건하여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이를 위한 사상적 바탕으로 의천은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 겸수를 제창하였다.

이러한 교단 통합 운동은 천태종에 많은 승려가 모이는 등 새로운 교단 분위기를 형성하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불교의 폐단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대책이 뒤따르지 않아 의천이 죽은 뒤 교단은 다시 분열되고 귀족 중심의 불교가 지속되었다.

2.3 결사 운동과 조계종

무신 집권 이후의 사회 변동기를 지나며 불교계에서도 본연의 자세 확립을 주창하는 새로운 종교 운동인 결사 운동이 일어났다. 지눌은 명리에 집착하는 당시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였다. 그는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개혁 운동인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송광사에 중심을 둔 수선사 결사 운동은 개혁적인 승려들과 지방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지눌은 선과 교학이 근본에 있어 둘이 아니라는 사상 체계인 정혜쌍수를 사상적 바탕으로 철저한 수행을 선도하였다. 지눌은 또한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위한 노력과 함께,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아울러 강조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여 교와 선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한 지눌의 논리는 고려 불교가 지향하던 선교 일치 사상을 완성한 것이었다.

지눌의 결사 운동은 지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혜심은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장차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요세는 백성들의 신앙적 욕구를 고려하여 강진 만덕사에 백련결사를 제창하였다.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백련결사 역시 지방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고, 수선사와 양립하며 고려 후기 불교계를 이끌었다.

그러나 원 간섭기에 들어서자 개혁 운동의 의지가 퇴색하고 귀족 세력과 연결되어 불교계는 다시 폐단을 드러내었다. 사원은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상업에도 관여하여 부패가 심하였고, 이에 교단을 정비하려는 보우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성리학을 사상적 배경으로 대두한 신진 사대부들은 이와 같은 불교계의 사회 경제적인 폐단을 크게 비판하였다.

2.4 대장경 간행

불교 사상에 대한 이해 체계가 정비되면서 불교에 관련된 서적을 모두 모아 체계화하는 대장경이 편찬되었다. 경.율.론의 삼장으로 구성된 대장경은 불교 경전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교리 체계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적 의의가 높은 유산이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받았던 고려는 부처의 힘을 빌려 이를 물리치려고 대장경을 간행하였다. 70여 년의 오랜 기간 동안 목판에 새겨 간행한 이 초조대장경은 개경에 보관하였다가 대구 팔공산 부인사로 옮겨졌는데, 몽고 침입 때에 불타 버리고 인쇄본 일부가 남아 고려 인쇄술의 정수를 보여 주고 있다.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진 얼마 후에 의천은 고려는 물론 송과 요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속장경을 편찬하였다. 이를 위하여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목을 만들고,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10여 년에 걸쳐 신라인의 저술을 포함한 4,700여 권의 전적을 간행하였다.

몽고 침공으로 소실된 초조대장경을 대신하여 교종 때에 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다.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16년 만에 이룩한 재조대장경은 현재까지 합천 해인사에 8만 매가 넘는 목판이 모두 보존되어 있어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른다. 팔만대장경은 방대한 내용을 담았으면서도 잘못된 글자나 빠진 글자가 거의 없는 제작의 정밀성과 글씨의

아름다움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장경으로 꼽힌다.

2.5 도교와 풍수지리설

고려 시대에는 유교, 불교와 함께 도교도 성행하였다. 불로장생과 현세의 구복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교는 여러 가지 신을 모시면서 제앙을 물리치고 복을 빌며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교 행사가 자주 베풀어졌고, 궁중에서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가 성행하였다. 예종 때 도교 사원이 처음 건립되었고 이 곳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하늘과 별들에 제사를 지내는 도교 행사가 개최되었다.

도교에는 불교적인 요소와 도참 사상도 수용되어 일관된 체계를 보이지 못하였으며 교단도 성립하지 못하여 민간 신앙으로 전개되었다. 국가적으로 이름난 명산대천에 제사 지내는 팔관회는 도교와 민간 신앙 및 불교가 어우러진 행사였다.

신라 말에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풍수지리설은 미래의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도참 사상이 더해져 고려 시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고려 초기에는 개경과 서경이 명당이라는 설이 유포되어 서경 천도와 북진 정책 추진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길지설은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의 정치적 투쟁에 이용되어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문종을 전후한 시기에는 북진 정책의 퇴조와 함께 새로이 한양 명당설이 대두하여 이곳을 남경으로 승격하고 궁궐을 지어 왕이 머물기도 하였다.

3.1 천문학과 의학

고려 시대에는 고대 사회의 전통적 과학 기술을 계승하고 중국과 이슬람의 과학 기술도 수용하여 이 분야에서 많은 중요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최고 교육 기관인 국가감에서는 율학, 서학, 산학 등의 공학을 교육하였다. 아울러 과거 제도에서도 기술관을 등용하기 위한 잡과가 실시되어 과학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다.

고려 과학 기술의 발전을 대표하는 것은 천문학, 의학, 인쇄술, 상감 기술, 화약 무기 제조술 등이었다.

천문학은 천문 관측과 역법 계산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천문과 역법을 맡은 관청으로 사천대(서운관)가 설치되었고, 이 곳의 관리들은 첨성대에서 관측 업무를 수행하였다. 일식, 혜성, 태양

흑점 등에 관한 관측 기록이 매우 풍부하게 남아 있고, 이런 기록들은 당시 과학 기술 분야에서 앞서 있던 이슬람 문명의 기록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역법 연구에서도 확실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고려 초기에는 신라 때부터 쓰기 시작하였던 당의 선명력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의 충선왕 때는 원의 수시력을 채용하고 그 이론과 계산법을 충분히 소화하였다. 이슬람 역법까지 수용하여 원에서 만든 수시력은 당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가장 훌륭한 역법이었다.

의학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하였다. 의료 업무를 맡은 태의감에서 의학 교육을 실시하고, 의원을 뽑는 의과를 시행하여 고려 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고려 중기의 의학은 당송 의학의 수준에서 한 걸음 나아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자주적인 의학으로 발달하여 향약방이라는 고려의 독자적 처방이 이루어졌다. 이리하여 향약구급방을 비롯한 많은 의서가 편찬되었다. 13세기에 편찬된 향약구급방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 서적으로 각종 질병에 대한 처방과 국산 약재 180여 종이 소개되어 있다.

3.2 인쇄술의 발달

고려 시대의 기술학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인쇄술의 발달이었다. 건국 초기부터 개경과 서경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많은 책들을 수집 보관하였다. 그리하여 수만 권의 진기한 책들이 보관되었고 송에서도 구하여 갈 정도였다. 또한 각종 책의 수요가 증가하여 서적포에서 새로이 책을 인쇄하기도 하였다.

신라 때부터 발달한 목판 인쇄술은 고려 시대에 이르러 더욱 발달하였다. 고려대장경의 판목은 고려의 목판 인쇄술이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목판 인쇄술은 한 종류의 책을 다량으로 인쇄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여러 가지의 책을 소량으로 인쇄하는 데는 활판 인쇄술보다 못하였다. 따라서 고려에서는 일찍부터 활판 인쇄술의 개발에 힘을 기울였으며 후기에는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였다.

고려 시대에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된 것은 목판 인쇄술의 발달, 청동 주조 기술의 발달, 인쇄에 적당한 잉크와 종이의 제조 등이 어우러진 결과였다. 12세기 말이나 13세기 초에는 이미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었으리라

고 추측되며, 몽고와 전쟁 중이던 강화도 피난 시에는 금속 활자로 상경조금예문을 인쇄하였다(1234). 이는 서양에서 금속 활자 인쇄가 시작된 것보다 200여 년이나 앞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러나 이 책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직지심체요절(1377)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받고 있다.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제지술도 발달하였다. 전국적으로 다편의 재배를 장려하고 종이 제조의 전담 관서를 설치하여 우수한 종이의 제조에 힘썼다. 이리하여 고려의 제지 기술은 더욱 발전하였으며, 칠기과 회면서 앞뒤가 반질반질하여 글을 쓰거나 인쇄하기에 적당한 종이 생산되었다. 당시 고려에서 만든 종이는 중국에 수출되어 호평을 받았다.

3.3 농업 기술의 발달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농민 생활의 안정과 국가 제정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권농 정책을 추진하였다. 광종 때에는 황무지 개간의 규정을 마련하여 토지 개간을 장려하였고, 성종 때에는 각 지방의 무기를 거둬들이고 이를 농기구로 만들어 보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권농 정책에 힘입어 농업 기술이 발달하였다. 토지의 개간과 간척 등이 이뤄지고, 수리 시설이 개선되었으며,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해마다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늘어났다. 고려 중기까지는 목은 땅, 황무지, 산지 등의 개간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후기에는 해안 지방의 저습지가 간척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강화도 피난 시기 이후에는 강화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간척 사업이 추진되었다. 서해안 지방의 간척 사업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적은 시기를 주로 활용하였다. 또, 김제의 벽골제와 밀양의 수산제가 개축되었으며, 소규모의 제언(저수지)이 확충되고 해안의 방조제 등이 만들어져 수리 시설과 관련된 농업 기술이 점차 발전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논농사나 밭농사에서 1년 1작이 기본이었으며, 논농사에서는 직파법이 주로 행해졌다. 그러나 고려 말에는 남부 지방 일부에서 이앙법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밭농사에서도 2년 동안에 보리, 콩, 조 등을 돌려짓기 하는 2년 3작의 윤작제도 보급되었다. 그리고 소를 이용한 갈이갈이도 널리 보급되어 휴경 기간의 단축과 생산력의 증대 등을 가져왔다.

시비법도 발달하여 가축의 배설물을 거름으로 사용하였고, 콩과 작물을 심은 뒤 같이엮어 비료로 사용하는 녹비법 등이 시행되었다. 또, 풀이나 나무를 불태워 그 재를 거름으로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시비법이 발달함에 따라 거르지 않고 해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늘어났으며 농업 생산력도 더욱 증가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중국의 농서를 도입하여 이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암은 원의 농상집요를 소개 보급하였는데 이는 농업 기술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공민왕 때 문익점이 원에서 목화씨를 들여왔으며, 이로써 목화 재배가 고려 말에 시작되어 의생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3.4 화약 무기 제조와 조선 기술

과학 기술의 발달은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고려 말에 최무선은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화약 무기의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화약 제조 기술의 습득에 힘을 기울였다. 당시 중국에서는 화약 제조 기술을 비밀에 붙여서 고려에서는 이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최무선의 끈질긴 노력으로 화약 제조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이에 고려 정부는 화포도감을 설치하고 최무선을 중심으로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화포와 같은 화약 무기의 제조는 급속도로 진전되어 얼마 후에는 20종에 가까운 화약 무기가 만들어졌다. 최무선은 이 화포를 이용하여 진포(금강 하구) 싸움에서 왜구를 크게 격퇴하였다.

배를 만드는 기술도 발달하였다. 송과 해상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길이가 96척이나 되는 대형 범선이 제조되었다. 각 지방에서 징수한 조세미를 개경으로 운송하는 조운 체계가 확립되면서 1,000석의 곡물을 실을 수 있는 대형 조운선도 등장하였는데, 이는 주로 해안 지방의 조창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200석 정도의 곡물을 실을 수 있는 소형 조운선은 주로 한강 유역의 조창에 배치되었다.

13세기 후반에는 원의 강요에 따라 일본 원정에 필요한 전함 수백 척을 짧은 기간에 건조하였는데 이는 고려 시대의 조선 기술이 상당히 발달하였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고려 말에는 배에 화포를 설치하여 왜구 격퇴에 활용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배의 구조를 화포의 사용에 알맞도록 흔들림이 적게 개선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4.1 문학의 성장

고려 전기에는 광종 때부터 실시한 과거제와 함께 한문학이 크게 발달하였다. 성종 이후 문치주의가 성행함에 따라 한문학은 관리들의 필수 교양이 되었고, 박인량과 정지상을 비롯한 우수한 시인들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의 한문학은 중국 모방의 단계를 벗어나 독자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고려 사회가 귀족화되면서 당의 시와 송의 산문을 숭상하는 풍조가 널리 퍼졌다.

한편, 삼국 시대 이래의 향가도 맥을 이어 왔는데, 광종 때 규연이 지은 보현심원가 11수가 그의 전기인 규연전에 전해지고 있다. 예종 때는 현화사의 낙성사에서 문신들에게 한시와 더불어 향가를 짓게 할 정도였으나 향가는 점차 한시에 밀려 사라지고 말았다.

12세기 후반 이후 약 100년 동안의 무신 집권기에 문학은 큰 변화를 나타내었다. 무신의 집권으로 좌절감에 빠진 문신들은 낭만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경향을 띤 수필 형식의 책들을 펴냈다. 임춘은 국순전에서 술을 의인화하여 현실을 풍자하였고, 이인로는 역대 문인들의 명시들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파환집에서 과거의 명문에 근거한 표현 방식을 강조하였다.

최씨 무신 집권기에는 정계에 등용된 문신들에 의하여 새로운 문학 경향이 나타났다. 이들은 형식보다는 내용에 치중하여 현실을 제대로 표현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문인으로는 이규보와 최자를 꼽을 수 있다.

고려 후기에는 전반적인 사회 변화가 모색되었는데, 이와 함께 문학에서도 신진 사대부와 민중이 주축이 되어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갔다. 신진 사대부들은 향가 형식을 계승하여 새로운 시가인 경기체가를 창작하였다. 한림별곡, 관동별곡, 죽계별곡 등의 작품들은 주로 유교 정신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설화 형식으로 현실을 비판하는 문학도 유행하였다. 민간에 구전되는 이야기를 일부 고쳐 한문으로 기록한 패관 문학이 유행하였는데, 이규보의 백운소설과 이제현의 역웅패설이 대표적이다. 사물을 의인화하여 일대기로 구성한 이규보의 국선생전과 이곡의 죽부인전 등도 현실을 합리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을 띠었다. 한시도 이제현, 이곡, 정몽주 등 유학자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이곡의 시는 당시 사회의 부패상을 읊은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민중 사회에서는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자가 혹은 속요라는 가요가 유행하였다. 청산별곡, 가시리, 쌍화점 등 많은 작품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서민의 생활 감정을 대담하고 자유 분방한 형식으로 드러내어, 시가 분야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4.2 건축과 조각

고려 시대의 건축은 궁궐과 사원이 중심이었으나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궁궐 건축은 개성 만월대의 궁궐 터를 통해서 경대만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도성 안의 궁궐은 경사진 면에 축대를 높이 쌓고 경사진 면에 건물들을 계단식으로 배치하였기 때문에 건물들이 층층으로 나타나 웅장하게 보였다. 사원 건물로 유명한 것은 현화사와 흥왕사였다. 특히, 흥왕사는 12년에 걸쳐 막대한 인원과 경비를 들여 지은 장엄한 사원이었다고 한다. 13세기 이후에 지은 중심포식 건물들은 일부 남아 있다. 현존하는 목조 건물들은 균형 잡힌 외관과 잘 짜여진 각 부분의 치밀한 배치로 고려 시대 건축의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가장 오래된 건물로 알려져 있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주변 자연과 어우러진 외관과 잘 다듬은 각 부재의 배치가 만들어 내는 경건한 내부 공간으로 유명하다. 고려 후기에는 다포식 건물도 등장하여 조선 시대 건축에 큰 영향을 끼쳤다. 황해도 사리원의 성불사 응진전은 고려 시대 다포식 건물로 유명하다.

고려 시대의 석탑은 신라 양식을 일부 계승하면서 그 위에 독자적인 조형 감각을 가미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다각 다층탑이 많았고 안정감은 부족하나 자연스러운 모습을 띠었다. 석탑의 몸체를 받치는 받침이 보편화되었다. 개성 불일사 5층 석탑과 오대산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 유명하며, 고려 후기의 경천사 10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본뜬 것으로 조선 시대로 이어졌다. 지역에 따라서 고대 삼국의 전통을 계승한 석탑들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승려들의 승탑은 고려 시대에도 조형 예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고달사지 승탑과 같이 신라 후기 승탑의 전형적인 형태인 팔각원당형을 계승하는 것이 많았으나 특이한 형태를 띠면서 조형미가 뛰어난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등도 만들어졌다.

고려 시대의 불상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독특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신라 이래의 조형 전통을 계승하는 양식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조형미가 다소 부족함이 많았다. 전통 양식으로는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과 같은 걸작이 있다.

고려 초기에는 광주 준공리 철불과 같은 대형 철불이 많이 조성되어 시대적 특징을 이루었다. 그리고 논산의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나 안동의 이천동 석불처럼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에 지역 특색이 잘 드러난 거대한 불상들이 건립되기도 하였다.

4.3 청자와 공예

고려 귀족들은 자신들의 사치 생활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 즐겼으므로 예술 면에서도 큰 발전을 나타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분야는 공예였다. 공예는 귀족들의 생활 도구와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불구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특히 자기 공예가 뛰어났다.

고려 자기는 신라와 발해의 전통과 기술을 토대로 송의 자기 기술을 받아들여 귀족 사회의 전성기인 11세기에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였다. 자기 중에서 가장 이름난 것은 비취색이 나는 청자인데, 중국인들도 천하의 명품으로 손꼽았다. 청자의 그윽한 색과 다양한 형태 그리고 고상한 무늬는 자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민족의 정취를 풍기고 있다.

12세기 중엽에 고려의 독자적 기법인 상감법이 개발되어 자기에 활용되었다. 상감 청자는 무늬를 훨씬 다양하고 화려하게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청자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상감 청자는 강화도에 도읍한 13세기 중엽까지 주류를 이루었으나 원 간섭기 이후에는 퇴조해 갔다.

고려의 청자는 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이 생산되고 연료가 풍부한 지역에서 구워졌는데, 전라도 강진과 부안이 유명하였다. 특히, 강진에서는 최고급의 청자를 만들어 중앙에 공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려 말 원으로부터 북방 가마의 기술이 도입되면서 청자의 빛깔도 퇴조하여 점차 소박한 분청 사기로 바뀌어 갔다.

고려의 금속 공예 역시 불교 도구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청동기 표면을 파내고 실처럼 만든 은을 채워 넣은 청동기 장식을 은입사 기술이 발달하였다. 은입사로 무늬를 새긴 청동 향로

와 버드나무와 동물 무늬를 새긴 청동 정병이 대표적이다.

한편, 옷칠한 바탕에 자개를 붙여 무늬를 나타내는 나전 칠기 공예도 크게 발달하였다. 특히, 불경을 넣는 경함, 화장품감, 문방구 등이 남아 있는데, 한가하고 푸근한 경치를 섬세하게 새겨 넣은 작품들에서 우리의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이런 나전 칠기 공예는 조선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4.4 글씨,그림과 음악

고려 문화의 귀족적 특징은 서예, 회화, 음악에서도 나타났다. 서예는 고려 전기에는 구양순체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탄연의 글씨가 특히 뛰어났다. 후기에는 송설체가 유행했는데, 이암이 뛰어났다.

그림은 도화원에 소속된 전문 화원의 그림과 문인이나 승려의 문인화로 나뉘었다. 뛰어난 화가로는 예성강도를 그린 이령과 그의 아들 이광필이 있었으나 그들의 그림은 전하지 않는다. 고려 후기에는 사군자 중심의 문인화가 유행하였으나 역시 전하는 것은 없다. 다만 공민왕이 그렸다는 천산대렵도가 있어 당시의 그림에 원대 북화가 영향을 끼쳤음을 알려 주고 있다.

한편, 고려 후기에는 왕실과 권문세족의 구복적 요구에 따라 불화가 많이 그려졌다. 그 내용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불도와 지장보살도 및 관음보살도가 많았다. 일본에 전해 오고 있는 혜허가 그린 관음보살도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또, 불교 경전을 필사하거나 인쇄할 때, 맨 앞장에 그 경전의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한 사경화도 유행하였다. 이 밖에 사찰과 고분의 벽화가 일부 남아 있는데,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사천왕상과 보살상이 유명하다.

고려 시대의 음악은 크게 아악과 향악으로 구분된다. 아악은 송에서 수입된 대성악이 궁중 음악으로 발전된 것으로 오늘날까지도 격조 높은 전통 음악을 이루고 있다. 속악이라고도 하는 향악은 우리의 고유 음악이 당악의 영향을 받아 발달한 것인데, 당시 유행한 민중의 속요와 어울려 수많은 곡을 낳았다. 동동, 한림별곡, 대동강 등의 곡이 유명하였다. 악기는 전래의 우리 악기에 송의 악기가 수입되어 약 40종이나 되었다고 한다.

6-3근세의문화

1.1 발달 배경

조선 초기에는 민족적이면서 실용적인 성격의 학문이 발달하여 다른 시기보다 민족 문화가 크게 발달하였다. 당시의 집권층은 민생 안정과 부국강병을 위하여 과학 기술과 실용적 학문을 중시하고 민족 문화의 발달에 노력하였으며, 우리의 문자인 한글을 창제하여 민족 문화의 기반을 넓힘과 동시에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았다. 15세기 문화를 주도한 관학과 계열의 관료와 학자들은 성리학을 지도 이념으로 내세웠으나 성리학 이외의 학문과 사상이라도 중앙 집권 체제의 강화나 민생 안정과 부국강병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세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는 유교 이념에 토대를 두고 과학 기술과 실용적 학문을 발달시켰다. 이로써 민족적이면서 자주적인 성격의 민족 문화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1.2 한글 창제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한자를 써 오면서 이두나 향찰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고유 문자가 없어서 우리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 맞으면서도 누구나 배우기 쉽고 쓰기 좋은 우리의 문자가 필요하였다. 더욱이 조선 한자음의 혼란을 줄이고 피지배층을 도덕적으로 교화시켜 양반 중심 사회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문자의 창제가 요청되었다.

이에 한글을 창제한 후 세종은 훈민정음을 반포하였다(1446).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으며, 자기의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매우 과학적인 뛰어난 문자이다.

조선 정부는 한글을 보급시키기 위하여 왕실 조상의 덕을 찬양하는 용비어천가, 한처님의 덕을 기리는 월인천강지곡 등을 지어 한글로 간행하였다. 또한 불경, 농서, 윤리서, 병서 등을 한글로 번역하거나 편찬하였다. 그리고 서리들이 한글을 배워 행정 실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채용에 훈민정음을 시험으로 치르게 하기도 하였다. 민족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도구 가운데 하나는 자기 민족의 고유 문자이다. 우리 민족은 고유한 문자인 한글을 가지게 됨으로써 일반 백성들도 문자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문화 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민족 문화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졌을 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1.3 역사서의 편찬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왕조의 정통성에 대한 명분을 밝히고 성리학적 통치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서의 편찬에 힘썼다. 조선 시대에는 실록의 편찬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한 왕대의 역사를 후대에 남기기 위한 실록의 편찬은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 계속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기록 문화 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조 때 정도전은 고려국사를 편찬하여 고려 시대의 역사를 정리하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려 하였다. 이후에도 고려 시대의 역사를 자주적 입장에서 재정리는 작업은 계속되어 15세기 중엽에 기전체의 고려사와 편년체의 고려사절요가 완성되었다.

우리나라의 전체 역사를 편찬하려는 노력도 계속 되어 성종 때 동국통감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통사로서 서거정 등이 편찬한 것이다. 16세기에는 새로운 역사서로 박상의 동국사략 등이 편찬되었다.

1.4 지리서의 편찬

조선 초기에는 중앙 집권과 국방의 강화를 위하여 지리지와 지도의 편찬에 힘썼다.

태종 때에는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만들어졌다. 이 지도의 필사본이 일본에 현존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세계 지도 중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세종 때에는 전국 지도로서 팔도도를 만들었고, 세조 때에는 양성지 등이 동국지도를 완성하였다. 16세기에도 많은 지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조선방역지도가 현존하고 있다.

지리지의 편찬도 추진되어 세종 때 신찬팔도지리지, 성종 때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다. 여기에는 군현의 연혁, 지세, 인물, 풍속, 산물, 교통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를 보충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중종 때 편찬되어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

1.5 윤리·의례서와 법전의 편찬

성리학이 조선 사회의 지배 사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윤리와

의례에 관한 서적의 편찬 사업이 이루어졌다. 세종 때에는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 등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붙여 윤리서인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또 성종 때에는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하여 의례서인 국조오례의를 편찬하였다.

16세기에는 사림이 소학과 주자가례의 보급과 실천에 힘쓰면서 이륜행실도와 동몽수지 등을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이륜행실도는 연장자와 연소자, 친구 사이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강조한 책이며, 동몽수지는 어린이가 지켜야 할 예절을 기록한 윤리서였다.

한편, 조선은 유교적 통치 규범을 성문화하기 위한 법전의 편찬에 힘썼다. 건국 초기에 정도전은 조선경국전과 경제문감을 편찬하였고, 조준은 경제육전을 편찬하였다. 세조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한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완성되었다. 경국대전은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6전으로 구성된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후기까지 법률 체계의 골격을 이루었다. 이 법전의 편찬은 조선 초기에 정비된 유교적 통치 질서와 문물 제도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1 성리학의 정착

성리학은 고려 말의 개혁과 조선을 건국하는 데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신진 사대부 사이에 입장의 차이가 나타났다.

15세기 조선 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고려 시대부터 누적되어 온 대내외적인 모순을 극복하고 왕조 교체에 따른 새로운 문물 제도를 정비하고 부국강병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정도전, 권근 등 관학파로 불리는 이들은 성리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당 유학, 불교, 도교, 풍수 지리 사상, 민간 신앙 등을 포용하여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특히 주례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고려 말 온건 개혁파로 조선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재야로 물러난 길재 등의 학문적 전통은 성종 때에 본격적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한 사림이 계승하였다. 이들은 형벌보다는 교화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였으며, 공신과 외척의 비리와 횡포를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비판하고, 당시의 사회 모순을 성리학적 이념과 제도의 실천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였다.

2.2 성리학의 융성

16세기 사림은 도덕성과 수신을 중시하였으며, 그것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인간 심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다.

서경덕과 이언적은 각각 조선 성리학의 이기론에서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서경덕은 이(理)보다는 기(氣)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지녔다. 역시 노장 사상에 포용적이었던 조식은 학문의 실천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서경덕과 조식은 중심으로 한 이러한 학문 경향은 16세기 중반 이후 하나의 중요한 사상적 조류를 형성하였다.

이언적은 기보다는 이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여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내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은 이황과 이이였다. 이황은 주자서철요, 성학집요 등을 저술하였으며 주자의 이론에 조선의 현실을 반영시켜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우려고 하였다. 그의 사상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이황의 사상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전해져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이이는 이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의 역할을 강조하여 현실적이며 개혁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동호문답, 성학집요 등의 저술에서 이이는 16세기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 체제의 정비와 수취 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2.3 학파의 형성과 대립

16세기 중반부터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학설과 지역적 차이에 따라 서원을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서경덕 학파와 이황 학파, 조식 학파가 형성되고 그 뒤에 이이 학파와 성혼 학파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선조 때에 사림들이 중앙 정계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함에 따라 각 학파를 기반으로 하여 정파가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서경덕 학파와 이황 학파, 조식 학파가 동인을 형성하였으며, 이이 학파와 성혼 학파가 서인을 형성하였다. 동인은 정여립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이황 학파의 남인과, 서경덕 학파와 조식 학파의 북인으로 분화되었다.

광해군 때에 북인은 임진왜란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동법의 시행과 은광 개발 등

적극적인 사회 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갔으며 중립 외교를 취하는 등 성리학적 의리 명분론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다. 이는 서인과 남인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인조 반정으로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자 서경덕과 조식의 사상, 양명학, 노장 사상 등은 배척을 당하고 이황과 이이의 학문, 즉 주자 중심의 성리학만이 조선 사상계에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서인과 남인은 명에 대한 의리 명분론을 강화하고 반청 정책을 추진한 결과 병자호란을 초래하였다. 이후 격렬한 주화,척화 논의를 거쳐 인조 말엽부터 송시열 등 서인 산림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척화론과 의리 명분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 시기 각 학파들은 대동법과 호포법 등 사회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과 대립을 하기도 하였다.

2.4 예학의 발달

16세기 중반 주자가례 중심의 생활 규범서가 출현하고 동시에 주자가례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성리학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리하여 17세기는 예학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예학이 발달하였다. 이 무렵 예는 양 난으로 인하여 흐트러진 유교적 질서의 회복이 강조되면서 더욱 중시되었다. 예가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방도로서 부각되어 학문은 예학보다 절실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갔고 예치가 강조되었다.

이처럼 예학 연구가 심화되어 김장생과 정구 등 많은 예학자가 나왔다. 각 학파 간 예학의 차이는 전례 논쟁을 통하여 표출되었으며, 예송은 그 대립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3.1 불교의 정비

성리학이 주도 이념이었던 조선 시대에 불교계는 크게 위축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사원이 소유한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회수하여 집권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두터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아울러 도첩제를 실시하여 승려로의 출가를 제한하였다. 세종 때에는 교단을 정리하면서 선종과 교종 두 종파에 모두 36개 절만 인정하였다.

사원에 대한 국가적 통제는 강하였으나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욕구는 완전히 억제하지 못하여 왕

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왕족의 명복을 비는 행사가 자주 시행되어 불교는 명맥을 유지하였다. 세종 때는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하고 보급하는 등 적극적인 불교 진흥책을 펴서 일시적으로 불교가 중흥되기도 하였다.

성종 때 이후 사람들의 적극적인 비판으로 불교는 점차 왕실에서 멀어져 산간 불교로 바뀌었다. 명종 때에는 문정 왕후의 지원 아래 일시적인 불교 회복 정책이 펼쳐진 결과 보우가 중용되고 승과가 부활되기도 하였다. 16세기 후반 서산 대사와 같은 고승이 배출되어 교리를 가다듬었고,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크게 활약함으로써 불교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원의 경제적 기반 축소와 우수한 인재들의 출가 기피는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3.2 도교와 민간 신앙

도교 역시 크게 위축되어 사원이 정리되고 행사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체천 행사가 국가의 권위를 높이는 점이 인정되어 소격서를 설치하고 참성단에서 일월성신에 대하여 제사를 지내는 초제가 시행되었다.

사람의 진출 이후 도교 행사가 사라져 가고 성리학의 공리적 면모를 반성하는 심성 중시 경향과 함께 도교나 불교 등 정신 수양에 도움을 주는 종교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풍수지리설과 도참 사상이 조선 초기 이래로 중요시되어 한양 천도에 반영되었으며, 양반 사대부의 묘지 선정에도 작용하였다.

무격 신앙, 산신 신앙, 삼신 숭배, 촌락제 등은 백성들 사이에 깊이 자리 잡았다. 특히, 계절에 따른 세시 풍속은 유교 이념과 융합되면서 조상 숭배 의식과 촌락의 안정을 기원하는 의식이 되었다.

불교식으로 화장하던 풍습이 묘지를 쓰는 것으로 바뀌면서 명당 선호 경향이 두드러졌다.

4.1 천문,역법과 의학

조선 초기에는 과학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다. 세종 때를 전후한 이 시기의 과학 기술은 우리나라 역사상 특기할 정도로 뛰어난 것이었다. 당시의 집권층은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과학 기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과학 기술은 국가적 지원을 받아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또, 우리나라의 전통적 문화를 계승하면서 서역과 중국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여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천문학, 농업과 관련된 각종 기구가 발명 제작되었다. 천체 관측 기구로 혼의와 간의가 제작되고, 시간 측정 기구로 물시계인 자격루와 해시계인 앙부일구 등이 만들어졌다. 특히, 자격루는 노비 출신의 과학 기술자인 장영실이 제작한 것으로 정밀 기계 장치와 자동 시보 장치를 갖춘 뛰어난 물시계였다.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만들어(1441) 전국 각지의 강우량을 측정하였고, 토지 측량 기구인 인지의와 규형을 제작하여 토지 측량과 지도 제작에 활용하였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천문도를 만들었다. 태조 때에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돌에 새겼다. 세종 때에도 새로운 천문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천문학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역법이 마련되었다. 세종 때 만든 칠정산은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로 하여 만든 역법서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율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다. 이는 15세기 세계 과학의 첨단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학에서도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 정리하여 향약집성방을 편찬하고, 의방유취라는 의학 백과사전을 간행하였다. 이로써 15세기에는 조선 의학의 자주적 체계가 마련되어 민족 의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4.2 활자 인쇄술과 제지술

조선 초기에는 각종 서적의 편찬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활자 인쇄술과 제지술이 발달하였다.

고려 시대에 발명되어 사용된 금속 활자는 조선 초기에 이르러 더욱 개량되었다. 태종 때에는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이어서 세종 때에는 역시 구리로 갑인자를 주조하였는데 이는 글자 모습이 아름답고 인쇄에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세종 때에는 인쇄 기술이 더욱 발전하였다. 종전에는 밀랍으로 활자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종전보다 두 배 정도의 인쇄 능력을 올리게 되었다.

활자 인쇄술과 더불어 제지술이 발달하여 종이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다. 세종 때에는 종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관청으로 조지서를 설치하고 다양한 종이를 대량으로 생산하였다. 이에 수많은 서적이 인쇄되었다.

4.3 농서의 편찬과 농업 기술의 발달

조선 초기는 우리나라 농업 기술에서도 획기적 발전을 이룩한 시기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가 간행되고 농업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세종 때 정초 등이 편찬한 농사직설은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최초의 농서로서 중국의 농업 기술을 수용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농법을 정리하였다. 여기에는 씨앗의 저장법, 토질의 개량법, 모내기법 등 농민들이 실제 경험한 농사법이 종합되었다. 성종 때 강희맹은 금양(시흥)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방의 농사법을 정리하여 금양잡록을 편찬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농업 기술이 발달하여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말농사에서는 조,보리,콩의 2년 3작이 널리 시행되었고, 논농사에서는 남부 지방 일부에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실시되었다. 벼농사에서는 봄철에 비가 적은 기후 조건 때문에 마른 땅에 종자를 뿌려 일정한 정도 자란 다음에 물을 대주는 건사리(건경법)가 이용되었고 무논에 종자를 직접 뿌리는 물사리(수경법)도 행해졌다.

뿐만 아니라 남부 지방에서는 모내기법이 고려 말에 이어 계속 실시되었다. 또, 밀거름과 뒗거름을 주는 각종 시비법이 발달하여 해를 걸러서 휴경하지 않고 매년 농경지를 경작하게 되었다. 이로써 고려 후기부터 진전되어 온 농경지의 상경화 현상이 확립되고 휴경 제도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가을에 농작물을 수확한 후 빈 농지를 갈아엎어 다음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가을갈이의 농사법이 점차 보급되어 갔다.

조선 전기에는 목화 재배가 거의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에 따라 무명이 많이 생산되어 백성들은 주로 무명옷을 입게 되었고, 무명은 화폐처럼 사용되었다. 삼, 모시의 재배도 성행하였으며 누에치기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양잠에 관한 농서도 편찬되었다.

4.4 병서 편찬과 무기 제조

조선 초기에는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많은 병서가 편찬되고 각종 무기의 제조 기술이 발

달하였다. 세종 때에는 화약 무기의 제작과 그 사용법을 정리한 총통등록을 편찬하였고, 문종 때에는 김종서의 주도하에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전쟁사를 정리한 동국병감을 간행하였다. 또, 이 시기에는 병장도설이 편찬되어 군사 훈련의 지침서로 사용되었다.

화약 무기의 제조에는 최해산이 큰 활약을 하였다. 그는 최무선의 아들로서 태종 때 특채되어 화약 무기의 제조를 담당하였다. 조선 초기에 만든 화포는 사정 거리가 최대 1,000보에 이르렀으며, 바퀴가 달린 화차는 신기전이라는 화살 100개를 잇따라 발사할 수 있었다.

병선 제조 기술도 발달하여 태종 때에는 거북선을 만들었고, 작고 날쌌던 싸움배로 비거도선이 제조되어 수군의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에는 과학 기술이 발달하여 국방력 강화 및 민생 안정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15세기에 발달한 과학 기술은 16세기에 이르러 과학 기술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면서 점차 침체되고 말았다.

5.1 다양한 문학

조선 전기의 문학은 작자에 따라 내용과 형식에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작자가 조선 왕조의 건설에 참여한 관료 문인인지 고려에 충절을 지키려는 사대부였는지에 따라 달랐다. 초기에는 격식을 존중하고 질서와 조화를 내세우는 경향의 문학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개인적 감정과 심성을 나타내려는 경향의 가사와 시조 등이 우세해져 갔다.

조선을 세우는 데 앞장섰던 세력은 주로 약장과 한문학을 통하여 새 왕조의 탄생과 자신들의 업적을 찬양하는 한편, 우리 민족의 자주 의식을 드러냈다. 정인지 등이 지은 용비어천가와 작자가 분명치 않은 월인천강지곡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서거정은 삼국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의 시와 산문 중에서 빼어난 것을 골라 동문선을 편찬하고 우리나라의 글에 대한 자주 의식을 나타내었다.

고려 말부터 나타났던 시조는 조선 초기에 이르러 두 가지 경향을 보여 준다. 건국 초의 폐기가 넘치는 시조로서 김종서와 남이의 작품이 유명하다. 유교적 충절을 읊은 시조로서는 길재와 원천석의 작품이 손꼽힌다. 시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려는 필요에서 가사도 나타났다.

한편, 조선 초기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정한 격식 없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적은 설화 문학이다. 그 내용은 관리들의 기이한 행적과 서민들의 풍속, 감정, 역사 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 많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서거정의 필원잡기와 성현의 용재총화 등이 있다. 이런 설화 문학에는 불의를 폭로하고 풍자하는 내용이 많아서 당시 서민 사회를 이해하려는 관리들의 자세와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설화 문학은 김시습이 지은 금오신화와 같이 구전 설화에 허구적 요소를 가미하여 소설로 발전되기도 하였다. 금오신화는 평양, 개성, 경주 등 옛 도읍지를 배경으로 남녀 간의 사랑과 불의에 대한 비판 등 민중의 생활 감정과 역사 의식을 담고 있다.

16세기에 이르러 사림이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자 사림 문학이 주류가 되었다. 사림 문학은 표현 형식보다는 흥취와 정신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에 따라 한시와 시조, 가사 분야가 활기를 띠었다. 이 시기의 한시들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은 줄어들었으나 높은 격조를 지니고 있었다.

시조도 조선 초기의 경향에서 벗어나 순수한 인간 본연의 감정을 나타내었다. 황진이와 남매 간의 애정과 이별의 정한을 읊었고, 윤선도는 오우가와 어부사시사에서 자연을 벗하여 살아가는 여유롭고 자족적인 삶을 표현하였다.

새롭게 발전한 가사 문학에서는 송순, 정철, 박인로 등의 작품이 뛰어났다. 정철은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같은 작품에서 풍부한 우리말의 어휘를 마음껏 구사하여 관동 지방의 아름다운 경치와 왕에 대한 충성심을 읊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 시기에 사림 문학의 태두리를 벗어난 문인으로는 어숙권과 임제를 꼽을 수 있다. 서얼 출신의 어숙권은 폐관잡기를 지어 문벌 제도와 적서 차별의 폐단을 폭로하기도 하였고, 임제는 풍자적이고 우의적인 시와 산문을 써서 당시 사회의 모순과 유학자들의 준화 의식을 비판하였다.

한편, 문학의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 여류 문인들도 많이 나왔다. 신사임당은 시, 글씨, 그림에 두루 능하였고 허난설헌은 한시로 유명하였다. 민간에서는 재미있는 민담이 전승되고 있었다.

5.2 왕실과 양반의 건축

조선 초기에는 사원 위주의 고려 건축과는 달리 궁궐, 관아, 성문, 학교 등이 건축의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건물은 건물주의 신분에 따라 크기와

장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었는데, 그 목적은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건국 초기에 도성을 건설하고, 경복궁을 지었으며, 곧이어 창덕궁과 창경궁을 세웠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창경궁의 명정전과 도성의 승례문, 창덕궁의 돈화문이 당시의 위엄스러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도성의 정문인 승례문은 고려의 건축 기법과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여 발전된 조선 전기의 건축을 대표하고 있다. 반면에 개성의 남대문과 평양의 보통문은 고려 시대 건축의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을 지니면서 조선 시대 건축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왕실의 비호를 받은 불교와 관련된 건축 중에서도 뛰어난 것이 적지 않다. 무위사 극락전은 검박하고 단정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의 장경판전은 당시의 과학과 기술을 집약한 것이다. 세조 때 대리석으로 만든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이 시기 석탑의 대표작이다.

16세기에 들어와 사림의 진출과 함께 서원의 건축이 활발해졌다. 서원은 산과 하천이 가까이 있어 자연의 이치를 탐구할 수 있는, 마을 부근의 한적한 곳에 위치하였는데, 교육 공간인 강당을 중심으로 사당과 기숙 시설인 동재와 서재를 갖추었다. 서원 건축은 가람 배치 양식과 주택 양식이 실용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주위의 자연과 빼어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서원으로는 경주의 옥산 서원과 안동의 도산 서원이 있다.

5.3 분청 사기, 백자와 공예

실용과 검소를 중요하게 여긴 기품을 반영한 조선의 공예는 고려 시대와는 달리 사치품보다는 생활필수품이나 문방구 등에서 그 특색을 나타내었다. 대표적인 공예 분야는 자기였다. 궁중이나 관청에서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 대신에 백자나 분청사기를 널리 사용하였다. 분청 사기와 옹기 그릇은 전국의 자기소와 도기소에서 만들어져 관수용이나 민수용으로 보급되었다. 특히, 경기도 광주 의 사용원 분원에서 생산하는 자기의 품질이 우수하였다.

분청 사기는 청자에 백토의 분을 칠한 것으로 백색의 분과 안료로써 무늬를 만들어 장식하였다. 이러한 분청 사기는 안정된 그릇 모양과 소박하고 친진스러운 무늬가 어우러져 정형화되지 않으

면서 구김살 없는 우리의 멋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분청 사기는 16세기부터 세련된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점차 그 생산이 줄어들었다.

조선의 백자는 고려 백자의 전통을 잇고 명나라 백자의 영향을 받아 이전보다 질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백자는 청자보다 깨끗하고 담백하며 순백의 고상함을 풍겨서 선비들의 취향과 어울렸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었다.

장롱, 문갑 같은 목공예 분야와 돛자리 공예 분야에서 재료의 자연미를 그대로 살린 기품 있는 작품들이 생산되었다. 이 밖에 쇠빨을 쪼개어 무늬를 새긴 화각 공예 그리고 자개 공예도 유명한데, 수와 매듭에서도 부녀자들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정취를 살린 뛰어난 작품들이 있다.

5.4 그림과 글씨

15세기 그림은 도화서에 소속된 화원들의 그림과 관료이자 문인이었던 선비들의 그림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중국 역대 화풍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소화하여 우리의 독자적인 화풍을 개발하였다. 조선의 이런 그림은 일본 무로마치 시대의 미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의 가장 유명한 화가로서 안견, 강희안을 꼽을 수 있다.

화원 출신인 안견은 역대 화가들의 기법을 체득하여 독자적인 경치를 개척하였다. 안견의 대표작인 몽유도원도는 자연스러운 현실 세계와 환상적인 이상 세계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대각선적인 운동감을 활용하여 구현한 걸작이다.

문인 화가인 강희안은 시적 정서가 흐르는 낭만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의 대표적인 고사관수도는 선비가 수면을 바라보며 무덤무상에 빠진 모습을 담고 있는데, 세부 묘사는 대담하게 생략하고 간결하고 과감한 필치로 인물의 내면 세계를 느낄 수 있게 표현하였다.

16세기에는 15세기의 전통을 토대로 다양한 화풍이 발달하였다. 강한 필치의 산수화를 이어 가기도 하고 선비들의 정신 세계를 사군자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노비 출신으로 화원에 발탁된 이상좌는 색다른 분위기의 그림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의 대표작인 송하보월도는 바위틈에 뿌리를 박고 모진 비바람을 이겨 내고 있는 늙은 소나무를 통하여 강인한 정신과 굳센 기개를 표현하였다.

특히, 이암은 동물들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그렸고, 신사임당은 풀과 벌레를 소박하고 섬세하게

그러 여성이 심정을 잘 나타내었다. 황집중은 포도물, 이정은 대나무를, 어몽룡은 매화를 잘 그렸는데, 이들은 고매한 정신 세계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였다.

서예는 양반이라면 누구나 터득해야 할 필수 교양이었기 때문에 뛰어난 서예가들이 많이 나타났고, 독자적인 서체를 개발한 사람도 많았다. 당대 예술계를 이끌었던 안평 대군은 송설체를 따르면서 수려하고 활달한 기풍을 살린 독자적인 글씨를 썼다. 양사언은 초서에 능하였고, 한호는 왕희지체에 우리 고유의 예술성을 가미하여 단정하면서 건실한 석봉체를 이루었다. 한호는 명에 보내는 외교 문서를 써서 중국에도 이름이 알려졌고, 그가 쓴 천자문은 널리 보급되어 일반인들도 석봉체를 많이 따라 쓰게 되었다.

5.5 음악과 무용

조선 시대에는 음악을 백성을 교화하는 수단으로 여겼고, 국가의 각종 의례와 밀접히 관련되었기 때문에 중요시하였다. 세종은 박연에게 악기를 개량하거나 만들게 하였고, 스스로 여민락 등 악곡을 짓고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정간보를 창안하였다. 아울러 악곡과 악보를 정리하게 하고 아악을 체계화함으로써 아악이 궁중 음악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성종 때 성현은 악학계법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음악의 원리와 역사, 악기, 무용, 의상 및 소도구까지 망라하여 정리하고 있어 전통 음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16세기 중엽 이후에는 민간에서도 당악과 향악을 속악으로 발달시켜 가사, 시조, 가곡 등 우리말로 된 노래들을 연주하는 음악이나 민요에 활용하였다.

궁중과 관청의 의례에서는 음악과 함께 춤이 따랐다. 이들 춤은 행사에 따라 매우 다양하였는데 처용무처럼 전통 춤을 우아하게 변용시킨 것도 있었다. 민간에서는 농악무, 무당춤, 승무 등 전통 춤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갔으며, 산대놀이라는 탈춤과 인형극인 꼭두각시 놀이도 유행하였다.

6-4 문화의 세기운

1.1 성리학의 교조화 경향

인조 반정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서인은 의리 명분론을 강화하며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절대화함으로써 자신들의 학문적 기반을 공고히 하

려고 하였는데, 이는 송시열의 저술 등으로 뒷받침되었다. 그는 주자의 본뜻에 충실함으로써 당시 조선 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반면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상대화하고 6경과 제자백가 등에서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으려는 경향도 17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윤희와 박세당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서경덕의 영향을 받은 윤희는 유교 경전에 대하여 독자적인 해석을 하였으며, 박세당 역시 양명학과 노장 사상의 영향을 받아 주자의 학설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주자의 학문 체계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서인(노론)의 공격을 받아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었다.

한편, 이황 학파의 영남 남인과 이이의 학문을 조선 성리학의 정통으로 만들려는 이이 학파의 노론 사이에 성리학의 이기론(理氣論)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조선 사상계는 다시 심성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을 중심으로 호학 논쟁이 벌어졌다.

한편, 이이의 사상을 계승하고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절대시한 노론과는 달리 소론은 절충적인 성격을 지닌 성현의 사상을 계승하고 양명학과 노장 사상 등을 수용하는 등 성리학 이해에 탄력성을 보였다.

1.2 양명학의 수용

성리학의 교조화와 형식화를 비판하며 실천성을 강조한 양명학은 이미 중종 때에 조선에 전래되었던 새로운 유학 사상이다. 이후 명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주로 서경덕 학파와 종친들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이황이 비판한 것을 계기로 하여 몇몇 학자들만이 관심을 기울였으나, 17세기 후반 소론 학자들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

그 뒤 정제두가 학문적 체계를 갖추면서 양명학은 사상계의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는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상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반 신분제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18세기 초 정제두가 강화도로 옮겨 살면서 양명학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써 강화 학파라 불리는 하나의 학파를 이루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정권에

서 소외된 소론이었기 때문에 그의 학문은 집안의 후손들과 인척을 중심으로 가학의 형태를 띠며 계승되었다.

강화 학파는 양명학을 바탕으로 역사학, 국어학, 서화, 문학 등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갔으며 실학자들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2.1 실학의 등장

조선 후기의 학문과 사상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실학의 발달이었다. 실학은 17~18세기의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모순에 직면하여 그 해결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대두한 학문과 사회 개혁론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양반 사회의 모순이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지배 이념이었던 성리학은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성리학의 한계성을 자각하고 이를 비판하면서 현실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탐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 운동은 이수광, 한백겸 등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이수광은 지방유설을 저술하여 문화 인식의 폭을 확대하였고, 한백겸은 동국지리지 저술하여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를 치밀하게 고증하였다.

그 후 실학은 농업 중심의 개혁론,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국학 연구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이 때 청에서 전해진 고증학과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실학은 18세기에 가장 활발하였으며 대부분의 실학자들은 민생 안정과 부국강병을 목표로 하여 비판적이면서 실증적인 논리로 사회 개혁론을 제시하였다.

2.2 농업 중심의 개혁론

18세기 전반에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제시한 실학자들은 대부분 서울 부근의 경기 지방에서 활약한 남인 출신이었다. 이들은 농촌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농민의 입장에서 토지 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의 개혁을 추구하였다. 이 실학자들을 경세 치용 학파라고도 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토지 제도의 개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농업 중심 개혁론의 선구자는 17세기 후반에 활약한 유희원이었다. 그는일생 동안 농촌에 묻혀 살면서 학문 연구에 몰두하고 반계수록을 저술하였다. 이 책에서 유희원은 균전론을 내세워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고

양반 문벌 제도, 과거 제도, 노비 제도의 모순을 비판하였다.

농업 중심 개혁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대표하는 사람은 18세기 전반에 주로 활약한 이익이었다. 그는 유희원의 실학 사상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 이익 학파를 형성하게 하였다. 그는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 제도 개혁론으로 한전론을 주장하고, 나라를 쪼먹는 여섯 가지의 폐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익의 실학 사상을 계승하면서 실학을 집대성한 최대의 학자는 정약용이었다. 그는 18세기 말 정조 때 벼슬하였으나 신유박해 때에 연루되어 전라도 강진에 유배되어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였다. 정약용은 지방 행정의 개혁에 대하여 쓴 목민심서, 중앙 행정의 개혁에 대하여 쓴 경세유표 등을 비롯하여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그는 토지 제도의 개혁론으로 여전론을 처음에 내세웠다가 후에 정전제를 현실에 맞게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백성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 통치자라고 주장하면서 백성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 제도의 개선 방안도 모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정약용은 과학 기술과 상공업 발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2.3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18세기 후반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주장하는 실학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서울의 노론 집안 출신이 대부분이었으며,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부국강병과 이용 후생에 힘쓰자고 주장하였으므로 이들은 이용 후생 학파 또는 북학파라고도 한다.

상공업 중심 개혁론의 선구자는 18세기 전반의 유수원이었다. 그는 우서를 저술하여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물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강조하고 사농공상의 직업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북학파의 실학 사상은 18세기 후반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에 의하여 크게 발전하였다. 노론 명문 출신인 홍대용은 청에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임하경론, 의산문답 등을 저술하였다. 그는 기술의 혁신과 문벌 제도의 철폐, 그리고 성리학의 극복이 부국강병의 근본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하였다.

박지원은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하고 상공

업의 진흥을 강조하면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 유통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양반 문벌 계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였다. 또한 농업에서도 영농 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의 장려, 수리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박지원의 실학 사상은 그의 제자인 박제가에 의하여 더욱 확충되었다. 양반 집안의 서자로 태어난 박제가는 청에 다녀온 후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그는 상공업의 발달, 청과의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을 역설하였다. 또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세기를 전후하여 크게 융성하였던 실학 사상은 실증적, 민족적, 근대 지향적 특성을 지닌 학문이었다. 특히, 북학과 실학 사상은 19세기 후반에 개화 사상으로 이어졌다.

2.4 국학 연구의 확대

실학의 발달과 함께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역사, 지리, 국어 등을 연구하는 국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익은 실증적이며 비판적인 역사 서술을 제시하고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를 체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민족에 대한 주체적 자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익의 제자인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저술하여 이익의 역사의식을 계승하였다. 이 책은 고조선으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서술한 것으로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세워 이를 체계화하였으며, 역사 사실들을 치밀하게 고증하여 고증 사학의 토대를 닦았다.

이규익은 조선 시대의 정치와 문화를 정리하여 연려실기술을 저술하였다. 한치윤은 500여 종의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해동역사를 편찬하였는데, 이는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종회는 동사에서 고구려 역사 연구를,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발해사 연구를 심화하였다. 이들은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시킴으로써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힘썼다. 한편, 김정희는 금석과안록을 지어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국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여 우수한 지리서자

편찬되고 정밀한 지도가 제작되었다. 역사 지리서로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등이 나왔고, 인문 지리서로는 이증환의 택리지가 편찬되었다. 특히, 택리지는 각 지역의 자연 환경과 물산, 풍속, 인심 등을 서술하고 어느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인가를 논하였다.

중국으로부터 서양식 지도가 전해짐에 따라 정밀하고 과학적인 지도가 많이 제작되었고, 그 중에서도 정상기와 김정호가 만든 지도가 우수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최초로 100리척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도 제작에 공헌하였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의 표시가 정밀해지고 거리를 알 수 있도록 10리마다 눈금이 표시되었으며, 목판으로 인쇄되었다.

우리의 언어에 대한 연구도 진전되어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와 유희의 언문지 등이 나왔고, 우리의 방언과 해외 언어를 정리한 이의봉의 고급식립도 편찬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실학이 발달하고 문화 인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백과사전류의 저서가 많이 편찬되었다. 이 방면의 효시가 된 책은 이수광의 지봉유설이며, 그 뒤를 이어 18~19세기에 이익의 성호사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규경의 오주연몽장전산고 등이 나왔다. 또한 영,정조 때는 국가적 사업으로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역대 문물을 정리한 한국학 백과사전으로서 가치가 있다.

3.1 서양 문물의 수용

조선 후기에는 전통적 과학 기술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중국을 통하여 전래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여 과학 기술면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

서양 문물은 17세기경부터 중국을 왕래하던 사신 등을 통해서 들어왔다. 선조 때 이광정은 세계 지도를, 인조 때 정두원은 화포, 천리경, 자명종 등을 전하였다. 당시 명,청의 수도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조선의 사신들은 베이징에서 이들과 접촉하여 서양 문물을 소개받았다.

서양 문물의 수용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익과 그의 제자들 및 북학과 실학자들이었다. 이익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까지 수용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서양의 과학 기술은 받아들이면서도 천주교는 배척하였다.

17세기에는 벨테브레와 하멜 일행이 우리나라에 표류해 왔다. 벨테브레는 혼란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종법을 가르쳐 주었고, 하멜 일행은 15년 동안 억류되었다가 네덜란드로 돌아가 하멜 표류기를 지어 조선의 사정을 서양에 전하였다.

서양 과학 기술의 수용은 18세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채 정체되고 말았다.

3.2 천문학과 지도 제작 기술의 발달

조선 후기에는 국민의 생활 개선을 중요시하여 과학과 기술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많았다.

천문학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크게 발전하였다. 이익은 서양 천문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으며, 김석문은 지전설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장하여 우주관을 크게 전환시켰다. 홍대용은 과학 연구에 힘썼으며, 김석문과 같이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 우주론을 내놓았는데, 당시로서는 대담한 주장이었다. 이리하여 조선 후기의 천문학은 전통적 우주관에서 벗어나 근대적 우주관으로 접근해 갔다. 김석문과 홍대용의 지전설은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역법은 김육 등의 노력으로 시현력이 어렵게 도입되었다. 이는 서양 선교사인 아담 샬이 중심이 되어 만든 것으로 청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중전의 역법보다 한 길을 더 발전한 것이었다. 조선에서는 약 6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시현력을 채용하였던 것이다.

수학에서도 마테오 리치가 유클리드 기하학을 한문으로 번역한 기하원본이 도입되었다. 홍대용은 주해수용을 저술하여 우리나라, 중국, 서양 수학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서양 선교사들이 만든 곤여만국전도와 같은 세계 지도가 중국을 통하여 전해짐으로써 지리학에서도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지도 제작에서도 더 정확한 지도가 만들어졌다. 이를 통하여 조선 사람들의 세계관이 확대될 수 있었다.

3.3 의학의 발달과 기술의 개발

조선 후기의 의학은 크게 발전하였다. 17세기 초에 허준은 동의보감을 저술하여 의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이 책은 우리의 전통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간행되어 뛰어난 의학서로 인정되었다.

허준과 같은 시기에 허임은 침구경험방을 저술하여 침구술을 집대성하였다. 정약용은 마진(홍역)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고 이 분야의 의서를 종합하여 마과회통을 편찬하였으며, 박제가와 함께 중두법을 연구하여 실험하기도 하였다.

19세기에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하여 사상 의학을 확립하였다. 이는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구분하여 치료하는 체질 의학 이론으로 오늘날까지 한의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기술의 개발에 앞장섰던 사람은 정약용이었다. 그는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것은 기술 때문이라고 보고, 기술의 발달이 인간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스스로 많은 기계를 제작하거나 설계하였다. 그는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서 퍼낸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만들었는데, 이 거중기는 수원 화성을 만들 때 사용되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이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정약용은 정조가 수원에 행차할 때 한강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배다리를 설계하였다.

3.4 농서의 편찬과 농업 기술의 발달

17세기에 이르러 농업 경영과 농업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농서가 편찬되고 농업 기술도 크게 발달하였다.

17세기 중엽에 신숙은 농가집성을 펴내 벼농사 중심의 농법을 소개하고 이양법의 보급에 공헌하였다. 그 후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고 농업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곡물 재배법뿐만 아니라 채소, 과수, 원예, 양잠, 축산 등의 농업 기술을 소개하는 농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박세당은 색경을, 홍만선은 산림경제를, 서호수는 해동농서를 저술하여 농업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19세기에 서유구는 농업과 농촌 생활에 필요한 것을 종합하여 임원경제지라는 농촌 생활 백과사전을 편찬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한 것은 농업 기술의 발달이었다. 논농사에서는 17세기부터 이양법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어 노동력 절감과 생산량 증대에 이바지하였다. 밭농사에서는 이랑과 이랑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깊이같이로 이랑과 고랑의 높이 차이가

크게 하였다. 쟁기의 기능이 개선되고 소를 이용한 쟁기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었다. 쟁기 같이에서는 초벌갈이로서 가을갈이가 보편화되었고 불갈이 등이 여러 번 시행되었다. 시비법이 다양하게 발전되어 여러 종류의 거름이 사용됨으로써 토지의 생산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논농사를 위한 수리 관개 시설이 발달하여 당진의 합덕지, 연안의 남대지 등의 저수지와 그 밖의 작은 저수지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에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해졌으며, 정조 때에는 농경지 중에서 논 비율이 밭보다 높아졌다.

조선 후기에는 황무지 개간과 해안 지방의 간척 사업이 활발하게 진전되어 경지 면적이 늘어났다. 황무지 개간은 주로 내륙 산간 지방에서, 간척 사업은 서해안과 큰 강 유역의 저습지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4.1 서민 문화의 발달

조선 후기에는 상공업의 발달과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배경으로 문화에서 새 기운이 나타났다. 서당 교육이 보급되고 서민의 경제적, 신분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서민 문화가 대두하였다. 양반을 중심으로 유포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던 문예 활동에 중인층과 서민층이 참여하여 큰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역관이나 서리 등의 중인층 및 상공업 계층과 부농층의 문예 활동이 활발해졌고, 상민이나 광대들의 활동도 활기를 띠었다. 교양이나 심성 수련이 목표였던 조선 전기의 문예가 정적이고 소극적이었다면 조선 후기의 문예는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런 경향은 자연히 양반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고 고발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 소설의 보급은 그 영향력이 대단히 컸다. 한글 소설은 영웅이 아닌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현실적인 세계가 배경이 되었다. 춤과 노래 및 사설로 서민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어 표현한 판소리와 탈춤은 서민 문화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회화에서는 그 저변이 확대되어 풍속화와 민화가 유행하였다. 음악과 무용에서는 감정을 대담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짙었다.

4.2 판소리와 탈놀이

조선 후기 문화의 새 기운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고 인기 있는 분야는 판소리와 탈춤이었다. 판소리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창과 사설로 엮어 가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직접적이고 솔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분위기에 따라 광대가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빼거나 더할 수 있었고, 관중들이 추임새로써 함께 어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서민을 포함한 넓은 계층으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판소리는 이 시기 서민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판소리 작품으로는 열두 마당이 있었으나 지금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수궁가 등 다섯 마당만 전하고 있다. 신재효는 19세기 후반에 이런 판소리 사설을 창작하고 정리하였다. 탈놀이와 산대놀이도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와 함께 성행하였다. 탈놀이는 향촌에서 마을 굿의 일부로서 공연되어 인기를 얻었고, 산대놀이는 산대라는 무대에서 공연되던 가면극이 민중 오락으로 정착되어 도시의 상인이나 중간층의 지원으로 성행하게 되었다.

이런 가면극에서는 지배층과 그들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승려들의 부패와 위선을 풍자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하층 서민인 말뚝이와 취발이를 등장시켜 양반의 허구를 폭로하고 육보이기까지 하였다.

가면극과 판소리는 상품 유통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성장하여 당시 사회적 모순을 예리하게 드러내면서 서민 자신들의 존재를 자각하는 데 기여하였다.

4.3 한글 소설과 사설 시조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은 문학이었다. 그 중에서도 한글 소설과 사설 시조가 대표적이었고, 이는 문학의 저변이 서민층에까지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최초의 한글 소설로 알려진 허균의 홍길동전은 서열에 대한 차별의 철폐, 탐관오리의 응징을 통한 이상 사회의 건설을 묘사하는 등 당시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대표적인 한글 소설로 꼽히는 춘향전은 신분 차별의 비합리성을 나타내었다. 이외에도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남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못된 용왕을 골려 주는 토끼,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이 왕비가 된 심청, 불합리한 가족 관계에서 희생된 장화홍련 등의 이야기를 통하여 서민들은 자신과 사회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한편, 시조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선비들의 절의와 자연관을 담고 있던 이전의 시조와는 달리 이 시기의 시조에는 서민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경향이 나타났다. 격식에 구애 없이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설 시조 형식을 통하여 남녀 간의 사랑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을 거리낌없이 표현하였다.

양반층이 중심이 된 한문학도 실학의 유행과 함께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정약용은 삼정의 문란을 폭로하는 한시를 남겼고, 박지원은 양반전, 허생전, 호질, 민옹전 등의 한문 소설을 써서 양반 사회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실용적 태도를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현실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문체로 혁신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중인층과 서민층의 문학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동인들이 모여 시사를 조직하였다. 김삿갓, 정수동 같은 풍자 시인은 아예 민중 속으로 파고들어 민중과 어우러져 활동하기도 하였다.

4.4 진경 산수화와 풍속화
조선 후기 그림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새 경향은 진경 산수화와 풍속화의 유행이었고, 서예에서는 우리의 정서를 담은 글씨의 등장이었다. 진경 산수화는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려 회화의 토착화를 이룩하였으며, 풍속화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정경과 일상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 회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17세기부터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고, 이런 의식은 우리의 고유 정서와 자연을 표현하려는 예술 운동으로 나타났다. 진경 산수화는 중국 남종과 북종 화법을 고루 수용하여 우리의 고유한 자연과 풍속에 맞춘 새로운 화법으로 창안한 것이었다.

진경 산수화를 개척한 화가는 18세기에 활약한 정선이었다. 그는 서울 근교와 강원도의 명승지들을 두루 답사하여 그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정선은 대표작인 인왕계색도와 금강전도에서 바위산은 선으로 묘사하고 흙산은 묵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산수화의 새로운 경지를 이룩하였다.

정선의 뒤를 이어 산수화와 풍속화에 새 경지를 열어 놓은 화가는 김홍도였다. 그는 산수화, 기록화, 신선도 등을 많이 그렸지만 정감 어린 풍속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밭갈이, 추수, 씨름, 서당 등에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소탈하고 익살스러운 필치로 묘사하였다. 이런 그림에서 18세기 후반의 생활상과 활기찬 사회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김홍도에 버금가는 풍속화가로 신윤복이 있었다. 그는 주로 양반들과 부녀자들의 생활과 유희, 남녀 사이의 애정 등을 감각적이고 해학적으로 묘사하였다.

진경 산수화와 풍속화는 19세기에 이르러 김정희 등의 문인화의 부활로 침체되었다가 한말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강세황, 조영석, 김두량, 최북 등의 화가들이 개성 있는 그림으로 18세기를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특히, 강세황은 서양화 기법을 반영하여 더욱 실감 나게 표현하였으며, 장승업은 강렬한 필법과 채색법으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였다.

이와 함께 민중의 미적 감각을 잘 나타낸 민화가 유행하였다. 해, 달, 나무, 꽃, 동물, 물고기 등을 소재로 삼아 소원을 기원하고 생활 공간을 장식하였다. 이런 민화에는 소박한 우리 정서가 짙게 배어 있다.

서예에서도 우리의 정서와 개성을 추구하는 단아한 글씨의 동국진체가 이광사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김정희는 우리 서예 발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급의 필법을 두루 연구하여 굳센 기운과 다양한 조형성을 가진 추사체를 창안하여 서예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4.5 건축의 변화
조선 후기에 불교가 신앙의 자리를 어느 정도 차지하고 정치, 경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건축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양반들과 새롭게 부상하고 있던 부농, 상공업 계층의 지원 아래 많은 사원이 세워졌고,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대규모 건축물들이 세워지기도 했다.

17세기의 건축으로는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 등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18세기에는 사회적으로 크게 부상한 부농과 상인의 지원을 받아 그들의 근거지에 장식성이 강한 사원이 많이 세워졌다. 논산 쌍계사, 부안 개암사, 안성 석남사 같은 사원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건축물은 수원 화

성이다. 정조 때의 문화적인 역량을 집약시켜 새롭게 만든 화성은 이전의 성곽과는 달리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을 겸한 성곽 시설로, 주위의 경치와 조화를 이루며 평상시의 생활과 경제적 터전까지 조화시킨 종합적인 도시 계획 아래 건설되었다.

19세기의 건축으로는 흥선 대원군이 국왕의 권위를 높일 목적으로 재건한 경복궁의 근정전과 경회루가 화려하고 장중한 건물로 유명하다.

4.6 백자.생활 공예와 음악

조선 후기에는 산업 부흥에 따라 공예가 크게 발전하였다. 자기 공예에서는 백자가 민간에까지 널리 사용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청화 백자가 유행하는 가운데 형태가 다양해지고 안료도 청화, 철화, 진사 등으로 다채로웠는데, 제기와 문방구 등 생활용품이 많았다. 형태와 문양이 어울려 우리의 독특하고 순수한 세련미를 풍겼다. 이와 함께 서민들은 용기를 많이 사용하였다.

목공예도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크게 발전하였다. 장승, 책상, 문갑, 소반, 의자, 필통 등 나무의 재질을 살리면서 기능을 갖춘 작품들이 만들어졌다. 화각 공예도 독특한 우리의 멋을 풍기는 작품들이 많았다.

음악에 있어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음악의 향유층이 확대됨에 따라 성격이 다른 음악이 다양하게 나타나 발전하였다. 양반층은 종래의 가곡, 시조를 애창하였고 서민들은 민요를 즐겨 불렀다. 이와 함께 상업의 성황으로 직업적인 광대나 기생들이 판소리, 산조와 잡가 등을 창작하여 발전시켰다. 이 시기의 음악은 전반적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였다.

7-1근현대의정치변동

1.1 조선 말기의 국내 정세

19세기 중엽 조선의 전통 사회는 커다란 변화와 혼란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안으로는 세도 정치의 폐단이 극에 달하여 무능한 양반 지배 체제에 저항하는 민중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으며, 밖으로는 일본과 서양 열강의 침략 세력이 밀려오고 있었다.

고종의 즉위와 함께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흥선 대원군은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는 세도 가문의 인물들을 몰아내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였으며,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또한 봉당의 운상으로 인식되어 온 600여 개소의 서원 가운데 47개소만 남긴 채 철폐 정리하였다. 또 농민 봉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정을 개혁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 노력하였다.

나아가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시켰으며, 대전회통을 편찬하는 등 법전을 정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전통적인 통치 체제를 재정비하여 국가 기강을 바로잡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전통 체제 안의 개혁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흥선 대원군은 외세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통상 수교 요구를 거절하는 한편,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그 결과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을 받아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를 겪었지만 강화도에서 이들을 격퇴하였다. 이후 흥선 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우고 서양과의 수교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이러한 대외 정책은 외세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조선의 문호 개방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1.2 개항과 개화 운동

흥선 대원군이 몰라나고 통상 개화론자들이 대두하면서 문호 개방의 여건이 마련되어 갔다. 이런 상황에서 운요 호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처음으로 문호를 개방하였다(1876).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부산, 원산, 인천 등 세 항구의 개항이 이루어졌으나 치외 법권과 해안 측량권 등을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뒤이어 일본과 통상 장정을 맺음으로써 일본은 경제적 침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반면, 조선은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조치를 거의 취할 수 없게 되었다. 이어서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서양과도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들과 맺은 조약 역시 치외 법권과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개항 이후 청과 일본이 조선에 대한 침략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조선 정부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개화와 인물을 등용하여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부에서는 개화 정책을 전담하기 위한 기구인 통리기무아문을 두었고, 군사 제도를 개혁하여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으며, 일본과 청에

사절단을 보내 신식 문물을 배우게 하였다. 개화 정책 추진에 대하여 보수적인 유생층은 성리학적 전통 질서를 지키고 외세를 배척하자는 위정척사 운동은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외세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처음에는 개항과 개화를 반대하다가 뒤에는 항일 의병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 운동은 외세의 침략을 막으려는 반외세 자주 운동이었지만 전통적인 사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여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유생층 가운데서도 일부 혁신적 인사들은 유교 문화를 계승하면서 서양의 물질 문명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자는 동도 서기론을 주장하며 개화 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그 결과 청의 내정 간섭과 정부의 친청 정책으로 인하여 개화 정책은 후퇴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 급진 개화파들은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삼일천하로 끝난 이 정변은 개혁 주체의 세력 기반이 약했던 점, 외세에 의존하면서 정변의 방법으로 권력을 잡으려 하였던 점, 청의 무력 간섭 등으로 실패하였다. 그 결과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 심해졌고 개화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3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이나 개화 운동, 유생층의 위정척사 운동은 점점 격화되는 열강의 침략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근대 문물의 수용과 배상금 지불 등으로 국가 재정이 궁핍해져 농민에 대한 수탈이 심해졌고, 일본의 경제적 침투로 농촌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농민층의 불안과 불만이 팽배해졌고, 정치, 사회 의식이 급성장한 농촌 지식인과 농민들 사이에 사회 변혁의 욕구가 높아졌다. 인간 평등과 사회 개혁을 주장한 동학은 당시 농민들의 변혁 요구에 맞는 것이었고, 농민들은 동학의 조직을 통하여 대규모의 세력을 모을 수 있었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고부에서 봉기한 동학 농민군은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을 내세우고 전라도 일대를 공략한 다음 전주를 점령하였다(1894). 농민군은 정부에 폐정 개혁 12개조를 건의하고, 집강소를 설치하여 개혁을 실천해 나갔다. 그러나 정부

의 개혁이 부진하고 일본의 침략과 내정 간섭이 강화되자 농민군은 다시 봉기하여 외세를 몰아낼 목적으로 서울로 북상하였다. 먼저 공주를 점령하려 한 농민군은 우금치에서 근대 무기로 무장한 관군·일본군에게 패하고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동학 농민 운동은 좌절되었다.

이 운동은 전통적 지배 체제에 반대하는 개혁 정치를 요구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려 한 아래로부터의 반봉건적 반침략적 민족 운동이었다. 동학 농민 운동은 비록 당시의 집권 세력과 일본 침략 세력의 탄압으로 실패하였지만 이들의 요구는 갑오개혁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으며, 농민군의 잔여 세력은 의병 운동에 가담하여 반일 무장 투쟁을 활성화하였다.

1.4 근대적 개혁의 추진

개항 이후 쌓여 온 여러 가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농민들의 개혁 요구가 거세어지자 정부에서는 자주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 때 일본은 조선에 대한 간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탈취하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의 내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였으며, 이로써 민선 정권은 붕괴되고 흥선 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김홍집 내각이 성립되었다. 김홍집 내각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초정부적 회의 기관인 근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때 실시된 개혁을 갑오개혁이라 한다(1894).

그 내용은 정치 면에서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고 왕권을 제한하였으며, 사회 면에서는 신분제의 철폐와 각종 전통적인 폐습을 타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가장 절실한 과제였던 군사 면에서의 개혁이나 농민들이 요구한 토지 제도의 개혁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종은 국정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흥법 14조를 반포하였으며, 청·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조선의 개혁에 적극 개입하였다.

한편, 명성 황후가 친러파와 연결하여 일본의 침략 세력을 견제하려 하자 일제는 명성 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고(1895), 친일 내각을 구성하게 하였다. 친일 내각은 중단되었던 개혁을 계속 추진하여 양력 사용, 단발령 실시 등의 을미 개혁을 추진하였다.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일본의 침략 의도가 반영

된 것이지만 전통 질서를 타파하는 근대적 개혁이었고, 조선의 개화 인사들과 농민층의 개혁 의지가 일부 반영된, 민족 내부에서 일어난 근대화의 노력이기도 하였다.

1.5 항일 의병 투쟁의 시작

청·일 전쟁의 결과 한반도에서 청 세력을 몰아낸 일본이 침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민족적 저항이 여러 방면에서 일어났다. 그 중 가장 적극적인 저항이 의병 투쟁이었다.

최초의 항일 의병인 을미의병은 명성 황후 시해와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났다. 이 을미의병은 유인석, 이소응, 허위 등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들이 주도하였고, 농민들과 동학 농민군의 잔여 세력이 가담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무렵 일본의 만행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일본군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는데, 이를 아관 파천(1896)이라 한다.

아관 파천 이후 단발령이 철회되고, 고종의 해산권고 조치가 내려지자 을미의병은 대부분 자진 해산하였다.

2.1 독립 협회와 대한 제국

아관 파천으로 친일 내각이 무너지고 친러 내각이 성립되어 일본의 침략 세력은 일단 견제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자주성은 크게 손상되었고 열강의 이권 침탈은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재필 등은 자유 민주주의적 개혁 사상을 민중에게 보급하고 국민의 힘으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독립 신문을 창간하고 독립 협회를 창립하였다(1896).

독립 협회는 근대 개혁 사상을 지닌 진보적 지식인들이 지도부를 이루고, 열강의 침탈과 지배층의 수탈에 불만을 품은 도시 시민층이 주요 구성원이었다. 독립 협회는 강연회와 토론회의 개최, 신문과 잡지의 발간 등을 통하여 민중에게 근대적 지식과 국권,민권 사상을 고취하였다. 이로써 독립 협회는 민중 속에 뿌리를 내려 광범한 사회계층의 지지를 받았고, 민중에 기반을 둔 사회단체로 발전하였다. 또한 독립 협회는 자주 국권 운동, 자유 민권 운동, 국민 참정권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만민 공동회와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현의 6조를 결의함으로써 중추원을 개편하여 의회를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시민 의식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구식 입헌 군주제의 실현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보수 세력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보수 세력은 황국 협회를 이용하여 독립 협회를 탄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독립 협회는 3년 만에 해산되고 말았다.

한편,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지 약 1년 만에 고종은 자주 독립의 근대 국가를 세우려는 국민적 열망과 러시아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하려는 국제 여론에 힘입어 경운궁(지금의 덕수궁)으로 환궁하고 국호를 대한 제국, 연호를 광무로 고치고 황제라 칭하여 자주 국가임을 내외에 선포하였다(1897).

대한 제국은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대한국 국체를 제정하여 전제 황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어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마련하였고, 상공업 진흥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정책도 집권층의 보수적 성향과 열강의 간섭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2.2 항일 의병 전쟁의 전개

일제는 러시아와 대립하면서 한·일 의정서를 강요하고, 나아가 제 1차 한·일 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1904) 외교, 재정 등 각 분야에 고문을 두고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였다. 또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일방적으로 소위 을사조약의 성립을 발표하여(1905)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이에 사회의 각계각층에서는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고, 조약의 폐기를 주장하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민영환 등은 자결로써 항거하였으며, 조병세 등은 조약의 폐기를 요구하는 상소 운동을 벌였다. 또 5적 암살단 등이 조직되어 5적의 집을 불사르고 일진회 사무실을 습격하였다.

고종은 국내외에 이 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대한 매일 신보에 친서를 발표하여 황제가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였다(1907). 일제는 이를 트집 잡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을사조약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다시 의병 운동이 일어났다. 을사의병에서는 민중식, 최익현 등 양반 출신 의병장을 비롯하여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을사조약의 폐기와 친일 내각의 타도를 내세우고 무장 항전을 벌였다.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의병 항

쟁은 한층 고양되었다. 해산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의병의 조직과 화력이 강화되었고, 활동 영역도 간도와 연해주 등 국외로까지 확산되었다. 한편, 전국의 의병 부대는 연합 전선을 형성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1908). 그리고 간도와 연해주 일대의 의병들은 국내 진입 작전을 피하기도 하였다.

의병 전쟁은 일본군의 잔인한 남한 대토벌 작전을 계기로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많은 의병들은 간도와 연해주로 건너가 독립군이 되었으며, 일부는 국내에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의병 전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광범한 사회계층을 망라하였으나 일본의 정규군을 제압할 수는 없었다. 또 의병을 주도한 양반 유생층이 전통적 지배 질서의 유지를 고집하였으므로 대다수 농민 의병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의병 전쟁은 외세의 침략에 대항한 대표적인 민족 구국 운동이었고, 민족의 강인한 저항 정신을 표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의병 전쟁은 국권 회복을 위한 무장 투쟁을 주도하였고, 나아가 일제의 지배하에서 항일 무장 독립 투쟁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2.3 애국 계몽 운동의 전개

독립 협회가 해체된 뒤 개화 자강 계열의 단체들이 설립되어 친일 단체인 일진회에 대항하면서 구국 민족 운동을 전개하였다. 초기에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좌절시킨 보안회와 입헌정체의 수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헌정 연구회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1905년 이후에는 대한 자강회와 대한 협회 그리고 신민회 등이 국권 회복을 위한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 자강회는 교육과 산업을 진흥시켜 독립의 기초를 만들 것을 목적으로 조직되어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고 국권 회복을 위한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가 해체되었다.

대한 협회는 대한 자강회를 계승하여 교육의 보급, 산업 개발 및 민권 신장 등을 강령으로 내걸고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한국 지배에서 더욱 강화됨에 따라 대한 협회의 활동이 약화되자 국권 회복 운동의 큰 흐름은 신민회로 이어졌다.

신민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하여 조직

된 비밀 결사였다. 신민회는 국권의 회복과 공화정체의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고, 국내에서는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면서 국외에서는 독립군 기지의 건설에 의한 군사적 실력 양성을 꾀하다가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이러한 애국 계몽 운동은 일제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예측된 상태에서 전개되어 항일 투쟁의 성과 면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지만, 민족 독립 운동의 이념과 그 전략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민족 독립 운동의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1 국권의 피탈과 민족의 수난

순종이 즉위한 직후 일제는 한·일 신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 정부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 간섭하였으며, 군대마저 해산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전국적인 의병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사법권과 경찰권을 빼앗은 다음 마침내 대한 제국의 국권마저 강탈하였다(1910).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식민 통치의 중추 기관으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강력한 헌병 경찰 통치를 실시하여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독립 운동을 말살하려 하였다. 조선 총독은 일본군 헌역 대장 중에서 임명되었고, 일본 국왕에 직속되어 입법·사법·행정권 및 군대 통수권까지 장악하였다. 총독부의 관리는 거의 일본인이 차지하였고, 자문 기관인 중추원을 두어 친일파 한국인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는 한국인을 회유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였다.

일제는 2만여 명의 헌병 경찰과 헌병 보조원을 전국에 배치하여 무단 식민 통치를 자행하였다. 헌병 경찰의 주된 업무는 경찰의 임무를 대행하고 독립 운동가를 색출하여 처단하는 것이었다. 이들에게는 즉결 처분권이 있어 우리 민족에게 태형을 가하고 재판 없이 우리 민족을 구류해 처하였다. 이에 수만 명의 인사가 구국 운동을 하다가 투옥되고 수난을 당하였다.

3.1 운동 이후 일제는 이른바 문화 통치를 표방하였으나 이는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하기 위한 간악하고 교활한 통치 방식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일제가 축출될 때까지 단 한 명의 문관 총독도 임명되지 않았고,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바꾸었지만 경찰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오히려 일제는 문화 통치를 통하여 소수의 친일

분자를 키워 우리 민족을 이간하여 분열시키고, 민족의 근대 의식 성장을 오도하며, 초급의 학문과 기술 교육을 허용하여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도움이 될 인간을 양성하려 하였다.

1930년대에 일제는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한반도를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 삼고, 이어 1940년대에는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면서 식민지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에 광분하였다.

일제는 내선 일체, 일선 동조론, 황국 신민화 등을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의 사용을 금지하고,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없게 하였다. 또 황국 신민 서사암송, 궁성 요배, 신사 참배는 물론 성씨와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게 강요하였다.

특히, 일제는 강제 징용으로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징병 제도를 실시하여 수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장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한편, 젊은 여성들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공장 등지에서 혹사시켰으며,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패전 후에는 류큐나 중국 하이난 섬 등지에서 한국인을 대량 학살하기도 하였다.

3.2 3.1 운동

우리 민족은 비록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으나 광복에 대한 희망과 신념을 잃지 않고 국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국내에서는 독립 의군부, 대한 광복회, 조선 국권 회복단 등 수많은 항일 결사를 조직하여 일제에 대항하였으며, 국외에서는 독립 운동 기지를 건설하여 무장 투쟁의 전통을 계승하고 독립 전쟁의 기반을 다져 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무수한 애국지사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의 독립 의지가 하나로 결집되어 폭발한 것이 3.1 운동이었다.

국권을 강탈당한 후 거족적인 독립 운동을 준비하던 민족 지도자들은 민족 자결주의와 2.8 독립 선언에 고무되어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고, 국내외에 독립을 선포하였다(1919. 3. 1). 이에 서울과 지방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거족적인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만세 시위 운동은 학생·상인·노동자층이 참가하면서 지방 도시로 확산되었고, 뒤이어 전국 각지의 농촌으로까지 파급되었다. 비폭력 독립 운동으로

시작된 만세 시위는 차츰 면사무소, 헌병 주재소, 토지 회사, 친일 지주 등을 습격하는 무력적인 저항 운동으로까지 바뀌어 갔다. 이 운동은 국외로도 확산되어 만주와 연해주, 미국, 일본 등지에서도 시위가 전개되었다.

3.1 운동은 전 민족이 참여한 대규모의 독립 운동이었으며,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을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3.1 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하고 국내외에 민족의 주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3.3 대한 민국 임시 정부

3.1 운동을 계기로 독립을 선포한 우리 민족은 좀더 조직적으로 독립 운동을 추진하고, 독립 전후의 국민 국가 건설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부를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한 노력으로 연해주의 대한 국민 의회, 국내의 한성 정부, 중국 상하이의 대한 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세 정부가 하나로 통합되어 상하이에서 대한 민국 임시 정부가 출범하였다.

대한 민국 임시 정부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근대적 헌법을 갖추고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입법 기관인 임시 의정원, 사법 기관인 법원, 행정 기관인 국무원의 헌정 체제를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였다. 이러한 헌정 체제는 5차에 걸친 개헌을 통하여 주석·부주석 체제로 개편되었다.

초기의 임시 정부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민족 독립 운동을 좀더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중추 기관의 임무를 담당해 갔다. 임시 정부의 연통제와 교통국은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 조직망으로서 군자금 모금과 정보 수집에 기여하였다.

임시 정부는 외교 활동에도 많은 힘을 쏟았다. 파리 강화 회의에 김구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독립을 주장하게 하였고,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두어 이승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한국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또 임시 정부는 기관지로 독립 신문을 간행하여 배포하고, 사료 편찬소를 두어 한·일 관계의 사료집을 간행함으로써, 안으로는 민족의 독립 의식을 고취시키고 밖으로는 한국의 자주성과 민족 문화의 우월성을 인식시켰다.

3.4 국내의 항일 운동

3.1 운동 이후 학생들은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민족 계몽 활동과 일제의 차별 교육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들은 주로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개별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6.10 만세 운동이나 광주 학생 항일 운동과 같은 대규모의 조직적인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순종의 인산일을 기하여 격문을 살포하고 독립 만세를 외침으로써 대규모 군중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1926). 일제의 수탈과 식민지 교육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6.10 만세 운동은 이후 각종 학교로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수많은 학생들이 체포, 투옥되었다.

6.10 만세 운동 이후 항일 결사를 조직하여 투쟁을 전개하던 학생들은 광주에서 발생한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을 일본 경찰이 편파적으로 처리하자 일제히 쫓겨하였다(1929). 학생들의 투쟁에 일반 국민들이 가세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항일 투쟁으로 확대되었고, 만주 지역의 민족 학교 학생들과 일본 유학생들까지 쫓겨하였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약 5개월 동안 전국의 각급 학교 학생 5,400여 명이 참여함으로써 3.1 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3.1 운동 이후 무장 항일 투쟁은 주로 만주와 연해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국내에서도 독립군 부대가 결성되어 일본 군경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평북 동암산을 근거지로 한 보합단, 평북 천마산을 근거지로 한 천마산대, 황해도 구월산의 구월산대 등이 대표적인 무장 단체였다. 이들은 만주의 독립군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일제의 식민 통치 기관 파괴, 일본 군경과의 교전, 친일파 처단, 군자금 모금 등의 무장 항일 투쟁을 벌여 나갔다.

3.5 항일 독립 전쟁의 전개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뒤 신민회 회원 중심의 애국지사들은 간도와 연해주 지방에 한민족의 집단 거주지를 개척하여 독립 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항일 독립 전쟁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을 일으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 청소년에게 근대적 민족 교육과 군사 훈련을 실시하여 무장 독립 전쟁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회영과 이상룡 등이 설치한 남만주의 삼원보, 이상설과 이승희 등이 세운 밀산부의 한흥동,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 등은 대표적인 독립 운동 기지였다.

3.1 운동을 계기로 민족 지도자들은 비폭력 항일

운동의 방식을 지양하고 조직적인 무장 독립 전쟁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30여 개의 독립군 부대가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이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국내의 일제 식민지 통치 기관을 습격하여 파괴하고 일본 군경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 중에서도 1920년에 홍범도가 이끈 대한 독립군이 승리한 봉오동 전투, 김좌진이 이끈 북로 군정서군과 여러 독립군 부대가 연합하여 거둔 청산리 대첩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 밖에도 독립군은 군자금 모금, 밀정 처단, 친일파 숙청 등의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일본군이 거듭된 패배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참변을 일으키자 독립군 부대들은 대한 독립군단을 조직하고 연해주를 거쳐 자유시로 옮겨 갔다. 그러나 자유시 참변을 겪으면서 독립군은 큰 타격을 받았다.

독립군은 다시 만주로 이동하여 각 단체의 통합 운동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압록강 건너에서는 임시 정부 직할의 참의부가, 남만주 일대에서는 정의부가, 북만주 일대에서는 신민부가 조직되었다. 이들 3부는 각각 민주적 민정 기관을 두고 입헌 정부 조직까지 갖추었으며, 독립군의 훈련과 작전을 맡는 군정 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자체의 무장 독립군을 편성하여 국경을 넘나들며 일제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한편,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은 통합을 피하여 한국 독립군과 조선 혁명군으로 재편되었다. 독립군의 활동은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큰 위협을 받게 되었으나 곧 중국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한편, 대한 민국 임시 정부에서는 만주 지역의 독립군과 각처에 산재해 있던 무장 투쟁 세력을 모아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1940). 광복군은 임시 정부가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한 후 연합군과 공동으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참전하였고,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를 일부 통합하여 군사력을 증강하였다. 특히, 미국과 협조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으나 일제의 패망으로 실현하지는 못하였다.

그 밖에도 중국의 화북 지방에서 중국 공산당과 연계하여 독립 운동을 추진하던 사회주의 세력은 화북 조선 독립 동맹을 결성하고, 그 산하에 조선 의용군을 조직하여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4.1 광복 직후의 국내 정세

국내외의 끈질긴 독립 전쟁과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 민족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였다(1945. 8. 15). 그동안 국내외에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우리 민족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의 패전을 확신하고 건국을 준비해 왔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는 보통 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국의 수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중국 화북 지방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 운동가들도 민주 공화국의 수립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건국 준비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조선 건국 동맹이 조직되어 일제 타도와 민주주의의 국가 건설을 추구하였다. 조선 건국 동맹은 여운형이 중심이 된 단체로서, 해방 직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건국 작업에 착수하였다.

우리 민족은 감격적인 광복을 끝마르 독립으로 이어 가지 못하였다. 그것은 일본군의 무장 해체를 이유로 미·소 양군이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의 남과 북에 각각 진주하였기 때문이다. 남한에 주둔한 미군은 곧 군정을 실시하면서 친미적인 우익 정부의 수립을 후원하였다. 북한에서도 소련군과 공산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을 숙청하고,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닦아 나갔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스스로의 능력이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주 독립의 통일 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민족 분단의 비극을 맞게 되었다.

한편,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소련·영국의 3국 외상 회의(1945. 12)에서는 임시 민주 정부의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의 설치, 최고 5년간의 한반도 신탁 통치 등을 결정하였다. 이를 둘러싸고 좌익과 우익은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이에 분단을 우려한 인사들의 좌우 합작 운동과 김구,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남북 협상이 추진되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4.2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국제 연합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 5.10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고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이 제정되었다(1948). 이어 제헌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1948. 8. 15).

건국 초기에는 국내 질서의 확립과 일제 잔재의

청산이 시급한 과제였다. 정부 수립을 전후 한 시기에 좌우익의 대립이 격화되어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났다. 이승만 정부는 이러한 좌우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반공 정책을 강화하였다.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제헌 국회에서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에서 친일 혐의를 받았던 주요 인사들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반공을 우선시하던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친일과 처벌은 좌절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구성되어(1946. 2) 사실상 정부의 구실을 하였다. 그 후 공산주의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한 뒤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수립되었다(1948. 9. 9). 이어 북한 정권은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무력 남침을 준비하고,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을 감행하였다.

이후 3년간 계속된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었다. 수많은 사람이 살상되고 전 국토가 초토화되어 대부분의 산업 시설이 파괴되었다. 이와 동시에 남북 간에는 적대 감정이 팽배하게 되어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었다.

4.3 민주주의의 시련

6.25 전쟁 때부터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장기 집권을 획책하였다. 이에 따라 독재 정치가 강화되고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심화되었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은 장기 집권을 위하여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확산되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4.19 혁명이 일어났다(1960).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며, 동시에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과도 정부는 헌법을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의 권력 구조로 개정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장면 내각은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안보 체제를 확립하면서 경제·사회적 발전을 통하여 국력을 신장하고, 민족의 숙원인 평화 통일을 앞당겨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내의 정치적 갈등과 계속되는 시위 등으로 이러한 과업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은 사회의 혼란을 구실로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1961. 5. 16). 이를 5.16 군사 정변이라 한다. 군부 세력은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민정 복귀의 약속을 저버린 채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의 권력 구조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의 실현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집권을 추구하던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단행하여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1972).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민중의 끊임없는 저항과 독재 체제에 대한 도전 속에서 10.26 사태가 일어나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다(1979).

이 무렵 새로 등장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은 병력을 동원하여 군권을 차지하였고(1979. 12. 12), 5.18 민주화 운동(1980. 5. 18)을 비롯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한 뒤 통치권을 장악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는 헌법을 공포하였고,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는 다시 좌절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정의 사회의 구현, 복지 사회의 건설 등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으나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부정과 비리 사건을 일으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민주주의의 발전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 아래에서도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은 더욱 확산되었다. 결국 6월 민주 항쟁으로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수용되어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다(1987). 이를 계기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뒤이은 대통령 선거에서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동구 공산주의 국가 및 소련,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북방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올렸다. 또한 국제 연합(UN)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 역시 부정과 비리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1993년 성립된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금융 실명제 등을 법제화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5.16 군사 정변 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국제 경제 여건의 악화와 외환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를 겪었다.

1998년 성립된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 극복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정 전반의 개혁, 경제난의 극복, 국민 화합의 실현, 법과 질서의 수호 등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남북 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남북 정상 회담을 실현하고 남북 경제 협력의 활성화와 이산가족의 상봉을 실현하는 등 평화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4.4 북한의 변화

북한에서는 6.25 전쟁을 거치면서 김일성의 권력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고, 1960년대에는 김일성을 추종하는 강경파가 권력을 독점하였다.

북한은 전후 복구와 자립적 민족 경제 확립을 목표로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받아 중공업과 경공업의 병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 주민들의 생산 노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친리마 운동을 전개하였다. 농업과 상업 분야에서도 협동화를 통하여 한동안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왔다.

1960년대부터 한·미·일 안보 체제 구축과 국제 경제의 악화로 위기에 놓인 북한은 국방 건설을 위하여 이른바 4대 군사 노선을 채택하여 군수 공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였다. 아울러 김일성과 노동당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른바 주체 노선을 강조하였다. 대남 정책에서는 걸로 평화적인 남북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내면으로 북한에 통일혁명당을 조직하여 주체 사상에 입각한 내부 혁명을 부추겼으며, 무장 군인을 남파하여 무력 도발을 일으켰다.

1970년을 전후하여 북한에서는 강경 노선이 완화되고, 실무형 관료와 혁명 2세대가 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을 비롯한 김일성의 친인척이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였다. 7.4 남북 공동 성명을 계기로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 권력을 주석에게 물어주었다(1972. 12). 이후 김정일을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공인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김정일이 당을 실질적으로 장악

하고 후계 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김정일은 1990년대에 이르러 국가 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 그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였고(1993), 김일성이 사망한 뒤 권력을 승계하였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갔다. 특히,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경제 위기를 맞았다. 이에 중국의 개방 정책을 부분적으로 원용하여 합영법과 합작법을 제정하고 외국 기업과의 합작과 자본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4.5 통일을 위한 노력

광복 이후 민족 통일 국가의 수립이 좌절되면서, 민족의 최대 과제의 하나는 민족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국가를 수립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분단은 고착화되었고, 남한의 반공 정책과 북한의 적화 통일 정책으로 남북한 사이에는 통일을 위한 논의조차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4.19 혁명 직후 학생들과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개진되어 중립화 통일론이나 남북 협상론 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 논의는 5.16 군사 정변, 남북한 간의 대립 등으로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냉전 체제의 완화, 베트남의 공산화, 민주화의 요구 등 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 남북 간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대표의 예비 회담을 열었다. 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1972. 7. 4). 이 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남한의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과 북한의 고려 민주주의 연방 공화국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였다(1985. 9). 이산가족 상봉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분단 후 처음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었다.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곧이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1991. 1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의 주도와는 달리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일 노력이 전개되어 평화 통일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1994년에는 남북 정상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이 이루어져 남북 관계가 진전될 기미를 보였지만 김일성의 사망으로 정상 회담이 무산되고, 김일성 조문 문제로 남북 관계는 다시 냉각되었다.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 관계는 급진전되었다. 정부는 이른바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민간 차원의 교류를 크게 확대하였다. 드디어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고(2000. 6. 15)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는 등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7-2근현대의경제변화

1.1 개항과 농촌 경제

개항 이후 일본의 경제적 침탈로 우리나라의 농민 경제는 악화되었다. 당시의 일본 상인은 대개 몰락한 상인이나 무사층 출신으로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이들은 영사 재판권,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및 일본 화폐의 사용 등이 인정된 불평등 조약을 이용해 약탈적인 무역을 자행하였다. 또 광복, 섬유 등 일용품을 들여와 팔고 그 대신 쌀값으로 쌀, 콩, 금 등을 사 갔다.

일본 상인은 고리대를 이용하여 우리 농민의 토지를 헐값으로 사서 점차 농장을 확대해 갔다. 특히, 청일 전쟁 이후 대자본가들이 대거 침투하여 전주,군산,나주 지역에 대규모 농장을 만들었다. 이러한 토지 약탈은 러일 전쟁을 계기로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라는 명목 아래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인 소유의 토지가 국권을 빼앗길 무렵에는 1억 5천만 평에 이를 정도였다.

1.2 열강의 경제적 침탈

조선 후기부터 청을 통하여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 물품은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면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더구나 일본 상인들은 무관세로 많은 상품을 들여와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개항 초기에는 외국 상인의 활동 범위가 개항장 주변 10리 이내로 제한되었으나, 1880년대에는 개항장 100리까지 확대되어 외국 상인들의 활동 무대가 내륙까지 확대되어 갔다.

임오군란 이후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상업은 더욱 위축되었다. 청일 전쟁 이후 일본 상인들이 국내 상권을 거의 독점하면서 우리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져 갔다. 이어 일본은 일본 제일 은행의 지점을 설치하고 은행 업무 외에 세관 업무, 화폐 정리 업무까지 담당하여 대한 제국의 금융을 장악하였다.

한편,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면서 금광 채굴권, 철도 부설권, 삼림 채벌권 등 여러 이권이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 등에게 넘어갔다. 정부는 열강의 이러한 경제적 침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1.3 경제적 침탈에 대한 저항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경제적 침탈로 우리의 경제력이 점차 약화되자 농민과 상공인들은 경제적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함경도, 황해도에서는 일제의 약탈적인 곡물 유출에 대항하여 방곡령이 시행되었으며, 상인들은 상권 수호 운동을 벌여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즉, 서울 상인들은 황국 중앙 총상회를 만들어 서울의 상권을 지키려 하였고, 경강 상인들은 일본에서 증기선을 도입하여 일본 상인에게 빼앗긴 운송권을 회복하려 하였다. 이와 더불어 독립 협회는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항하여 이권 수호 운동을 벌였다.

일부 상인들은 열강의 경제적 침탈에 대항하여 자본주의 생산 방식이나 새로운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많은 회사들을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1880년대 초에 대동상회, 장통상회 등의 상회사가 설립되었으며, 1890년대에는 그 수가 40여 개에 달하였다. 초기의 회사들은 주로 동업자 조합의 성격을 띤 상회사였으나 대한 제국의 상공업 진흥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는 해운 회사, 철도 회사, 광업 회사 등과 같은 근대적 형태의 주식 회사도 나타났다.

일제는 한국을 재정적으로 예측시키기 위하여 우리 정부로 하여금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하게 하였고, 이 결과 한국 정부가 짊어진 외채는 총 1,300만 원이나 되어 상환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이에 국민의 힘으로 국채를 상환하여 국권을 회복하자는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서상돈 등 16명의 발기인들이 국채 보상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대구에서 개최한 국민대회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서울에서는 국채 보상 기성회가 조직되어 전 국민의 호응을

얻었고, 대한 매일 신보 등 여러 신문사들도 적극 후원하였다.

그러나 이 거족적인 경제적 구국 운동은 국채 보상 기성회의 간사인 양기탁에게 국채 보상금을 횡령하였다는 누명을 씌워 구속하는 등 통감부의 간교한 방해로 인하여 좌절되고 말았다.

2.1 식민지 수탈 경제

국권 피탈 후 일제는 우리 경제를 식민지 경제 체제로 개편하였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농업 부문에서 강행된 토지 조사 사업이었다.

토지 조사 사업에서는 우리 농민이 토지 소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간 안에 신고해야만 소유권을 인정받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토지 신고제가 농민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며, 신고 기간도 짧고 절차가 복잡하여 신고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많았다. 일제가 이와 같이 까다로운 신고 절차를 택한 것은 한국인의 토지를 빼앗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일제는 미신고 토지는 물론 공공 기관에 속해 있던 토지, 마을이나 문중 소유의 토지와 산림, 초원, 황무지 등도 모두 조선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탈취한 토지를 동양 척식 주식 회사를 비롯한 일본인의 토지 회사나 개인에 헐값으로 불하하였다.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으로 우리 농민은 많은 토지를 빼앗기고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토지 조사 사업이 끝난 1918년에는 겨우 3%의 지주가 경작지의 50% 이상을 소유하였으며, 소작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농가가 77%나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전의 소작권은 인정되지 않고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되어 지주제가 강화되었다. 따라서 소작농은 50~70%에 이르는 고율의 소작료를 내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농민들의 생활은 1920년대부터 실시된 산미 증식 계획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일제는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면서 수리 조합 사업, 토지 개량 사업 등의 비용을 농민에게 전가하고 쌀 생산을 강요하여 농사 중심의 농업 구조로 바꾸었다. 이 과정에서 농민은 소작료가 점차 올라가고, 조합비, 비료대 등을 부담하게 되어 그들의 생활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일제가 강제로 수탈해 간 미곡이 증산량보다 많아 식량 부족이 심화되었다.

또한 일제는 우리의 자원을 약탈하기 위하여 광업령, 야마 조사 사업, 어업령 등을 실시하여 민족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빼앗아 갔다. 이미 통감부 시기에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하여

민족 자본의 축적을 와해시킨 일제는 국권 강탈 이후에 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회사령을 공포하여 한국인의 회사 설립과 경영을 통제하였다. 이에 민족 자본의 성장은 억제되고 일본인이 한국 공업을 주도하게 되었다.

한편, 제1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성장한 일제 독점 자본은 1920년대부터 한국에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독점 자본들은 광업, 비료, 섬유 회사 등을 설립하고 우리나라의 공업 생산을 장악해 나갔다. 이와 같은 일본 대기업들의 경제 침략은 경제 공황으로 극심한 타격을 받은 1930년대에 한층 강화되었다. 또 이 시기에는 일제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함에 따라 전기, 철철, 중화학 공장 등 군수 공업 시설을 많이 설치하여 우리나라를 일본의 병참 기지로 삼았으며, 침략 전쟁이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에는 전시 통제 경제가 실시되고 식량 배급제도와 각종 물자의 공출 제도를 강행하였다.

2.2 경제적 민족 운동

토지 조사 사업과 산미 증식 계획으로 농민의 생활이 몹시 궁핍해진 상황에서 일제는 지주를 옹호하며 소작농을 억압하는 정책까지 폈다. 이에 3.1 운동 이후 정치적 사회적으로 각성된 소작농들은 1920년대부터 일본인 지주나 조선인 지주에 대항하여 소작료 인하, 소작권 박탈 반대 등을 요구하는 소작 쟁의를 벌였다. 이 운동은 생존권 투쟁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항일 민족 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공업 분야에서는 일제가 유통, 무역, 자본을 독점하는 상황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평양,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서 순수한 민족 자본에 의하여 직포 공장, 메리야스 공장, 고무신 공장 등 경공업 관련 공장들이 세워졌다. 공장의 규모 면에서도 1910년대까지는 소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이 1~2대에서 3~4대의 기계로 제품을 생산하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노동자의 수가 200명이 넘는 공장도 나타났다. 이 시기 대지주 출신의 기업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경성 방직 주식 회사가 있었고, 서민 출신의 기업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평양의 메리야스 공장이 유명하였다. 또 1920년대에는 점차 증가하고 있었던 민족 기업을 지원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물산 장려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영세한 자본을 가진 민족 기업은 일본의 독점 자본과의 경쟁에서 점차 밀려났고, 특히 전시 체제하에서는

총독부의 물자 통제로 큰 타격을 받았다. 총독부는 기업 정비령을 통하여 민족 기업을 억압하여 강제 청산하거나 일본 공장에 흡수 합병시켰다. 한편, 공장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노동자 조직도 결성되었다. 당시 노동자는 민족 차별적인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 등 노예적인 노동 조건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노동 조건 개선, 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는 노동 운동을 벌였다. 이들의 노동 운동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 성장하여 점차 항일 민족 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3.1 광복 직후의 경제 혼란

일제하의 우리 경제는 일본 경제에 예속되어 자본과 기술이 일본인들에게 독점됨으로써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폐해는 광복 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미군정하에서의 우리 경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원자재와 소비재 부족, 식량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더구나 지하 자원과 중공업 시설이 북한에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 국토가 분단되어 북으로부터 전기 공급마저 중단되자 농업과 경공업 중심의 남한 경제는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정부는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농업과 공업의 균형 발전, 소작제의 철폐, 기업 활동의 자유 보장, 사회 보장 제도의 실시, 인플레이션의 극복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정부는 농지 개혁법을 제정 시행하여 농촌 경제의 안정을 꾀하였고 귀속 재산을 불하하여 산업 자본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3.2 경제 발전

6.25 전쟁으로 남한 생산 시설의 42%가 파괴되고 전비 지출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 데다가 물자 폭동과 물자 부족으로 국민 생활의 어려움이 극심해졌다.

휴전 이후 경제 복구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정부와 국민의 노력 및 외국의 원조 등에 힘입어 전후 복구 사업은 급속히 진행되고 생산 활동도 활발하게 재개되어 갔다. 이에 1950년대 후반기부터 원조 물자에 토대를 둔 제분,제당 공업과 섬유 공업이 성장하였고, 시멘트와 비료 등의 생산도 늘어났다.

그러나 소비재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한 데 비하여 기계 공업 등의 생산재 산업은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 경제는 생산재에서 원료

에 이르기까지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취약성을 안게 되었다. 또한 농업 분야의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원조가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공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등 획기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다. 1,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기간 산업의 육성과 경공업의 발전에 주력하였다. 1970년대에 추진된 3,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중화학 공업의 육성에 주력하여 광공업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공업 구조도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바뀌었다.

한편, 경부 고속 국도를 비롯한 도로와 항만, 공항 등의 사회 간접 시설도 확충되어 전국이 일일 생활권에 들어갔다. 아울러 간척 사업이 진행되고 작물의 품종 개량이 이루어져 식량 생산도 증대되었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계속적인 추진과 성공으로 1962~1981년 사이에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대하는 등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져 외국 자본에 의존하던 자본 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자본 집중이 심화되어 소수의 재벌이 생산과 소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국내 산업의 수출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폐단도 나타났다.

1970년대 이후 노동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민주화 운동의 진전과 함께 사회 의식이 높아지면서 노동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임금 인상, 노동 조건의 개선, 기업가의 경영 합리화와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등을 주장하는 노동자의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정부는 저임금 문제 등 전반적인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 관계법을 개정하였으며, 기업가와 노동자의 인간적 관계와 직업 윤리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새로운 노사 문화가 정착되고 노동 환경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다.

무역 대상국도 미국과 일본 중심에서 벗어나 유럽, 동남아시아, 중국, 남미 등지로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경제의 한 축을 만

들어 가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적 주요 경제 국가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에도 적극 참여하여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이 지역의 경제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이어 개방된 시장 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선진국 중심의 경제·사회 정책 협의체인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여 우리의 경제 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다. 한편, 1990년대 후반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7-3근현대의사회변동

1.1 평등 의식의 확산

19세기에 들어와 평등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종래의 신분 제도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다. 여기에는 종교의 힘이 컸다. 처음에는 서학으로 전래되었던 천주교와 이어 등장한 동학, 그리고 개신교의 전파는 사회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조선 후기에 전래되기 시작한 천주교는 19세기 중엽에 교세가 확장되어 평등 의식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초기에 신도의 중심을 이루던 양반은 조상 제사 문제로 교회에서 멀어지고, 점차 중인과 평민의 일교가 증가하였다. 특히, 부녀자 신도가 많았다.

동학은 현세를 말세로 규정하고 천지개벽에 의한 미래의 이상 세계가 반드시 도래한다고 하는 사회 혁명적 예언으로 백성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동학의 인내천 사상은 적서 차별, 남존여비를 부정하는 인간 평등주의로서 평민층 이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개신교는 포교의 수단으로 각지에 학교를 설립하고 의료 사업을 전개하여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19세기 말에 전래된 개신교는 선교 과정에서 한글의 보급, 미신의 타파, 남녀 평등 사상의 보급, 근대 문명의 소개 등을 통하여 사회와 문화 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애국 계몽 운동에도 이바지하였다.

갑신정변의 개혁 요강도 신분 제도에 변화를 일으켰다. 양반 신분 제도와 문벌을 폐지하고 인재를 동용하여 인민 평등을 실현하려 한 개화파의 생각은 매우 진보적이었다. 이들은 문벌과 신분

제도가 사회적 불평등의 근원일 뿐 아니라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1.2 동학 농민군의 사회 개혁 운동

고부 봉기를 필두로 전개된 동학 농민 운동은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다. 동학 농민 군들은 각 지역에서 독립된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향촌에서 반상을 구별하는 모든 관행을 부정하고 천민층의 신분 해방 운동을 벌여 나가기도 하였다.

농민군들은 폐정 개혁안에서 탐관오리.횡포한 부호.양반 유생의 징벌, 노비 문서의 소각, 천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 과부의 재가 허용, 모든 무명 잡세의 폐지, 문벌과 지벌을 타파한 인재 등용 등을 주장하였다. 농민군들이 지주 전호제를 인정한 지조법 개혁을 넘어서 토지의 평균 분작을 요구한 것은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다.

이들은 전라도 각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자기들이 주장한 개혁 사업들을 벌여 나갔다. 농민군의 집강소에서는 폐정을 개혁하면서 한편으로는 노비 문서와 토지 문서를 소각하고 창고를 열어 식량과 금전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그동안 받아 왔던 불만을 폭발시켰다.

농민군들의 행동에 대하여 양반 계층은 지배층을 적대시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하여 일부의 양반들은 농민군을 진압하고자 민보군을 조직하여 농민군과 싸움을 벌였다. 이러한 신분 간의 갈등은 집강소에서 실시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다.

1.3 갑오개혁과 신분제의 폐지

동학 농민 운동에서 제시한 농민군의 요구는 갑오개혁에 일부 수용되었다. 갑오개혁의 내용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회 면의 개혁이었다. 개혁 추진의 중심 기구인 순국기무처는 전통적 신분 제도와 문벌 및 출신 지역을 가려 인재를 등용하는 폐습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 개혁은 반상과 귀천을 초월한 평등주의적 사회 질서의 수립, 노비 및 기타 천민층의 점진적 해방, 기술직 종인의 관직 등용 확대, 여성의 대우 향상과 혼인 중첩의 개선 등을 포함하였다.

갑오개혁으로 양반 중심의 신분 제도가 폐지되고, 능력 본위의 인재 등용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갑오개혁 내용 중에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

연좌제의 폐지 같은 조항이 있었다. 반면 대부분의 사회 제도 개혁안은 양반제, 노비제 등을 포함한 전통적 신분 제도를 철저히 타파하기보다는 점진적 개량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혁은 조선 사회를 근대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양반들의 권력 독점 체제를 해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4 민권 운동의 전개

갑신정변 후 미국으로 망명하였다가 돌아온 서재필은 문호 개방 이후 계속 성장한 국내 신지식층과 합세하여 독립 신문을 발행하고 독립 협회를 창설하였다. 독립 협회는 이전의 개화 운동과는 달리 새로운 형태의 자강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독립 협회는 주권 독립 운동, 민권 운동을 벌여 나갔다. 이 가운데 민권 운동은 인권 확대 운동과 참정권 실현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인권 확대 운동은 천부 인권 사상을 근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 운동이다. 이는 오랜 전제 군주제 및 양반 관료제의 횡포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참정권 실현 운동은 의회 설립 운동으로 나타났다. 독립 협회가 정부에 제출한 의회 설립안은 갑오개혁 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던 중추원을 개편하여 의회로 만들고, 의원의 반수는 독립 협회 회원에서 선발하여 구성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독립 협회가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고 고종에게 올리는 헌의 6조를 가결하여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는 의회 개설 운동과 입헌 군주제 실시 주장을 왕조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보부상을 앞세워 탄압함으로써 독립 협회의 운동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비록 독립 협회의 운동이 실패로 끝났지만 민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점이었다. 서울에서는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의 잘못을 공격하였으며, 독립 협회의 지도자들은 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펴 나갔다. 관민 공동회에서 천민이 연사로 나서고 만민 공동회에서 시전 상인이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은 민권 사상과 평등 사상이 확산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독립 협회의 기본 사상은 자주 국권 사상, 자유 민권 사상, 자강 개혁 사상이었다. 특히, 자유 민권 사상은 국민의 평등과 자유 및 국민 주권을

확립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 국권을 수호하며, 나아가 근대 의회 정치를 구현하여 근대 국민 국가를 수립하려는 민주주의 사상이었다. 이러한 독립 협회의 근대화 사상은 이후 대한 제국 말기의 애국 계몽 사상으로 이어졌다.

2.1 한인의 국외 이주와 독립 운동

19세기 중엽부터 조선인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간도와 연해주 등지로 본격적인 이주를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기아와 빈곤 등 열악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이었다. 지리적으로 이 지방들은 한반도와 연결해 있어서 이동하기가 쉬웠고, 풍토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이주하여 사는 데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그 이전에도 변경 지대의 조선인 중에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간도 땅에서 농사를 짓고 가을이면 타작한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계절 출가 이민이 있기는 하였지만 많은 수는 아니었다.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이에 반감을 품은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국외로 건너가 새로운 삶을 도모하였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1905) 일제의 국권 침탈과 경제적 수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권 회복을 도모하고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망명자들의 국외 이주가 급격히 늘어났다.

국내에서 활동하던 의병과 애국지사들은 중국, 연해주, 미국, 일본 등으로 망명하여 1910년대부터 본격적인 국외 독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주로 서, 북간도를 비롯한 남.북만주와 시베리아 연해주에서 민족 운동가들은 독립 전쟁을 위한 기지 건설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이 지역은 국내 진공이 유리한 국경 지역이라는 점 이외에도 수많은 한인들이 이주하여 폭넓은 한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독립 운동 단체들은 자유로운 활동을 위하여 국내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제의 눈을 피할 목적으로 경제 및 교육 단체를 표방하였다. 그들은 향후 독립 전쟁을 위하여 동포들의 생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대중적인 운동 방법으로 경제 활동을 강조하였다.

간도와 연해주에서 활동한 독립 운동가들은 간도를 독립 기지로 삼아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였다. 시베리아의 연해주 지방에서는 한민회가 설치되

었으며, 이상설은 대한 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여 무장 투쟁의 기반을 닦고 있었다.

미국에 본격적으로 정착한 한국 사람들은 하와이 사탕수수 밭 노동 희망자와 그 가족이었다. 이들은 일제에 의하여 하와이 이민이 금지된 1905년 말까지 7,000여 명이 하와이로 이주하여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

미국 본토로 이주한 한국인들은 대부분 유학생이나 관리 출신으로 하와이 이주 한인들과는 달랐다. 다만, 샌프란시스코에는 소수의 인삼 장수와 지식인들이 이주하였다.

교민 단체로는 하와이에 신민회와 한인협성회가 있었고, 미국 본토에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협회가 결성되었다가 뒤에 국민회로 재조직되었으며, 안창호도 흥사단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한국인들이 미국이나 하와이로 이주하게 된 것은 주로 고국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지만, 이들은 미국에 도착한 뒤 모국을 위한 활동을 열렬히 전개하였다.

일본에서는 최팔용이 중심이 되어 조선 청년 독립단을 구성하고 2.8 독립 선언을 발표하여 3.1 운동의 도화선을 제공하였다.

2.2 사회주의 운동의 대두와 신간회 운동

1920년대에 들어와 사회주의 사상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은 러시아와 중국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 운동가들이었다.

초기의 사회주의 운동은 소수의 지식인이나 청년, 학생이 중심이었고 노동자, 농민의 참여는 오히려 적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노동.농민.청년.학생.여성 운동과 형평 운동 등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은 민족 유일당, 민족 협동 전선이라는 표어 아래 이상재, 안재홍 등을 중심으로 신간회를 결성하였다.

신간회에는 민족 운동계의 다수 세력이 참가하였다. 창립 직후 신간회 본부는 일제의 탄압에 부딪혀 제대로 활동을 벌이지 못하였으나 각 지방에 조직된 지회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신간회는 전국에 약 140여 개소의 지회를 두고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을 지도하였다.

1929년에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보고를 위한 민중 대회를 계획한 일이 발각됨으로써 다수의 지도 인사가 검거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중앙 간부가 새로 구성되었으나 민족주의자와 사회

주의자들이 활동 노선 면에서 갈등을 일으켜 내분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일제의 교묘한 탄압,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은 사회주의계의 책동 등으로 신간회는 결국 4년여 만에 해체되고 말았다. 그러나 신간회 운동은 3.1 운동 이후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처음으로 민족 연합 전선을 구축하여 독립 운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2.3 농민 운동과 노동 운동

국권 피탈(1910) 직후부터 식민지 수탈에 저항하는 민중의 생존권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농민, 노동자들은 토지 조사 사업, 임야 조사 사업, 각종 잡세의 신실과 증세 등에 집단적으로 저항하였다. 이들의 투쟁은 가혹한 수탈에 항거하는 경제적 투쟁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정치적 요구를 내세운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1910년대 말엽에는 폭력 투쟁의 성격도 띠게 되어 주채소, 면사루소, 우편국 등 일제의 지배 기구에 대한 습격으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농민 운동은 주로 소작 쟁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1920년대 전반기에는 주로 소작인 조합이 중심이 된 소작 쟁의로 50% 이상이었던 고을의 소작료 인하와 소작권 이동 반대가 주목적이었다. 1920년대 후반기에는 자작농까지 포함하는 농민 조합이 소작 쟁의를 주도하였다.

일본인 대지주나 일본 지주 회사를 대상으로 한 소작 쟁의는 한 농장이나 회사에 속한 농민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 규모도 크고 격렬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운동의 형태도 지주를 상대로 한 소작 쟁의뿐 아니라 일제의 경제적 약탈 전반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나아갔다. 또한 규모가 확대되고 기간도 장기화되어 갔으며, 형태도 대중적 봉기 형태로 옮겨가고 있었다. 특히, 동양 척식 주식 회사 농장의 소작 쟁의는 항일 운동의 성격을 띠었다.

노동 운동은 자유 노동자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내걸고 파업 투쟁을 벌여 나갔다. 조선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은 낮고 노동 시간은 길었으며, 작업 환경도 극히 열악하였다. 일본의 독점 자본주의는 노동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선의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여 초과 이윤을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일본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의 인상 요구와 8시간 노동제의 시행을 중심으로 쟁의를 벌였다.

노동 쟁의의 쟁점은 점차 임금 인상 외에 단체 계약권의 확립, 8시간 노동제의 실시, 악질 일본인 감독의 추방, 노동 조건의 개선 등으로 확대되었다. 1920년대 후반기에는 서울, 인천, 목포 등의 대도시에 한정되던 노동 쟁의가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으며, 영흥 노동자 총파업,원산 노동자 총파업 등 지역 총파업이 진행되어 노동 운동이 대중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한 석유 회사의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을 계기로 3,000여 명이 참가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일제 강점기 노동 운동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다. 이 파업은 일제가 폭압적으로 탄압하는 상황에서 조선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조직적으로 파업을 진행시키면서 투쟁하였고, 항일 투쟁 정신을 고취시켰다. 이로 인하여 노동자 파업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랐다. 이 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노동 운동이 항일적 성격을 띤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2.4 여성 운동과 학생 운동

여성 운동도 1920년대 초반기에는 대체로 민족주의의 영향 아래 가부장제 혹은 전통적 인습 타파라는 주제로 계몽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중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여성 해방의 문제를 계급 해방, 민족 해방의 문제와 연결지면서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학생 운동은 대개 동맹 휴학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처음에는 시설 개선이나 일인 교원 배척 등의 요구가 많았다. 그러나 점차 식민지 노예 교육 철폐, 조선 역사의 교육, 교내 조선어 사용, 학생회 자치, 언론 집회의 자유 등의 요구가 대두되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일반 학생의 반일 감정을 토대로 일어난 민족 운동으로서 청년 운동의 절정을 이루었다.

3.1 복지 사회의 추구

광복 이후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는 절대 빈곤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의 발전 이면에는 농촌의 피폐와 도시 빈민층의 형성, 환경 오염, 근로 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국가 주도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노약자, 빈곤층, 실업자, 노숙자 등의 소외 계층이 생겨났다. 정부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1960년대 이후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은 재벌 기업을 육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노동자의 증가를 수반하였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대규모 이농 현상이 초래되어 서울, 울산 등 대도시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난이 심각해졌으며 대도시 주변에는 판잣집이 즐비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회 보장 제도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다. 오늘날에는 서민을 위한 생활 보조금 제공,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건설, 고용 보험 및 연금 제도 등을 시행하여 복지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2 산업화와 도시화

1960년대 이후 꾸준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로 산업화는 진전을 보게 되었고 1980년대 초반까지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경제 개발로 인하여 산업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바뀌었으며,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공업 구조가 바뀌어 갔다. 성장 우선주의 정책을 편 결과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이에 수반하여 1960년대 말부터는 환경 문제도 발생하였다. 공업 단지와 그 일대에서 공해는 심각한 양상을 보였으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대기 오염도 악화되었다. 정부에서는 환경부를 설치하는 등 환경 문제에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로 말미암아 농업은 희생 을 감수하였다. 산업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저임금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곡가 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농촌의 생활은 어려워졌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1970년대에 제창된 새마을 운동은 침체된 농촌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뒤에는 도시로 확대 되었다.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삼아 추진된 새마을 운동은 생활 태도의 혁신과 농어촌의 환경 개선,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반면 가족 제도의 붕괴, 노동자 문제, 실업자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경제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산업화와 함께 여성의 지위도 달라졌다. 여성의 취업 인구가 크게 늘어났고 농촌에서도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하였다. 산업 사회에서 여

성들은 저임금의 미숙련 노동자에서부터 전문직으로까지 직업 분야를 확대해 나갔으며, 사회적 위상도 높아졌다.

7-4근현대문화의흐름

1.1 근대 문명의 수용

19세기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서양의 근대 문명을 점진적으로 수용하였다. 당시의 개화파는 서양 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정신 문화는 지키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자는 동도 서기론을 제창하였다. 이에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과 함께 과학 기술을 비롯한 서양의 근대 문화가 도입되었다.

통신 시설로는 전신과 전화가 가설되었고, 근대적 우편 제도도 실시되어 여러 나라와 우편물을 교환하게 되었다. 서울 시내에 전등이 가설되고 전차가 운행되었으며, 경인선과 경부선 등의 철도가 부설되었다. 이러한 근대적 시설은 외세의 이권 침탈이나 침략 목적에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국민 생활의 편리와 생활 개선에 이바지 하였다.

전통적인 한의학과 함께 서양 의학도 보급되었다. 근대 의료 시설로 광혜원을 비롯한 여러 병원들이 설립되어 질병 퇴치와 국민 보건의 향상에 공헌하였으며, 경성 의학교와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는 의료 요원을 양성하였다.

근대 문물의 수용과 함께 서양식 건물도 세워졌다. 중세 고딕식 건축인 명동 성당과 르네상스식 건축인 덕수궁 석조전 등이 건립되었고, 교회와 학교 건축을 중심으로 서양식 건축의 보급이 확산되었다.

이와 같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의 과학 기술을 비롯한 근대 문물이 수용되고 근대 시설도 점차 보급되어 갔다.

1.2 근대 교육과 학문의 보급

1880년대부터 근대 교육이 보급되었다. 최초의 근대적 사립 학교인 원산 학사는 외국어, 자연과학 등 근대 학문과 무술을 가르쳤다. 정부는 관립 학교인 육영 공원을 세우고 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상류층 자제들에게 영어, 수학, 지리학, 정치학 등의 근대 학문을 교육하였다.

개신교 선교사들도 배재 학당, 이화 학당 등의 사립 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근대 학문을 가

르치고 민족 의식 고취와 민주주의 사상의 보급에 이바지하였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근대적 교육 제도가 마련되어 소학교, 중학교 등의 각종 관립 학교가 설립되어 근대 교육의 보급이 확산되었다. 20세기 초에 애국 계몽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수많은 사립 학교들이 전국 각지에 설립되었다. 이에 사립 학교를 중심으로 구국 교육 운동이 벌어졌고, 민족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활동이 성행하고 근대 학문과 사상이 보급되어 갔다.

한편, 애국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국사와 국어를 연구하여 민족 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국학 운동이 전개되었다. 신채호, 박은식 등은 구국 위인들의 전기를 써서 보급시켰고, 지식영과 주시경은 국어 연구에 공헌하였다.

1.3 문예와 종교의 새 경향

근대 문화의 수용과 더불어 문학에서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이인직의 혈의 누, 이혜조의 자유종 등의 신소설이 등장하여 계몽 문학의 구실을 하였다. 최남선은 신채시인 해에게서 소년에게 써서 근대시의 형식을 개척하였다.

외국 문학의 번역도 이루어져 천로 역정, 이십 이야기, 로빈슨 표류기 등의 작품이 널리 읽혀졌다. 이러한 외국 문학의 소개는 신문학의 발달에 이바지하였고 근대 의식의 보급에도 기여하였다. 한편, 서양 근대 문화의 도입으로 예술 분야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음악에서는 서양식 악곡에 맞추어 부르는 창가라는 신식 노래가 유행하였다. 애국가, 권학가, 독립가 등의 창가가 이 시기에 널리 애창되었다.

연극에서는 서양식 극장인 원자사가 세워지고 은세계, 치악산 등의 작품이 공연되었다. 그러나 민중 사이에는 전통적인 민속 가면극이 여전히 성행하였다. 미술에서는 서양식 유희가 그려지기 시작하고, 김철우 계몽의 문인 화가들이 한국 전통 회화를 발전시켰다.

종교계에서는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 왔던 천주교가 1880년대부터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벌여 교육, 언론, 사회 사업 등에 공헌하였고, 개신교가 수용되어 교육과 의료 사업 등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민족 종교인 동학은 제 3`대 교주인 손병희 때 천도교로 개칭하여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불교에서도 한용운이 중심이 되어 불교의 혁신과 자주성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또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대종교가 창시되어 민

족적 입장을 강조하고 항일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2.1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과 한국사 왜곡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후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난을 겪었으며, 민족의 생존까지도 위협당하였다. 일제는 우민화 교육과 동화 정책을 통하여 이른바 한국인의 황국 신민화를 꾀하였고, 1930년대 후반 이후에는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말살시키려는 민족 말살 정책을 강행하면서 우리말과 우리 역사 교육을 일체 금지하였다. 이에 일부의 지도층 인사들은 민족적 양심을 지버리고 일제의 강요에 굴복하여 친일 행각을 벌이기도 하였다.

또한 일제는 우리 민족의 긍지와 정체성을 심어주는 한국사를 왜곡하여 한국인의 민족 의식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이를 말살하려고까지 하였다. 이에 한국사의 타율성,정체성,당파성 등이 강조되었고, 한국사의 자율성과 독창성 등은 무시되었다. 이러한 식민 사관을 토대로 일제가 설치한 조선사 편수회는 조선사를 편찬하여 한국사 왜곡에 앞장섰다.

2.2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의 전개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항하여 애국지사들은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이 운동의 핵심은 국어와 국사를 연구하여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민족 의식을 배양하려는 국학 운동이었다.

3.1 운동 이후에 이윤재, 최현배 등의 국어 학자들은 조선어 연구회를 조직하여 국어 연구와 한글의 보급에 힘썼다. 그들은 한글이라는 잡지를 간행하고 가가날을 정하여 한글의 보급과 대중화에 공헌하였다. 1930년대에 조선어 연구회가 개편되어 성립된 조선어 학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고 한글의 연구와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어서 우리말 근사건의 편찬에 착수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1940년대 초에 일제는 조선어 학회 사건을 일으켜 수많은 회원들을 투옥하였다.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은 한국사 연구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일제의 한국사 왜곡에 맞서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우리 민족 문화의 우수성, 한국사의 자체적 발전 등을 강조하였다.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등이었다.

박은식은 19세기 이후 민족의 수난을 밝힌 한국 통사와 우리의 항일 투쟁을 다룬 한국 독립 운동 지혈사를 저술하였다. 신채호는 일제의 왜곡이 심하였던 고대사 연구에 치중하여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등을 저술하여 민족주의 역사학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정인보는 신채호를 계승하여 고대사 연구에 치중하였고 오천 년간 조선의 얼을 신문에 연재하였다.

이들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민족 정신을 고취하여 독립심을 배양할 목적으로 박은식은 혼을, 신채호는 낭가 사상을, 정인보는 얼을 민족 정신으로 강조하였다.

2.3 민족 교육 진흥 운동

일제 강점기에 정규 공립 학교에서는 우리 민족을 위한 민족 교육이 어려웠으나, 사립 학교나 개량 서당 및 야학에서는 민족 의식의 배양을 위한 민족 교육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1920년대에는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으로 민족 교육 진흥 운동이 일어났다. 한규설과 이상재 등은 조선 교육회를 조직하고 한민족 본위의 민족 교육의 진흥에 노력하였다. 이들은 고등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하여 총독부에 대학 설립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총독부가 이를 묵살하자 조선 교육회는 우리 손으로 대학을 설립하려는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각 지역의 유진들과 사회 단체의 후원으로 한때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일제의 방해와 자연 재해로 모금이 어려워져 결국 좌절되었다.

이후로도 연희 전문 학교, 보성 전문 학교, 이화학당 등을 대학으로 승격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일제의 방해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 대신 일제는 경성 계국 대학을 설립하여(1924), 조선인의 불만을 무마하려고 하였다. 한편, 우리 민족은 한글 보급을 통한 문맹 퇴치 운동과 언론사를 중심으로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대 초부터 학생, 지식 청년, 문화 단체 등이 계몽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193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언론계와 청년 학생이 힘을 합쳐 문맹 퇴치와 농촌 계몽을 통하여 민족의 자강을 이룩하고자 노력하였다.

2.4 일제 강점기의 종교 활동

일제 강점기에 종교계도 민중 계몽, 문화 사업, 민족 교육, 항일 운동 등의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천도교에서는 제 2`의 3.1 운동을 계획하여 자주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개벽,어린이,학생 등의 잡지를 간행하여 민중의 자각과 근대 문물의 보급에 기여하였다. 천도교와 함께 3.1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던 개신교는 민중 계몽과 각종 문화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1930년대 후반에는 일제가 강요하는 신사 참배를 거부하여 탄압을 받기도 하였다. 천주교는 사회 사업과 민중 계몽에 이바지하였고, 만주에서는 일부 천주교도들이 항일 운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천도교와 더불어 민족 종교의 양대 세력을 형성한 대종교는 교단 본부를 만주로 이동하고, 민족 의식 고취와 항일 무장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종교 지도자들은 항일 무장 단체인 중광단을 조직하였고, 3.1 운동 직후에는 북로 군정서로 개편하여 청산리 대첩에 참여하였다.

불교에서는 한용운을 비롯한 승려들이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에 예속시키려는 총독부 정책에 맞서 민족 종교의 전통을 지키려 노력하였고,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민족 교육 운동에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박종빈이 창시한 원불교는 불교의 현대화와 생활화를 주창하며 개간 사업과 저축 운동을 통하여 민족의 역량을 배양하였고, 생활 개선 및 새 생활 운동에도 앞장섰다.

그러나 일부 종교계 인사들은 일제의 강압에 굴복하여 친일적 성향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2.5 일제 강점기의 문예 활동

3.1 운동 이후 일제가 우리 민족을 회유 동화하는 기만 술책으로 이른바 문화 통치를 내세우자 문예 활동을 하던 지식인들은 일제에 타협하거나 항일 운동에 적극 나서기도 하였다.

이 때는 근대 문화 예술의 태동기로 이광수, 최남선 등은 근대 문학의 개척에 공헌하였다. 이어서 한용운, 김소월, 염상섭 등은 민족 정서와 민족 의식을 담은 작품을 통하여 근대 문학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김소월의 아름다운 서정시는 많은 사람들이 널리 애송하였다.

1920년대 중반에는 신경향파 문학이 대두하여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었고, 1930년대에는 순수 문학의 경향이 뚜렷하게 부각되어 순수 문학 잡지가 간행되었다. 이 무렵 정지용과 김영랑은 시문학 동인으로 활약하면서 순수 문학과 서정시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일제 말기에는 침략 전쟁의 확대와 함께 일제의 탄압이 극심해져 한국 문학이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그 속에서도 이육사, 윤동주 등은 항일 의식과 민족 정서를 담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러나 이광수, 최남선 등의 일부 문인들은 일제의 침략 전쟁을 찬양하는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음악에서는 안익태, 윤극영 등이 많은 활동을 하였다. 안익태는 애국가와 이를 주제로 한국 환상곡을 작곡하여 유명하였다. 미술에서는 안중식이 한국 전통 회화를 발전시켰으며, 고희동과 이중섭은 서양화를 대표하였다. 연극에서도 토월회, 극예술 연구회 등의 활동으로 근대 연극이 발전하였으며, 영화에서는 나운규가 한국적 정서가 담겨 있는 아리랑을 발표하여 한국 영화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3.1 현대의 교육

광복 이후 미군정의 실시와 함께 식민지 교육 체제가 무너지고 미국식 교육이 도입되었다. 이 때 6.3.3.4제의 학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 제도가 마련되었고,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이 채택되었다. 이승만 정부 때에는 초·중등 학교와 대학의 증설로 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6.25 전쟁으로 인하여 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해졌다. 전쟁 기간 동안 교육은 멸공 통일의 신념을 길러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19 혁명 이후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학원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이런 운동은 5.16 군사 정변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박정희 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경제 개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던 만큼 반공 교육을 강화하고 능력과 실질을 중시하는 기능 양성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자체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교육의 중앙 집권화와 관료적 통제는 계속되었다. 1968년에 발표한 국민 교육 현장은 이 시기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1980년대에 정부는 국민 정신 교육을 강조하고 통일 안보 교육, 경제 교육, 새마을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입시 과외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급속한 정보화와 기술의 향상에 따라 변화 발전하는 경제와 사회 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창의력 신장과 시민 의식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3.2 현대의 사상과 종교

일제 치하에서 질식 상태에 있던 우리 민족의 문화 활동은 광복과 함께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 분단과 뒤이은 6.25 전쟁을 겪은 이후 우리 문화계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었다. 광복 후 우리 사회에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반공 등 여러 이념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한때 정치 사회적으로 남용되기도 하였으며, 민주주의는 일부 정권의 독재 정치로 인하여 큰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또 남북 분단 상황에서 반공 이념이 강조되었다.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중요한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의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 항쟁 등을 거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이들 이념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1980년대 말부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냉전 체제가 해체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세계사의 조류로 말미암아 남북 간 화해의 기운이 높아져 갔다.

광복 이후 종교계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서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개신교와 천주교는 우리 사회에 나타난 서양화 경향과 함께 교세를 크게 확장하였다. 불교는 일대 혁신 운동을 통하여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등 민족 종교도 그 나름의 기반 확립과 교세 확장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1970년대 이후 우리 종교계는 민주화 운동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3.3 현대의 문화 활동과 과학 기술의 발전

광복 직후에 문화 예술 단체들은 좌우익에 따라 성격이 나뉘어 분열하였다. 6.25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의 문학계는 민족주의적 자유주의 문인 중심의 순수 문학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1960년대부터는 중등 교육이 확대되고 경제 여건이 향상됨에 따라 문화의 대중화 현상이 나타났다. 문화의 대중화는 텔레비전 등 대중 전파 매체가 널리 보급되면서 가속화되었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더욱 확산되었다.

한편, 1960년대부터 사회 문제를 다루는 참여 문학론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1970년대 문학에서는 민족 문학론이 대두되어 현실의 비판과 민주화 운동의

실천, 그리고 민족 통일 문제를 다루는 데까지 나아갔다. 일부에서는 민족의 삶을 주제로 삼는 민족 문학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1960년대에 들어서는 과학 기술이 활발하게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6.25 전쟁을 전후하여 미국 등 과학 선진국에 유학을 갔던 많은 인재들이 1966년에 설립된 한국 과학 기술 연구소(KIST)로 돌아오면서 현대 과학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들은 정부 출연 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면서 현재 한국 과학 기술 발달에 큰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경제 발전에 힘입어 문화 향유층이 급격하게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가진 문화가 나타났다. 최근에는 이전 문화의 틀에서 벗어나 더 분방한 경향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전통 문화는 점점 대중화와 서양화에 밀려 제자리를 잃어 가고 있으며, 감각적이고 상업적인 대중 문화가 성행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과 세계적인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